

1984년 5월 19일, 메주고리예에서 슬라브코 바르바릭 신부가 율리야나 에베르트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J) 블랙포레스트에 있는 자택 앞에서 찍은 율리야나 – 2014년.



율리야나 에베르트

의 일기



Heiliges Kreuz und das Blutzeichen
von Rodalben; Ein Geschenk von
Pater Gebhard Maria Heyder OCD
- Regensburg

설명

교황 바오로 6세가 1966년 10월 14일에 승인한 교리성성 칙령에 따라, 교회법 제1399조 및 제2318조가 폐지되었다.

신자들은 일반적인 기독교 윤리를 준수하는 한, 교회의 명시적인 인쇄 허가 없이도 종교 서적을 읽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해설:

거룩하신 주님이자 하느님께서 성체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조각 속에도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현존하십니다(로달벤의 성스러운 표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의 표징 왼쪽 아래에 보이는 작은 빨간 점).

따라서 성체 분배 시에는 성체 접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성 삼위일체 하느님,
† 성부, 성자, 성령의 뜻에 따라, 저는 율리야나 에베르트가
의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무료)

여기에서 일기, 모든 기도문, 기적 이야기 및 CD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www.gnadenvolle-gebete.de
www.vater-unser.net
www.wertvolle-gebete-und-erlebte-wunder.de

독일 포르바흐, 에르베르스브론 - 데이드스하임 - 니더키르헨 - 미국

인쇄 완료: 2026년 3월 **저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 율리야나 에베르트 원본 일기에서 옮김: 베른하르트 코펜하겐 오타 교정: 그리스도 안의 형제 사무엘



Deinen Tod, o Herr, verkünden wir
und deine Auferstehung preisen wir
bis du kommst in Herrlichkeit.

Aus unserer Pfarrgemeinde verstarb

Julijana Ebert

*Trauerfeier mit Beerdigung
Donnerstag 18.12.2025
Friedhof Forbach*

Der Herr schenke der Verstorbenen ewigen Frieden.

Unsere Anteilnahme gilt den Angehörigen.

1991년 4월 :

약 7년 동안 나는 세례를 받은 날부터 겪어온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망설여 왔다.

세례받은 날인 1984년 5월 19일 이후로 겪어온 일들을 글로 남기는 것을 주저해 왔습니다. 저는 환상을 경험했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나 천사들의 음성, 혹은 불결한 영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마귀의 공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익한 일인지 몰라 계속 망설였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카세트나 책 등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모든 가톨릭 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체 성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 속에서 그 깊은 평화를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카리스마이자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망설였던 또 다른 이유는 제 독일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으며, 참회도 하지 않고,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믿음의 은총을 내려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제가 섰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원하시는 분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만큼 은총을 주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추기경, 주교, 사제들보다 제 영혼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저의 가장 훌륭한 아버지이시고, 성모 마리아님께서

제 최고의 어머니이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외에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의를 미덕의 외관으로 가리는 가짜(위선적인) 사랑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랜 탐색 끝에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루에 한 번 성체 성사를 통해 모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특히 저는 성체 성사를 모실 때, 참된 하느님이시며 살과 피를 지닌 참된 인간으로서 현존하시는 그분과 가장 거룩한 성사 안에서 하나 됩니다.

메주고리예에서 평화의 여왕이라 자칭하시는 천상의 어머니 마리아 덕분에, 저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저는 눈도 귀도 멀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내면의 불안이 저를 사로잡았고,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삼위일체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고,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체 성사를 통해 그분과 하나가 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께 평화를 청하고, 그 평화를 하느님의 선물이자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991년 4월 24일

저는 12시 05분부터 12시 40분까지 성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성당의 겉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당 앞에는 보기 흉한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고, 성당 안의 성체함은 마치 오븐처럼 생겼습니다. 즉, 매우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당에 들어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울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하느님께 대한 모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곳으로 기도하러 끌려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이 성당 안에도 현존하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 의사, 간호사, 환자들까지 이 성당을 지나치면서도 우리 주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처럼, 저는 구세주와 함께 기도해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네 영적 지도자다”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놀랐다는 것보다 더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후 저는 구세주님께, 그분이 제 영적 지도자이시라면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너 자신을 봉헌해야 한다.”

제 첫 생각은, 또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미 제 마음과 삶, 영혼, 육신을 모두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제게 “나는 네 미래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그것도 다 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나는 예수님께 이 말을 사제들에게 전해야 할지 여쭙어 보았는데, 그때 내 영적 지도자이신 도하트 신부님, 요한 신부님, 포그트 신부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을 떠올렸다. 구세주께서는 “그래.”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다. 구세주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 너무나 많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 은총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그 내면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저녁에는 밉골스하임에 있는 로쿠스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싶었습니다. 성체를 영한 후 저는 더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거의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성당을 나설 때, 제가 받은 넘치는 은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기도 모임 친구인 힐데와 헤드비그를 만났고, 그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여성이 안내해 주는 맹인 흑인 남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맹인 남성에게 목주를, 그 여성에게는 축성된 성모 마리아 상을 선물하며, 구세주께서 제가 받은 은총을 이 사람들에게도 내려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은 무척 기뻐하셨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손님이 와 있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목주 한 단을 바쳤고, 그 목주를 성모님께 바쳤습니다.

밤 11시 30분경, 곧바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위로 뛰어올라 저를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1991년 4월 25일 - 목요일

저녁, 로트에서 미사 전에 교회에서 고통의 목주를 바쳤습니다. 성체 성사를 받은 후,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후, 저는 구세주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이미 제 뜻을 그분께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너는 항상 나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침묵이 흘렀고, 곧 “나 없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떠나기 전에 구세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해 신부님께 여쭙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사를 마친 후 요하네스 오르딘스키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전화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몇 분 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레겐스부르크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제가 신부님을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분도 전화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요한 신부님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의 축복을 받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사랑과 힘을 느꼈기에, 통화가 끝난 직후 그분을 위해 주님의 기도를 세 번 바쳤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로 저는 환자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게 맡겨진 환자들에게만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환자분이 3일 전부터 뺨에 통증이 있는데 가라앉지 않는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 오래 고통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1991년 4월 26일 - 금요일

직장에서 한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받으며 저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14일 전에 수술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제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덜 하시나요?” 그는 자랑스러운 듯이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며, 신을 믿지 않고 신 따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에게 뇌가 있다고 믿는다면, 신이 존재한다고도 믿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네요, 그런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녁, 로트의 교회에서 성체 성사를 받기 전, 저는 수녀님을 보았습니다. 수녀님께 성체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마음속으로 무척 힘들었고, 나는 물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를 당신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제에게 가라.” 그리고 수녀는 제게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가라고 권하지 않은 채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제님으로부터 성체를 영했습니다.

1991년 4월 27일 - 토요일

그날 아침,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사에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그하우젤의 성지 교회에서는 미사가 오전 7시 1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바그하우젤로 가는 길과 교회에서 미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이 미사를 집전하실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연로한 신부님, 알라누스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는데, 저는 알라누스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느끼고 보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의 기도에 방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성체 변모 전,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알라누스 신부님께서 제단 앞에 서서 미사를 집전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매우 놀랐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성체를 나누어 주실 때, 신부님께서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성체를 건네주기를 꺼려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 성체대(성체 분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만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은 망설이지더니 성체를 제 입에서 약 1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입을 벌리자, 그 거리에서 성체가 저절로 제 입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여기서 처음 겪은 것이 아니며, 다른 신부님들께서도 그리스도의 성체를 저절로 제게 건네주신 적이 있습니다. 10시 30분경, 저는 슈퍼마켓의 카르멜회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달벤의 ‘보배로운 피’ 표식이 새겨진 양초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후 슈퍼마켓의 노인 요양원인 앵겔가세 4번지에 계신 브루노 티베스 주교님을 방문했습니다. 정오 무렵이었는데, 그를 기다려야 했기에 성당에서 그를 위해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약 1년 전, 저는 밁골스하임의 로쿠스 성당에서 티베스 대주교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노회 소속 자이틀러 신부님과 함께 우리는 당시 로달벤에 대해, 그리고 로달벤의 피의 기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티베스 대주교님은 당시 그 기적을 믿지 않으셨고,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해 동안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께 그가 로달벤의 사건들에 대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죽게 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브루노 티베스 주교님은 제가 방문했을 때 바로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붉은 장미 한 다발과 로달벤의 로달벤의 보혈 상징이 새겨진 양초 한 개, 그리고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가 쓴 로달벤 사건에 관한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이를 매우 기뻐하며,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에게 안부를 전하고, 로달벤 사건에 대해 충분히 파악했다고 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그는 1년 전만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방문 전, 저는 슈퍼마켓 시장에 갔었는데, 주교님을 위해 어떤 꽃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여쭙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사제에게 준 것은 곧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붉은 장미 한 다발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제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1991년 4월 28일 — 일요일

오늘 저는 레겐스부르크의 카르멜회 수도원에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게브하르트 하이터 신부님과 약 4시간 반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부님들이 계심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화 도중 저는 그분께 20개가 넘는 질문을 드렸고, 신부님께서는 평화와 평온, 그리고 사랑으로 제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은 86세이시지만, 그 나이에 비해 청력이 매우 좋으시고, 답변도 매우 정확하셨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이 지니신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충실함은 많은 사제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끝난 후, 신부님께서 제게 촛불과 성화, 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많은 은총을 받았고, 그분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로달벤에 관한 새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모임에서 그분을 위해 모은 돈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게브하르트 헤이터 신부님은 1952년 로달벤에서 일어난 피의 기적을 목격하신 분입니다. 큰 은총을 받을 때마다, 그 후로 악마의 공격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레겐스부르크에서 성 레온-로트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남편이 차를 운전하는 동안, 저는 남편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고, 그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 속에서는 불결한 영의 근접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불결한 영의 핑계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즉시 남편에게 성수를 뿌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한다. 당장 갓길로 차를 몰고 멈춰라.” 그러자 그는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바꿨고, 나는 한 손에는 묵주를, 다른 한 손에는 핸들을 잡고 침착하게 집으로 운전해 갔다. 남편은 곧바로 잠들었고, 약 100킬로미터를 달린 뒤 깨어났을 때 모든 일은 이미 끝난 후였다. 남편이 잠든 동안 나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악마의 이런 공격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91년 4월 29일 - 월요일

우리 신부님께서 두 명의 새로운 성체 분배자를 찾으셨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성체 성사 후, 저는 예수님께 가까운 시일 내에 정말로 두 명의 여성이 붉은 옷을 입고 성체를 분배하게 될지 여쭙었습니다.

성체를 분배하게 될지 예수님께 여쭙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더 끔찍한 일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20시경, 우리 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도하트 신부님도 오셨는데, 성체 송배 후 신자들에게 나눠 주실 성체를 가지고 오셨다. 우리는 구세주를 경배했고, 저는 그분으로부터 약 1미터 떨어진 곳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묵주 기도를 드리는 동안 구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미사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만이 성체를 영할 수 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도하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제 영적 지도자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도하트 신부님의 존재로 인해 내면이 공격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신부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남편은 다시 불결한 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한 마르가도 이를 눈치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동안 그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성체를 분배한 후, 도하트 신부님은 운반 중에 구세주를 모셨던 작은 그릇을 집어 들고, 성체에서 남은 작은 조각이나 부스러기들을 성수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91년 4월 30일 — 화요일

이른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도하트 신부님이 성체 성사의 부스러기를 넣었던 성수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나는 성수 그릇을 손에 들고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현존하고 계신다고 믿었기에, 그 성수 그릇을 끝까지 다 마셨다.

저녁에 성체를 영한 후, 나는 예수님께 도하트 신부님이 하신 일이 옳은지 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옳지 않다.” 나는 구세주께 이 말을 도하트 신부님께 전해야 할지 여쭙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나는 신부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혹시 나를 꾸짖으실지 궁금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 시간 동안 교회에서는 “참된 몸, 오, 찬미받으소서”라는 찬송가가 불려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구세주께서 성체의 가장 작은 조각 속에도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사제들을 위해 구세주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1991년 4월 29일 월요일에 대해 다시 언급해야겠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의 성당에서 ‘주님의 천사’ 기도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와 일치를 이루며 지난 토요일 어둠 속에서 보았던 알라누스 신부님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을 잃은 사제의 모습이다.” 구세주께서는 제가 바그하우젤에 계신 에밀리안 신부님께 가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1년 4월 30일 화요일에

91년 4월 30일 에밀리안 신부님을 찾아가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우리 동네 본당 신부님인 보그트 신부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그하우젤의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알로이스 형제가 에밀리안 신부님께 제 방문을 알렸습니다. 신부님을 기다리는 동안 블라시우스 형제가 와서, 에밀리안 신부님이 오실 때까지 그와 함께 묵주기도 두 단을 바쳤습니다. 에밀리안 신부님과 대화 중에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저는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저와 함께해 달라고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당하고 차분하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고, 심지어 입과 무릎 성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며, 알라누스 신부님과 토요일 아침에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그에게 알라누스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저 또한 알라누스 신부님과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밀리안 신부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1991년 5월 4일 - 토요일

나는 다시 와그하우젤로 가서 오전 7시 15분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또다시 알라누스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신부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1991년 5월 6일 — 월요일

저녁에 로트(Rot)의 교회에 갔습니다. 그 후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후 도하트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성체의 남은 조각과 부스러기를 더 이상 성수에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주에 성수를 전부 마셔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작은 조각 속에도 현존하시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앞으로 성체의 부스러기들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991년 5월 7일 — 화요일

직장 내 예배당에서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구세주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구세주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제 의지마저도 이미 당신께 있습니다. 제가 또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구세주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 움직임을 원한다.”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던 중, 한 개인 환자분이 엑스레이 선을 차단하기 위한 납 앞치마를 왜 입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 앞치마는 그녀가 앉아 있던 의자에 이미 걸려 있었고,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저는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 말이 좋다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1991년 5월 8일 — 수요일

수요일, 나는 그리스도의 승천 전야 미사를 드리러 밋골스하임에 갔고,

1991년 5월 9일 — 목요일 — 주님의 승천일

공휴일에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했고, 그 후 마을에서 열린 행렬에도 참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991년 5월 10일 — 금요일

저녁에 로트의 교회에서 성체 성사를 통해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한 신부님께 그분의 책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해도 좋다고 하셨고, 토요일에 그분을 찾아가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991년 5월 11일 — 토요일

아침 미사를 놓치고 말았지만, 즉시 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11시경, 제우테른에서 온 데리스 씨가 저를 찾아와 롤란드가 요한 신부님의 책들을 가지고 러시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책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는 저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나는 로트(Rot)에 계신 우리 본당 신부님인 포르트 신부님을 찾아가 이제 요한 신부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구세주께서 요한 신부님에 대해 내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드렸다.

마지막으로 보르트 신부님께 축복을 청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요한 신부님을 위해 묵주 기도를 드린 뒤, 그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면의 깊은 기도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 나와 함께 요한 신부님께 가 주시기를 간구했다. 요한 신부님께 도착했을 때, 신부님은 입맞춤으로 나를 맞이했다. 순간 유다의 입맞춤이 떠올라 그 입맞춤을 받아줄 수 없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신부님은 오늘 내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신부님은 “평소 같지 않으시네요.”라고 말씀하셨다. 신부님은 매우 불안해 보였다. 나는 “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신부님은 놀라며 “아, 그렇군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특별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힘도 넘쳤으며, 요한 신부님께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예수님께서 신부님의 책들에 대해 내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드렸다.

그는 즉시 괴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저는 그가 여러 불결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영들은 저나 제 동반자(예수님)를 경외했기 때문에 저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평온을 발산하며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러 권의 책을 보여주며 자신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병들었고 죽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충동적인 성격을 지녔다. 나는 그에게 “그건 영원에 비하면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를 격려하며, 그를 돕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자, 나는 그 책들의 출판을 중단하고 더 이상 배포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요한 신부님은

1991년 5월 7일에 그의 주교인 고르닐리야크 플라톤 주교가 전화를 걸어왔고, 그 주교가 신부님의 책들이 이단 교리라고 통보했다고 저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요한 신부님은 그 주교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며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님은 그 주교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선물로 저는 요한 신부님께 붉은 장미와 프리지아로 만든 꽃다발을 가져갔는데, 이는 제가 그를 좋아하고 돕고 싶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요한 신부님은 저에게 고르닐리야크 플라톤 주교와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기회가 되면 다른 주교들과 함께 그의 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를 초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그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다며, 내 말을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를 신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랬다. “그렇게 산만한 마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 신부님과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쁩습니다. 처음에 저는 예수님께, 그가 병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과연 이 말을 드려도 될지 여쭙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진리는 병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 5월 12일 - 일요일

오늘은 남편의 5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트에서 열린 미사: 이번 주일 설교는 베네부쉬 양이 맡았습니다. 보르트 신부님도 참석해 계셨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는 이 사안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저녁에 저는 구세주께 댜헐에 있는 고르닐리아크 주교님을 찾아가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녁에 있었던 성모 경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이 경배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1991년 5월 13일 - 월요일

오전 10시경 병원: 나는 구세주께, 내가 그릇된 교리에 맞서 싸운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표정으로 무엇을 주실지 물었다.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나의 지성을 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 그건 정말 큰 선물이네요.” 정오, 병원 내 성당에서: 댜헐의 주교님을 방문하는 일이 시급하고,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세주님께 주교님을 언제 찾아가야 하나고 물었더니, 그분은 “금요일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왜 고르닐리아크 주교님을 찾아가야 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다.” 주교님께서 과연 저와 이야기를 나눠 주실지 묻자, 구세주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걱정했던 것은 “예수님, 금요일은 성령강림절이라 교통 체증이 심할 텐데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기쁨과 평화를 안고 성당을 떠났습니다.

16시 30분에서 17시 사이에 댜헐에 계신 고르닐리아크 플라톤 주교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주교님과 통화하기 전에, 주교님을 위해 묵주기도를 여러 번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교님께 제가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교님께서 금요일 15시라는 약속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약속을 수락했다.

그 대화 중에 저는 요한 신부님이 묘사했던 것처럼 플라톤 고르닐리아크 주교님이 사이코패스라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성적이고, 예의 바르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금요일에 그분을 더 잘 알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19시에는 로트에서 열린 성모 경배에 참석했고, 20시에는 우리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다. 만하임 출신의 누치아라는 여인의 말에 따르면, 이날 나는 성모 마리아의 현시를 경험하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이미 나에게 그 여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 기도 도중 악마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 저는 밀치고 부딪히며 기도에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성수를 뿌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지금 당장 그 악마에게 뺨을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이 뺨을 맞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나는 너무나 많은 은총을 받았기에 그런 방해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1991년 5월 14일 - 화요일

남편은 밤에 불결한 영의 방해를 받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거나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그날 아침에는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흥미로웠고, 여기에 적어두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셀 수 없이 많은 새들을 보았습니다. 그 새들은 참새처럼 보였지만, 마치 부풀어 오른 듯 비둘기만큼이나 컸습니다. 갑자기 그 새들은 더럽고 지저분하며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간청했고, 보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렸고,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한테서 떨어져, 저 사람들은 에이즈와 나병에 걸렸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릎 꿇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더러운 모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제 오른손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불타는 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악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잠에서 깬고, 몇 분 동안 손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늦잠을 자서 저는 직장에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1984년 세례를 받은 날 이후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제 악마는 성모 마리아로 위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신실함,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 덕분에 그는 그럴 권한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을 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병원 휴게실에서:

저는 예수님께 어제 있었던 악마들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례’란 악마들의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사랑하는 하느님,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이 공격을 받게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들에게서 많은 영혼을 빼앗고 있으니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한 신부님은 그 책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러자 저는 왜 그 책들이 중단되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그 책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오후 2시 30분경, 병원에 있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아침에 내가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뮌헨에 있는 플라톤 고르닐리아크 주교를 만나러 가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주교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밤에 악마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악마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성모님께서 네 아내에게 나타났신 적이 없다. 그 모든 것은 거짓과 속임수였다. 메지고리예에서도 성모님의 현현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건 밤 2시 30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일어나 성수에 손가락을 담근 채, 손가락을 성수에서 빼지 않고 30번의 성모송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평온이 찾아왔고, 그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시, 저는 보그트 신부님이 집전하신 성모 경배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신부님은 성모 찬송을 바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좀처럼 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하기 전부터 저는 리투아니아에서 온 한 연로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괴로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집으로 가셨고, 저는 그분께 성수, 축성된 소금, 그리고 축성된 양초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 로트(Rot)에서 온 한 여성(헤드비그 H.)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남편과의 문제로 인해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1991년 5월 15일 수요일

이른 아침, 남편이 비둘기만 한 크기의 검은 새들이 많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오전 10시경 의사실에서 나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 남편이 이렇게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폴란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점심시간에 저는 성당으로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그 검은 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것들은 불결함의 악령들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구세주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뜻이다.” 저는 구세주께 보그트 신부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하느냐고 물었고, 구세주께서는 “그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평화를 느끼느냐?”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은 참된 평화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한쪽 팔만 있는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목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전쟁 중에 그 팔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팔이 없는 상태로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익숙해지면 좋겠네요.”

19시 30분에 저는 밁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신부님은 미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집전하셨습니다. 미사가 아름답지 않았고, 신자들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신부님께 다가가 약 20분 동안

고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신부님은 내면적으로 꽤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신부님이 말을 마치자, 저는 그분께 “그건 세속적인 지혜였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죄를 받고 싶었는데, 신부님은 저에게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신부님께 축복을 청하고 떠났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말헨베르크에서 온 율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크로나우에서 르페브르 몬시뇰에 관한 강연이 열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즉시 율첸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밁골스하임의 신부님이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르페브르를 너무나 나쁘게 묘사해서, 도대체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르페브르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았지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저는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 “당신은 르페브르의 불순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르페브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영혼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성체 분배대를 교회에서 치워버린 탓에 불순종하는 사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체대(성체 수령대)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합리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서서 성체를 영할지, 무릎을 꿇고 영할지, 입으로 영할지 손으로 영할지는 자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입으로 성체를 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성체대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성체 안에는 참된 하느님이시자 살과 피를 지닌 참된 인간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모실 때 무릎을 꿇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마치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듯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여기서 나가, 도대체 누가 널 초대한 거야? 원한다면 집에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어라.”라고 말했다.

그 순간 저는 성경을 떠올렸고, 예수님도 저보다 나을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려도 될지 여쭙았습니다. “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깃든 깊은 평안을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우타 란케-하이네만과 르페브르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대답을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불순종 때문일 겁니다.”

저는 율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22시 30분경, 집에 돌아와 성모 마리아 상 앞으로 가서 르페브르 신부를 위해 촛불을 켜고, 그가 그렇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온 마음을 다해 성모님께 물었습니다. “왜 르페브르 신부는 파문당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91년 5월 16일 목요일

거의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 청할 대속의 은총을 누군가를 위해 바칩니다. 오늘은 모든 대속의 은총을 르페브르 신부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12시 정각에 병원 내 성당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후 누군가가 오르간을 아주 크게 연주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천사’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12시였으니 분명 하느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그 두 분을 위해 성모송을 여러 번 바치고 대천사 미카엘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세 번째 남자가 합류하여 대화에 끼어들었고, 나는 그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은 듯, 모두 밖으로 나갔다. 나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평온하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

오후 3시 30분경, 저는 노이부르크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요한스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성체함 앞에서 약 두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로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사가 없었기에, 마이슈로 가서 플라톤 고르닐리야크 주교를 위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1991년 5월 17일 — 금요일

이른 아침, 남편과 저는 고르닐리야크 주교님을 뵙기 위해 뮌헨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도로에는 차도 없었고, 정체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오후 3시에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고르닐리아크 주교님께서 뽐어내시는 사랑과 평온함에 저는 놀랐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요한 신부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잘못된 내용을 썼다는 이유로 이미 한 번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 신부님의 글이 옳지 않다고 많은 사제들에게 서면으로 경고했음에도 아무도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요한 신부님은 주교님께 불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주교님과 약 한 시간 동안 함께 있었으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레겐스부르크에 계신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을 찾아 갔다. 레겐스부르크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갈아타던 중, 우리는 경이로운 노래를 들었다. 약 20분 동안 천사들의 합창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었다. 우리는 깊은 경외감을 느꼈고, 마음속으로 각자 매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이미 한 번 경험했던 이 순간을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묵주기도 일곱 번과 다른 기도들을 바쳤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 댁에서는 약 한 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1991년 5월 18일 — 토요일

나는 와그하우젤에서 오전 6시 30분에 열린 아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미사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봉헌되었습니다. 이날은 성모님께서 제게 나타나신 지 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구세주와 일치를 이루며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르페브르 주교님과 함께 계셨다면, 왜 그분이 파문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 대답이 다소 명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

1991년 5월 19일 — 성령강림 주일

10시 — 나는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3시경, 만하임에 계신 부란 신부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요한 신부님께서 잘 지내고 계시며, 프랑스에 계신 주교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란 신부님께서는 요한 신부님을 칭찬하셨지만, 저는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신부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란 신부님과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부란 신부님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로트에서 온 헤드비그와 함께 묵주 기도를 드렸다. 19시 00분에 성모 경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다.

20시경, 로트 출신의 지타가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로사리오를 바쳤다. 지타는 밁골스하임의 신부가 형편없는 설교를 했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신부는 르페브르를 비판하는 강연도 했던 사람이다. 그 무렵 나는 이미 이 사제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7년 전 오늘 제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대한 신의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큰 은총을 내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하느님 없이 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겠지요. 하느님과 헤어지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으니까요.

1991년 5월 20일 — 성령강림절 다음 날

오전 7시에 바그하우젤에서 고인이 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봉헌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라, 내 딸아.”

그 후 우리는 비젠타에 있는 함부슈 가족 댁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성모님께 바칠 아름다운 붉은 장미 꽃다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꽃다발은 그분이 남편에게서 결혼 기념일로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가족을 위해 즉시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토해 버렸습니다.

잠시 누워 있었는데, “교회에 가지 마, 넌 아파, 오늘 이미 교회에 한 번 갔잖아, 등등”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수님 성화를 바라보던 중 “기도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시 일어나 고통의 묵주를 바친 뒤, 자비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괴로움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는 성모 경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다. 한 젊은 신부님이 경배를 주재하고 계셨다. 집에 돌아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방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강림절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기도 모임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나는 우리 기도 모임을 위해 많이 기도했다. 그날 우리는 특히 사제들을 위해 기도했다.

1991년 5월 21일 - 화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바쳤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내내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네부시 양이

베네부시 양이 저녁에 말씀 예배를 집전하고 그 후 성체를 분배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거기에 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체를 영했습니다.

1991년 5월 22일 - 수요일

밍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동독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을 위해 미사와 성체를 바쳤습니다. 그녀에게 기도문, 축성된 메달, 그리고 축성된 성모 마리아 상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공산주의 교육 아래 자랐지만, 축성된 물건들을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26년 전, 제가 세례를 받지 않은 채 남편과 함께 바그하우젤에서 가톨릭 결혼식을 올렸던 날이라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을 몇 마디밖에 할 줄 몰라서 신부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뉘우쳤던 죄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5월 23일 - 목요일

병원 내 성당에 가서 구세주님께 베네부시 양이 집전하는 말씀 미사에 가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코로나우 출신의 칼루지제로와 웬디가 사제가 되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먼저 말슈(Malsch)의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사가 없었기에 뮐하우젠(Mühlhausen)으로 가서 성모 경배에 참석했습니다.

1991년 5월 24일 - 금요일

로트에서는 미사가 없었기에 말슈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세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제시간에 뮐하우젠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7시 2분 전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저는 제시간에 뮐하우젠에 도착해 미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고, 저는 많은 은총을 받았으며 구세주님과 깊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1991년 5월 25일 — 토요일

아침 7시 15분에 바그하우젤에서 거행된 성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비젠탈에서 베아테와 마리온 함브슈가 와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 디터 에르벤 씨도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기도를 위해 세 단의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1991년 5월 26일 — 일요일

오전 10시,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대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심한 두통을 앓고 있어서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누워 쉬었습니다. 그 후 로트에서 헤드비그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셋은 고통의 묵주를 함께 바쳤고, 남편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15시부터는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 고통을 바쳤습니다. 저녁에는 로트에서 열린 성모 경배에 참석했습니다.

1991년 5월 27일 - 월요일

힘든 하루였습니다. 여러 환자들에게서 불결한 영의 기세를 느꼈습니다. 직장의 성당에서 기도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건네는 루마니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빨간 옷을 입고 성체 성사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0시 00분에 우리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는데,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경배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하르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저는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1991년 5월 28일 — 화요일

풍성한 어획!

3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가톨릭 신자 여성이 환자로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임을 아주 분명히 느꼈습니다.

악마가 그녀의 코와 입을 완전히 변형시켜 놓았습니다. 코는 완전히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후 루마니아에서 온 한 환자분이 찾아왔는데, 그녀는 마치 노예처럼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58세였고, 그녀는 32세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성모 마리아 상과 메달, 그리고 기도문을 건네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는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모두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께도 성모 마리아 상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다음 환자는 폴란드 여성이었는데, 그분과도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당에서 저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5:00부터 15:30까지 제 동료 베로니카와 저는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성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 저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교감하며, 동독과 폴란드에도 가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그 대답은 “영혼들을 구원하라”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환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고, 그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을 위해 금식해야 한다고 다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다면”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오전 중에 엑스레이 촬영을 해주고 성수로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던 루마니아인 환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기도 쪽지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악해서 그녀에게 모든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예처럼 말라비틀어지고 병들었으며, 악마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 그녀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나는 다시 예수님께 그 남편이 기도 쪽지를 빼앗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그렇게 적은가?” 나는 즉시 예수님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예배당에서 기도를 마친 후 저는 매우 행복했고, 밤 1시경에야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힘.

베니그라는 의사가 엑스레이실로 들어왔다. 나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구세주를 모독했다. 나는 베로니카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웃으며 다시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 직후 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음속으로 나는 즉시 대답했다. “구세주님, 제가 그가 돼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구세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과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농담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둘 다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6시 15분경, 나는 병원을 나와 직장엔 있는 남편을 데리러 가려고 했다. 기차역을 지나가던 중, 로머크라이스(Römerkreis)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해서 차를 세웠다. 정차해 있는 동안, 검은색 차 한 대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 내 범퍼가 찌그러졌다.

나는 즉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사탄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12**

그는 경찰을 부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셨군요.” 그는 절대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피해액이 적어도 500마르크는 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저에게 200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갑을 열었지만, 가지고 있던 돈은 130 DM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130 DM을 받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회개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는 거부하며, 자신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영원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저는 “아니요”라고 말하며 아직 손에 쥐고 있던 묵주를 그에게 보여주며,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부하며 화를 내며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남자를 위해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18시 20분경, 나는 로트(Rot)에 있는 성당에 가서 묵주를 바치고, 오늘 엑스레이를 찍어준 환자들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다.

오늘 낚시가 풍성했던 것처럼, 악마도 그만큼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사고를 통해 그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남성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1991년 5월 29일 — 수요일

교회에 가지 않았고, 미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당에서 기도했지만,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1991년 5월 30일 — 목요일 — 성체 성혈 대축일

나는 붉은 옷을 입고 성체 행렬에 참여했다. 정말 아름다웠다. 행렬이 시작되기 전, 나는 악마의 공격을 받았다. 행렬이 끝난 후 나는 많은 은총을 받았다. 날씨가 좋았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며, 행렬 동안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진행해 주셨다.

1991년 6월 1일 — 토요일

아침에 바그하우젤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미사는 얼마 전 바그하우젤에 부임한 라인홀트 신부님께서 집전하셨습니다. 성체 변모 전, 라인홀트 신부님께서 제 눈을 깊이 바라보셨고, 저도 신부님을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제가 무릎을 꿇은 채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부님들은 신자들에게 성체를 성체를 첫 번째 줄에 앉아 있는 신자들에게 직접 가져다주어,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구세주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침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이 말하길, 그 전날까지는 신부님께서 첫 번째 줄까지 오지 않으셨다고 했다. 나는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고, 라인홀트 신부님께서 오셔서 나와 다른 신자들에게 성체를 건네주셨다. 다른 신자들은 놀라워했다.

1991년 6월 2일 일요일

나는 붉은 예복 차림으로 미사에 참석했고, 오후에 열린 묵주기도가 선행된 기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저녁에 “주님의 천사”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영적으로 성체를 영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와 하나 되는 순간,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말하면 나를 믿겠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구세주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는 은총을 거두어 버리리라.”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는 즉시 우리 로트(Rot)에 있는, 무릎을 꿇고 성체를 영하지만 손으로 영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탓으로 돌리겠다.” 그 후 저는 영광의 묵주기도와 자비의 묵주기도를 더 바쳤습니다.

1991년 6월 3일 - 월요일

직장 내 성당에서 ‘주님의 천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도르트 신부님과 보그트 신부님께,

도하트 신부님과 보그트 신부님께, 손으로 성체를 영할 때 주님께서 은총을 거두신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래, 내 딸아, 그들에게 말해라. 그것은 중요하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구세주님께 “분들이 주교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교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물어보아라.”

오후 3시 30분, 저는 직장 동료 베로니카와 함께 사제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오후 2시경, 저는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도하트 신부님과 관련된 체험에 대해 여쭙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축복을 내리실 때, 저는 그분 뒤에서 도하트 신부님과 키와 체격이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축복을 내리듯 두 손을 뻗은 채 밝은 빛 속에서 서 계신 한 분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두 번째로 다시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그것은 불결한 영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신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나는 사제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샤르 신부님은 카리스마적인 분이시라,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어쩌면 교회가 규정하는 대로 그분이 축복을 내려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주사를 맞고 상태가 매우 나빠진 한 환자가 오셨습니다.

저는 성수를 떠서 그녀에게 뿌리고 즉시 그녀와 함께 ‘성모송’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금세 나아졌습니다. 그 환자는 오전에도 이미 우리 병원 엑스레이실에 한 번 왔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19시 00분에 저는 루트에서 거행된 성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해 중병에 걸린 베르무트 씨를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20시에 우리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하트 신부님도 오셔서 성체, 즉 구세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성체 조배를 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팠기 때문이다. 약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저는 도하트 신부님께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구세주님께 여쭙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91년 6월 4일 — 화요일

오후에 루마니아에서 온 환자 모니카 고르체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엑스레이 촬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번 축성된 소금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기도할 때 소금을 뿌리라고 주었던 것이었는데, 기도할 때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은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이 축성한 것으로, 신부님은 그 소금 위에 치유 기도와 축귀기도도 바치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 소금을 자주 사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축성된 소금 알갱이 몇 개를 며칠 동안 허 위에 올려두었더니, 만성 질환이 금세 치유되었다고 했습니다. EBO 클리닉의 마란(Maran) 박사는 그녀가 왜 그렇게 빨리 치유되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고르체아 씨는 마란 박사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에게 축성된 소금에 대해 말하기가 두려웠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도 문구를 몇 장 더 건네주었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모니카 고르체아 씨는 독실한 신자이며, 루마니아 클라우센부르크 시에 있는 대학에서 독일어와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독일에 왔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녀의 치유를 위해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녁에는 로트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1년 6월 5일 - 수요일

직장 내 성당에서 기도했다. 구세주께서는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입으로 성체를 영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것이 ‘제단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라고 불리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사제 서품은 왜 존재하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으로 순결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 영성체 시 손을 내미는 이들에게 은총을 거두시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없기에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성체를 영할 때 고통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도 무척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사제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는 밉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 다녀왔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쾰른 출신의 한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미사를 집전하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그분은 말을 아주 빨리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구세주께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께 사랑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설교할 힘을 주십시오. 부디 그분이 아주 천천히 설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즉시 그는 더 느리고 사랑이 가득한 어조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성체성사 후, 저는 구세주와 아주 깊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구세주님께 제가 성인이 될 수 있겠냐고 여쭙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그래, 내 딸아, 너는 성인이 될 것이다.”였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당신께 바쳤으니,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내 말씀을 널리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하실 테니까요.” 저는 예수님께 로달벤의 책과 로달벤의 축성된 양초를 그 선교사에게 주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성물실로 가서 그 선교사와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요한 신부님을 찾아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신부님께서 책 출판 자금이 필요해 많은 주교님들께 편지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 신부님의 책들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선교사님께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제 손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1년 6월 6일 — 목요일

제 소원은 파라과이에서 온 선교사인 요제프 신부님의 설교를 다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밉골스하임에 있는 로쿠스 예배당에서 거행되는 성체 미사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좋은 설교였습니다.

1991년 6월 7일 — 성심 금요일

누군가 ‘구세주께서 중대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성체를 영할 때 그분께서 그 마음속에 머무르실 수 없다’고 말해 주었기에, 저는 구세주께 그분께서 저에게 더 말씀해 주실 수 없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구세주께 더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로트에서 성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신스하임 근처의 그롬바흐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하르트 신부님의 본당으로, 신부님께서 성심 금요일에 본당에서 속죄의 밤을 거행하셨습니다.

고해성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기쁨의 목주를 바쳤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모님께서 제게 장미 향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몇 분 뒤, 제 기도 모임에 속한 리타 크노흐(Rita Knoch) 씨도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우리로부터 약 2미터 떨어진 곳에는 성모님이 계신 루르드 동굴이 있었습니다.

1991년 6월 8일 - 토요일

파라과이 출신의 요제프 신부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당시 신부님께서 아직 밉골스하임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20시 00분에 신부님께서 저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약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많은 은총을 받았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하느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원하셨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의 성경을 드렸습니다.

1991년 6월 9일 - 일요일

나는 로트에서 거행된 성체성사를 참례했다. 그 후 밉골스하임의 로쿠스 성당으로 가서 요제프 신부를 다시 만났다.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 중에 저에게 그에게 가서 플라톤 주교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제프 신부님은 그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 요제프 신부님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991년 6월 10일 — 월요일

19시경, 남편과 저는 휴가를 떠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약 20km를 주행한 후, 남편이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캠핑카를 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주를 손에 쥐고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목주를 시작할 무렵, 남편의 상태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캠핑카에서 잤지만,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괴로워하며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잠꼬대도 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을 방문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1991년 6월 11일 — 화요일

오전 10시경, 우리는 미리 연락하지 않은 채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가 나눠주어야 할 좋은 책들을 주셨고, 자신의 기도 의도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로달벤에 관한 책을 출판하고 싶으셨지만, 안넬리제 바프지크 수녀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슬픔에 잠긴 성모'가 모셔진 순례지인 메텐부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미 세 번째로 메텐부흐를 방문한 것이었고, 그곳에서 순례지를 관리하는 안네마리를 만났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에는 이미 오스트리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많이 기도할 수 있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메텐부흐에서 많은 은총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1년 6월 12일 — 수요일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마을인 신타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985년 투르조브카 순례지에서 알게 된 마르쿠스코바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투르조브카에서는 1958년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습니다.

1991년 6월 13일 — 목요일

오늘 저는 메지고리예에서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한 경험에 대해 슬로바키아어로 강연을 했습니다.

1991년 6월 14일 — 금요일

아침에 신타와에 계신 다니엘 신부님을 방문했습니다.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의 책을 신부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한 이야기와 현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성모님께서 현재 두 아이에게 발현하고 계신 리트마노바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로 가서 아이들을 바로 만났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우리는 안 신부님을 찾아갔고, 남편과 저는 그분 댁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발현이 진실이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신부님 모두 큰 사랑을 발산하고 계셨으며,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악마가 제가 이 발현을 믿는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소녀 시현자를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녀가 커다란 송곳니를 드러내고 제 앞에서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녀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마의 행각과 그 교활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시현자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려고 저에게 무언가를 꾸며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 6월 15일 — 토요일

안 신부님 곁에서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부님을 벌써 100년이나 알고 지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영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모두 함께 라틴어로 목주기도를 바쳤습니다.

11시에는 주교에서 파견한 위원회가 사건들을 조사하러 올 예정이었다. 안 신부님의 수녀님이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이미 옆방에 머물고 있던 위원회를 위해 성령 목주를 바쳤다.

이어서 고통의 묵주기도와 성모 찬가, 예수 찬가,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기리기 위해 주님의 기도 다섯 번을 바쳤습니다.

벌써 13시였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조사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신부님은 다른 조사관들보다 훨씬 먼저 리트마노바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거의 한 시간 동안 제 회심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메지고리예에서 경험했던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신부 중 한 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정신과 의사 한 분도 계셨습니다. 오후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친절하셨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두 명의 예언자 아이인 카타리나와 이베타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라틴어 기도를 아주 빨리 외웠습니다.

1991년 6월 16일 - 일요일

오늘은 안 자바츠키 신부님 댁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전 7시 30분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안 신부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마이단'이라는 이름의 발현 장소로 갔습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고, 발현을 목격한 아이들이 묵주 기도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브라티슬라바에서 온 한 여성이 리트마노바의 발현에 관한 영화를 상영해 주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약 40km 떨어진 곳에 사는 안 신부님의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1991년 6월 17일 - 월요일

안 신부님과 함께 호헤 타트라 산맥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저녁 미사 후 많은 사람들이 안 신부님의 집에 모였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성령께서 제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안 신부님은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을 다음 날 설교에 반영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즐거운 저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1991년 6월 18일 - 화요일

저녁 7시에 우리는 리트마노바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 성사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님께 안 신부님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여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슬로바키아어로 대답하셨습니다. "Povedz mu, že ho ľúbim." 이는 독일어로 "그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전해라"는 뜻입니다. 성체 성사 후 안 신부님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후 4시경, 저는 크라쿠프에 있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살았던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곳에 걸려 있는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고 생동감 넘쳐서, 저는 그곳에서 30분 동안 울며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16시 45분경, 독일에서 온 마리아 루트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수녀님은 메텐부흐 예배당에 걸려 있는 그림을 직접 그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녀님은 저에게 자비의 묵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리아 루트 수녀님을 더 잘 알게 되었는데, 수녀님은 가식적인 겸손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수녀님은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동안 여러 번 방해하셨습니다.

19.06.91 — 수요일

오늘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날, 우리는 헨스토호바에 있는 폴란드의 여왕 성지에도 다녀왔습니다.

1991년 6월 20일 — 목요일

오후 3시 30분경 트센스토호의 '검은 성모' 상 앞에 커튼이 열리고 트럼펫 합창단의 연주가 울려 퍼진 후, 저녁에는 HI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밤 10시 30분경 산책을 하던 중, 바르샤바에서 온 숙소도 돈도 없는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례자 숙소 숙박비를 대주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1991년 6월 21일 —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투르조브카에 도착했다. 우리는 곧바로 교회로 향했다. 미사가 끝난 후, 예언자 라투스 마투스가 이웃집 마당에 우리를 묵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1991년 6월 22일 — 토요일

우리는 투르조브카의 한 마을인 비시아에서 이른 아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발현 장소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발라즈라는 젊은 신부가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설교를 했습니다. 참석자가 너무 많아 성당에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사는 야외에서 거행되었다. 성체 성사를 받은 후, 나는 구세주께 투르조브카의 어디에 교회를 지어야 할지 물었다. 리트마노바의 아이들이 성모님께서 이를 원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구세주께서는 나에게 “투”라고 대답하셨다.

구세주께서는 다시 슬로바키아어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Tu”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후, 저는 그 말씀을 미하일 발라즈 신부님께 전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미 두 개의 교회가 지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장소에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발현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회심과 리트마노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 한 시간 반 뒤, 저는 세 대의 관광버스에서 내린 사람들 앞에서 제 회심과 리트마노바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분은 산 정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미 들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리트마노바로 돌아와 안 신부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1991년 6월 23일 — 일요일

우리는 리트마노바에서 아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발현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1991년 6월 24일 — 월요일 - 성 요한의 날

아침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발현산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 신부님과 제 남편, 그리고 다른 세 명의 여성분들과 함께 시골로 나들이를 가서 바비큐를 즐겼습니다.

그 후 양치기 한 분을 찾아가 양젖 치즈를 샀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제 회심 이야기와 현재 신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유고슬라비아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1991년 6월 25일 — 화요일

다시 신타바로 돌아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강연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1991년 6월 26일 — 수요일

우리는 신타와에 있는 다니엘 신부님을 찾아가 식료품을 전해 드리고 약간의 돈을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가 보수 공사 중이어서 성당 앞에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미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 사제 서품을 앞둔 요즈코에게 초대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약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오후에는 그가 우리를 안내해 주며 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다시 제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991년 6월 27일 — 목요일

오스트리아

1991년 6월 28일 —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다시 로트(Rot)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91년 6월 30일 — 일요일

우리는 로트에서 성체 성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폴란드 신부님인 스타니슬라프 신부님을 초대해 우리와 함께 로달벤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1991년 7월 1일 - 월요일

오늘 로달벤에서는 성혈 대축일을 기념했습니다.

오전에는 로트에서 성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2시 30분경 도샤르 신부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오신 요제프 신부님도 오셔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두 분의 신부님과 그 밖의 20여 분이 우리와 함께 로달벤으로 가주신 것은 저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1991년 7월 5일 — 성심 금요일

그롬바흐에서 열린 속죄의 밤 행사에 참석해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네 분의 신부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도하르트 신부님은 뒤쪽으로 가서 성체를

성체를 나눠주셨습니다. 뒤쪽에 8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도 말이죠. 저에게는 마치 빵을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성체를 영할 때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지대나 도움 없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왜 성체 영성체 의자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신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데, 신부님은 인내심을 잃고 단지 모든 일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했을 뿐입니다. 성체 영성체를 마친 후, 저는 예수님께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꽤 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옳지 않았어.”**

1991년 7월 8일 - 월요일

오후에 나는 안넬리제 바프지그의 수녀님들(세 분 모두)이 나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어 보았다. 세 수녀님은 그 편지에서 로달벤에 관한 책이 출판되지 않도록 반대했다. 그 이유로 세 수녀님은 안넬리제 바프지그가 결국 모르핀 중독자가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게브하르트 신부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잘 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게브하르트 신부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1991년 7월 9일 — 화요일

직장 내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제 자리에 기도실을 지어 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에게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은총을 받았고,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전 중에 제 동료 베로니카가 쓰러졌습니다. 현재 그녀는 신경과 응급실에 있습니다.

1991년 7월 10일 — 수요일

저는 성당에 가서 기도했지만, 오늘은 미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7월 11일 — 목요일

붉은 옷을 입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슈티프트-노이부르크 수도원에 가서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한 연로한 신부님께서 제 고해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구강 성체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부님은 그것을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신부님은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다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신부님을 다시 찾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3시, 베른트가 아내와 함께 라덴부르크에서 왔다. 그는 나에게 마리아 아그레다의 책 다섯 권을 읽어보라고 가져왔다.

1991년 7월 13일 — 토요일

남편과 나는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을 만나러 레겐스부르크로 갔습니다.

1991년 7월 14일 — 일요일

오전 10시에 우리는 카르멜회 수도원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1시 30분부터 17시까지 저는 게브하르트 신부님과 함께 점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신부님은 제게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것뿐입니다. 그분과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고, 저희 캠핑카와 축성받기 위해 가져간 소금, 물, 목주, 성화 등 모든 물건에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고대 축복 기도문과 엑소시즘을 라틴어로 낭송하며 물건들을 훌륭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1991년 7월 15일 월요일

저는 프리돌린과 함께 마이슈의 교회에 갔습니다. 성체성사 후, 저는 구세주께 로달벤과 보혈에 관한 책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딸아, 그 책은 쓰여야 한다.” 게브하르트 신부님께서도 안넬리제 바프지그의 세 자매로부터 편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달벤 출신인 프리돌린에게도 바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저녁에는 구세주님께서 다시 우리 기도 모임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큰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밤 3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91년 7월 16일 - 화요일

늦게까지 자고도 기운이 넘치고 행복했던 것을 보니, 내가 받은 수많은 은총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동료 베로니카가 아직 아파서, 엑스레이 촬영을 전부 혼자서 해야 했다.

1991년 7월 17일 - 수요일

밍골스하임에 있는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고해성사도 보았습니다.

1991년 7월 18일 — 목요일

프리돌린이 전화를 걸어와, 유고슬라비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메지고리예로 가야 할지,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클로드가 함께 갈 수 있을지 구세주께 여쭙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후에 성당에서 예수님께 그 일을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야 한다. 룩셈부르크의 클로드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07.91 - 금요일

프리돌린이 다시 전화를 걸어 구세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1991년 7월 20일 - 토요일

우리는 방금 이곳을 방문 중이던 조카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하이델베르크로 갔습니다. 조카는 주방 보조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1991년 7월 21일 - 일요일

나는 로트에서 열린 HI 미사에 참석했고, 13시에는 교회에서 목주기도와 묵상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남편과 함께 나들이를 갔는데, 네카르강을 따라 배를 타고 돌아다니며 산책도 했다. 정말 아름다웠다. 남편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1991년 7월 22일 - 월요일

나는 로트의 교회에 갔다. 보그트 신부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 설교하셨다. 신부님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창녀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 아픔을 즉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바쳤다. 그 말씀은 내게 큰 타격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성체 성사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께 물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어.”
이어서 저는 구세주께, 왜 보그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0시에는 다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 모임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되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1991년 7월 23일 - 화요일

18시경 프리돌린이 전화를 걸어 클로드가 메지고리에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프리돌린은 클로드가 전쟁 때문에 유고슬라비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프리돌린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심지어 메지고리로 가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
저녁에는 로트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 성사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께 보그트 신부님과 함께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행과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네, 토요일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 7월 24일 - 수요일

이날 이미 여러 번 묵주 기도를 드린 후, 저는 직장의 성당에서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보그트 신부님과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행에 대해 이야기하면 신부님의 태도가 바뀔지 그분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님이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그렇다면 신부님과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분이 네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부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구세주께 제 아들이 사제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결혼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제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구세주께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할지 여쭙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오, 내가 그에게 깨달음을 주리니, 그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제 아들이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네, 주님, 그는 제 외아들이지만, 사실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1991년 7월 25일 — 목요일

저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성체성사를 드렸습니다. 성체를 영한 후, 저는 예수님께 언제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가야 하는지 여쭙었습니다. 그분은 “토요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 7월 26일 — 금요일

로트에서 미사를 마친 후, 저는 보그트 신부님께 토요일에 신부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승낙해 주셔서 토요일 오후 4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1991년 7월 27일 — 토요일

오전 7시 15분, 저는 조카와 함께 바그하우젤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 변모 예식 중에 사제와 교회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완전히 어두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체를 영할 때, 저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성체를 영할 때 서 있었는데,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성체를 주시는 것을 주저하셨습니다. 마치 사탄이 신부

님의 손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신부님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성체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신부님의 성함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플로린 신부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도 모임의 여성분들이 계셔서, 제 기도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그트 신부님과 면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베테 부인과 제 조카에게도 16:00부터

17시 사이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6시 00분에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 신부님은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우리는 약 5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입과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방식과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창녀가 아니라 죄인이었다고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7시 45분부터 22시 30분까지 슬로바키아 출신인 니콜과 아드리아나 두 분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하느님과 제 회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리트마노바(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내려온 성모님의 메시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묵주기도를 바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독일에서 살고 있는 유고슬라비아 출신 여성 두 분이 더 찾아오셨습니다.

1991년 7월 28일 — 일요일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조카 자클리나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숲속을 산책하며 묵주기도를 두 번 더 바쳤습니다.

1991년 7월 29일 — 월요일

20시 기도 모임. 도하르트 신부님도 오셨습니다.

1991년 8월 12일 — 월요일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성모님께서 오늘 저녁 기도 모임에 많은 기도자들을 보내 주시기를 거의 매일 기도했다. 성모님께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오히려 말헨베르크의 성당에서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을 때, 역시 저녁 20시 00분이었지만 참석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다른 시간을 정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기도 모임에서 리트마노바에서 성모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1991년 8월 19일 — 월요일

어제 도하르트 신부님이 전화를 걸어 오늘 올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틀 전에는 만하임에서 온 부란 신부님이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분은 요하네스 신부님의 안부를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란 신부님이 솔직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그러면 그가 사제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도, 사제복도, 그 밖의 어떤 표식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한 신부님이 그를 탐정처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가 자만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는 “변화 순간에 사제만큼의 권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네, 신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제만큼 큰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듯했다.

그 주 월요일 저녁, 도샤르 신부님은 기도 모임에서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도 입으로 성체를 받는 것만큼이나 겸손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마치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1991년 8월 20일 - 화요일

잉그리드 바우어가 우리와 11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남편이 그녀를 피르만센스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무료로 머물며 신앙을 굳건히 다지고 싶어 했습니다.

1991년 8월 21일 — 수요일

저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말하는 것이라고 속삭이려 했습니다. 8월 14일과 8월 19일에 고해성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첫 영성체 후,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탄이 저에게 말을 걸면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했노라.” 제가 그렇게 여쭙어 본 데에는, 보그트 신부님께서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악마가 아닌 것임을 확인시켜 주셔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1년 8월 23일 - 금요일

미사가 끝난 후 남편과 저는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벨기에의 세브르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1991년 8월 24일 — 토요일

우리는 바노(Banneaux)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성지에 갔습니다.

1991년 8월 25일 — 일요일

세브르몽에서는 매년 “작은 영혼들의 국제 모임”이 열립니다.

성체 성사 직전에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경미한 죄들을 털어내고 온전히 깨끗해지고 싶었습니다. 묵주 기도를 드리는 동안, 모든 순례자들 앞에서 크로아티아어로 묵주 기도를 이끌어 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년 루르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묵주 한 단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성모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앞장서서 기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경,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모님과 예수님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고, 구세주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매우 간절하고 또렷하게 기도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신뢰에 대해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1991년 8월 26일 — 월요일

오전에는 토마스 헨제라는 남성의 엑스레이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노숙자였으며,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진찰한 뒤 병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건강해질 때까지 제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 안에서 고통받고 무력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노숙자를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일로 미리 성당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남편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큰 사랑으로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경, 토마스라는 환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토마스의 냄새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끔찍하게 악취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그를 위해 깨끗한 옷과 신발을 찾아주었고, 그는 샤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굴라시와 밥,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우리 손님은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그에게 정원에 물을 주라고 부탁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성체를 영하는 기도를 그를 위해 바쳤습니다.

토마스는 저녁 기도 모임에도 참석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오늘 작은 성체대를 가져오셨습니다. 다음 번에는 성체 접시도 함께 가져오셔서 구세주께서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께서는 다음 번에 성체 접시를 꼭 가져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991년 8월 27일 — 화요일

환자 토마스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의 코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991년 8월 28일 — 수요일

에메르츠그룬트의 아드리안과 함께 밉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1991년 8월 29일 - 목요일

조카 라트코와 함께 로트의 교회에 다녀왔다.

1991년 8월 30일 — 금요일

라트코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와 함께 로트의 교회에 다시 다녀왔다. 그는 나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다.

1991년 8월 31일 - 토요일

아침에 야클리나와 함께 바그하우젤에 있는 교회에 다녀왔다. 그 후 글로부스에서 장을 보았다. 오후에는 에리히가 제11처의 성화를 가져왔다.

1991년 9월 1일 — 일요일

우리는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1년 9월 2일 - 월요일

병원 내 성당에서 저는 어제 요하네스 신부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요하네스 신부님은 플라톤 주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플라톤 고르닐리아크 주교와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요한 오르티스키 신부님은 아마도 자신의 책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성당에서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녁 기도 모임: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성체를 분배하셨는데, 처음으로 성체대(Kommunionbank)와 성체 접시(Patene)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기뻐하며 은총을 받았음을 느꼈습니다.

1991년 9월 6일 — 성심 금요일

저녁에 그롬바흐에서 열린 속죄의 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 성사 후

구세주를 경배했습니다. 저는 성체 현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펄펄 흘렸습니다. 라칭거 주교님께서 메지고리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빌트포스트』 지에 그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약 15분 동안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는 제단과 성체 현시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었느냐?”

그 순간 나는 즉시 울음을 그쳤다.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 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메지고리예가 진짜라는 확신이 되었고, 단지 교회만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9월 첫째 주에 저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리트마노바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더니,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발현은 초자연적인 것이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나는 병원 내 예배당으로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현자 중 한 명인 이베트카의 뚫어지게 응시하는 눈빛이 기억에 남아 있었고, 그 눈빛이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세주께 아마도 그런 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발현들은 초자연적인 것이다”라고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은 간직하라.”

1991년 9월 12일 — 목요일

나는 노이부르크 수도원에서 고해성사를 보았다. 신부님께서는 나에게 구세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허락받으라는 보속을 주셨다. 그전까지 어떤 신부님도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에, 구세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려 하신다는 사실에 나는 기뻐했다.

1991년 9월 13일 - 금요일

로트에서 전야 미사가 있었습니다. ‘후베르투스 미사’를 위해 교회는 전야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같아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1년 9월 14일 - 토요일

말렌베르크에서 거행된 대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우리 침실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제 십자가가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미사는 청소년들이 주관했다. 하지만 경건함이 부족했다. 전통을 지켜야지,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1991년 9월 16일 - 월요일

병원 내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는 로트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도하르트 신부님도 오셨습니다.

1991년 10월

오랫동안 찾아 해맨 끝에 일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전임 코스텔 신부님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사제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코스텔 신부님이 하느님보다 더 큰 존경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제들은 성체 영성대(성체대)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신자들에게 서서 성체를 영하도록 강요했다. 내가 성체를 영할 때,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수많은 불결한 영들을 느꼈고, 그들이 허락만 된다면 나를 산산조각 내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체를 영한 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제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은 서서 성체를 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계속 무릎 꿇어라, 내 딸아.”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많은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보그트 목사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 보그트 목사님은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1991년 11월 23일

밍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선교사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1991년 11월 25일 - 월요일 - 성 카타리나 축일

로트에서 성체성사를 드렸습니다. 성체성사 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라, 많이 기도해라, 내 딸아. 러시아에서 전쟁이 닥칠 것이다!”

처음에는 무척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는 울었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께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그분은 네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기도 모임에서 이 말을 해야 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모임에는 신부님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큰 영적 고통을 안고 교회를 나왔고, 눈물을 펄펄 흘렸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미 리타와 피마센스에서 온 다른 두 여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도 기도 모임에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기도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도샤르 신부님께 축복을 청했다. 도샤르 신부님께서 구세주 상을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구세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울고 흐느꼈다.

1991년 11월 26일 - 화요일

나는 끊임없이 전쟁에 대해 생각하며 구세주님께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물었다. 구세주님께서 “곧!”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 수요일

저는 구세주님께 그 말씀이 저에게만 중요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모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 금요일

직장 내 예배당에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전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쭙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에 전쟁이 닥칠 것이다.**”

1991년 12월 2일 - 월요일

오전 11시 15분, 병원 내 성당에서. 다시 성체함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 기뻐다. 영적으로 소통하며 구세주께 나와 대화하실 때 어디에 계신지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마음 깊은 곳에.**”

이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최면에 걸린 것은 아닌지 물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은 최면에 걸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고슬라비아 전쟁과 예언자 이반과 야코브가 해외로 떠났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닥칠 전쟁 때문에 저도 독일을 떠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겁쟁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영국군과 싸워 프랑스를 해방시킨 성녀 오를레앙의 요한나가 떠올랐다. 나는 예수님께 내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한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당장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저녁 기도 모임에서 목주기도 3단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늘 그렇듯 몇 분간 침묵을 지켜 모두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기도 모임에 전할 말이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기도 모임에서 구세주님의 음성을 들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3일 - 화요일

병원 내 성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딸아,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저녁에 로트(Rot)의 교회에서 성체성사 중에 레코드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음악이 방해가 되어 구세주께 마음을 열 수 없었다.

1991년 12월 4일 — 수요일

병원 의사실에서 약 10시 45분경: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고,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나를 깊이 신뢰하라.

굳건히 버티거라. 네 앞에는 짧은 생이 남아 있다. 내가 너를 내게로 데려가리라. 그 증거는 바로 네 믿음이다.”

그 말씀을 적어 내려간 직후, 구세주님께 제가 제대로 적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딸아.”

저녁: 저는 매일 보그트 신부님과 그분의 깨달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했고, 예수님께 보그트 신부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18:00부터 18:45까지 저는 보그트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보그트 신부님은 저를 존경한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증거는 네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자, 그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하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1991년 12월 5일 — 목요일

아침 9시, 저는 구세주께 보그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래,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는 구세주께 러시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한 경고를 ‘빌트 암 손ntag’의 편집장에게 보내야 하는지 물었다.

구세주께서는 오늘 중으로 처리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991년 12월 6일 - 금요일

나는 오전 8시 25분경 병원의 예배당에 가서 그 편지가 게재되도록 기도했다. 기도하는 동안 나는 구세주께 그 편지가 괜찮은지 물었다. 대답: “네 편지는 좋다.” 나는 은혜를 받았고, 구세주를 사랑한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구세주께서는 이에 대해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한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로트(Rot)의 교회에서: 나는 구세주님께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는 “오직 금식과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구세주님께, 제가 죄인인데도 왜 하필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자문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르노라.”

1991년 12월 7일 — 토요일

이른 아침, 나는 밋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성체 성사를 모셨다. 성체 성사를 마친 후,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선교사에게 말해 보아라.”

나는 선교사에게 나의 회심과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눈물을 흘렸다. 오후에는 란터스호펜의 신학도 프리돌린 카일하우어와 함께 기도했다.

1991년 12월 8일 — 일요일

오전에는 로트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 역시 교회에 머물며 기도했는데, 이는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축일인 이날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 후 약 14시까지 묵상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프리돌린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부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 중 하느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잠시 생각한 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1991년 12월 9일 - 월요일

며칠 전 구세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온 존재를 내게 바쳐라.”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분께 돌려드렸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너는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45분경에 그분께 물었습니다. “구세주님,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드려라.”

그 후, 우리 기도 모임에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기도를 배가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도하르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1991년 12월 10일 —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실: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던지,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기록하라. 나는 내 양들을 사랑하며, 길을 잃은 모든 양들을 되찾고자 한다. 그들을 찾아라. 나를 도와라. 찾아낸 양 한 마리마다 하늘에서 큰 상이 주어질 것이다. 네 목표는 끊임없이 찾는 것이다. 결코 멈추지 마라. 악한 자가 도사리고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구세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라면 네게 힘이 있을 것이다.”

저녁, 로트(Rot)의 교회에서: 나는 그날 어떤 복음서가 읽힐지

어떤 복음서가 읽힐지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구절이 읽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주께서 이미 아침에 그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보그트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다. 성찬을 받았는데, 구주와 하나가 되자마자 아주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말 들리나?”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사제에게 가라

.”는 말이 들려왔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에게 말해라” — 침묵 — “내가 이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말은 마치 강타를 맞은 듯 나를 강타했다. 나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언제 사제님께 가야 하는지 물었다. 그분은 “성체 성사 후에”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께서는 제가 제대로 들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눈물을 펄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타가 제게 다가와 무슨 일이나고 물었습니다. 그 후 스페카르트 부인도 제게 와서 상황을 묻더군요. 두 분은 그 말을 확인해 주시며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속죄의 밤에 이미 겪어본 일이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곧바로 보그트 신부님께 찾아갔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은 제 말을 듣고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제게 지시하신 대로, 제가 신부님과 러시아 전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축복을 청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91년 12월 11일 — 수요일

10시 조금 지난 시각, 의사실에서: 저는 구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주위에는 기분 좋은 평온과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따스함을 느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2시 30분, 병원 예배당에서: 나는 ‘주님의 천사’ 기도를 드리고 구주와 하나가 되었으며, 기분 좋은 온기와 평온함, 고요함을 느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나는 네 마음속에 쉬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료가 여전히 아파서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 평온한 시간을 더 오래 누릴 수 없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쉬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정말로 특별한 기쁨을 느끼게 되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녁, 로쿠스 예배당에서: 뷔르츠부르크의 리타가 부탁했던 대로, 성체 성사를 받기 전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해야 하는지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성체 성사를 받기 몇 시간 전부터 금식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신부님께 전하면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물었더니, 구세주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말해 주겠다. 평안히 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991년 12월 12일 —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의사실: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서, 제가 거짓 예언자인지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나의 종이다.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전쟁이 올 것이다. 나는 네 주님이시며 하느님 이시다. 너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구세주께 어떤 표징이라도 받을 수 없는지 물었다. 구세주: “때가 되면 네게 표징을 주겠다.”

그 표징이 저를 위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오후 12시 15분, 병원 예배당에서: 저는 ‘주님의 천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구세주께 이 표징이 공중에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나타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동의하느냐?”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예수님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를 주님과 결코 떼어 놓지 말아 주세요. 저는 주님을 무척 사랑하니까요.” 저는 구세주께,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드리는 기도가 좋은지,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많이 기도하라. 기도량을 두 배로 늘려라. 모든 기도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금요일

의사 진료실: 저는 기도한 뒤 구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 들어라, 내 딸아. 사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전쟁에 관한 말은 진심이다.”

저는 구세주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 말하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세주님께서는 “그건 내게 맡겨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구세주: “너는 초자연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 외에는 아무도 초자연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내 안에서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꼈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네가 믿는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믿어라.”

저녁, 로트(Rot)의 교회에서. 나는 구세주께 지금까지 쓴 내용이 맞는지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확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1991년 12월 14일 - 토요일

아침 7시, 나는 밁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 있었다. 나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울었다. 그러자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12월 15일 — 일요일

우리는 레겐스부르크로 가서 오전 10시에 카르멜회 수도원에서 미사를 드렸다. 구세주와 하나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목소리를 듣겠느냐?”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구세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겨자씨 한 알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체 성사 후, 저는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가 일기에 적어 둔 내면의 대화들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아직 계셔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서 이미 86세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신성한 지혜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돋보기로 찾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총 600km 이상을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는 테레제 노이만(독일의 신비가이자 성흔을 지닌 성녀)을 언급하며, 그녀가 한때 자신의 죽음 30년 후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무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196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또한 헤롤츠바흐, 메텐부흐 등 이 전쟁을 암시하는 다른 장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물, 양초, 성화 등 물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께서 이 물건들을 특히 정성스럽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제가 그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요리를 했습니다. 배고픈 손님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그하우젤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체성사를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그하우젤 성당 안에서 저는 지옥이 제 주위를 에워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체를 영할 때 상황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무릎을 꿇고 성체를 영하게 해 주기를 거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체를 주기를 꺼리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아베 마리아’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신부님께서 저에게 성체를 주셨습니다. 제 영혼 속에서 매우 강력한 공격을 느꼈습니다. 그 일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후 나는 그 신부를 위해 기도했다.

1991년 12월 16일 - 월요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느꼈기에, 구세주님께 그것이 옳은 일인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에 대해 “나는 국경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시경, 우리 병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병원의 원장인 바이다우어 교수님께서 연설을 하시고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직장 곳곳에서 열리는 모든 크리스마스 행사를 참석하는 것보다 성체를 모시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부르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어 그것은 바리새적인 크리스마스 파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로트로 가는 길에, 파티에 남아 있던 동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임종에 임한 이들과 연옥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성체를 영한 후, 저는 구세주께 오늘 밤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구세주께 그 일에 대해 감사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아침에 직장의 성당에서, 나는 구세주께 어제 저녁 바그하우젤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베르너 에곤 신부님이 처음에 제가 무릎을 꿇고 성체를 영하는 것을 거부하셨고, 그로 인해 제 마음속에 엄청난 공격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나는 구세주께 제 주위에 악마가 몇 마리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네가 그들을 보았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부님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그 신부님께 이 말을 전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저는 그 신부님을 위해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에밀리안 신부님을 찾아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991년 12월 18일 - 수요일

조카와 함께 밉골스하임의 로쿠스 성당에 갔습니다.

성체를 분배할 때, 저는 성체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체를 영할 때 서 있거나 사제 앞 계단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성체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큰 용기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부님이 제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체를 나누어 주신 후, 신부님은 몸을 돌려 제단 쪽으로 두 걸음 정도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힘이 물러난 듯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성체를 주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이것이 옳은 일인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계속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그 용기에 감사하노라.”

저는 구세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용기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병원 예배당에서: 저는 구세주님께 갑자기 죽는 사람이 회개할 시간이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며칠 전 그 주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부님은 심지어 그럴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세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

그 후 저는 구세주님께 하루에 몇 번이나 성체를 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님: “하루에 한 번뿐이며, 영적으로는 원하는 만큼 자주 할 수 있다.”

구세주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성체를 영한다면, 하느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한다면, 열 번째 성체 영성체 후에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91년 12월 19일 - 목요일

어제 알로이스 형제가 걸은 전화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베르너 에곤 신부님이 익명의 편지를 받았으며, 내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알로이스 형제에게

알로이스 형제에게 어차피 바그하우젤에 있는 신부님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더니, 그는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수도원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이 점에 대해 덧붙이자면, 저는 결코 누구에게도 익명의 편지를 쓰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이 훼손되고 있다고 느낄 때면, 저는 직접 사제들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991년 12월 15일에 그곳에서 겪은 일로 인해 바그하우젤의 신부님들을 찾아가야 할지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신부님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해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 후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매일 많이 기도하라.”

1991년 12월 20일 - 금요일

병원 내 예배당에서: 구세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라, 내 딸아. 전쟁이 가까워졌다.” 저는 구세주께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어서 저는 구세주님께 성체 성사를 받기 전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님: “성체 성사 몇 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속죄이다!”

제가 “전할 말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보그트 신부님은 신자들과 함께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성체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 저녁에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 토요일

와그하우젤에서 오전 7시 15분 미사.

성체 미사 전에 미사를 집전하실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알라누스 신부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어둠에 잠겨 있는 것이 보였고, 신부님은 성체 미사를 집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부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도 보였지만, 역시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성체 변용 후 교회 전체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함브슈(Hambsch) 가족 댁에 갔습니다.

저녁에 잔크 씨가 저에게 와서 바그하우젤에 계신 한 신부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신부님의 설교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고 썼으며, 편지에 메지고리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잔크 씨에게 그 신부님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비판하며, 왜 그 신부님께 직접 찾아가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솔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게 겁쟁이처럼 보였습니다. 이제야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 알로이스 형제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베르너 에곤 신부님께 보낸 익명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바그하우젤의 신부님들에게 밀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바그하우젤의 신부님들은 나를 의심할 것이다. 벌써 두 번째로 말이다. 나는 예수님보다 나를 게 없다. 죄는 무고한 이들에게 전가된다.

1991년 12월 22일 - 일요일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하기 전에:

일요일 아침, 나는 약 한 시간 반 동안 특히 보그트 신부님과

바그하우젤의 신부님들을 위해 특별히 약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했다. 나는 교회에서 손으로 박수를 치는 것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다.

구세주: “내 교회는 극장이 아니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에 더 많은 신뢰를 가져야 한다.” 나는 교회에 있던 사제들과 신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했다. 나는 구세주께 언제 나를 고향(천국)으로 데려가실지 물었다.

그분은 “곧”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저에게 두려운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

다. 저는 “아니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오에는 교회에 가서 묵주기도와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에리히와 함께 묵주기도 두 번을 바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녁에 라디오를 들으니, 제가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근처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26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시경,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중에 내 죽음이 순교가 될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만하임에 사는 한 여성이 환상 속에서 내 죽음을 보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꿈쩍한 순교와 화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악마가 활동하고 있음을 느꼈기에,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구세주께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질문에 구세주께서는 “그래, 짧은 순교가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 12월 23일 - 월요일

먼저 집에서 시편 전체와 다른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그 후 영적으로 교감하며, 약 20분 동안 구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고요함이 감돌았고, 제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중요한 내용들만 적고 있습니다. 비록 기록하기가 힘들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지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거의 모두다. 살아남은 자들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죄는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자폭탄을 떠올렸습니다.

구세주: “원자력 발전소들도 지구를 오염시킬 것이다.” 나는 구세주께 나를 위해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다.

구세주: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나에게 충실하고, 굳건히 버티며, 나를 떠나지 마라.”

그 후 나는 구세주께 기도 모임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표징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이 표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만, 주 우리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후 저는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과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구세주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 일 것입니다.

구세주와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네, 구세주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오 11시가 지난 후, 저는 조카 자켈리나와 함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성모 무염시태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라틴어로 ‘살베 레지나’를 불렀습니다. 숲 한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많은 새들이 날아와 함께 노래하고 지저귀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더니 더 이상 불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살베 레지나’ 노래를 다 부르고 나자, 새들은 날아가 버렸고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들과 관련된 이런 일은 이번이 세 번째였고, 바람이 잦아들었던 일은 두 번째였습니다.

저녁: 기도 모임. 도샤르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찬미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묵주기도와 다른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24. 1991년 12월 — 화요일 — 성탄 전야

성탄 미사에 참석했는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25. 12.91 — 성탄절

성체성사 전에 시편을 바쳤고, 그 후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약 20분 동안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도하르트 신부님과 이야기했던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내가 네게 하는 말은 너를 위한 것이며, 사제들을 위한 것이며,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가 원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사제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 1992년 12월 - 성탄절 이튿날

음악회가 미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저는 성체 성사 연도기도와 성심 연도기도를 바쳤습니다.

나는 구세주와 깊이 하나 될 수 있었고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27. 12.91 - 금요일

저녁에 로트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8. 12.91 — 토요일

시편 전체를 바쳤습니다.

29. 12.91 — 일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미사 전에 시편을 바쳤다. 영적으로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어 처음으로 가족에 대해 여쭙었다. 가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물었다. 구세주님: “그들은 모두 넓은 길 위에 있다. 원한다면 아직 돌아올 수 있다.” 남편과 자켈리나에 대해서도 여쭙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족에 대해 묻는 동안, 저는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이곳 독일에 살고 있는 살아계신 형제자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30. 1991년 12월 - 월요일

에르벤 씨가 저에게 구세주님께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세주: “그가 택한 길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구세주께 마리아 이텐(라젠크로이트)의 회보가 옳은지 물었다.

구세주: “그 편지는 옳다. 많이 복사해 두어라. 믿지 않는 자들은 내게 맡겨라.” 나는 도하르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렸다.

31. 1991년 9월 12일 — 화요일

병원에서: 저는 구세주님께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해

라. 그것은 불결한 영들의 싸움이다.” 하지만 저는 구세주님께 그가 어제 고해성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그는 다시 죄를 지었다.”

저는 구세주님께 남편이 신부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세주님: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지 않았어.”

도하르트 신부님이 제우테른 출신 데리스 씨의 자택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도하르트 신부님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가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내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저는 구세주님께 어제의 기도가 좋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좋았어, 내 마음에 들었어.”

정오 12시, 병원 내 성당에서: 구세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시간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말했습니다. “오, 구세주님, 이제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구세주께서 이에 대답하셨습니다. “네 영혼은 이제 깨끗해졌구나.” 저는 이

제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세주: “네가 나에게 마음을 더 잘 열었기 때문이야.”

저는 구세주님께 올해가 끝날 무렵 저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 “

계속해라, 내 딸아.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든다.” 제가 기도실을 지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지으라.”

그러자 저는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새해 전야:

그날 밤 나는 슬펐고, 눈물을 펄펄 흘렸다. 자정 12시에 터지는 폭죽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나는 기도했다.

1992년 1월 1일 - 수요일

붉은 예복을 입고 미사를 드렸다. 미사가 끝난 후, 나는 스페카르트 부인과 함께 기도 모임에서 낭독되었던 아이젠베르크의 사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길가에 서 있자, 악마가 약 5분 동안 지옥 같은 악취를 풍겨서 나는 성수를 뿌렸다. 그러자 악취는 즉시 사라졌다.

16:00부터 19:00까지 신학도인 아르투르 바그너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라틴어로 기도하기도 했다.

지글러 씨가 자신이 쓴 책

『메지고리에—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화 제안』에서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구세주: “이름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후 저는 시현자 이반에 대해서도 여쭙보았습니다. 이반은 종종 독일의 이웃 마을에 머무릅니다. 저는 구세주께, 제가 메지고리에에 있을 때 그를 자주 찾아뵈었는데, 왜 그가 저를 찾아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메지고리에서 그를 자주 만났었거든요.

구세주께서는 이에 대해 “그건 내게 맡겨 두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시 10분:

저는 『메지고리에—최신 소식』 12면에 실린 막스 튀르카우프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 제목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였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에 대해 “믿음은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잡지 『메지고리에—아크톨』을 읽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 잡지는 읽을 필요가 없다. ‘작은 영혼들’의 책이 그런 잡지 수백만 권보다 더 중요하다.”

그 후, 남편이 너무 자주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저는 악마를 떠올렸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악마들이 많아. 그것이 그의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은 악마에 사로잡힌 상태다. 너는 이를 통해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나에 대해 하는 나쁜 말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세주: “사람들은 악마가 하는 말을 훨씬 더 믿는다.

진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녁, 로트(Rot)의 교회에서:

성체 성사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께 17시 20분에 남편에게 ‘빙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물었습니다.

17시 20분경, 남편이 정신이 나갔다는 이유로 한 말이 옳았는지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옳은 일이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다.

1992년 1월 3일 — 성심 금요일

로트 교회에서 성체성사를 드렸습니다.

1992년 1월 4일 — 토요일

밍골스하임에 계신 병든 뮐러 신부님을 방문했다. 그분과 약 45분간 대화를 나눴다. 나중에 구세주님께 내가 말을 잘했는지 여쭙어 보았다.

구세주: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말한 것이다.” 이 대화는 하느님께서

원하신 것이었다.

대화가 끝난 후, 그분께 고해성사를 드렸다.

1992년 1월 5일 — 일요일

미사 전에 악마가 마리아 이텐(아이젠베르크)의 회보 사본을 태워버렸다. 내 침실이 거의 불타버릴 뻔했다.

1992년 1월 6일 — 월요일, 주현절

로트에서 열린 HI. 미사와 묵상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992년 1월 7일 - 화요일

10시 의사실: 전날 하루에 두 번 성체성사를 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세주님께 하루에 한 번만 성체성사를 받는 것이 옳은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하루에 한 번이 옳다.”

그 후 저는 구세주님께 이 사실을 사제들에게 말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사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구세주님께, 하루에 한 번만 성체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도 모임에 알리면 그 기도 모임을 잃게 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비록 그들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자 저는 구세주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단 한 번뿐이다.”

저는 구세주님께 제가 그렇게 쓴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네가 제대로 적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새해 전야에 보그트 신부님이 성체를 분배해 준 평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보그트 신부님이 그렇게 감사를 표한 것이 옳은 일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 일로 그는 나를 상처 입혔다.”

그리고 나서 저는 구세주님께 평신도들이 더 이상 성체를 나누어 주지 않는 모습을 제가 살아생전 볼 수 있을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네가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라.”

그 후 저는 구세주님께(병원에서 대략 12시경) 토요일 저녁 미사가 일요일 미사인지 물었습니다.

미사가 주일 미사인지 물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세주: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니,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1992년 1월 8일 - 수요일

저녁, 밁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체 영성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개신교 수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구세주께 성찬식과 성체 영성체가 같은 것인지 물었다.

구세주: “개신교 사제는 성체 변화의 능력과 권능이 없다. 당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1992년 1월 9일 — 목요일

10시 15분, 의사실: 기도 중에 나는 구세주님께 믿을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분께 말씀하시기 전에, 내 안에 남아 있는 의심을 없애 주시고, 나의 인간성을 신성으로 입혀 주시며, 순결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런 다음 저는 그분께 언제 본당 신부님인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가야 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에서 전쟁이 닥쳐오고 있다. 그 신부는 성체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미사 전에 신자들과 함께 함께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

저는 구세주께, 제가 그분께 이 말을 전하면 그분도 함께 기도해 주실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네, 그분도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로사리오를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성체 앞에 바쳐야 하는지 아닌지 다시 물었습니다.

구세주: “사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

다음 질문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일 기도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구세주: “매일.”

제가 신부님을 찾아갈 때 구세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지 묻자, 그분은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2.20 병원 내 성당: 나는 성당에서 기도했다.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보그트 신부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분께 여쭙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표현 방식에 관한 것이었고,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와 “해야만 한다” 중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몰랐다.

구세주: “내 딸아, 들어라. 그분은 매일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려야 한다.” 일을 마친 후 다시 기도했다. 기도하느라 정신이 팔려 바우하우스 앞에서 남편을 데리러 가는 것을 깜빡했다. 30분이나 늦었다.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두 번째 묵주기도를 드렸고, 남편과 함께 세 번째 묵주기도를 드렸다. 특히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모 마리아 상 앞으로 가서, 하느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언가가 제 마음을 재촉하며,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가야 할지 말지에 대해 제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십자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언제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가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미사가 끝난 후에 가라.”

저는 신부님께서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저는 이에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분께 찾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체 성사 후, 아직 교회에 남아 있던 기도 모임의 몇몇 분들에게 제가 보그트 신부님을 만나러 가야 하니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사제관 문 앞에서 신부님을 만나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신부님은 “금방요.”라고 말씀하셨지만 평소만큼 친절하지는 않으셨고, “단 몇 분만요.”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면담실에 들어서자, 저는 모든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체를 분배하는 평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함으로써 주님을 상처 입혔다고 말씀드렸을 때, 신부님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어서 저는 보그트 신부님께, 구세주께서 이미 성체 분배는 사제의 임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구세주께서 미사 전에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원하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불안해하며, 구세주께서 그에게 사제들을 보내 주시라고 하라고, 자신은 제대 봉사자들만으로도 할 일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그트 신부님은 미사 전에 이미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신부님과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축복을 청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구세주님께 기도드리며, 성체 분배 보조자들에 대한 신부님의 아픔 때문에 제가 신부님께 뭔가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아닌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네가 옳게 말했단다, 내 딸아. 그분은 내 아픔을 알고 계시니.” 나는 구세주께 신부님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그건 내게 맡겨라.”

그 후 저는 구세주님께 그 신부님이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님: “내 딸아, 그가 기도하게 될 때가 아직 올 것이다.”

1992년 1월 10일 — 금요일

오전 10시 15분, 의사실: 나는 많이 기도한 뒤 구세주께 보그트 신부님이 사제들을 더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세주: “만약 그에게 사제가 더 많다면, 그가 계속 손으로 성체를 나눠줄까?”

내가 제대로 적어 놓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제대로 적었구나.”

14시 15분: 나는 구세주께, 만약 신부님이 이 모든 일, 즉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더 이상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입으로만 성체를 영하게 하여 많은 영혼이 회심하게 된다면, 내가 구세주님께 충실하고 결코 그분께 등을 돌리지 않으며, 이 고통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대가로 열린 성흔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이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했다.

구세주: “그래, 제대로 썼구나.”

추신: 드러난 상처 자국이 끔찍한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통해 구세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구세주님과 함께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1992년 1월 11일 - 토요일

나는 바그하우젤에서 이른 아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 성변식 중에 어둠 속에 서 계신 베네딕트 신부님을 보았습니다.

신부님 주위는 반쯤 어두웠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이 광경을 보았고, 구세주님께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너는 고통받는 예수를 보고 있다.” 그 후 나는 신부님을 위해 많이 기도했다.

11시 정각에 조카 자켈리나와 함께 뉴에이지 운동이 확산되지 않고, 그 운동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기도했다.

17시 00분에 밉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저녁 20시경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는 다시 뉴에이지 운동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탄 미사에 맞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23시경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전하며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992년 1월 12일 — 일요일

미사 전부터 이미 묵주기도 두 번과 예수님 연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략

11시 40분경, 보그트 신부님께서 시어머니 댁에 오셔서 시어머니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신부님은 금세 다시 떠나셨고, 신부님이 가신 후 저는 울었습니다. 이미 8년 동안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신부님은 단 1분도 위층에 올라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가슴 아팠고, 저는 침실에 있는 큰 십자가를 꺼내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치 눈물이 싹 사라진 것처럼 울음을 그쳤고, 그때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라. 보그트 신부님은 의심과 경외심을 품고 있다.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는 나아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기뻐하며 13시 00분에 교회로 가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를 드리고, 기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17시 00분에 마르가 F. 씨가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에리히 씨도 합류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19시, 저는 밉골스하임의 로쿠스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우리 기도실을 위한 기부금을 기대해도 될지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뭘러 씨가 너를 조금 도와줄 것이다.”

그 후, 구세주께서는 우리 사이의 내적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곧 악마가 남편 곁에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혈의 연도, 성심 연도, 라우레타노 연도 및 다른 기도들을 바쳤습니다. 그 후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1992년 1월 13일 - 월요일

매일 아침처럼 남편과 저는 하이델베르크로 가는 길에 묵주 한 단, 주님의 천사 기도, 마니피카트, 살베 레지나, 성령 기도 두 번, 성모 마리아 연도, 파티마 기도, 대천사 미카엘 기도, 수호천사 기도, 성심 기도, 산투스, 글로리아, 그리고 코르 제수 사크라티시무스를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을 바우하우스에 내려주고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환자들이 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대략 10시쯤 되면 진료실로 가서 환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담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진료실에서 계속 기도하며,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성수를 뿌리고, 베네딕투스 십자가로 환자들과 의사, 간호사, 그 외 직원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구세주님과 영적으로 교감합니다.

오늘은 10시 10분경에 의사실에 있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사제를 더 원하셨기 때문에, 구세주님께서 1992년 1월 10일에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제가 그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했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들리느냐?” 나: “네, 주님.”

구세주: “만약 그가 사제를 더 많이 갖게 된다면, 계속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줄 것인가?”

그것은 사흘 전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세주: “그분께 말씀드리거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구세주께, 그 때문에 저를 파문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네.”

구세주: “나에게 충실해라.”

나는 다시 물었다. “그 말은, 그들이 나를 파문하겠다는 뜻인가요?” 구세주: “너는 파문당할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이상 파문당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파문당할 것이다.” 나: “그건 큰 고통이 될 거예요.”

구세주: “하지만 너는 나로부터 파문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구세주께 파문의 이유가 평신도와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 때문인지 물었다.

구세주: “그래, 평신도와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행 때문이야. 그게 이유일 거야. 네가 제대로 맞췄어.”

나는 구세주께 내가 제대로 적어 놓았는지, 그리고 보그트 신부님께 가야 하는지 물었다.

구세주: “네가 제대로 적어 놓았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분께 가거라.”

오늘 구세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저는 그분께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을 믿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의심을 없애 주시고, 제 영혼을 정화해 주시며, 제 인간성을 벗겨내시고 주님의 신성으로 저를 입혀 주십시오.”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소유를 원한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저 또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세주께, 제가 파문당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하러 올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심지어 많이 올 것이다.”

저는 구세주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제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도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제가 이를 적어 둔 방식이 마음에 드시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너는 이미 알고 있구나, 내 딸아.”

그 후, 제가 기도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도하르트 신부님께 파문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네가 모든 것을 말해도 좋다. 나는 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심어주는 것은 모두 진리다. 평안히 가거라.”

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12시 10분, 병원 내 성당에서: 안젤루스 기도 중, 구세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기 전에 항상 묻는다. 소유물 — 모든 것. 네 영혼, 네 육체.”

나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았고, 마치 내 마음에 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특별한 평온과 사랑, 평화를 가슴 속에서 느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교회에서 성체 성사를 모시는 동안, 저는 구세주님께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도 모임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래도 돼, 벌써부터 기쁘구나.”

저녁 기도 모임에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고, 그 후 저는 구세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이미 뷔르츠부르크의 뮐러 씨와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지만(뮐러 씨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계셨다), 저녁 기도 모임에서도 구주님과의 대화 내용을 다시 이야기했다.

1992년 1월 14일 -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실: 저는 구세주님께 교황님을 찾아가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제게 닥칠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교황님께 편지를 써야 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분께 가거라, 내 딸아. 네가 그분께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나: “동행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세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구세주님, 그분과 대화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구세주: “내 딸아, 그분이 네게 말 씀하실 것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 기도를 많이 드리며 그분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세주: “고마워,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정오 12시, 안젤루스 기도 후 성당에서: 저는 제 영적 지도자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 가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아직은 아니야. 네가 하는 일은 모두 옳으니, 계속 그렇게 해. 보그트 신부님께도 아직 가지 말고, 먼저 그분을 위해 기도해라.”

저녁, 로트(Rot)의 교회에서: 보그트 신부님께서 성체성사 때 성체를 내 입술과 이빨에 너무나 세게 밀어 넣으셔서, 이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서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을 위해 많이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1월 15일 - 수요일

10시 10분, 의사실: 어제 성 보그트 신부님께서 성체를 예의 바르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구세주님께 그분에 대해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부정한 영이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고, 성체를 빨리 나누어 주도록 재촉했다.” 성체 분배자인 베네부쉬 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기에, 구세주께 베네부쉬 부인은 성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은 모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 “하지만 주님, 성체 분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 구세주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구세주: “만약 네가 하느님을 경외했다면, 성체를 나눠주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구세주께 사제가 신자들에게 손으로 성체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 신자들이 이미 무릎을 꿇고 있는데 사제가 강제로 일어서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는 악마의 명령을 듣고 강제로 일어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후 2시 30분, 엑스레이실: 저는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평신도로부터 성체를 모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네가 그것을 받으면, 네가 악마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쪽에서 평신도가 성체를 나누어 주고 있어서, 제가 앉은 채로 성체를 받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면요?

구세주: “그러면 너는 비겁한 것이며, 악마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체성사 줄로 갈 수 있고, 평신도가 제게 다가오면 구세주께 절을 드린 뒤, 성체는 받지 않고 영적으로 성체를 영한 뒤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주교들이 평신도가 성체를 나누어 주는 것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세주: “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구세주님께, 신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외로워질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사람들 앞에서는 외로울지 모르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오후에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밁골스하임의 로쿠스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체 성사 미사 전에 십자가의 길 여섯 단을 기도했습니다.

비록 4일 전에 고해성사를 받았지만, 다시 고해성사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마친 후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행복했으며, 영혼이 깨끗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교황 성하를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1992년 1월 16일 - 목요일

10시 10분 - 진료실: 구세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이미 며칠 동안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하며 구세주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언제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가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잘 들어라, 내 딸아. 오늘 당장 그에게 가거라. 그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구세주: “너는 항상 무슨 말을 할지 걱정만 하네. 내가 너를 대신해 말해 주겠다.”

저는 일기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건 가져가도 된다.”

그 후 침묵이 흘렀고, 한동안 구세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침묵을 지켜야 한다. 악한 자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도 끼어들어 너에게 말하려 할 것이니.”

나: “주님이자 하나님하신 분, 저에게 해주신 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 너무나 아름다워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해야 할 진주처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듯이,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구세주: “잘 말했구나.”

제가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부정한 영이 끼어들 때 특별한 징조가 있습니까?”

구세주: “그것은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저는 정말 아름다운 평온과 평화,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구세주: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나는 항상 네 곁에 있단다, 내 딸아.” “제 영혼이 이제 아름답고 순수해진 것 같아요.”

저는 엑스레이실로 불러갔습니다. 윌러 사의 엔지니어인 플라이데러 씨가 장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저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 장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플라이데러 씨는 큰 회의론자라서 교황을 끔찍하게 비난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님께서 제게 적절한 말을 주셨고, 그는 만족한 채로 떠났습니다.

12시, 안젤루스 기도 후: 기도가 끝난 뒤, 나는 구세주께 불결한 영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징후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또한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뵙는 것이 두렵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보아라, 내 딸아, 그 두려움 말이야. 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않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구세주: “그렇지. 불결한 영은 두려움을 속삭이는 법이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의심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인가요?” 구세주: “그래, 그다음은 불안이지.”

구세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안 되겠네요.” 구세주: “많이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라.”

오후에 나는 보그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그분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구세주께서 그분을 위해 내게 전하신 말씀을 전해 드리기 위해 잠깐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러자 그는 17시 30분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고통의 묵주를 바쳤고, 집에 도착한 후에는 축귀 기도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길 7, 8, 9, 10, 11번째 정거장을 바쳤다.

마음속으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로 가서 구유 앞에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정각 17시 30분에 보그트 신부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보그트 신부님을 향한 평화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세주께서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부님께 그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신부님께서 제가 단지 제 마음에 드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따라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신부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건대, 당신은 지금 터져 버릴 겁니다. 당신은 심리학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 신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요.” 신부님: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가톨릭 교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 무엇이 틀렸거나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신부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12월 12일 시어머니를 방문하러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사는 위층에 단 1분도 올라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펄펄 흘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안고 울었으며, 제가 그 신부님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구세주께 여쭙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울음이 그쳤고, 구세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 딸아. 그에게는 의심과 경외심이 있다.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 일화도 신부님께 말씀드렸지만, 신부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나중에 신부님은 “모든 것을 다 지어낼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것 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십자가의 길을 그는 분명 걷지 않을 것이며, 기도 모임에서 이미 그 점을 암시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줄 여유가 없으니,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때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청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원래는 2분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그분과 함께한 시간은 약 25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님을 위해 성체를 봉헌하고, 그분을 위해 기쁨의 목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미사가 시작될 무렵, “그분을 믿습니까?”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신부님을 떠올리며 즉시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세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구세주님, 그 신부님의 말이 옳은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요.”

구세주: “너는 이미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잖아.” 나: “하지만 구세주님, 그건 저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구세주께서는 평소에는 온화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말했구나, 내 딸아.”

“하지만 신부님은 제가 그 모든 말을 스스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라고 제가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구세주: “아무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동시에 내면의 고통도 느꼈다. 왜냐하면 구세주님께서 보그트 목사님 때문에 깊은 모욕을 받으셨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서 계속 보그트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다. 내가 보그트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지 정확히 7일이 지났다.

1992년 1월 17일 - 금요일

제 생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환자, 나토(NATO) 군인인 마르틴 볼프강 Sp. 씨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에게 러시아의 기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매우 불안해 보였고, 나는 그에게서 불결한 영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내 일기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 딸아, 러시아에서 전쟁이 닥쳐올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자 그는 더욱 안절부절못하며 마치 장군처럼 단호한 어조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똑같은 어조로 “예수 따위는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살아 계시잖아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누가 내가 산다고 했나?”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어조를 유지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한 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가 말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나? 신 따위는 없어!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나?”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약 다음 시간에 신이 당신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후 나는 그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고, 밖에서 윈트겐 사진을 기다리라고 부탁했다. 그와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는 마치 온 군대의 악마들이 그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저는 모든 곳에 성수를 뿌렸습니다.

약 한 시간 반 뒤, 10시 10분경 의사실에서: 나는 기도하며 생일 선물로 이 환자, 즉 나토(NATO) 군인이 회심하기를 소원했다. 이 사람에게 악마가 깃들어 있음을 느꼈기에, 구세주께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물었다.

구세주: “내 딸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야말로 루시퍼 악마다. 그 영혼은 이미 죽었다.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없다.”

그러자 저는 두 번째 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항상 충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세주: “내가 이를 확증하노라.”

제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구세주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건 제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구세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믿어라.” 나: “이 붉은 장미 꽃다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붉은 빛이 감도는 교회에서: 수녀님께서 성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저는 평신도에게서 성체를 받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수녀님께서 저를 지나쳐 가셨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오셨고, 저는 그분으로부터 성체를 모셨습니다.

성체를 영했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동안, 구세주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저는 그 강렬한 불안감이 무엇이었는지 그분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것은 사탄이었다. 그는 네 영혼을 파괴하려 했으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럴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한 커다란 빨간 장미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 꽃다발은 구세주님과 오늘 아침의 대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1992년 1월 18일 - 토요일

바그하우젤에서의 아침 미사: 어둠 속에 에밀리안 신부님과 또 다른 신부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성체 변화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화 후 다시 밝아졌고, 나는 사제 한 분만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 에밀리안 신부님께서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더니 에밀리안 신부님 대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약간의 어둠 속에 계셨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황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본 뒤, 구세주님께 제가 본 것이 사실인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너는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1992년 1월 19일 - 일요일

HI. 붉은 예복 미사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기도회.

남편은 제가 파문당할 거라고 하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정직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정직이든 파문이든 고통은 똑같다.” 나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다섯 번 바쳤다.

저는 시련을 겪고 있었기에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 “그곳에 불결한

영들이 많이 있었느니라.”

나: “그럼 제가 두려워해야겠네요.”

구세주: “내가 네 두려움을 없애 주었다.”

1992년 1월 20일 - 월요일

병원—의사실: 알로이스 형제가 저에게 구주님과 함께 경험한 일들을 너무 널리 알리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주입하는 모든 것을 말하라. —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한다.” 그

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나는 도하르트 신부님에 대해 물었다.

구세주: “그분께도 말해도 된다. 보그트 신부님 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나는 사제들에게 내 말을 전하면 그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해 줄지 걱정되었다.

구세주: “네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사제들이 무언가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내게 맡겨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이끄는 것의 삼분의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말했다. “바그하우젤에 성체 영성대들을 선물해 주세요.”

구세주: “내가 그들에게 성체 영성대 의자를 선물하면, 신자들은 다시 손으로 성체를 영하게 될 것이다.”

저녁 기도 모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해성사가 있었고 구세주를 경배했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후 남편이 저를 심하게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남편에게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도 옳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1992년 1월 21일 화요일

전날 저녁, 나는 로트의 교회에 있었다. 성체 분배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성체 분배 보조자인 안톤 씨가 내게 다가와 성체를 건네주려 했다. 나는 구세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성체는 받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고, 구세주께서 내게 오셨으며, 그 영적 연합을 통해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점심시간, 병원 내 성당에서 저는 구세주님께 전달 제가 옳은 일을 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옳았어. 아주 잘했어.”

저녁, 로트(Rot)의 교회에서: 성체 성사 미사 전에 영원한 등불이 또다시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한 제대 봉사자를 발견하고 신부님께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자, 나는 묵주기도 대신 계속해서 ‘산크투스’를 바쳤다. 그러고는 나의 수호천사, 성 미카엘 대천사, 라파엘, 가브리엘, 성모 마리아, 성 요셉께 기도하여, 영원한 등불을 켜줄 신부를 데려오시도록 청했다.

신부님이 오셔서 전나무들 쪽으로 가셨다가, 영원한 등불을 켜지 않은 채 다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산투스’를, 묵주 한 단 분량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당 관리인 부인이 오셔서 영원한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영원한 등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저는 내적으로 불안해집니다.

1992년 1월 22일 - 수요일

이른 아침, 남편이 밤에 제가 괴로워하며 큰 소리로 신음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10시 10분, 진료실: 나는 구세주님께 밤에 불결한 영들이 내게 왔었는지 물었다. 구세주님: “그래, 내 딸아, 여러 마리가 있었단다. 그들은 네 영혼을 파괴하려 하지만, 내가 네 곁에 있으니 그럴 수 없단다.”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적어 놓았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그렇다.”

12시 30분, 예배당: 기도가 끝난 후 구세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간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한 번은 구세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나는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구세주: “이것은 너를 위해서, 사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후 저는 구세주님께, 불결한 영이 활동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다른 징후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혼란, 믿음의 결핍,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다.”

며칠 전, 구세주께서는 이미 불결한 영이 의심과 불안, 두려움을 동반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나는 노이부르크 수도원에 있었다. 스비드베르트 신부님께 내 일기를 맡겼다. 신부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다. 그분께 고해성사를 드렸고, 신부님께서 나를 위해 축귀 기도를 해주셨다. 수도원을 나왔을 때, 나와 함께 시내로 돌아가려고 한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오늘 이미 시편을 바쳤는지 물었다. 그는 밝게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는 “성령이시여, 제 안에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라는 기도도 이미 바쳤는지 물었다. 그는 “네”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차에 태웠다. 그가 차에 앉자마자, 나는 즉시 그에게 불결한 영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농담 삼아 그에게 말했다. “자신에게 불결한 영이 깃들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전 많이 가지고 있어요. — 그 중 하나는 이름이 뭐죠?” 저는 구세주께 여쭙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차가 달리는 내내 끊임없이 코를 콧물 콧물 거리며 이상하게 행동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밉골스하임에 있는 로쿠스 예배당으로 가서 성체성사를 받았다.

성체 성사 후, 내 안에는 평온과 온기, 그리고 평화가 깃들었다. 나는 차에 태워 준 그 남자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내가 네 영혼을 거룩하게 하노라.”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미 며칠 동안 불결한 영과 싸워왔기 때문에, 나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영혼은 분명 찢겨진 닭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며 나는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우리 가족 중 한 명인 한 남자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이혼 상태이지만, 평생 교회에 간 적이 고작 몇 번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손톱을 뜯으며 매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잘못을 찾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다른 방으로 가서 그와 내 남편을 위해 축귀 기도를 드렸습니다.

1992년 1월 23일 - 목요일

차에 태워 준 그 남자에 대해 구세주님께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그에게서 악마들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악마들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구세주: “가장 윗자리는 루시퍼다. 여러 마리가 있었다. 가장 윗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이 네 주위에 있을 때는 항상 여러 마리가 함께 있다.”

나는 구세주님께 이미 루시퍼와 싸우고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님: “그래, 내 딸아, 너는 이미 여러 번 그와 싸워왔다.” 하지만 나는 그와 싸울 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세주: “그래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루시퍼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로우며 누구든지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저는 구세주께, 화요일에 보그트 신부님이 교회에 계셨는데도 왜 영원한 등불을 켜지 않았는지, 반면 메스너 부인은 나중에 와서야 영원한 등불을 켜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보라, 너는 살아 있다.”

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다시 물었다. 구세주: “이미 죽은 이들이 많다. 그들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고, 더 이상 볼 수도 없다.”

그 후 저는 텔레비전에 대해 물었습니다.

구세주: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우상 숭배자다.”

제가 텔레비전을 부셔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먼저 텔레비전을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숴버렸다. 이제 아무도 그걸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텔레비전이 산 지 겨우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유혹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팔 생각은 없었다.

저녁: HI. 붉은 미사:

저는 구세주님께 텔레비전 문제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네가 옳은 일을 했다. 그것은 나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그 후 구세주님께 성반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제가 “만약 주님께서 제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하실지 물었습니다. 성체를 패테나를 사용해 영성체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고 영성체하는 것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말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에게서는 무관심한 일이 아니야. 나는 사제들에게 항상 성반을 사용하도록 권할 것이다.” 그래서 보그트 신부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사랑으로 그분께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

어제 제가 엑소시즘 기도를 드렸던 그 남자가 오늘 병원에 찾아와, 밤새 잠을 못 자고 땀에 흠뻑 젖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받으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992년 1월 24일 - 금요일

HI. 붉은 예복 미사.

동거 중인 한 젊은 부부가 이미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와, 스위스 생갈렌 근처의 발현 장소에 관한 영화를 함께 보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곳으로 가도록 꽤나 강하게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화를 볼 필요는 없다.”

1992년 1월 25일 - 토요일

와그하우젤에서 오전 7시 15분 미사:

변화 예식 직전, 어둠 속에서 신부님이 벽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베르너 에곤 신부님이셨습니다. 변화 예식이 끝난 후에는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 에곤 신부님은 다른 신부님들처럼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으신 것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12시 15분, 집에서 ‘주님의 천사’ 기도를 마친 후 영적으로 성체를 영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베르너 에곤 신부님이 왜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는 할 수 없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구세주: “사탄이 그가 말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야.”

이제 어둠 속에서 본 신부님이 네 분째입니다.

비록 오늘 그런 광경을 보지 않기 위해 와그하우젤에 가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차라리 밉골스하임에 있는 로쿠스 예배당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차를 그렇게 주차해 놓아서 제가 차를 몰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늦게 되어, 미사가 시작되는 7시에 밉골스하임에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내가 바그하우젤로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17시 15분: 나는 눈물을 펄펄 흘리며, 이 일기를 누구를 위해 써야 할지, 과연 누군가 읽을지조차 의문이 들었다. 나는 구세주께 이 일기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쭙었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W.에 있는 마리온을 위해, 그녀가 타자기로 일기를 쓰는 것이 옳은지 여쭙었다. 구세주: “그래, 나도 그녀에게 그 은총을 주었노라.”

1992년 1월 26일 - 일요일

보그트 신부님은 일요일에 아프셔서 미사를 집전하실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목주기도와 다른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가련한 영혼들과 아직 연옥에 있는 사제 및 수도자들을 위해 촛불을 켜고, 그들을 위해 성수를 뿌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미사를 집전하는 베네부쉬 양에 대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것은 완전히 그릇된 가르침이다.

저는 구세주님께 그 사제가 이미 승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님: “그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 “기도 모임에서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저는 사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함브슈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구세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과 모순된다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저는 평신도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물었고, 성체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사람들은 공범이다.’

나: “왜 사람들이요?”

구세주: “그들을 위해(평신도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하지만 제 시어머니처럼 그런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구세주: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저는 ‘눈이 멀었다’라고 쓰고 싶지 않았지만, 구세주께서 제게 “그렇게 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교화하기 어렵다.” 나: “나의 구세주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세주: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 “나의 구세주님,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모독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게 되잖아요.” 구세주: “그래, 나는 이미 오랫동안 그래 왔어.”

나: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구세주: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 “그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나는 여전히 고통받는 예수입니다.”

저녁에 로쿠스 예배당에서 성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타자기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월 27일 - 월요일

나는 구세주님께 말씀 예배에 대해 여쭙었고, 주교님들이 이를 지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다.

구세주: “그것을 지지하는 주교들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마라.” 구세주: “내 말을 들어라, 내 딸아.”

나: “저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 곁에 계신다고 항상 믿을 것입니다.” 구세주: “그래, 그렇게 믿어라, 내 딸아.”

나: “무언가 닥쳐올 때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구세주: “사탄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너는 주교와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말해 주겠다. 나에게 충실하고 굳건히 버텨라. 사탄은 네게 많은 잘못을 탓할 것이다. 그것들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것들은 교회가 저지르는 잘못들이다. 너는 많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위협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진리에 충실하라.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인내심을 기르라.”

나: “이 따뜻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로트(Rot)의 교회에서 영혼을 위한 미사가 있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은 병가 중이셨습니다. 베테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 후 20시 — 기도 모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의 성당에서 저와 함께 ‘주님의 천사’ 기도를 자주 바치곤 했던 홀거가 오늘 처음으로 제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히르슈호른에서 온 크리스토프와 함께 왔습니다.

저는 독감에 걸려 병가 중입니다.

1992년 1월 28일 — 화요일

침대에 누워 기도했다. 어제 저녁 프리돌린이 전화를 걸어와, 클로드가 사는 룩셈부르크 지역에 예전에 성모 발현이 있었는지 구세주께 여쭙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저는 프리돌린에게 구세주님께 그런 것을 여쭙보는 것이 부끄럽고, 과연 그렇게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기심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 후, 영적 성체성사를 통해 구세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에 결국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맞다. 그곳에서 성모 발현이 있었다.” 단 한 번뿐이었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여러 번이었어.”

누군가 초인종을 세 번 눌렀지만, 제가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며 다시 구세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대신하는 베테 신부님에 대해 여쭙보았습니다. 그분은 성체를 너무 빨리 나눠주셔서, 제가 입에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이것이 제 탓인지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그 사제는 경외심 없이 성체를 나누어 주고 있다.”

9시 25분에 다시 방해를 받았습니다. 프리돌린이 다시 전화를 걸어 룩셈부르크에서 일어난 발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 나는 세 번째로 구세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계속 물었다.

“구세주님, 신부님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체를 그렇게 서둘러 나누어 주셨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성체 분배 도우미가 없었기 때문인지 다시 물었다.

구세주: “그래, 그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다. 불결한 영은 먼저 사제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한다.”

나는 에리히가 베테 신부님이 그렇게 하신 방식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세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니다.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본다.”

성체를 영할 때 성체가 입 밖으로 반쯤 빠져나와 있었기에, 나는 손가락으로 성체를 입 안으로 밀어 넣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더니, 바로 그 순간 성체가 제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구세주님께 어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여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들었을 당시, 저는 아직 구세주님과 하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건 네 수호천사였어. 그분은 너에게 자주 말씀하시지.”

나: “수호천사를 공경하고 그분께 기도드리는데 참 다행이네요.” 어제 저녁 기도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사적으로 성체를 영하는 동안, 저는

구세주와 영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미 붉은색 교회에서 성체 성사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몇 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구세주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그게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부정한 영이 몰래 들어와 내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 영은 내 존재를 느끼고 물러나지. 모든 영혼은 자신의 거처에 누가 있는지 주의해야 해. 그 거처가 깨끗하고 비어 있을 때만 내가 들어간다.”

그 후 나는 구세주와 너무나 하나가 되어 그분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신부님인 도하르트 신부님이 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계속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구세주께 그분과의 일치를 끊은 것이 옳은 일인지 물었다. 구세주: “그것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의지 외에는 아무도 너를 나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다.”

어제 제가 눈을 떴을 때,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구세주님과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다면, 그들도 그분과 더 오랫동안 하나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 후 저는 기도 모임 전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혼이시여,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제가 불결한 영에게 눈엣가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직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구절을 마음에 새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깨어 기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

오후 3시에 집에서 성모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를 구세주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클로드 폰 룩셈부르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비록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는 선택받은 자다. 그는 사제가 될 것이다.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구세주: “선택받은 자들은 모두 강한 유혹에 시달린다.” 제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사탄은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한다.” 나: “클로드에게

희망이 있나요?”

구세주: “사탄은 곧 패배할 것이다.”

나: “그럼 희망을 가질 수 있겠네요.” 구세주: “그래,

너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나: “네, 구세주님, 하지만 그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그는 그 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 나는 란더스호펜의 신입생 안드레아스를 위해 구세주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프리돌린이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권해 주었기 때문이다.

구세주: “그것은 그가 겪어야 할 유혹들이다.” 나: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구세주: “부정한 영으로부터입니다. 부정한 영은 사제들이 손으로 성체를 영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구세주: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나: “이 말을 프리돌린에게 전해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 제가 그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프리돌린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 내용을 적어 두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이상하네. 어제 나는 네가 구세주님께 클로드가 선택받은 자인지 물어볼 수 있는지 감히 묻지 못했어.

나도 알고 싶었는데 네가 구세주님께 여쭙어 주었구나. 나는 그에게 이것이 내게 있어 그것이 옳았다는 확인이라고 말했다.

1992년 1월 29일 — 수요일

침대에서 기도했다. 오랫동안 기도한 뒤, 나는 구세주께 내가 큰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님께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큰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울었고, 처음에는 구세주님께 무언가를 여쭙볼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아들이 사제가 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나에게 말거라.”

그다음 저는 성체 분배자들을 거절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지금까지 내가 네게 말한 대로 하라.”

저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처럼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침묵을 지킬 필요는 없

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 “시대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

니다.”

구세주: “내 딸아, 우리에게는 시간이 아주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 또다시 명확하지 않아서, 마치 제가 일하러 갈 때 늦지 않도록 더 빨리 가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리고 나는 너희가 필요한 곳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 나: “하지만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구세주: “나에게는.”

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는 거군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세주: “아주 소수뿐이다. 그들은 모

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나: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그들은 모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시간이 충분했어.”

나: “이토록 많은 잔혹함과 경외심 없는 행동들. 저는 세상이 큰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구세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없다.”

나: “주님, 주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오, 내 딸아, 그 영원은 흉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단다.”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더 이상 구세주님께 묻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마음속으로 소화해야겠습니다.

나: “오 주님, 제가 신부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구세주: “지금 갈 수 있니?” 제가 말했습

니다. “아니요.”

구세주: “나에게 말겨라.”

저는 약 30분 동안 구세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만큼 많이 적지는 못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세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는 항상 집중력을 잃지 않고 평정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오늘 아침 6시 40분부터 9시 50분까지 기도했습니다.

11시 정각에 로트(Rot)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성모 마리아 제단 바로 앞에서 양초 두 개를 켜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 자비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고통의 묵주는 이미 집에서 바친 상태였습니다.

오후에는 숲속을 산책하며 여러 가지 기도를 위해 묵주기도를 여러 번 바쳤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춰 서서 루르드의 아베 마리아를 불렀더니, 갑자기 많은 새들이 다시 나타나 저와 함께 지저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차피 묘지 옆을 지나가게 되어, 코슬 신부님의 무덤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는 밁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 전 묵주기도를 바칠 때, 미사 중, 그리고 미사가 끝난 후에도 저는 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와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92년 1월 30일 — 목요일

침대에서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로쿠스 성당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일에 대해 구세주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네 예수님께서 세상의 상황을 위해 너와 함께 울고 계신다.” 침묵과 깊은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을 너무 적게 하십니다.”

구세주: “사랑하는 하느님은 말을 적게 하신다.” 나: “하지만 저는 당신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구세주: “하지만 너는 이해했구나.” 나: “네.”

어제 저는 성체 영성대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기에, 서서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세주: “성체 성사 때 서거나 무릎을 꿇는 것은, 각자가 나를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 “신자들이 서 있으면,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구세주: “아니요. 그건 교만입니다.”

나: “하지만 사제님들은 서로 성체를 나누어 줄 때 서 계시잖아요.”

구세주: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 계신 사제는 성체를 영할 때 누구에게도 일어서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세주: “부정한 영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으니, 오직 사람이 그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어줄 때만 가능하다.”

구세주: “사람들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전하라. ‘주님, 우리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 제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사탄에 의해 일으켜집니다.”

나: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구세주: “그러므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구세주: “사람들은 ‘주님,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나: “그러니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을 덮칠 수 있는 큰 악이다.”

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구세주: “그렇다.”

나: “사제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구세주: “소수뿐이겠지.”

그 시간 내내 내 안에는 따뜻함과 평온함, 특별한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라, 마치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리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에 저는 특히 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일체감을 느끼는 순간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고, 제게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왜 항상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없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이 저를 찾아오는 걸까요?”라고 저는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구세주: “그것으로부터는 천국에 가야 비로소 해방될 것이다.” 나: “낙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그래, 네가 맞췄구나.”

나: “주님, 나의 하느님, 전심으로, 온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세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9시부터 11시까지 나는 많은 기도와 성령 묵주를 바쳤다. 그 후 약 30분 동안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오늘 밤 2시에서 3시 사이에 고통의 묵주, 상처의 묵주, 그리고 성혈의 연도를 바쳤다는 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숲에서 라틴어로 묵주 두 번과 다른 기도들을 더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묵주를 마친 후, 새들이 다시 저와 함께 ‘루르드의 아베 마리아’를 아름답게 노래해 주었습니다.

이미 며칠째 로쿠스 성당에서 알게 된 레쉬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저를 이끌어 그분께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숲에서 돌아오자마자 성모 마리아 상 앞으로 가서 기도한 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조금 조금한 마음이 들어 내 영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내 안에서 평온함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레쉬 신부님을 찾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구세주님의 뜻인지, 그리고 신부님께서 저와 이야기해 주실지 여쭙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신부님께 가서 뭘 하려는 거니?”

나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이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분께 갈 필요 없다. 오늘은 집에 머물러라.”

처음에는 놀랐지만,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마음속으로 “오늘은 집에 머물러라”라는 말을 되뇌었고, ‘이게 무슨 뜻일까? 구세주께서는 오늘 나를 교회에 오길 원하시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들어 십자 성호를 그었다. 그러고는 다시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그때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내 목소리를 알아듣겠니?”

마음속으로 나는 “그다지 확실하지는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제에게 가라. 그분이 너와 이야기할 것이다.”

저는 구세주께 말씀드렸습니다. “불결한 영이 제게 말한 건 아닌지 주의해야겠네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일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구세주: “지금까지 모든 게 정확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미 네게 그 점을 지적해 주었을 거야.”

그 후 나는 안심하고 레쉬 신부님께 찾아갔다. 나는 대략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다. 신부님께서서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레쉬 신부님은 자르란트 출신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이며, 현재 밍골스하임에서 요양 중이다. 신부님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고, 구세주님께서 어떤 것들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려 하실 테니 계속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반드시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겁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성당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 네 단을 바친 뒤,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레쉬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한 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묵주를 다 바친 후,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어제 처음 저에게 말을 건 것이 악마였습니까?”

구세주: “네.”

나: “그럼 어떤 악마였나요?”

구세주: “루시퍼 악마다. 내가 네가 유혹받도록 허락했다.” 구세주: “그 악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

저는 어제와 그 악마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구세주처럼 온유함이 없었고, 오히려 명령조이며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나는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말을 걸었는데, 왜 그가 제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세주: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거의 모든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다.

나: “어제 레쉬 신부님과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구세주: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죠.”

지금은 오른손과 오른발, 구세주님께서 못에 찢리신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는데, 때로는 덜하고 때로는 더 심합니다. 때로는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건 사탄이다. 하지만 그 심한 고통은 내가 네게서 없애 주겠다.”

이 고통 속에서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고통을 바칩니다” 또는 “수많은 영혼이 이로 인해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종종 고통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제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예수님의 수난과 제 두통을 하나로 합치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8년 전 세례를 받은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은 잘 축성된 성수, 요리용 축성된 소금, 그리고 축성된 양초를 많이 사용합니다. ‘잘 축성되었다’는 것은 옛 전례에 따라 라틴어로 축성되어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옛 전례에서는 축성된 물건들을 위해 축기기도도 바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축성된 물에는 축성된 소금도 넣는데, 현대 사제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축성하십니다. 신부님은 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충분히 할애하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한 후, 저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어 어떤 영혼들이 진흙 속에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예전에 저에게 진흙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다섯 명의 사제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으나, 각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합당하지 않게 성체를 영하는 영혼들이 진흙 속에 있다.” (진흙은 죄를 의미한다.)

구세주: “그 진흙은 나를 역겹게 한다.”

나: “어떤 영혼들이 합당하지 않게 성체를 영합니까?” 구세주: “하느님의 영광을 경멸하는 자들이다!”

구세주: “일 년에 1~2만만 고해 성사를 받고, 개인 고해 성사를 받지 않는 이들은 진흙 속에 있다. (오직)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는 모든 사제들은 진흙 속에 있다. 신자들이 성체를 손에 받는다면, 그들은 하느님께 경외심을 갖지 않았으므로 공범이다.”

나: “그렇다면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의 말씀이 옳았군요. 그분은 합당하지 않게 성체를 영하는 자들이 진흙 속에 빠져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부님들은 다른 말을 하셨어요. 우리 본당 신부님이신 포르트 신부님은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셨어요.” 구세주: “그분들은 내 말을 믿었습니까?”

제가 덧붙여야 할 점은, 제가 추가로 물어본 다른 네 명의 신부님들도 입으로 받는 성체 영성체 외에도 손으로 받는 성체 영성체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브하르트 하이더 신부님은 한 번도 성체를 손에 건네준 적이 없으시며,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오직 입으로만 성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입으로만 성체를 나누어 주는 신부님들을 더 알고 있습니다. 손에 성체를 나누어 주지 않는 이런 신부님들이 아직 계셔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이 진흙이 교회에서 제거되도록 기도하라.” 나: “아, 구세주여,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요.”

구세주: “그리고 나를 향해 가는 좁은 길에 있는 이가 얼마나 적은가.”

넓은 길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밖보다 죄인들이 더 많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너무 버겁고, 마치 이 죄가 제 어깨에 짓누르는 듯합니다. 저는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 “누가 제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구세주: “누가 너를 믿을지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 문제다.”

나: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 후,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깊은 회개를 허락하시며, 그들 안에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빛을 얻어, 그것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가슴 속에 따스함이 느껴졌고 깊은 평안을 얻었으며, 아까까지 지고 있던 짐은 사라졌습니다.

저: “주님, 나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또 거두시나이다.” 그러고 나서 저는 잠시 더 간절히 기도했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큰 기쁨을 안고 한 시간 동안 좋은 책을 더 읽었습니다.

11시 50분: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내면의 목소리가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여성에게서 불결한 영을 느꼈고, 그다음에는 두 남성에게서도 느꼈습니다. 내면에서 공격이 느껴져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자 두통이 시작되어 점점 더 심해졌다. 진료 보조원이 나를 잊고 다른 환자들을 먼저 챙겼다. 나는 성체를 신속히 분배하는 사제들을 위해 이 인내를 봉헌했다. 약 45분이 지났을 때, 진료 보조원이 와서 나를 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를 잊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니까요. 그 환자들 안에는 악령이 들어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이것이 속죄의 고통이며,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를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자신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혈압을 재고는 “그건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예요?”라고 물었습니다.

제 혈압은 180/90이었습니다.

머리가 온통 빨강게 달아올랐고, 두통이 매우 심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집에 오니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두통을 안고 십자가의 길을 기도한 뒤,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말씀에 대한 묵상을 드렸습니다.

오후 3시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후 꽤 기력이 쇠약해졌지만, 오후 3시 30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로트에서 거행된 성체성사를 참례했습니다. 성체를 영한 후, 저는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정오 12시에서 15시 사이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속죄의 고통이었나요?” 구세주: “그래.”

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아니오. 다시 겪고 싶니?”

저: “네, 그것으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하지만 구세주님, 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1992년 2월 1일 — 토요일

7시 15분, 바그하우젤에서 미사 중.

오후에 저는 구세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영원한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저는 로트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영원한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적으로 괴로움을 겪었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누군가를 불러 등불을 켜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네가 아주 잘 했구나.”

저는 구세주님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논의하기 위해 보그트 목사님을 찾아가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조금 더 기다려라.”

나: “그 말은,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구세주: “그렇다.”

17시 10분: 집에 돌아와 바로 보그트 목사님을 위해 약 30분간 기도했습니다. 그 직후 제 영혼에 공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제 곁에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만스럽고 불안하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불결한 영들이 다시 돌아왔음을 알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그 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았는지조차 몰랐는데, 그의 아버지가 세르비아 공산주의 군대의 고위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자주 자존심을 접으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속으로는 마치 세르비아 군대 전체가 저를 덮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기에, 불결한 영들의 군대가 사라지고 분위기가 나아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1992년 2월 2일 - 일요일 — 성모 봉헌 대축일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사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더 심한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좋은 사제를 모시는 것은 악마와 싸우기 위해 많은 힘을 소모하는 일이다. 네가 네 사제를 위해 기도한 것은 정말 많은 것이었다. 좋은 사제는 두 번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나: “불결한 영들이 저를 유혹하기 위해 제 남편을 통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세주: “그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 “하지만 어제 남편과의 그 싸움은 쉼 새 없이 약 3시간이나 계속되었어요.” 구세주: “사탄은 네가 그에게서 많은 영혼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나: “저는 그와 싸우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구세주: “그 두려움은 내가 네게서 없애 주었다.”

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모든 영혼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구세주: “맞아. 하지만 사탄도 그 영혼들을 원해.”

나: “그럼 싸움은 끝없이 계속될 건가요?” 구세주: “그래, 마지막 한 톨까지 갚을 때까지.” 나: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구세주: “마지막 죄가 속죄될 때까지.”

나: “아, 구세주님,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말아야 하나요?”

구세주: “아니, 계속 써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많이 기도해야 한다. 죄가 선을 압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거대한 진흙탕 속에 빠져 있다. 그 진흙탕이 인류를 질식시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적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들을 대신하여, 저는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닥치는 모든 것을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의 마음을 통해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1992년 2월 3일 - 월요일

저는 구세주님께 제 일기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네가 쓴 내용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라. 불결한 영은 언제나 너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나: “다른 이들에게도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구세주: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저는 제 남편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저: “우리 기도 모임에서 무엇이 주님께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구세주: “겸손함이 부족해. 여전히 자만심이 너무 많아.” 나: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나요?”

구세주: “네가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들이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세주: “경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나: “고해성사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더 큰 회개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결심이 부족하다. 나에게 충실하라. 구세주: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나: “구세주님, 제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구세주: “네가 말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나: “그게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세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특히 기도 모임 멤버들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총 1시간 반 정도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는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20시에는 우리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후 도하르트 신부님께도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992년 2월 4일 — 화요일

이른 아침, 저는 약 두 시간 동안 기도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기도 모임에서 저는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고, 그 전에는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하여 성사적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어제 저녁 제가 영적으로 성체를 모실 때 제 곁에 계시지 않았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나는 네 곁에 있었다.”

나: “왜 제 심장이 그렇게 두근거렸나요?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구세주: “네 주님은 원하실 때 말씀하신다.”

구세주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무(無)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온과 평화 속에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만, 침묵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하느님께서 주무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유난히도 편안한 평안을 느꼈다. 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기분이 들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가 품고 있던 의심들을 주님께서 없애 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지요, 감사드립니다. 마치 제 영혼이 어제의 고통에서 치유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진흙 때문에 괴로워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품에 안고 가슴에 기대어 있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여 계속 아버지의 품에서 쉬고 있습니다.

악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오네요. 조금 뒤, 나는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느냐?”

나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주님의 목소리는 좀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들리지도 않았다. 아마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그 수다쟁이인 불결한 영이 또다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를 쫓아내기 위해 다시 기도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떨쳐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놈은 나를 불안과 혼란, 의심에 빠뜨리려고만 할 뿐, 그저 불결한 영일 뿐이니깐요. 저녁에는 로트(Rot)의 교회에서 묵주기도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2월 5일 — 수요일

고해성사를 받을 때 한 신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바람에 화가 났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에게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그것은 네 확고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영이었다.” 나: “그 신부는 자신의 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구세주: “그래, 그는 알고 있다. 그것은 네 영혼이 느끼고 저항하는 유혹들이다.” 그런 눈빛을 세 번이나 경험했다.

나: “왜 그런 짓을 하는 건가요?”

구세주: “그에게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사제는 극소수다.”

이 사제는 파문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구세주: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야.”

나: “제가 침묵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구세주: “겸손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구세주님과 한참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구세주님께 말했다. “저는 세속적인 것을 혐오합니다.”

구세주: “그 말을 적어 두어라.”

나: “천상의 삶을 준비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치워버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일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1992년 2월 7일 - 금요일

이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다시 속죄의 고통을 겪게 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너는 다시 속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나: “구세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임 신부님께서 미사 전에 신자들과 함께 묵주 기도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임 신부님께서 앞으로는 입으로만 성체를 분배하시고, 평신도들이 더 이상 성체를 분배하지 않도록 이 고통을 바치겠습니다.”

또한 이 고통을 바치며, 사제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구세주님, 그분께 겸손함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하라. 네 마을에서 나를 모욕하고 경외심 없이 성체를 영하는 모든 이를 위해 속죄하라.”

나: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많은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을 향한 큰 사랑과 넓은 길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대로 행하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에게 주실 고통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받는 것,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계속 그분의 마음속에 머물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몇 분 동안 쉬지 않고 구세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님, 저와 온 세상을 위해 용서와 은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10시 40분까지 다시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1992년 2월 8일 — 토요일

바그하우젤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베르너 에곤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방식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조차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16시 20분부터 17시 50분까지,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쉬지 않고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 네 번과 다른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그를 위해 기꺼이 바쳤는데, 그 일로 은총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내가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는 못할 것임을 알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분은 두 번째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께서 그분께 인도해 주시는 영혼들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계심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제들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제는 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심연으로부터 경고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2월 9일 - 일요일

오전 6시 30분 ~ 8시: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했고, 약 30분 동안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현재 사탄이 마음들을 지배하고 있다.” 나: “하지만 주님은 모든 마음의 왕이시잖아요.”

구세주: “거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달고 있다.” 나: “제가 제대로 적어 놓았나요?” 구세주: “너는 나를 위해 그것을 썼다.”

나: “구세주님, 그들은 어떤 이유로 마음을 달고 있나요?”

구세주: “교만과, 나에게 대한 사랑의 부족, 증오 때문이며, 그들은 넓은 길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구세주님, 아까 제가 ‘아베르테레, 아베르테레’라고 말하며 울었을 때, 그건 당신이 돈 보스코가 말씀하신 대로, ‘삶을 바꾸라’는 뜻이었는데, 눈에서 진주처럼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경험이었고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그 눈물은 내 눈물이기도 했다.”

나: “저에게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네, 주님께서 계시지만, 사제님도 필요합니다.”

구세주: “보그트 신부님께서는 아직 갈 수 없어. 때가 오기를 기다려라.”

나: “구세주님, 어제 그분(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를 네 번 바쳤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구세주: “그래, 그에게 효과가 있었어.”

나: “구세주님, 보그트 신부님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세주: “너희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세주: “너희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한가. 기도하라, 내 딸아, 많이 기도하라.”

나는 붉은색 미사에 참석했다.

오후 1시부터 보그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심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가 주변 마을의 모든 사제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제들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제들을 원하며, 그런 사제들은 간구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청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느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보그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분명 사랑받는 사제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가 지금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 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2시 30분. 스위스에서 파바르 씨라는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는 가끔씩 전화를 주곤 합니다. 우리는 서로 신앙을 복돋아 줍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순례자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님들과 함께 있던 다른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조롱했고, 저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사다로 걸어갈 때, 저는 그 순례자 일행과 신부님들을 위해 여러 번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두 두통을 호소했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가벼워 산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의 파바르 씨는 그 일행 중에서 메지고리예에서 제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어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17:00 - 18:00. 먼저 파우스티나 수녀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자 구세주와 하나가 되고 싶은 갈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유혹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펄펄 흘리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며, 그 말씀을 믿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세주: “나는 사제의 축성된 손을 통해,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을 원한다.”

그때 저는 제대 봉사자들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그들이 제대 봉사를 하므로 하느님 앞에서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것은 제대 봉사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나: “그 말은, 보그트 신부님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구세주: “그렇다.”

나: “구세주님, 제가 그분께 이 말을 전해 드려야 할까요?”

구세주: “그 말을 내가 줄곧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다면, 다른 사제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그분도 따르시겠습니까?” 구세주: “그분은 다른 사제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주교님들이 그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세주: “최고의 주교는 교황님이시니, 그는 교황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오, 구세주님, 저는 주님께서 모욕당하거나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구세주: “계속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19시경, 아우크스부르크의 마리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남편 곁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거울 속의 여성(Frau im Spiegel)’이라는 잡지에 저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마리아가 그 기사를 읽고 저에게 편지를 쓴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세주께서는 성체성사 후, 그녀가 남편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체 성사 후, 저는 구세주님께 평화주의가 옳은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프리돌린이 전화를 걸어 요제프가 평화주의자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옳은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평화주의는 옳다. 누구나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화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1992년 2월 10일 - 월요일

10시, 의사실:

구세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물어보렴.” 나: “저는 너무 무능해요.”

구세주: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그저 나를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기만 하면 돼.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삶이며, 네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은 살아 숨 쉬게 될 거야.”

나: “오, 주님, 그렇다면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제 안젤루스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구절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건 역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요.”

저는 두 명의 환자에게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해성사를 보러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구세주님께 그것이 옳은 일인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건 옳았어, 계속 그렇게 해.” 구세주: “나를 많이 사랑해라, 내 딸아.”

나: “하지만 저는 당신의 사랑으로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세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

나: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이들의 영혼 안에서 사랑받고 싶으신 거군요. 구세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나는 구세주께,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구세주: “네가 느끼는 그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다. 환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라.”

오후 12시 45분, 병원 예배당에서: 구세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중에, 개신교인들도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분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렇다.”

나: “하지만 그들은 교황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구세주: “그렇다면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묻은 이유는, 고해성사를 받으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개신교 신자라서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0:00 — 기도 모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일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30분 동안 구세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한 한 여성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교황님께서 성체를 손에 얹어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고, 주교들이 이를 승인했으며, 바티칸 내에도 프리메이슨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2월 11일 — 화요일

저는 구세주께, 어제 그 여성분께 손 성체 영성체와 교황님에 대해 드린 제 대답이 옳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네 대답은 옳았다.”

오후 12시 20분, 교회 내 성당에서. 구세주: “너는 오직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나: “남편이 어제 기도 모임에서 제가 너무 오래 말했다고 하더군요.” 구세주: “내가 말할 때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오전 10시 40분에 저는 구세주님께 평화주의에 대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평화주의는 옳다. 누구나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나: “그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너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

나: “구세주님, 제 입장이었다면 구세주님도 물어보셨을까요?” 구세주: “나에게 물어봐도 돼, 그게 바로 옳은 거야, 내 딸아.”

1992년 2월 12일 - 수요일

나는 로쿠스 성당에서 성체 성사를 참례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체 성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쳤다. 또한 성체 성사를 집전할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다.

그 신부님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처음 미사를 집전하셨을 때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오늘 두 번째로 집전하신 미사에서는 성체 성변을 너무 빨리 행하셨고, 미사 끝날 때 성체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제단 쪽으로 몸을 숙이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이제 무엇이 옳은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성체함에.”

나: “구세주님,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구

세주: “네가 원한다면.”

저는 먼저 그 신부님을 위해 기도한 뒤 그분에게 다가가, 문 앞에서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화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곧바로 변명을 시작하며 자신이 교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고 말했다.

먼저 나는 그에게 성체 변모 기도를 너무 빨리 드렸다고 말했고, 그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는 구세주께는 사람보다 더 순종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미사가 끝난 후 구세주께 왜 작별 인사를 할 때 성체함 쪽이 아니라 제단 쪽으로 고개를 숙이셨는지 여쭙어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부님은 과거를 약간 비판하셨습니다. 신부님은 꽤 불안해하시면서도 자만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구세주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미사를 좀 더 천천히 집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축복을 청하고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음을 압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들었는데, 프리돌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젊은 학생 안드레아스가 이제 더 이상 입으로 성체를 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학장이 그에게 손으로 성체를 받는 편이 더 좋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1992년 1월 28일, 구세주께서는 이미 안드레아스를 위해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프리돌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핑계를 대며 입술이 벌어져 있어서 입으로 성체를 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학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오후 1시 30분경, 병원 내 예배당에서 나는 기도실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다. 구세주: “이미 시작해도 된다. 때가 이미 왔다.”

나: “하지만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구세주: “그건 내게 맡겨라.”

1992년 2월 13일 — 목요일

저는 구세주님께, 성체 성사를 너무 빨리 집전하셨던 그 신부님께 우리의 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 말씀이 그분 안에 살아 있다.”

그 후 저는 프리돌린의 학우인 안드레아스를 위해, 구세주께서 왜 안드레아스가 지금 손으로 성체를 영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고, 그 의지가 병들어 있다.”

나: “어떤 교수들이 그런 짓을 하고 신학생들에게 손으로 성체를 영하도록 부추긴다는 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안드레아스를 위해서는 수요일에 금식해야 한다

— 그것은 배신이다.”

나: “의지가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세주: “금식하고 시편을 기도

해야 한다.”

1992년 2월 14일 — 금요일

10시 30분, 의사실: 나는 다시 한번, 과연 계속 글을 써야 할지 물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일기를 써라. 그게 중요하다.”

나: “어제 저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제 영혼의 인도자이시니까요. 하지만 주님, 그것이 여전히 주님의 뜻일 때만 말입니다.”

구세주: “많이 기도해라, 내 딸아. 기도는 매우 필요하다.”

1992년 2월 15일 토요일

에밀리안 신부님께서 HI 미사를 아주 아름답게 집전하셨습니다. 성모님 경배 미사였습니다. 신부님께서 어둠 속에 서 계신 모습을 다시 보았는데, 성체 성변 후 신부님 머리 주위에 밝은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광경을 처음 보았는데, 곧 다시 사라졌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시편 한 권을 다 바쳤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사제를 원한다면, 하느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제를 매우 좋아합니다. 비록 그분이 구세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분이 모범적인 사제가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해소를 나왔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하느님, 그 신부님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1992년 2월 16일 일요일

저는 집에서 성체 성사 전에 두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성체 성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탁자 위에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 상을 놓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한 성수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고백 기도(Confiteor)’, ‘축귀 기도’ 그리고 연도나 묵주기도와 같은 여러 기도를 바칩니다.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성체를 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사적 성체 영성체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사가 더욱 경건해지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게 되고, 교회 안에도 있는 불순한 영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보그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왜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구세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저: “이제 그 신부님은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으시나요?” 구세주: “그래, 그 신부님은 믿고 있어, 내 딸아.”

나: “그분은 여전히 그렇게 의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만큼은 아니신가요?” 구세주: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해라.”

나: “주님, 하지만 신부님은 어제 교회 소식지에, 신부가 부재중일 때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 미사를 집전하고 그 후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구세주: “만약 그가 성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교구 소식지에 그런 내용을 실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너무 많다.”

나: “하지만 주님, 그는 성체 변모를 행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며, 참되고 본질적으로, 육신과 피, 몸과 영혼,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채 성체—성체성사—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구세주: “사람마다 믿음은 다릅니다.”

나: “믿음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그것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즉 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에 달려 있고, 사랑은 간구해야 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입니다.”

구세주: “사랑은 순수한 마음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나: “주님, ‘흘러들어

간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세주: “사랑은 샘과 같으니, 그 샘으로 나아가 너희를 상쾌하게 하라.” 나: “교수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구세주: “그것은, 내 딸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속적인 믿음이다.” 나: “하지만 구세주님, 그들은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하고 있잖아요.”

구세주: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 “구세주님,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까?” 구세주: “그렇다, 내 딸아.”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이시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둘러 교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미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성체 성사 전에 저는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께 드리는 연도를 바쳤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성체 성사를 훌륭히 집전하셨습니다. 복음은 산상 수훈(루카 복음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체 분배 시에는 두 명의 평신도와 한 명의 신학도인 아르투르 바그너 씨가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분으로부터 성체를 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교회가 진흙탕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제처럼 손이 아직 축성되지 않은 바그너 신부님에게서 어떻게 성체를 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세주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바그너 부제님으로부터 성체를 영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뜻일 때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제게 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 모든 신뢰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바그너 씨는 제 옆에서 성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오지 않았고, 저는 그가 제게 성체를 주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에 보그트 신부님으로부터 성체를 받았습니다.

성체 성사 후, 저는 구세주님께 그분이 원하신다면 바그너 씨와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세주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가 성체를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이 내용을 기록해도 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는 “기록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15분 정도 더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나섰을 때, 밖에서 한 소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자녀인 크리스티안 펠하우어였습니다. 첫 성체를 영한 후, 그는 내게 다가와 입으로 성체를 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소원을 담아 매일 성모님께 묵주 한 단을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일요일, 그는 무척 기뻐하며 제게 다가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율리야나, 제가 입으로 성체를 모셨어요.”

그 이후로 그는 오늘처럼 미사 후 종종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성수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었는데, 그가 그 물이 제대로 축성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하며, 이 물은 레겐스부르크의 게브하르트 하이더 신부님께서 축성해 주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만약 무언가 옳지 않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렸고,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구세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옳습니다. 네가 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992년 2월 17일 - 월요일

10:00 의사실: 저는 구세주님께 부제들이 성체를 분배해도 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집사는 완전한 서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체를 나누어 줄 수 없다.”

나: “하지만 교회는 허용했잖아요.”

구세주: “그것은 이단 교리다. 집사는 사제가 아니다. 오직 사제만이 성체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저는 앞서 하느님께서 왜 H. 바그너 신부님이 저에게 성체를 주어서는 안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무엇이든 믿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저의 인간성을 신성으로 입혀 주시기를 빕니다. 비록 다른 이들에게는 집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구세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아멘.

오후 12시 15분, 직장 내 성당에서: 오늘은 평소보다 성당에서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내에 만연한 그릇된 교리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 모임에 속한 한 여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한 번 저에게 비밀로 털어놓았는데, 기도 모임에서 고해성사를 집전하던 신부님께 묵주 기도를 할 때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그녀에게 “그럼 왜 묵주 기도를 하느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구세주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결한 영이었다.”

그 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세주님, 제 기도 모임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 직장에서 제 동료 베로니카와 저는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환자들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개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3시 50분: 매우 뚱뚱한 환자분에게 엑스레이를 찍어 드렸습니다. 그분이 제 가슴에 목걸이에 매달고 있는 십자가와 그 아래에 달린 여러 메달을 보시더니, 저에게 “저게 뭐 그렇게 예쁜 건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14처의 십자가예요. 우리 모두 이 과정을 겪어야 해요. 13처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14처를 모두 거쳐야만 해요.”

(십자가 뒷면에는 14처의 십자가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환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십자가가 금으로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금이나 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하늘 위에 있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거기 위에 가시면, 저한테 거기서 뭔가 좀 내려 보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고 고해성사를 잘 보시면, 당신도 직접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1992년 2월 18일 화요일

10:00 의사 모임: 여느 때처럼 기도했습니다. 영적 연합 중에 구세주님께,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왜 밤 2시 30분경까지 괴로움을 겪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오늘 밤 너를 괴롭힌 자들은 루시퍼의 악마들이었다. 네가 그에게서 많은 영혼을 빼앗고 있다는 것과, 그가 이제 다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 것이다.”

나: “하지만 오늘 밤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구세주: “그가 너를 묶어두려 했으나, 내가 네 곁에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 나는 네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허용할 뿐이다.”

나: “부정한 영이 제게 속삭이려 했고, 계속 일요일이니 미사 전에 기도할 필요 없다고, 이미 충분히 기도했으니 자고 쉬라고 말했어요. 거의 늦잠을 잘 뻔했어요.”

평소에는 스스로 깨어나곤 하는데, 그날은 남편이 나를 깨워 주었다. 남편이 오늘 일하러 가지 않겠냐고 묻자, 나는 “오늘은 일요일이잖아, 좀 자게 해 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편이 “어제는 월요일 아니었어?”라고 말하길래,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제 다하르트 신부님께 구세주께서 집사들에 대해, 즉 그들이 성체를 나눠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드렸더니, 다하르트 신부님께서 그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그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네가 다하르트 신부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 나: “그런데 신부님은 왜 다른 말을 하셨나요?”

구세주: “그건 내게 맡겨라.”

그러고 나서 저는 구세주님께, 지금 집사가 되고 싶어 공부 중인 종교 교사가 수업을 마친 후 성체를 나눠줄 수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성직 서품을 받아 성스러운 손을 가진 사제만이 할 수 있다.”

저는 두통이 있어서 구세주님께 이것이 속죄의 고통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그건 속죄의 고통이야, 내 딸아.”

문득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구세주: “그러면 네가 내게로 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제 오빠가 고혈압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녀님들께 혈압을 재어 보았지만,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 고통을 바쳤습니다. 오후에는 환자가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 베로니카와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의 성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후 “오, 예수님, 내 모든 삶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찬송가를 외웠습니다. 그 찬송가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대부분의 라틴어 기도문은 직장에서나 운전대 앞에서 외웠습니다. 차 안에서, 숲속에서,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목주 기도를 드렸는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일을 마친 뒤 수영하러 가려고 했지만, 결국 교회에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목주 기도를 드리는 도중 다시 방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제들과 신학도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프리돌린, 안드레아스, 그리고 란더스호펜의 부학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학장은 신학도들에게 안드레아스 신부님처럼 손으로 성체를 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또한 보그트 신부님과 도하르트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보그트 신부님이 영적 분별력을 더 잘 갖추고 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로트(Rot)의 교회에서, 공동 목주기도가 시작되기 전, 나는 불결한 영들의 공격을 느꼈다. 또한 그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제 앞쪽 비스듬한 자리에 키가 중간 정도이고 덩수룩한 수염을 기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와 자리에 앉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가려서 성체함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마치 오한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하게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런 일은 주로 보그트 신부님이 특히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 성경 봉독이나 복음 낭독 때,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로 일어났다.

그때 그는 아주 흉하게 웃기도 했다. 제대 봉사자들도 웃었고, 그중 한 명은 심지어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성체 변모 때 그는 특히 격분했다. 그 남자는 일어나 사제와 제단 쪽으로 다가와, 손을 들고 주먹을 쥐며 신부님을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미사 도중 나는 이미 그 남자를 위해 기도했다. 악마들의 내적 공격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낮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자 나는 명령하듯 그에게 말했다. “입 다물어.”

그 순간 그는 몸을 돌려 내 옆을 지나가며 나를 몹시 악의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저 “나에게서 물러가라.”라고 말했다. 그는 욕을 퍼부으며 교회 밖으로 나갔다.

성체 성사 후, 나는 구세주께 그 악마가 어떤 존재였는지 물었다. 구세주: “루시퍼의 악마였고, 그와 함께 많은 악마들이 있었다.”

나는 구세주께 그 악마가 오늘 밤 내 곁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구세주: “그 악마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구세주여, 교회 안에서 이런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악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사가 끝난 후 많은 신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다리가 떨렸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드디어 “마리아, 망토를 펴 주소서”라는 찬송가의 세 번째 절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불결한 영과 관련된 사례를 이미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루르드, 예루살렘, 메지고리에, 바그하우젤과 같은 다른 교회들에서도, 병원과 직장에서도, 로트 시청에서도(로트에서 온 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티칸의 한 주교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또한 제가 이미 진행했던 강연들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이는 또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더욱 경건해지고 더 많이 기도하며, 마침내 악마와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도 그 남자가 악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여러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남자가 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불쌍한 영혼들이 자신에게 찾아온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영 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것이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인지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그 낯선 남자와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19.02.92 - 수요일

10시 의사실: 저는 어제 있었던 유혹에 대해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 유혹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더 많은 유혹이 올 것이다. 사탄은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나: “우리 교회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세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그 후 내 안에 따뜻함과 평화가 깃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로쿠스 성당에 갔는데, 먼저 묵주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2월 20일 — 목요일

10시 10분, 의사실: 저는 구세주님께 양심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양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바로 내가 그 양심 그 자체라는 것이다.” 나: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 ‘그분’이신가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나는 네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다.” 나: “왜 하느님이 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지 않는 건가요?” 구세주: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나: “왜 어떤 사제들은 제가 듣는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에게서 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구세주: “그들은 영 분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이 약하고, 성경을 설교하지만 실천하지는 않는다.”

저녁에 나는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다. 묵주기도를 바쳤다. 성체를 영할 때, 수녀가 내 옆을 지나가며 아예 나에게 성체를 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녀에게서 성체를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 영적으로 성체를 영했다. 수많은 은총을 받았고,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수녀님을 위해 성체를 봉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즉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수녀님이 깨달음을 얻어, 성체를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도록, 그 수녀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제가 여전히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 그 수녀님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지 않았나요?”

그 수녀는 제가 기다렸다가 보그트 신부님으로부터 성체를 모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녀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수녀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수녀님은 성체를 나눠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한 번 저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구세주께서 ‘그녀에게 말해라, 우리에게는 사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도 서품을 받았고 주교님들이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고 주교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하고 약간 화가 난 상태였고, 저에게 부적절한 시간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신부님께서 성체를 나누어 주시는 쪽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두신 곳에 내가 머물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 후 저는 헤드비그와 힐데와 함께 로쿠스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사적으로 구세주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성체를 바쳤습니다.

1992년 2월 21일 - 금요일

10시 30분 의사실:

구세주: “수녀님에게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 심지어 아주 잘한 일이지.”

나는 수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자리를 바꿔야 하는지 다시 물었다. 구세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옳으니깐.”

어제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그 수녀를 옹호하더군요. 그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제가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등등 말했죠.

나는 성수를 가져와 그와 주변에 뿌렸는데, 불결한 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일을 구세주께 말씀드렸다.

구세주: “네 남편 곁에 유다의 악령이 있었어.”

저는 남편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구세주: “그는 마음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저: “마음을 닫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없지.” 나: “그 말은, 다른

존재가 안에 있었다는 뜻이군요.” 구세주: “이번에는 그렇다.”

오후에는 수녀님과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면 항상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제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성체를 분배했었고, 제가 그분을 통해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 성체 분배자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내 앞에 영적으로 늘 서 있는 이 남자가 그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너 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와서, 나는 그를 위해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송 한 번, 그리고 영광송 한 번을 바쳤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는 그 남자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로트에 있는 마르가 펠하우어를 찾아가, 교회 성가대원들의 사진이 있는지 물었다. 내 앞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서 있던 그 남자가 교회 성가대에서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사진을 보여주자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 남자가 여름에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마침 슬로바키아에서 순례 중이었다.

저녁에 저는 교회에서 베르너 하인츠만이라는 그 남자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를 위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도 밤에 잠에서 깨어 그의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지나친 집요함 때문에 그가 이미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고 말했던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던 것이다.

밤 1시 30분경에 잠에서 깨어 그분을 위해 묵주기도와 보혈의 연도를 바쳤습니다. 그분을 위해 축성된 양초를 켜고 성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구세주님께, 평신도들이 다시 와서 저에게 성체를 주러 올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다시 똑같이 하라.”

1992년 2월 22일 — 토요일

저는 바그하우젤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베르너 에곤 신부님께서 낯선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성체를 영할 때, 제가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베르너 에곤 신부님께서 제게 그리스도의 성체를 건네주시는 것을 주저하셨습니다. 또한 평소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저 바로 뒤를 이어 성체를 영하러 왔는데, 신부님이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신부님은 참으로 교활하시군요. 그분 덕분에 첫 번째 줄에 앉은 신자들은 무릎을 꿇고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된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줄에 앉은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구세주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미사가 끝나자 엘리스라는 여성이 ‘성모님,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께서 그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신부님이 교회를 떠나신 후, 저는 신자들과 함께 라우레타노 기도문을 바쳤습니다.

그 후 우리는 '살베 레지나'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기도들을 신부님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성체함 앞으로 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곳에서 나는 성당에 계신 신부님들과 신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성당을 나서자 한 남자(호켄하임 출신의 발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내가 암에 걸렸거든요."

저는 그분께 아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제 기도, 즉 교회에 계신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낯선 남자가 제게 다가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16시 30분: 저는 교회에서 '로터' 신자들과 함께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로사리오를 세 번 더 바치고, 그 모든 기도를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내내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꽤 힘든 희생이었습니다.

1992년 2월 23일 -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에 가기 약 1시간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베르너 에곤 신부님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구세주: "그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내 말을 들어라." 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리스도의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세주: "그래."

나: "제가 무릎 꿇고 있는데도 신부님이 성체를 주기를 주저하시면, 제가 자리를 떠도 될까요?" 구세주: "떠나도 된다. 비록 네가 성사로 나를 영접하지는 않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네게 찾아갈 것이다."

나: "구세주님, 밤에 잠에서 깨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저를 깨워서 깨어 기도하게 하나요? 주님이신가요, 아니면 가련한 영혼들이인가요?"

구세주: "나야. 내가 너와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해." 나: "네, 하지만 그때 저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구세주: "그럴 때 나는 특히 기뻐하겠구나."

나: "주님,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싸워야 합니다."

구세주: "네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은총이 필요하다. 악마는 네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나: "악마가 저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나요?" 구세주: "그래."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고,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불결한 영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건가요?"

구세주: "그렇다면 그가 내 이성을 가졌을 테지. 하지만 내 이성은 그의 이성이 아니야." 나: "하지만 그는 분명 영리하잖아요."

구세주: "지능이 곧 이성은 아닙니다."

나: "그럼 제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러므로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야 다가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서 견딜 수 있으리라.'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로 제가 결혼한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구세주: "그대로 머물러라, 계속 기도하라, 내 딸아."

나: "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웃의 영생을 위해, 그리고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 구세주님께서 또 말씀하실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구세주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저는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오전

13:00~14:00 사이에 기도 모임과 묵주기도에도 참여했습니다.

1992년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저는 기도하며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 "왜 베르너 에곤 신부님은 제가 무릎을 꿇고 성체를 영하도록 주저하셨을까요?"

주시는 것을 주저하셨나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왜 고개를 저으셨나요?"

구세주: “너는 나를 영접했구나, 내 딸아. 너는 내가 성체에 계신다는 것을 믿었지. 그는 그렇지 않았어.”

나: “하지만 그가 믿지 않는다면, 성체 변모 기도를 바칠 수 없잖아요.” 구세주: “아니, 나는 그에게 권능을 가지고 있다.”

저녁에는 먼저 묵주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0시에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과의 대화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리오바가 악마가 바그하우젤에도 있었다고, 신부님들이 그를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 로트 교회에 있던 그 남자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도하르트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기 위해 사제들이 악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제들이 이에 대해 더 많이 설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물과 올가미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직 기쁜 소식만 끊임없이 전해지고, 다음과 같은 말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벌하지 않으신다’는 말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벌을 내리실 분이십니다.

그 직후 도하르트 신부님이 일어나서 마치 제가 그분에게 뺨을 때린 것처럼 날카롭게 뿔어지게 저를 쳐다보셨을 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카로운 시선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2월 25일 — 화요일

이른 아침부터 사제들을 위해 묵주 기도를 드렸다.

10시 30분, 의사실: 나는 도하르트 신부님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다. 악마가 교회에 침입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때 사제들이 신자들에게 경고해야 하며, 사제들이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분에게서 그 눈빛을 다시 보았다. 그것은 역겨웠다.

구세주: “네가 참된 교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부정한 영이었다.” 나: “부정한 영이 사제를 통해 저에게 닥칠 수 있습니까?”

구세주: “그래, 네가 참된 교리를 옹호한다면 그럴 수 있다.”

사실 나는 브레텐에 있는 도하르트 신부님께 기도하러 가야 했다. 나는 항상 구세주께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야 했다.

나는 목요일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다. 나 혼자만 의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목요일은 브레텐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나: “구세주님, 제가 무엇을 여쭙볼지 제가 묻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질문을 제대로 다 말하기도 전에 대답이 즉시 돌아왔습니다.

구세주: “가지 마라, 내 딸아.”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오늘 저녁,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스트링거라는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언제 어디서 말해야 할지 구세주님께 여쭙었고, 그분께서 내가 말해야 할 말씀을 주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나중에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라, 내 딸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다른 사람들이 네가 은밀히 행동해야 한다고 충고한다면, 그것은 시기심 때문이다. 내가 네게 말할 은사를 주었다.”

나: “주님, 제가 제나겔로 가도 괜찮으십니까?” 구세주: “그래, 거기서 가거라.”

나: “뭔가 더 적어두면 될까요? 원하시나요?” 구세주: “계속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사랑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후 1시, 병원 내 예배당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모욕을 당하시니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환자들은 종종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곤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 환자분이 저를 찾아와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우 불안해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악한데도 매일 교회에 다니는 여성을 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여성에게 교회는 물론 고해성사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환자분에게 정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서는 악마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이 환자들을 돕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대개 녹슬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환자들을 기도로 품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며 행복하게 떠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며 저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제들이 그릇된 교리를 퍼뜨리거나 설교할 때면 제 마음은 더욱 아픕니다. 마치 심장병을 앓는 것처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뚫고 들어오는 듯한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네, 사제들이 제게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을 안겨줍니다. 그들이 영혼들에 대해 그토록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체함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저는 구세주님께 지금 제 입장에서 무엇을 묻겠느냐고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나는 구세주께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라고 생각하며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구세주: “보라, 나는 너를 훨씬, 훨씬, 훨씬 더 사랑한다.”

그 순간 저는 구세주님과 함께 미소를 지었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워버린 것처럼 고통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 영혼을 즉시 치유해 주신 이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신경과 전문의나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훌륭한 영혼의 의사는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이십니다:

환자들이 먼저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야 의사를 찾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서 엑스레이 촬영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환자들이 고해성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먼저 연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밤낮으로 영원토록 그들을 괴롭힐 주인인 사탄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저녁에는 HI. 미사와 로트에서 열린 묵주기도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2월 26일 — 수요일

10시 30분 — 의사실: 구세주와 하나 될 때, 내 안에 깊은 평온과 평화, 그리고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구세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내 곁에서 쉬시고, 나는 그분 곁에서 쉰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지금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영혼이 구세주와 함께 몇 분간 평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아편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지요? 오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구세주와 이렇게 하나 되면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 하느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네, 영적 성체성사는 정말 소중합니다. 낙원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문제도, 걱정도, 의문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후 12시 30분, 병원 예배당에서:

처음에 악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아직 조나켈에 가야 하니까 성당에 가지 말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가 제게 “성당에 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갔습니다.

저는 다시 많은 은총을 받았고, 대학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세주님께,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곳으로 오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구세주: “그들은 듣지 않아요.”

나는 구세주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

저는 이 성스러운 영적 성체를 누군가를 위해 바치고 싶어서 구세주님께 누구를 위해 바쳐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지금 내게 그토록 소중한 분을 위해 바치라.”

그 후 나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심장을 기도했다. 15시 00분에 나는 보크스베르크의 출나켈에 있었다. 고해성사를 보았다.

성체 성사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께 깨달음을 주셔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더 이상 손으로 성체를 받아먹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92년 2월 27일 — 목요일

12시 30분, 직장의 성당에서: 저는 여느 때처럼 성체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환자들이 하느님을 너무나 모독하는 바람에 마음이 무거워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으며,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계속 아이로 남아라.”

저는 “찬양 — 하느님께 찬미”를 바치고 내면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브레텐의 도하르트 신부님 댁에서 다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다시 그곳에 가야 할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아니오. 가지 마라.”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네가 그에게 그렇게 말해 준다면 기쁠 것이다.”

나중에 나는 예배당 뒤쪽 호숫가에서 잠시 산책을 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오리, 갈매기, 그리고 백조 한 마리에게 먹이를 주려고 빵 한 조각을 찢어 갔었다. 백조가 내게 다가와 빵을 먹으려 했다. 나는 빵을 물속 좀 더 멀리 던졌다. 그 백조는 가장 영리한 녀석이었다. 물에서 나와 곧장 내게 다가와 빵 한 조각을 통째로 달라고 했다. 나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그 백조에게 말했다. “뭘 원해?”

그 백조는 당당한 목을 쭉 뻗고 중얼거리더니 화를 냈는데, 그 모습만 봐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백조 곁에서

백조 곁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속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백조는 말을 듣고 물속으로 돌아갔고, 나는 남은 빵을 계속 나눠 주었다. 모두에게 한 조각씩.

동물들조차 사람보다 말을 더 잘 듣는다고 생각했다.

일을 마치고 수영을 하러 갔다. 그 후 목주 기도를 바치고 미사에 참석하여, 다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미사를 봉헌했다.

1992년 2월 28일 - 금요일

다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10시에 의사실로 갔다. 먼저 그 불쌍한 영혼에게 성수를 뿌려 주고, 그다음 구세주와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저는 구세주님께, 아무도 저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먼저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 주신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간성을 벗겨 주시고 그분의 신성으로 저를 입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항상 구세주님께 겸손을 구하며, 제가 겸손하고 온유해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밤에도 두브로브니크가 다시 폭격당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독일에 닥칠 전쟁이 기도를 통해 완화되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전쟁이 올 것이다.” 나: “러시아에서?”

구세주: “네.”

나: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은 너무 늦은 후에야 믿게 될 것이다.” 나: “기도 모임에 이 말을 전해야 할까요?”

구세주: “그래, 그들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전해라.”

이어서 나는 도하르트 신부님이 구세주님과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을 전해도 되는지 물었다.

구세주: “물론이지.”

내가 그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구세주: “나에게 맡겨라. 네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 “다른 곳에도 말해야 할까요?”

구세주: “너는 이미 네 사제에게 말했잖아.”

나: “이 전쟁에 대비해 기도나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구세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일을 마친 뒤 숲속을 산책하며

그를 위해 장미 묵주 네 단을 바쳤습니다. 그 후 교회로 가서 그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제가 이 신부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저는 천국에서만 보상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보그트 신부님이 저를 모욕하셨더라도, 저는 그를 매우 좋아하며 항상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제 임무가 쉽지 않지만, 보그트 신부님의 임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둘 모두에게 ‘Per crucem ad lucem(십자가를 통해 빛으로)’라는 말이 적용됩니다.

1992년 2월 29일 토요일

나는 바그하우젤에서 이른 아침 미사에 참석했다. 성체 변모 예식 중에 불결한 영이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목소리는 이미 스위스에서 루돌프 신부님 곁에서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밤 1시 30분경이었고, 악마가 나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기에 나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바그하우젤에서는 에밀리안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미사 전에 저는 특히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큰 구슬을 꿰며 기도했던 내용도 적어 둡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제가 당신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칩니다. 이는 우리와 바그하우젤의 신부님들과 형제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구슬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고통스러운 수난을 위하여, 저희와 바그하우젤의 신부님들과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마지막에 나는 세 번 기도했다.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불멸의 하느님, 저희와 바그하우젤의 신부님들과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후 기쁨의 묵주기도와 축귀 기도, 그리고 다른 기도들을 더 드렸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알리세가 저에게 기도 인도자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 연도를 바쳤습니다.

그 후 나는 성체함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다.

교회에서 막 나오자마자, 한 여성이 성모 마리아 연도 기도가 너무 길다고 불평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도가 하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악마는 성모 마리아 연도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기도가 시작되면 분노에 차오르는데, 저는 이미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악마의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메지고리예에서 특히 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비엔나에서 온 한 젊은 학생이 성모님 연도 기도 중에 “그만해, 불이 났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는 동안 악마가 제 영혼을 찢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오에 장을 보고 집을 정리한 뒤, 16시 15분에 다시 빨간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18시 15분까지 머물렀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영원한 등불이 또 꺼져 있어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사제관 여성이 성냥을 건네주자, 나는 등불에 불을 붙였다.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 기도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울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과 고해성사를 나누고 싶지만, 신부님도 원하시고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신부님께 그에 대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하신 말씀을 신부님께 많이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 더러운 영, 즉 수다쟁이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려 했습니다. “보라, 소용없어. 무의미하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둬라.”

하지만 나는 그 불결한 영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1992년 3월 1일 - 일요일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한 뒤, 약 30분 동안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아무것도 아니며, 필요한 모든 것을 구세주님께 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펄펄 흘리며 구세주님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분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저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관습입니다. 이 관습이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행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구세주께서 신자들이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자비 기도, 자비 묵주, 리지외의 성녀 테레사,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긴급 기도 등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세주님께서 한때 저에게 말씀하신,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은 은총을 빼앗는 행위’라는 말씀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구세주님께 다시 한 번 여쭙보아야 했습니다. 구세주님: “그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자 무관심이다.”

나: “손으로 성체를 영할 때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나요?” 구세주: “아니요. 나는

그들에게서 은총을 거두어 가노라.”

나: “철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손으로 성체를 받는 방식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모두가 진흙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나: “하지만 구세주님, 그건 오로지 사람들의 탓만일까요? 사제들도 입으로 성체를 받아먹게 하잖아요.”

구세주: “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나: “주님, 이것이 사탄의 소

행입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짓이다. 그는 좋은 열매를 원하지 않고, 오직 나쁜 열매만을 원한다. 그 나쁜 열매들은 모두 그의 것이다.”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제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건가요?” 구세주: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 “교회에서 이 오물을 어떻게 제거해야 합니까?” 구세주: “기도하고 금식하라.”

나: “금식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구세주: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나: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그 관습이 폐지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은 적을 갖게 될까요?”

구세주: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 “구세주님,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제대로 썼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평온과 평화, 그리고 맑은 명료함이 가득합니다. 의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분입니다. 네, 구세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어제 교회에서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두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했던 건가요?”

구세주: “나는 너와 함께 고통을 겪었노라. 그 사제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님, 제가 그를 위해 금식하면 변화가 있을까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 나의 선한 영적 지도자이신 주님, 저는 제 사제이신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금식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대화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성체성사 미사에 참석하여 제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젊은 학생 바그너를 보았습니다. 그는 부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만약 바그너 씨가 저에게 성체를 주시는 것이 옳지 않다면, 제발 신부님께서 저에게 성체를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신부님으로부터 성체를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오븐에 구이 요리를 넣고, 직접 슈페츨레를 만들고 샐러드를 썰었습니다.

정오 12시에 우리는 ‘주님의 천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2시 15분에

식사를 했습니다.

12시 45분에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성체 조배 시간이었고, 성체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14시 45분까지 교회에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15시 30분에 바르바라라는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들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마리오니 17시 30분까지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일기 내용을 적었습니다.

18시 15분, 교회에서 성체 앞에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 두 단을 바쳤습니다. 영원한 등불이 또다시 켜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신부님께서 이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성체 현시대 바로 앞에 투광등을 설치하신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성체에 현존하신다고 믿습니다.

보통은 사람 앞에서 약 반 미터 떨어진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습니다. 단지 성체함만 환하게 비춰져 멀리서도 아름답게 빛나고 눈부실 뿐입니다. ‘구세주께서 여기서도 여전히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빛이 제 눈을 따갑게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성당 관리인을 만나 “영원한 등불이 꺼졌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성당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또 꺼졌네.”라고 말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고통의 묵주를 바쳤다. 내 하루는 번개처럼,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

텔레비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하루 주신 힘과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1992년 3월 2일 - 월요일

10시 의사실: 나는 방에 성수를 뿌리고, 베네딕투스 십자가로 병원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렸다.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제가 무엇을 여쭙고 싶은지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하고 믿겠습니다.” 어제 켜져 있었고, 어쩌면 오늘도 성체 앞에서 여전히 켜져 있을지도 모르는 스포트라이트가 떠올랐습니다.

사순절 전 3일 동안 우리 병원에서는 항상 성체 앞에서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적어라, 내 딸아. 등불을 내 앞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가 등불을 자기 앞에 3분 동안 두도록 하라.”

나: “주님, 등불이 여전히 주님 바로 앞에서 그렇게 가까이 타고르고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네가 원한다면, 그에게 전화해라.”

나: “주님, 제가 이걸 상상한 건 아닐까요?” 구세주: “너는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 “제가 쓴 이 내용을 보그트 목사님께 읽어 드려야 할까요?” 구세주: “두렵니?”

나: “사실은 아니에요.” 구세주: “그럼 그렇게 하거라.”

나: “네, 구세주님,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살과 피, 몸과 영혼, 인성과 신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체 안에 진실하고 본질적으로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2시 30분, 마르쿠스라는 15세 소년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그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병동에서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고 눈이 완전히 굳어버렸을 때 모두 깜짝 놀랐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게 언제였는지 물어보니, 제가 병원에 있던 모든 이를 위해 퇴마 기도를 드렸던 때, 그것도 여러 번 드렸던 바로 그 시간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을 바라보며 성수를 조금 마실지 물어보니, 그는 즉시 “아니요, 집에 있어요. 그건 동물들에게 줄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성수로 그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었는데, 그러자마자 그의 눈은 다시 뻗뻗해졌다.

간호사 앞에서 나는 그에게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를 바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네”라고 대답하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세 번째 단어를 말하기도 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 후로는 내가 혼자 기도를 이어갔다.

나는 그에게 ‘보배로운 피’ 기도문을 한 장 더 건네주며,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12시 45분, 성당에서: 나는 마르쿠스를 위해 기도하며 구세주께 그에게 불결한 영이 깃들어 있는지 물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구세주님께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그 아이에게 있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저는 구세주님께 환자 마르쿠스를 다시 보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14시 10분이 되자 그는 실제로,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 소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성수를 달라고 했고, 저는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께 성모 마리아 상을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상을 보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모든 걸 다시 봐야만 하는구나.”

그녀는 자랑스러워하며 “네가 곧 집에 돌아오면 좋겠구나.”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조금 옆으로 물러서자, 나는 마르쿠스에게 “너 안경으로 장난쳤지?”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즉시 알아차리

고는 “네. 베를린에서도, 여기에서도, 그건 별일 아닌 일이에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뭐라고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우리 엄마도 그래.”

이제 왜 그 악마가 그 안에 머물러야만 했는지 분명해졌다. 나는 그에게 성모 마리아 메달을 손에 쥐어주었고, 그는 그것을 받아 들었다. 이 소년에게는 엑소시즘 기도가 필요했고, 그는 신경과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도 의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저녁에 로트 교회에서 마르쿠스를 위해 묵주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미사를 그를 위해 봉헌했다.

20시 – 기도 모임: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오셨습니다. 데리스 씨, 아르투르 바그너 씨, 신학도 프리돌린, 도하르트 신부님 등입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환자 마르쿠스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과 데리스 신부님은 조금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1992년 3월 3일 - 화요일

10시 의사실: 저는 구세주님께 데리스 신부님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데리스는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일을 위해 선택받지 않았다. 그가 집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다. 도하르트 신부님에게는 다시 불결한 영이 깃들었다.”

나: “어떤 ‘고백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옛것인가요, 새로운 것인가요?” 구세주: “옛것이다, 내 딸아.”

나: “구세주님, 어제 우리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세주: “너희가 드린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

나: “기도 모임에 전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구세주: “마음으로 기도하라.” 나: “어떻게요, 구세주님?”

구세주: “입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말하게 하라. 많은 사랑을 구하라.” 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더 많이 부르면 되나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사랑으로 불태우시면, 그때 비로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도 머무르실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더 이상 죄를 품고 있지 마라. 죄는 큰 상처를 남기며, 작은 상처보다 더 천천히 아물기 때문이다. 큰 상처는 큰 고통을 일으키고, 그러면 기도를 하기 싫어지게 된다.”

“내 딸아,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사랑이 솟아나도록 기도하라.”

나: “주님, 나의 하느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구세주님, 주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아직 불결한 영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제 성체를 모셨습니다.”

구세주: “네 남편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나: “그는 분명 고해성사를 했다고 말할 거예요.” 구세주: “내 딸아, 그에게 제대로 고해성사를 하라고 전해라.”

16시부터 17시까지 저는 교회에서 성체 앞에서 기도 인도와 경배를 맡았습니다. 남편과 프리돌린, 그리고 제가 함께 참여하여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쉰베르퍼를 아직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18시 30분에 미사가 있었고,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1992년 3월 4일 — 수요일 — 재의 수요일

물과 빵만으로 단식했는데, 24시간 내내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속죄의 고통이었고, 저는 이를 보그트 신부님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바쳤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과 신학도인 안드레아스를 위해 금식했습니다.

나는 구세주께, 어제 저녁 그 수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성체를 분배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녀를 위해 성체를 바쳤습니다.

구세주: “굳어진 마음에는 은총을 줄 수 없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를 위해 금식하라.”

저녁에 교회에서. 세 명의 평신도와 보그트 신부님께서 재의 십자 표시를 나누어 주시는 일을 도우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성직자의 손을 통해 재의 십자 표시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반대편에 계셨던 보그트 신부님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성체 영성체 때, 저는 다시 구세주님께 성체 영성체를 성직자의 손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간구했고, 보그트 신부님으로부터 성체를 영성체했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새로 십자가를 그리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 평신도들 중에는 신학도(아콜리트)도 있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재는 오직 성직자의 손만을 통해 나눠져야 한다. 오직 사제들, 오직 사제들뿐이다. 이것도 교회 내의 오물 중 하나다.”

1992년 3월 5일 — 목요일

이른 아침, 나는 자비의 묵주기도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연도, 그리고 다른 기도들을 바쳤다.

10시, 의사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평신도들이 재의 십자표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은총을 베풀 수 없었다. 나는 사제의 성별된 손을 통해 재를 나누어 줄 때 은총을 베풀다.”

오후에는 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환자가 없었고, 그 후 묵주를 바쳤습니다.

저녁에는 로트(Rot)의 교회에서 신자들과 함께 먼저 묵주기도를 바친 뒤 미사를 드렸습니다. 성체를 다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교회에는 폴란드에서 온 스타니슬라우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1992년 3월 6일, 성심 금요일

13시 00분에 저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성당은 닫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열쇠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병원 건물의 경비원을 불러 성당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가 성당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성체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님께 폴란드의 스타니슬라우 신부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성체를 손에 받아 드리는 방식으로 분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부님과 아주 잘 지냈는데,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구세주께 그 신부님이 예전에도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셨는지 다시 물었다. 구세주: “아니, 그는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배신한 거야.”

나: “이걸 일기에 써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써라. 그는 그 일로 많은 은총을 잃었다.” 나: “누가 그에게 영향을 주어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게 한 건가요?”

구세주: “루시퍼의 소행이다. 그들이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는 한, 그들은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나: “주님, 제가 스타니슬라우 신부님께 이 말을 전해도 될까요?”

구세주: “내 딸아, 그는 네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나: “그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걸 느끼고 있나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알고 있느냐?” 나: “하지만 주님, 어쩌면 신부님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구세주: “내 딸아, 죄를 깨닫지 못하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 나: “곤경에 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조금 놀랐고 숨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래서 구세주님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다. 어쩌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세주: “적어 두거라, 내 딸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오전 중에 나는 구세주께 대학병원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구세주: “내가 할 말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 “구세주님, 당신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저녁에 로트(Rot)의 교회에서 나는 스타니슬라우 신부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미사가 끝날 무렵, 영원한 등불이 켜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렸더니, 성당 관리인 여성이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성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 여성을 위해 기도했다. 로트 출신의 에리히라는 남자가 밖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는 마리오네프를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20시 00분에 저는 더 이상 평신도가 성체를 분배하지 않도록 엑소시즘 기도와 성령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대에 성체 분배 봉사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리히가 나와 함께 있어 주며 기도해 주었다. 나는 남편도 기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남편은 매우 예민해져 화를 내더니, 결국 에리히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엑소시즘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날 저녁 남편은 모든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묵주기도를 두 번 더 바쳤다.

1992년 3월 7일 - 성모 마리아의 속죄 토요일

이른 아침, 저는 코르둘라 부인과 함께 바그하우젤의 교회에 갔습니다.

16시 15분부터 18시 15분까지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등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누군가 와서 그 불을 밝혀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시 00분이 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아 영원한 등불을 켜지 않는다면, 10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 일을 주님께 바칩니다.”

17시 00분이 되어도 아무도 와서 영원한 불을 켜주지 않는다면, 10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 일을 주님께 바칩니다.”

17시 05분이 되어서야 성당 관리인이 와서 영원한 불을 켜는데, 그녀는 매우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저는 두 시간 동안 무릎 꿇고 묵주기도 네 번과 그 밖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1992년 3월 8일 - 일요일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했다. 먼저 성령께 기도한 뒤, 옛 ‘고백기도(Confiteor)’, 축귀 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와 수호천사께 드리는 기도, 성모님께 바치는 봉헌 기도, 성심 기도, 그리고 기쁨의 묵주를 바쳤고,

그 후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다시 온 마음을 다해 울기 시작했는데, 내게 닥친 시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남편에게 닥친 시련들이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토록 많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

저는 구세주께 도움을 청하며 그분께 하소연했습니다. 성모님께도 이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에서 시련이 닥쳐오고, 게다가 신부님에게까지 실망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그쳤습니다. 그 후 제 마음속에 깊은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신부님과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표징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제가 죄인이라 이 표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세주: “그래, 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징을 받게 될 것이다.”

나: “그때 신부님도 그 표징을 보실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구세주: “그래.”

나: “그 표징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좋은 표징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건가요?”

구세주: “하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나: “그 표징은 언제 나타날까요? 부활절 전인가요, 아니면 그 후인가요?” 구세주: “부활절 전입니다.”

나: “그 사제는 이 표징을 보고 변할까요?” 구세주: “아니요, 그는 그로 인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왜 그러시는 건가요, 구세주님? 저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신부님이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구세주: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나: “하지만 왜 그러시는 건가요, 구세주님?” 구세

주: “그에게는 아직도 자만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야.”

나: “주님, 제발 제 일기를 말길 수 있는 다른 사제를 보내 주세요.”

구세주: “그건 내게 맡겨라.”

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예를 들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큰 사랑, 나의 거룩하고 강하며 영원한 하나님, 만왕의 왕, 나의 평화의 왕,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등등. 이렇게 부르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구세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라.”

저는 이 대화에 감사드리며, 매일 연옥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면죄 기도를 바치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연옥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시간은 대략 8시 30분이었다. 남편이 일어나 와그하우젤로 고해성사를 받으러 갔다.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며 하느님께서 그에게 좋은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었다.

9시 45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저는 로트(Rot)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미사 전에 저는 교회에 온 모든 신자들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연도를 바쳤습니다. 성체는 다시 연옥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변해 있었고, 저와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루 종일 평화로웠고, 남편은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이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밤 2시 30분에 잠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일곱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며, 각 말씀마다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한 번, 그리고 '영광송'을 바친 뒤, 자비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 연옥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에게 성수를 뿌려 주고는 기분 좋게 다시 잠들었습니다.

1992년 3월 9일 - 월요일

10시 의사실:

저는 구세주께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금요일에 구세주께서 내게 그분이 말씀하실 내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기에, 나는 그분께 원하신다면 적어도 가장 온화한 말씀만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그들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거의 모두가 넓은 길에 있습니다.” 나: “구세주님, 제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세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 “하지만 제 기도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요.” 구세주: “아니, 나와 함께라면 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터키에서 온 한 의사, 즉 무슬림 한 분이 엑스레이 촬영과 사진에 대해 알아보려고 우리 엑스레이 과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엑스레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가톨릭 신앙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의사는 무슬림인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옳은 일인지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모든 사람은 똑같은 믿음이 필요하단다.”

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그대로 있으세요.”

오후 1시, 병원 내 성당에서.

저는 구세주님께 일요일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평일에는 몇 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신부님 혼자 성체를 나눠 주실 수는 없나요? 평신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나는 다른 신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기다릴 수 없다면 젊은 사제 지망생들을 위해 기도하여 사제가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세주: “일요일에만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합당하지 않게 영하고 있다.” 나: “그건 신부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신부님께서는 그걸 모르시나요?”

구세주: “그가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이 말을 일기에 써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적어 두렴.”

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저지르는 죄가 손으로 저지르는 죄보다 더 많다고 말해요.”

구세주: “그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성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평범한 빵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는 무관심 때문이야. 사제들은 그들에게 그 차이를 설교해야 하지만,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는 관행을 실천하고 있으니 더 이상 그에 대해 설교할 수 없게 된 거지.”

나: “그들은 손으로 받아도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며, 누군가 합당하지 않게 영한다면 그것은 곧 경건하지 않은 행위이기도 하다.”

나: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관행 때문에 많은 신성모독이 일어나나요?” 구세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저녁, 로트(Rot)의 교회에서 신부님이 복음서를 읽고 계실 때, 한 여성이 교회 안을 가로질러 신부님 바로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신발 소리가 너무 크고 걸음걸이가 거침없어 모든 신자들이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교회 안에 차를 세워 그녀가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모습은 내게 이상하게 보였다.

그녀는 성당 관리인에게 손짓했고, 관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신부님의 말씀을 중단시킨 뒤 모든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부님이 그 차가 누구 것인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체 성사 후, 나는 구세주님께 요한 신부님에 대해 여쭙었다. 롤란드가 전화로 이탈리아의 요한 신부님이 플라톤 주교에게 개종하여 이제 그의 책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구세주: “요한 신부님의 책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 후 저는 1992년 3월 13일에 열릴 예정인,

가라반달에 관한 강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라반달의 발현을 믿지만, 그 영화 상영과 이어지는 토론, 그리고 그에 대한 과도한 홍보는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악마가 활동하며 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구세주: “네 추측이 맞다.”

저녁 8시, 기도 모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992년 3월 10일 — 화요일

어제 교회에 오셨던 그 여성에 대해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것은 부정한 영이었다. 내가 허락한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빨간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다.”

1992년 3월 11일 — 수요일

10시 10분, 의사 진료실:

나는 다시 구세주께 그 표징에 대해 물었다. 구세주: “너는 교회에서 표징을 받게 될 것이다.” 나: “그게 무엇일까요?”

구세주: “그건 내게 맡겨라.”

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제게서 나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세주: “그래, 할 수 있다.”

구세주님께서 제게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자 하나님이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무언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구세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나: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16시 30분: 저는 복스베르크의 출나켈에 가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탓에 그곳에서 미사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19시 00분, 저는 망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혼자 성체 영성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로 오신 신부님께서 미사 마지막에야 저에게 성체를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신부님을 위해 여러 번 ‘성모송’을 바쳤습니다.

성체를 마리온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20시 30분에 마리온이 도착했고, 우리는 일기 내용을 적었습니다.

1992년 3월 12일 — 목요일

벌써 이틀째 병원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었다.

12시 30분, 병원 성당에서:

어제 로쿠스 성당에서 혼자 성체 영성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옳은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성체 영성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체를 영할 때 서 있거나 신부님 바로 앞 계단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세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무릎 꿇어라.”

나: “다른 사람들은 왜 성체 영성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건가요?” 구세주: “잘못된 겸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신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저는 기도 모임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구세주님께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하지만 사랑으로.”

왠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구세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혼자 서 있게 되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느 때처럼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후 4시에 밉골스하임으로 가서 약 한 시간 반 동안 소금 목욕탕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도 묵주기도를 함께 드렸다. 성체를 영할 때, 수녀님이 내 옆을 지나갔다.

저는 일어나 성체 성사를 받지 않은 채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체 분배대에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악마들이 나를 찢어발기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세주님께서 영적으로 제 곁에 오셨고, 저는 많은 은총, 특히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그 직후 나는 밉골스하임에 있는 로쿠스 성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19시 30분에 또 다른 미사가 있었고, 거기서도 성체를 영했습니다. 이 성체를 저는 아직 연옥에 계신 사제들과 수도자들, 성체를 나누어 주셨던 수녀님, 그리고 연옥에 계신 다른 모든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1992년 3월 13일 -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약 한 시간 동안 병원 전체와 제 가족, 도샤르 신부님과 포르트 신부님을 위해 퇴마 기도를 적어도 10번 바쳤습니다.

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구세주님을 위한 시간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과에 두 명이 결원인데, 한 명은 병가 중이고 다른 한 명은 5월에야 출근합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세 사람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분은 그 은총을 주셨고, 하느님의 힘으로 저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10시 10분에 의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고감했는데, 오늘날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수녀님이 구세주님을 모시고 제 곁을 지나가셨을 때, 제가 일어나 구세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제 자리로 돌아갔더니, 내 면에서 큰 공격을 느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아주 많은 불결한 영들이었다.”

나: “그들이 제가 성사적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제게 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은 건가요?” 구세주: “그래, 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 “그 순간 그들이 저를 찢어발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상상한 걸까요?”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를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나: “주님, 그 후 주님께서 영적으로 제게 오셔서 제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성사로 성체를 영했을 때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세주: “내가 사제의 축성된 손을 통해 신자들에게 주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 “저는 사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구세주: “너는 항상 사제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그가 나에 대한 존엄을 훼손한다면 그렇지 말아야 한다.” 나는 성체를 영하지 않고 수녀님 앞에서 도망친 것이 옳은 일인지 알고 싶었다. 어쩌면 구세님께서 그 일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세주: “아니야, 내 딸아, 오히려 네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나: “하지만 주님, 신부님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요?” 구세주: “그럴 때는 신부님의 말에 따르거라. 그 책임은 신부님에게 있다.”

나: “언제 보르트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주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분과 이야기해 보렴.” 나: “언제요?”

구세주: “가능한 한 빨리.”

나: “제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아서 평신도로부터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잘 들어라.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모든 사람과 평신도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는 평신도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보그트 신부님께 모든 내용을 읽어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만 읽으면 될까요?”

구세주: “모두 다, 내 딸아, 전부 다.”

나: “주님, 제가 그분께 찾아갈 때 저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구세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 “주님, 제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그 신부님께 가야 한다는 확인인가요? 제가 그분께 가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구세주: “그 점에 대해 나는 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 “저는 이미 그분을 위해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드렸으며, 성체 성사도 수없이 바쳤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조금은 변할까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는 이미 변하고 있지만, 내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갔고, 성체를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1992년 3월 14일 - 토요일

이른 아침 바그하우젤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알라누스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교회에서 라우레타노 기도문을 바쳤습니다. 그 후 마리온과 함께 일기를 쓰러 갔습니다.

16시 30분부터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다. 16시 45분에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받으러 갔다. 나는 매우 실망했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 그 후에도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1992년 3월 15일 - 일요일

밤 3시 45분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도 기도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주님의 것이며, 모두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약 한 시간 반 정도 기도한 뒤,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제 보그트 신부님과 고해성사를 나눈 후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때 구세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갈 필요가 전혀 없게 될 테니까요.

저는 구세주께 답변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분, 나의 예수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분,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여,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는 네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며, 네 예수님이시며, 네 영적 지도자이다.”

나: “고해성사를 마친 후 어떻게 H. 보그트 신부님께 가서 일기장을 읽어 드려야 합니까?”

구세주: “아직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표징에 대해 물었습니다.

구세주: “교회에서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 “그로 인해 영혼들이 회개하게 될까요?”

구세주: “그렇다.”

나: “언제요?”

구세주: “부활절 전에 일어날 것이다.”

나: “제 가슴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세주: “그것은 나의 상처다. 내가 너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

나: “사제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구세주: “아니, 그는 나를 그의 마음속으로 들여보내지 않는다.”

나는 보그트 신부님의 고해소에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는지 물었다.

구세주: “고해소에서 넌 올바르게 행동했다. 내 딸아, 계속 나에게 충실해라.” 나: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6시경에 다시 침대에 누워 2시간 반 정도 더 잤습니다.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로트(Rot)의 교회를 위해, 특히 보그트 신부님, 미사 봉사자들, 평신도들, 성가대, 그리고 교회에서 합당하지 않게 성체를 영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후에는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밁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설교를 해 주셨고, 저는 구세주와 아주 아름다운 일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흘째 독감에 걸려 있었지만, 교회에 갈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3월 16일 — 월요일

심한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심한 두통과 목, 가슴 통증을 겪었습니다.

기침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흉추도 무척 아팠습니다.

집에 머물렀고, 11시 30분에 병원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1시간 반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구주와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네 삶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너는 온전히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다.”

나: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천국이 너무 그리워요.” 구세주: “네가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나: “주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내가 이미 너를 내게로 데려가려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 것이다.”

나: “제가 이미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했나요?” 구세주: “오, 내 딸아,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구세주: “네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마라. 내 손에 맡겨라.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나: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제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주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구세주: “내 딸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나: “항상 이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자 하나님하신 당신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완전한 만족은 오직 주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있습니다.”

지난번 고해성사 후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보그트 신부님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먼저 보그트 신부님이 겁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적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반복하셨습니다.

나: “겁쟁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해 주세요.”

구세주: “그에게는 내가 맡긴 일을 수행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나: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세주: “하지만 그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 “제가 그분과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구세주: “그래, 있을 것이다.”

나: “하지만 그는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는 독립적이거든요.” 구세주: “종립이란 건 없어. 믿거

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지.” 나: “주님, 나의 하느님,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녁에 로트(Rot)의 교회에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분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20:00 기도 모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도했고, 모두가 영적으로 교감했습니다.

저는 기도 모임에서, 근처에 신부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영적으로 교감하고 구세주와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배워서 실천해야 하며,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영적 삶을 위한 많은 힘과 은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도샤르 신부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1992년 3월 17일 - 화요일

어제 은총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 눈물이 났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불결한 영이 저에게 ‘그것은 구세주의 목소리가 아니며, 신부가 겁쟁이 일 리가 없다’고 속삭이려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라, 그건 바로 너 자신이다.” 저는 울기 시작했고, 곧바로 기도했습니다. 의심은 참으로 순식간에 찾아오네요.

저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표징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사제가 볼 수 있는 표징,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 사제가 깨달음을 얻는 표징 말입니다. 저는 사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채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성직에 서임된 사제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말길 수 있는 사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겁쟁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제를 위해서라도 저는 기꺼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가 모든 말을 마친 후, 고요함과 평안이 찾아왔고, 저는 구세주께 더 이상 묻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딸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되어 놀랐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약 1시간 동안 더 기도했습니다. 저는 추간판 문제로 약 40분 동안 체조하러 나갔었는데,

현재 통증이 있어서 약 40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웃집에 소방대와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차고와 차가 불에 탔던 것입니다. 차고 안에 폭발물이 든 병이 있었는데, 주변의 여러 집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악마가 오늘 아침 나만 괴롭힌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를 입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해 둔 게 다행이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후에는 숲으로 가서 묵주기도를 세 번 더 바쳤습니다. 보그 신부님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시 묵주기도를 바치고, 보그 신부님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가 성체를 분배하지 않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라 기뻐했습니다. 비록 고인 미사였고 미사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러니 신부님께서 홀로 성체를 나누어 주시면 정말 훌륭하게 진행됩니다. 신부님을 위해,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체를 나누어 주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1992년 3월 18일 - 수요일

이른 아침에 약 한 시간 반 정도 기도했습니다. 일체감에 빠졌을 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구세주님께서 제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저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뿐입니다.

평화와 평온함을 느꼈고,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오에는 묵주기도를 바치고, 밋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단식했고, 신부님을 위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19.03.92 — 목요일

오전 3시 30분에 일어나 성 요셉께 사랑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두 시간 후 다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오직 그분만을 위해 기쁨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그 후 묵주 대신 대천사 미카엘 기도문을 50번 바치며 다음과 같은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교회의 어머니시여, 모든 천사와 성인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를 덧붙여 50번 바쳤고, 이어서 큰 구슬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쳤으며, 글로리아 파트리, 마그니피카트, 산크투스 3회, 그리고 “반역하는 천사들에 대항하는 성모 마리아의 간구” 기도를 바쳤다. 이 “엑소시즘 묵주기도”에 저는 제 모든 적들, 성 보그트 신부님, 바그하우젤과 노이부르크 수도원, 슈파이어와 프라이부르크의 신부님들, 그리고 주변 지역의 모든 사제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제 기도 모임, 성 도하르트 신부님, 그리고 성체를 나누어 주시는 평신도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성체를 나누어 주는 평신도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영적으로 성체를 영했습니다.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을 때, “고맙다, 내 딸아.”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 하신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오직 그분만이 아시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그 힘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로트(Rot)의 교회에서 성체 분배 봉사자인 평신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구세주 앞에 절을 올리고, 성체를 영하지 않은 채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체를 영했고, 구세주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그 영적 성체 영성체를 성 요셉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1992년 3월 20일 - 금요일

기도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그 평신도에게서 성체를 영하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옳은 일이었다. 가능한 한 계속 그렇게 하거라.” 도하르트 신부님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서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을 옹호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나: “그런 사제, 즉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제를 대할 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구세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올바른 방법은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이라고 그에게 전해라.” 나는 성목요일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알로이스 형제가 헤드비그에게 그날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런 건 믿을 필요 없어.”

나: “예수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구세주: “그래. 항상 나에게 충실해라.”

나: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께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는 십자가가 더 무거워지더라도 항상 아버지께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저녁에 로트(Rot)의 교회에서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1992년 3월 21일 - 토요일

나는 바그하우젤에서 이른 아침 미사에 참석하여 특히 베르너 에곤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다. 그가 복음 봉독 때 우리에게 앉아 있으라고 요청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지금 앉아 있는 모든 이를 대신해 무릎을 꿇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내면에서 공격이 밀려왔다. 그 후 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베르너 에곤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에는 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신부님께서 주저 없이 나에게 성체를 주셨다. 나는 구세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함께해 달라고 청했던 하느님, 성모 마리아,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그리고 피오 신부님 같은 모든 성혼을 지닌 분들에게 감사드렸다.

오후 16시 15분부터 18시 15분까지 저는 보그 신부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진흙을 위해서, 성체 분배자들이 더 이상 성체를 나눠 주지 않도록, 신자들이 더 이상 부적절하게 손으로 성체를 영하지 않도록, 그리고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일로 인해 하느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모욕받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보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그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사죄를 주셨지만, 마치 제가 낯선 나라에서 고해성사를 받은 것처럼 저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해소에서 나와서 또 한 번의 묵주 기도를 드리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저녁에는 한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1992년 3월 22일 - 일요일

오전 7시에 기도를 시작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한 뒤,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보그트 신부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사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러고는 구세주께 그 신부님이 왜 나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는 지금 스스로 문제가 있다.” 나: “주님께서 그를 통해 말

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구세주: “나도 그를 통해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안 돼.” 나: “제가 사제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구세주: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제가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제 상상일 뿐인지에 대해 자주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잘 생각해 보거라, 내 딸아.”

그때 저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네 영혼의 인도자다, 등등.”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을 적어 두어라. 너는 선택받았고 미리 정해져 있다.” 나: “하지만 저는 수년 동안 죄를 지어 왔습니다.”

구세주: “하지만 너는 내게로 왔구나.” 나: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길을 잃고 있었나요?”

구세주: “그래.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 “그 수백만 명의 사

람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나요?” 구세주: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저는 구세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미사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사에 참석할 모든 이를 위해 성령 기도문을 바쳤습니다. 아무도 합당하지 않은 채 성체를 영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가 들렸나 봅니다. 성체를 영하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었으니까요. 이제 구세주님께서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표징도 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보러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체를 영할 때 의자에 무릎 꿇고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지금 제가 성체를 영하게 될 분이 사제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평신도가 제게 다가와 저를 보자마자, 마치 깜짝 놀란 듯 순식간에 몸을 돌려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그트 신부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성체를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교회에서 묵주기도와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마리온이 저와 함께 있었고, 우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1992년 3월 23일 -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약 한 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일요일에 성체를 영한 사람이 너무 적었던 것이 나를 위한 징표였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부활절 전에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내 딸아, 나를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는 네가 항상 나에게 충실하기를 원한다.”

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내가 너를 나에게로 이끄는 길로 인도하리라.” 나: “길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구세주: “항상 내 손을 꼭 붙잡아라.”

나: “주님, 제가 이미 선택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세주: “그릇된 교리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라.”

내 딸아,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나: “그건 힘든 임무입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이 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영혼은 깊은 평화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체 성사 전에 저는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염원을 이 묵주 기도에 담았습니다. 성체 성사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20:00 기도 모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약 두 시간 동안, 특히 사제들이 더 이상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1992년 3월 24일 - 화요일

먼저 한 시간 동안 기도한 뒤, 영성체를 받았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한 교수이자 사제께서 1992년 3월 21일 슈파이어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에 관한 카세트 테이프를 이미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크로아티아 출신의 그 신부님, 즉 교수님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목소리'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하지만 너는 그곳에 가지 않았잖아." 나: "주님도 저를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구세주: "너는 사제에게서 항상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서 좋은 점도 찾아보아라."

나: "주님, 저는 사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세주: "네가 그들의 나쁜 행실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나: "주님,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잖아요." 구세주: "그래,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 나: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 같네요."

구세주: "그래, 네가 맞췄다."

나: "주님, 우리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건가요?" 구세주: "더 밝아지도록 기도하라."

나: "주님,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빛으로 이 어둠을 비추어 주십시오."

구세주: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 아버지를 원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죠."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

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돈 보스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Avertere, avertere!'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베드로의 열쇠에 대해 여쭙보았는데, 모든 사도들이 천국의 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요?"

구세주: "내 집은 세상의 집이 아니다. 여기에는 열쇠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을 가진 이는 베드로다. 모든 이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나: "하지만 그에게는 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구세주: "그것이야말로 그가 내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표징이다."

기억해라, 내 딸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교리에 반하는 자는 성령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끔찍한 죄악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나: "주님,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적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3시부터 14시까지 수영을 했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물속에서도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수영장에 있는 물방울만큼이나 깊이 사랑합니다."

곧바로 구세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영장에 있는 물방울만큼이나."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저녁에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오늘 다리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남편을 위해 묵주기도와 성체를 바쳤습니다.

1992년 3월 25일 — 수요일

구세주를 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에, 저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한 뒤, 마음속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께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거나, 무언가를 요청하실지도 모르니까요."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라. 보그트 목사님이 네가 쓴 내용을 들어야 한다."

나: “언제 그분께 가야 하나요?” 구세주: “그분께 가서 다시

물어보아라.” 나: “그때도 저와 함께 계실 건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이제 그를 통해 말

씀하시겠습니까?”

구세주: “나에게 말거라.”

나: “언제 그에게 가야 하나요? 부활절 전인가요, 아니면 부활절 후인가요?” 구세주: “지금, 바로

이 며칠 안에 가라.”

나: “그가 제가 주님께에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구세

주: “그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구세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구세주님께서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더 반복하셨다.

나: “H. 보그트 목사님께 전할 말이 또 있나요?” 구세주: “내가 그를 무척 사랑한

다고 전해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구세주님과 하나 될 때, 저는 유난히 깊은 평화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구세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방식과 기도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마음을 다해 내면 깊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5시 45분에 보그 신부님을 뵈었습니다. 그 후 교회로 가서 보그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 두 번을 바쳤습니다.

16시 30분: 마르가 F. 씨로부터 오늘이 ‘주님의 수태고지’라는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가와 저는 둘 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세주께서 하필 오늘 저에게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가라고 하셨고, 보그트 신부님께서 제가 쓴 내용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내용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약 30분 정도 더 기도했다.

18시 00분에 사제관 초인종을 한 번 눌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가서 신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묵주 기도가 끝난 후 보그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접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세주께서

92년 3월 25일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읽어 드렸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이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축복을 청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19시에는 이미 망골스하임의 교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를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고, 라틴어로 드리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저는 꽤 놀랐고, 이 신부가 르페브르 주교에 반대하는 강연을 했었기에 르페브르 주교께서 이 신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신부님께 다가가 이 아름다운 미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거의 전적으로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3월 26일 — 목요일

밤 4시부터 5시까지 모든 영혼을 위해 묵주기도 두 번과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9시 30분에 다시 기도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쓰라린 눈물을 흘려 흐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제 손조차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면 아래에 숨겨진 본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분께, 그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찾아뵙는 것이 싫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울음이 더 거세지자,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나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울음을 그쳤다.

저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니까요.”

나: “주님, 주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제 고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구세주: “그래, 그 말이 맞다, 내 딸아.”

나: “저는 그 신부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분을 떠나면서 마음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구세주: “신부님과의 일은 네가 옳게 했어. 나머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 나에게 말거. 나를 믿어.”

나: “그리고 어제 마르가가 저에게 말해준 것,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 말이에요.” 구세주: “사람들의 말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나: “오늘 밤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했을 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를 괴롭혔던 그 불안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마귀에게서 많은 영혼을 빼앗아 왔다. 밤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알 수 있도록, 나는 그 작은 유혹들을 허락한 것이다.” 구세주와의 이 교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내 안에는 깊은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내가 오직 예수님만의 것인 양 생각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지요. 제 상처 입은 영혼은 몇 분 동안 치유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의사는 이를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늘의 의사이신 우리 구세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저를 저버리고 떠나더라도, 구세주의 사랑은 모든 사제와 사람들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저는 항상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주님이자 하나님이신 분, 당신의 여종을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제가 이 글을 올바르게 썼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네게 영감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네가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저: “주님, 제 충동적인 성미를 제게서 없애 주셔서, 제가 더 평온해지고 계속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지금 네게서 그 점이 마음에 든다, 내 딸아.”

나: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 주십시오. 주님과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제 가야겠습니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 40분이었습니다. 10시 30분에 체조 수업 약속이 있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직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체조 강사 선생님은 제가 늦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막 빈 자리가 있던 11시 30분으로 새로운 예약 시간을 잡아주셨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우연이란 없으니까요. 구세주님, 제가 또 한 번 예약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척추 체조 수업은 몇 주 전부터 이미 예약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미사를 드리며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헤드비그와 힐데가 잠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 마리오니 와서 우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1992년 3월 27일 - 금요일.

약 1초간 기도한 후 영적으로 교감했습니다. 그 후, 어제 구세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지금 네게서 마음에 드는 점은...”

“제가 충동적인 성격을 고쳐야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대로 있어라, 내 딸아.”

H.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이 또다시

고해소에서, 사제관에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구세주: “지금 네게 힘든가?”

나: “아니요.”

구세주: “모든 일은 제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님, 제게 다가올 일 중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구세주: “그래, 너에게 많은 유혹이 닥칠 것이다. 기도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이 내게 닥치게 내버려두시는 건가요?”

구세주: “누구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느니라.”

나: “유혹에 맞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구세주: “너도 알다시피, 내 딸아, 바로 사랑이다.”

나: “그렇다면, 제발 저를 그 사랑에서 결코 멀어지게 하지 말아 주세요.”

구세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일 뿐이다. 그들로부터는 지옥 같은 열매만 거둘 뿐이다. 그들이 제거되도록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나님이시여, 오늘의 교훈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오후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악마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미용사가 한 신자에 대해 험담을 했고, 제가 그 말을 옳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을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나는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목주 기도를 드렸다. 성체를 모셨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1992년 3월 28일 — 토요일

오전 1시 45분부터 2시 50분까지 모든 영혼을 위해 경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구세주께서 “고마워, 내 딸아.”라고 말씀하셨을 뿐, 그 외에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오전에는 다시 한 시간 정도 기도하며 주님과 일치를 이루려 했으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5시 45분 — 17시 15분: 목주기도를 두 번 바쳤지만, 마음이 산만했다. 그 후 다시 고해성사를 받으러 갔다. 험담한 죄를 씻어내고 싶었다.

고해성사 때 보그트 신부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신 것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제를 통해 제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후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목주기도 한 단을 더 바쳤습니다.

19시 00분에는 이미 바트 친보른 교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신자들이 습관적으로, 혹은 큰 죄를 지은 채로 성체를 부당하게 영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미 충분히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평신도와 신부님께서 성체를 분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신도 한 분이 성체 분배를 위해 뒤쪽으로 오셨는데, 교회 앞쪽에 계신 신부님에게 가는 사람보다 그 평신도에게 성체를 영하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미 분배를 마치고, 그 평신도분이 제 앞길을 막고 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옆을 지나 제단까지 걸어갔다. 신부는 이미 제단 위로 올라가 계셨지만, 나는 계단에 무릎 꿇고 신부님이 오셔서 나에게 성체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 사람들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미사가 끝나자 교회는 순식간에 텅 비었다. 그 누구도 그 귀중한 성체를 영한 후에도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평범한 빵을 받은 것이지, 빵의 형상을 취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법도 했습니다.

1992년 3월 29일 — 일요일

45분 동안 기도한 후,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신부가 여전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구세주: “아직은 이대로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바트 친보른에서 평신도에게 가지 않고 사제에게 찾아간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물었다. 비록 그렇게 하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더라도 말이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내 뜻을 이루었다.”

나: “그 전에는 제 마음속에 큰 불안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죠.” 구세주: “부정한 영들이 네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나: “주님께서 제게 임해 주셨을 때 비로소 깊은 평안을 얻었고,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제 마음속의 불안과 공격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바라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하거라.”

나: “가장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사람들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쳐다보더라도 상관없지만, 내면의 투쟁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사적 성체 영성체뿐만 아니라 영적 성체 영성체 때에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평신도가 뒤로 가서 성체를 분배하도록 이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사제의 뜻입니까?”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은 사탄의 소행이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그 평신도로부터 성체를 영한 모든 이들은 합당하지 않게 성체를 영한 것이다.”

나: “주님, 우리 교회 소식지에서 베네부쉬 양이 병자들에게 성체를 가져다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에 부합합니까?” 구세주: “그것은 이단이다.”

저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것도 이단에 속한다.”

구세주: “기록해 두어라, 내 딸아. 사람들은 진흙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나: “주님,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한동안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저는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를 영할 때 그 평신도가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제게 성체를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공격을 느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오셔서 제게 성체를 주셨습니다.

성체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병원 직원들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13시에는 목주 기도를 드렸고, 그 후 교회에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14시 30분에 병원에 있는 남편을 문병하러 갔습니다.

1992년 3월 30일 - 월요일

직장에 혼자 있었습니다. 동료는 여전히 병가 중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오기 전까지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임의사가 와서 제가 혼자 있고 직원 두 명이 결근 중이라고 말하자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분은 1시간 반 동안 도움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사회복지병 한 명이 왔고, 혼자 일해야 했지만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10시 30분쯤 의사실로 들어갔다. 수호천사에게 뒤쪽에서 환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물었다.

“가 보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바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뒤쪽 엑스레이실로 갔을 때, 환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3시경, 나는 예배당에 있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서 구세주께 그분이 수호천사였는지 물었다.

구세주: “내 딸아, 불순한 영이 끼어두고 있다. 그 목소리를 잘 분별해라. 네가 너무 성급했다. 온유함의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한다.”

나: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무엇이 주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구세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구세주: “하지만 들었잖니.”

나: “그 말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구세주: “나와 대화할 때는 평온과 평화를 유지하라.” 나: “수호천사도 나에게 말을 건다고 하셨잖아요.” 구세주: “그래, 하지만 네가 원할 때는 아니야.”

저녁에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주기도와 미사를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20시 기도 모임.

도하르트 신부님도 오셨고, 우리는 구세주를 경배했습니다. 신자들도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은총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자들을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기도한 후, 예전처럼 신부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 일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도하르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1992년 3월 31일 -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의사실:

어제 저녁 도샤르 신부님께서 교황에 대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늘 구세주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성부는 무오하시다. 그분은 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리고 모든 이는 이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

제가 기도 모임에서 한 말이 옳았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네가 한 말은 내가 네게 영감을 준 것이다.”

구세주님께서 제 영적 지도자이시니, 브레텐에 가야 할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님: “내 딸아, 그곳에 갈 필요는 없다.”

1992년 4월 1일 — 수요일 - 보배로운 피의 경배 - 로달벤.

환자들이 오기까지 약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했다. 저녁에는 밁골스하임에 있는 로쿠스 예배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묵주기도를 바치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4월 2일 - 목요일

로트의 교회에 가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4월 3일 - 성심 금요일

11시 의사실:

기도를 마친 후, 구세주와 하나 되는 순간:

구세주: “사제에게 가서 네가 쓴 내용을 말해라. 사제로서 그는 네 말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

나: “주님, 만약 그분이 저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죠?” 구세주: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나: “언제 가야 합니까?” 구세주: “오늘 가서 그에

게 물어보아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가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제가 사제님께 가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세주: “그가 신자들과 함께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그릇된 가르침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다.” 나: “그 말을 그에게 전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 말을 그에게 해야 한다.”

나: “그가 저에게 ‘그릇된 가르침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요?” 구세주: “너는 알

고 있구나, 내 딸아.”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저녁에 나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와 성체를 봉헌했다.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바쳤다. 구세주와 하나 된 후, 나는 보그트 신부님을 언제 찾아가야 할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구세주께 여쭙었다.

구세주: “오늘 당장 가거라.”

나는 울기 시작했다. 보그트 신부님께 가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 굴욕감 때문이었다.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와서 교회에서 나올 수조차 없었다.

저는 구세주님께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제관 문 앞에 섰을 때, 울음이 너무 심해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복사가 와서 신부님을 불렀습니다.

신부님이 오셔서 제가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자, 들어오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신부님으로서 저를 들어주시고, 구세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신부님은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셨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은 제가 다른 마을의 다른 신부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일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지에 실린 어리석은 농담들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녁 미사 후 성체를 영한 뒤에는 불이 곧 꺼지기 때문에 서둘러 교회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심지어 교회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자 그는 성당 관리인 아내가 곧바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교회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 후 햄브슈 부인 댁에 가서 일기를 쓰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 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1993년 4월 4일 - 토요일

아침 일찍 바그하우젤 교회에 갔습니다. 성체성사 후, 성체함 앞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보그트 신부님께 뭔가 잘못된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세주: “너는 그분께 올바르게 말했다.”

나: “그럼 일기를 계속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둬야 할까요?” 구세주: “계속 써라, 내 딸아.”

그 후 햄브슈 가족 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마리온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16시 15분부터 18시 15분까지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보그트 신부님과 구세주의 염원, 그리고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92년 4월 5일 - 일요일

성체 성사 전에 약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에 보그트 신부님께서 “그렇게 하면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내가 악순환 속에 있다는 뜻이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악순환 속에 있게 된다.”

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구세주: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다.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습은 지체 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성직자로 서품받은 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성체를 분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과거 교황들에 의해 이미 확인된 바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나: “보그트 신부님께서는 제가 이 마을 출신이 아닌 다른 사제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30초 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다. 구세주: “내 딸아, 곧

올 것이다.” 나: “무슨 말이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구세

주: “진정한 사제.”

나: “그럼 그 새로운 신부님께서 제 일기를 읽으시게 될까요?” 구세주: “그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실 것이다.”

나: “그럼 벌써 그 새로운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해

.”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벌써 7년째 알고 지냈고, 심지어 8년째 그분을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직 사제복을 입지 않으셨고, 저는 새로운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신부님이셨던 케스텔 신부님은 이미 은퇴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도 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께서는 오늘 좀 더 엄격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십자가를 집어 가슴에 꽂 껴안으며 구세주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랬듯이 십자가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무관심함으로 구세주를 손으로 영성체하는 이들을 대신해 구세주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얼굴을 새겨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계속 주님의 종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분.”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것을 자비의 원천이신 주님의 상처 입은 마음에 바칩니다.”

그때 제 영혼은 아주 특별한 평온과 온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세주의 사랑을 평소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욱 생생하시고, 위엄 있으시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10시: 나는 붉은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8시에는 고해 기도가 있었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시, 마리오이 왔고 우리는 약 한 시간 반 동안 일기를 썼다. 그 후 나는 묵주기도를 한 번 더 바쳤다.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록해 두어야겠습니다.

저는 기도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르가레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강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일기에 뭔가 더 적고 싶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일어나고 싶는데 힘이 없어요.”

한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육신은 약하지만, 내 영은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어나서 가서 일기를 써라.”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운이 넘쳤고,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1992년 4월 6일 — 월요일

기도를 마친 후, 새로운 사제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다.

구세주: “새로운 사제가 올 것이다.” 나: “그것이 그분의 뜻

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뜻인가요?” 구세주: “내 뜻이다.”

나: “어제 고해 기도 시간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부족했어요.” 구세주: “그 고해 기도 시간은 마귀가 좋아했지만,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나: “그러면 자력이 없는 많은 이들이 성체를 영하게 되겠군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맞췄구나.”

구세주: “이 일을 위해 기도해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귀고해는 여전히 유효하다. 고해 기도회에는 여전히 자만심이 너무 많고, 신자들에게는 참회가 부족하다.”

마치 모든 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몇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구세주: “내 딸아, 그건 내가 네게 심어 준 것이다.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오후 12시, 직장 내 예배당에서: 먼저 구세주님께, H. 보그트 신부님과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잠시 기도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겸손해라.”

그러자 다시 침묵이 흘렀고, 곧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너에게 말을 걸 것이다.” 제가 목사님께 먼저 말을 걸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분이 네게 말을 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구세주님께 물었습니다. “구세주님, ‘겸손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님: “작아져라.”

저녁에 저는 교회에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0:00 기도 모임:

우리는 약 두 시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부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잃고 싶지 않으며, 떠나시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1992년 4월 7일 — 화요일

나는 구세주께 기도 모임이 오래 걸렸는지 물었다.

구세주: “아니야, 내 딸아, 오래 걸리지 않았어. 너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해.”

저는 구세주님께 기도 모임에서 제가 한 말이 마음에 드셨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네가 말하는 것은 모두 진리다.”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바쳤던, 세상의 구원의 닷인 속죄 묵주 기도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구세주: “그것은 속죄 묵주기도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에 관해서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 때 제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까?”

구세주: “그들에게 말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

오후 1시, 병원 내 성당에서:

기도가 끝난 후, 저는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나에게 충실해라.”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가 무엇으로 주님을 실망시키겠습니까?” 구세주: “네가 쓴

그 글 말이다.”

나: “그런데 신부님이 제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럼 신부님이

원하는 대로 하거라. 그 책임은 신부님이 지게 될 것이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온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을 고해성사도 보냅니다. 오늘도 한 젊은 여성, 대학생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지러운 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꺼운지는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고해성사를 한 지 꽤 오래되었나요?” 그녀: “네.”

그러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 주며 엑스레이실에 걸려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 상을 차분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주님, 사랑하는 성모님, 이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나는 그 젊은 여성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기뻐하며 행복하게 떠났다. 이런 증상과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제가 이미 엑스레이를 찍어본 사람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사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 고통이 신체적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료로 엑스레이 사진은 모두 10년 동안 보관되었다가 파기됩니다.)

환자들이 진료 예약 전에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사선이 유해하기 때문에 많은 엑스레이 촬영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고통들은 유기적이지 않다는 뜻, 즉 정신적인 것이며, 고해성사의 은총은 영혼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해 줄 것입니다.

저녁, 로트(Rot)의 교회에서:

저는 미리 마음먹었던 대로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성체 분배자에게 성체가 담긴 접시를 건네주셨을 때, 저는 그 성체 분배자가 제게 다가와 성체를 건네주려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체를 영하지 않고, 구세주께 절을 한 뒤 성사적 영성체를 하지 않은 채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영적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 저는 불결한 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평신도의 성별되지 않은 손을 통해 성체를 영하지 않으려 했고, 구세주님을 모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1992년 4월 8일 - 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성체 영성체를 거절한 일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네가 한 일은 옳았다.”

제가 말했습니다. “성체를 거절했더니 불결한 영 때문에 정말 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제게 오셨을 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부정한 영들에게) 숨겨져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불결한 영들이 구세주님께서 성사적으로 제게 오시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제 곁에 머무르시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세주: “나는 그들에게 계속 숨겨져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물러나야만 한다.” 나: “제가 평신도로부터 성체를 영해야 했던 것이 보그트 신부님의 뜻이었습니까?”

구세주: “네, 그것이 그의 뜻이었다.”

나: “제가 평신도로부터 성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분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구세주: “그에게는 네가 가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 “하지만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에게 산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자씨 같은 믿음을 주소서)”

구세주: “그 믿음은 받아들여야만 한다.”

나: “성체 분배자들이 저에게 올 때, 계속 그런 식으로 대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해.”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총과 힘, 사랑을 주시되,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장 자애로우신 아버지.”

저는 하이델베르크 근처 복스스베르크에 있는 출나켈에서 미사와 성체 조배를 드리고, 강연도 하나 들었습니다.

그 후 브루흐잘 병원에 있는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21시 00분에 마리온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22시 00분에 프랑크푸르트의 H. 지글러 씨가 전화를 걸어와, 메지고리에의 발현 산이 폭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2시 45분, 우리는 헬무트 콜 연방총리에게 전화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연방총리실 5300 본

존경하는 연방총리님,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 순례지 메지고리에에 대한 군사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에 항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줄리야나 에베르트 기도 모임

6837 St. Leon-Rot - (전보 번호 H 261)

1992년 4월 9일 —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실:

저는 기도하며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지금까지 써 온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라.” 나는 다시 표징에 대해 물었다.

구세주: “표징이 올 것이다.”

나: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세주: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 지키라는 뜻이다.”

나: “제가 파문당할 것이라고 마이어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신부님께서 제게 ‘교황과 분리되면 천국에서도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너는 나와 함께 있구나, 내 딸아. 그리고 너는 내 곁에 머물 것이다.” 나는 유고슬라비

아 전쟁에 대해 물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기도하라, 내 딸아.”

16시 45분에 나는 로트(Rot)의 교회에 있었다. 성체 앞에서 경배할 때 내가 기도를 이끌었다. 그 후 15분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경배.

18시 00분에 묵주 기도가 봉헌되었다.

18시 30분에 미사가 있었습니다. 성체 성사를 받은 후, 저는 메지고리에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자 보그트 신부님께서 성체 변모 후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잘못된 안도감으로부터 지켜 주소서.” 저는 어쩌면 제가 그 잘못된 안도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 안도감을 가지고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당장 일기 쓰기를 그만두겠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못된 안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즉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미소를 지어 드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92년 4월 10일 — 금요일

오전 9시, 엑스레이실: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 “내 딸아, 신부님께 가서 마음이 바뀌어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어보렴.”

나: “그분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견 말이 안 되는데요.” 구세주: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큰 위험이 너희 앞에 닥쳐 있다.”

나: “언제 보그트 신부님께 가야 하나요?” 구세주: “가거라, 내 딸아, 오

늘 당장.” 약 30분 후:

나: “전화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할까요?”

구세주: “전화를 걸어라. 네가 그분께 가면, 네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20분 후:

저는 구세주님께서 ‘시간’이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시간은 영원한 것 아닌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시간은 오직 내 것뿐이다.”

나: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적을게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또 뭐라도 적어야 할지 물었다.

구세주: “그에게 가거라, (사제에게) 가거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12.15 병원 내 예배당:

기도 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신부님이 저와 이야기해 주실까요?” 구세주: “무엇을 원 하느냐, 내 딸아?”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

세주: “그럼 그분과 이야기해라.”

오후 3시 40분경:

저는 보그트 신부님께 전화를 걸어 오늘 구세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부님은 “이미 다른 신부님을 찾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은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해질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은 전화에서 친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제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나의 구세주여,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신부를 위해 기도할수록, 그는 저에게 더 심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로트에서는 성체 조배 미사가 없었습니다. 프리돌린과 저는 로트 교회에서 묵주 기도를 함께 드린 후 바트 쇠보른으로 향했습니다.

바트 쇠보른-밍골스하임의 교회에서 자이르 출신의 한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정말 아름다웠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설교는 좀처럼 듣기 어렵습니다. 이 설교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체를 봉

헌하며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92년 4월 11일 - 토요일

오전 7시 15분: 저는 바그하우젤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를 영한 후 깊이 기도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라우레타나 연도를 앞장에서 바쳤습니다. 그 후 우리는 ‘살베 레지나’를 불렀고, “성모 마리아님, 저의 어머니이시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메우고리예를 위해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방문한 그 발현지에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성체함 앞으로 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이 책이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그만둬야 할까요?”

구세주: “그것은 개선을 가져올 것이지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세주님께 다시 한 번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미 금요일, 바트 쇤보른 교회에서 보그트 목사님이 그 책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구세주께서는 또한 “이 책은 교회에 개선을 가져다줄 것이다, 내 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구세주님께 제 곁에 계신지 여쭙었더니, 구세주님께서 “나는 항상 네 곁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마리온을 찾아가서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16시 20분부터 18시 20분까지 로트(Rot)의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보그트 신부님과 모든 영혼들, 그리고 구세주의 뜻을 위해 여러 번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20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여러 차례 퇴마 기도, 상처의 묵주, 성령의 묵주 및 다른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1992년 4월 12일 — 종려주일

약 30분 정도 기도한 뒤, 영적으로 성체를 영했습니다. 구세주: “사제 한 분이 오고 있습니다.”

나: “그럼 그분은 제 진정한 사제가 아니시군요.” 구세주: “아니오.”

나: “그럼 왜 나를 그분에게 보내신 건가요? 이해가 안 가요.” 구세주: “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본다.”

나: “하지만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이미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구

세주: “나도 너를 통해 시험해 보는 것이다.”

나: “그럼 저는 이 시험에 떨어진 거네요.”

구세주: “내 딸아, 넌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단다.”

나는 부활절 전의 표징에 대해 물었다. “약속을 바꾸시겠습니까?” 구세주: “아니, 나는 약속을 바꾸지 않겠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구세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내 딸아, 씨라. 나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해했다—“H. 보그트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그분 스스로 직접 답장을 받고 싶다.” 구세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만약 그가 곤경에 처했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나에게 물어볼까?”

구세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는 답장을 기대할 필요 없다.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편지를 쓰거나 찾아가도 좋다.”

나: “주님, 나의 하나님, 저는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세주: “그렇게 하라.”

나: “주님,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마지막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구세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빨간 옷을 입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미사를 마리온을 위해 바쳤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를 계속 써 내려갈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13:00~14:00 사이에 교회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곳에서 묵상에 잠겼습니다. 15:00이 지난 후, 보그트 신부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저녁 20시 15분에 마리온과 함께 사제관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종려주일 아침에 구세주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었습니다.

1992년 4월 13일 — 월요일

아침 8시경 직장에서 동료 베로니카와 저는 고통의 목주를 바쳤습니다.

10시쯤 의사 휴게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1984년, 성모님 발현이 있던 지 몇 주 후인 어느 날 이른 아침, 저는 약 20분 동안 지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 주변의 온 세상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봄처럼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제가 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고 있어서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야 비로소 그게 지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라디오에서 보도된 대로, 그날 밤 실제로 지진이 있었습니다.)

구세주: “아니요, 내 딸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1984년 그 환상에서 제가 보았던 것처럼, 구세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지진이 아직 닥칠 것입니다.

그 후 저는 H. 보그트 목사님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보그트 신부님은 너희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 “그럼 다른 신부님이 오시나요?”

구세주: “그렇다. 올 그분이 네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 “그럼 그분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 주실까요?”

구세주: “처음부터는 아닐 것이다.”

나: “보그트 신부님이 떠나시는 게 저에게는 무관심한 일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신부님을 위해 다시 처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에게 또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나: “보그트 신부님께서 대략 언제 떠나시게 될까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곧일 수도 있다.”

구세주: “기록해라, 내 딸아, 너는 조롱받고, 부인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것이니, 모든 것을 네가 감당하라.”

나: “주님, 하지만 ‘조롱당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서 찾아볼게요.”

구세주: “네 원수들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더 많다.” 나: “하지만 그들은 신자들이잖아요.”

구세주: “신자들 가운데에는 위선자들이 많이 있다.”

나: “위선자 대신 다른 단어를 알려주세요. 그 단어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구세주: “겉으로만 믿는 자들.”

나: “다른 표현도 있나요?”

구세주: “그건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습을 옹호하는 무관심한 신자들이다.” 나: “제가 제대로 적어 놓았나요?”

구세주: “그래, 맞다.”

나: “구세주님, 손으로 성체를 받는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말하면,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구세주: “그들이 나를 끊임없이 모욕하듯이 말이야.”

어제 저녁, 대략 20시 15분경 사제관에 편지를 넣었을 때, 성체를 영할 때 평신도 앞에 서 있을 때처럼 공격받는 것처럼 가슴 속이 멍하게 쏘시는 느낌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구세주: “거기에도 불결한 영들이 있구나. 그들은 마치 파수꾼처럼 사제관 앞에 서 있구나.”

오후 12시 25분, 병원 내 예배당에서: 홀거도 거기에 있었다. 나중에 홀거가 엑스레이실로 들어왔고, 우리는 보그트 신부님께 보낸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홀거가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지켜봐야 한다.

저녁, 로트(Rot)의 교회에서. 목주기도와 성체를 전쟁에서 전사한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다.

20시 00분 기도 모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꼭 기도실을 지어야겠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신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십자 성호를 긋지 않으시고, 미리 페이지를 말씀하시지도 않은 채 바로 찬송가를 읊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따라 부르거나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끝나고 우리는 부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차르트 신부님을 포함해

도차르트 신부님을 포함해 일곱 명이었습니다. 도차르트 신부님께서 “교회 차원에서 사적 계시를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 가슴에 큰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파티마와 루르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순례지가 없다면 신자들의 신앙심이 식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샤르 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다고 반복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분께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만약 모두가 메지고리예의 발현을 믿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발현이 시작될 때 “로사리오를 바치라. 그러면 너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92년 4월 14일 - 화요일

집에서 8시 30분~10시 30분 사이:

기도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샤르 신부님께서 어제 “사적 계시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마음에 걸려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구세주: “그 신부님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나: “왜 제가 그런 고통을 겪었나요?”

구세주: “내가 모욕을 당할 때, 네가 내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나: “그 모욕이 죄였나요?”

구세주: “그것을 기록해라. 그래, 내 딸아.”

나: “만약 제가 이 사적 계시를 받지 못했다면,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구세주: “아니야, 내 딸아. 그는 오지 않았을 거야.”

나: “그분이 (기도 모임에) 벌써 수년 동안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세주: “사탄은 그를 통해, 교회의 개혁을 위해 내가 네게 심어준 것을 파괴하려 한다.”

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 “너는 나와 함께 그를 물리칠 것이다.”

나: “부란 신부님은 악마들이 사제들에게는 것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거의 모든 사람이 악마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나는 마리아 이텐에 대해 물었다. 바그너 신부님이 기도 모임 신자들이 내게 말해준 것만큼 그녀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글이 사실인지 다시 물었다.

구세주: “마리아 이텐이 쓴 그 글은 진짜이고 사실이다. 사탄은 강하다. 내가 말한 바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내 딸아, 그녀도 너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나: “그게 어떤 문제인가요?”

구세주: “나에게 충실하라.”

나: “주님, 마리아 이텐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세주: “그렇게 하라.”

저는 H. 보그트 목사님께 보낸 편지에 대해,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너는 약간의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구세주: “대답할 필요는 없어. 이미 대답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잖아. 겸손함을 잃지 마라, 내 딸아.”

저는 계속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는 너무나 깊은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 나의 하나님,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나 자신이 아니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자 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나: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13시부터 15시까지 나는 숲에 머물며 묵주기도를 세 번 바쳤다.

17시에는 조카 라트코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밤에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한 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숨을 쉴 수 없을 뻔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 다. 기도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 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 하지만, 아직 언제 받을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18시, 로트(Rot)의 교회에서: 영원한 등불이 또 꺼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성당 관리인이 바로 와서 불을 붙였고 평소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 다.

20시 30분에 마리온이 왔고, 우리는 일기를 썼다.

1992년 4월 15일 — 수요일

한 연로한 여성분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분은 들어오시면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들어갈지 말지 망설이셨습니다. 저는 불결한 영을 감지하고 그분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성수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그러자 내가 성모송을 바치자, 그녀는 신성모독을 하기 시작했고, 너무 빨리 말해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베베 베베”라고 중얼거렸다.

제 동료가 그 모습을 보고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 환자는 그녀에게 “너, 나한테 한 대 맞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의사 휴게실:

저는 이 환자를 위해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불결한 영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원했거든요.” 저: “성모송 을 바칠 때 조롱하던 불결한 영은 누구입니까?”

구세주: “모두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 “그 징조가 올 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하나요?”

구세주: “아니요, 내 딸아, 준비할 필요는 없소. 하나가 올 것이오.”

나: “그 표징이 언제 나타날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표징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래, 내가 알려주겠다.”

나: “구세주님,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데 방해 가 될 수 있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모든 것을 제게서 없애 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니까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조만간 교황을 찾아가 네가 쓴 내용을 그에게 말해야 한다.”

나: “먼저 신부님과 상의해야 하지 않나요?” 구세주: “그렇게 해도 좋지만, 네가 직접

그분께 가야 한다.” 구세주: “네가 갈 것임을 그분께 직접 편지로 알려라.”

나: “사제들이 제가 교황님께 가는 것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게 말하는 대로 하거라.”

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교황은 네 방문을 준비해 놓 으실 것이다.”

나: “주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주

님,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나: “고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주님.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이니까요.”

오늘은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로트에서는 미사가 없었고, 로쿠스 예배당에서도 없었지만, 자이르에서 오신 요셉 신부님과 이야 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에서는 마리오이 일기를 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약 45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시기의 고뇌였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의 성당에서 '주님의 천사' 기도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님께 교황님께 어떻게 제 마음을 전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성하께는 전보가 아니라 등기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2년 4월 16일 — 목요일

오전 10시 10분, 의사 휴게실:

마리온이 지금까지 우리가 쓴 내용이 맞는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마리온이 지금까지 쓴 내용은 좋았으니 그대로 써라.”

나: “구세주님, 어쩌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나: “제가 제 ‘움직임’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구세주: “네가 네 ‘움직임’을 바쳤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 나: “그 ‘움직임’이란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항상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 “어제 제가 자이르에서 온 요셉 신부님과 30분 남짓 대화를 나누며 이단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주님의 뜻이었나요?”

구세주: “그래, 그게 내 뜻이었단다, 내 딸아.”

나: “주님, 저는 그에게 제가 많은 사제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이해했단다.”

나: “그 신부님은 모든 사람이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습을 버리고 입으로 성체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구세주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세주: “심판이 끝난 후에는 모든 사람이 입으로 성체를 모시게 될 것이다.” 나: “심판이 뭐죠?”

구세주: “영혼의 정화입니다.” 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세주: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저는 구세주님께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00 – 19:15 성체 성사와 붉은 장미송.

밤 3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에서 성체 조배를 드렸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이 이 시간대에 성체 조배를 맡았겠지만, 다리가 아파서 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잘 노래했고, 아주 분명하고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는 없어요. 마치 1984년 5월 18일, 성모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로스비타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로스비타의 어머니께서 제가 기도를 잘 이끌어 주었고 노래도 잘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 아니기에 그 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는 새벽 3시까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약 6시까지 세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1992년 4월 17일 — 금요일

약 3시간 반 정도 잠을 잤다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성체 성사 때, 성체 분배 보조자인 안톤이 교회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갔지만, 구세주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빨간색 옷을 입고

성체 분배대가 있는 곳에서, 나는 마땅히 그래야 하듯 무릎을 꿇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싶었다. 나는 보그트 신부님으로부터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했다.

베네부쉬 부인은 제게 다가와 성체를 주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지만, 곧바로 한 걸음 물러섰고,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한 걸음 다가왔다가 또 물러섰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베네부쉬 부인이 저에게 성체를 주려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보그트 신부님으로부터 성체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세주님과 깊이 하나 되어 있을 때, 제가 그분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도 구세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가장 큰 표징이다.”

그때 저는 제단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앞서 마음속으로 입맞춤했던 것이었습니다. 메

지고리예에서는 성금요일에 모든 신자들이 십자가에 입맞춤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신부님과 복사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절을 드립니다. 신자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구세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을 수 있도록 볼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볼펜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구세주: “지금 적어두어도 좋지만, 영원히 기억해 두어라:

“이것이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표징이다.”

나는 제단 앞에 십자가 경배를 위해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평안히 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성체를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1992년 4월 18일 - 성토요일

이른 아침, 한 시간 넘게 기도했다.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했고, 잠시 기다렸지만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더 이상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특히 위선자들과 사제들, 성체 분배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특히 나의 적들을 위해 여러 번 축귀 기도를 드렸다.

오후 16시 30분부터 18시 45분까지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본당 신부님과 앞으로 오실 새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불랑크 씨가 오르간 연습을 하고 있어서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습하신다면 어떤 기분이실지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믿으셨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오르간을 치지는 않으셨을 텐데.

20:00 부활 미사

신조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은 겨우 둘째 날이었기에 제게는 매우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부족했고, 메지고리예에서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정부터 부활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부활 미사 중에 제 마음이 환호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구세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제단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의식이 너무 과했다. 중간중간 가슴이 쑥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울었습니다. 마치 구세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한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19.04.92 - 부활절 일요일

저는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이 부활 미사 예식을 마친 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4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주님, 제게서 두려움과 혼란, 의심을 없애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제게 쓰게 하시는 대로 믿을 것이오니,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께서서는 무에서 저를 여종으로 만드셨나이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나의 영혼의 인도자이시니,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요, 나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먼저 저는 성금요일에 성체를 모신 후, 제단 앞에 놓여 경배받기 위해 바닥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말씀을 들었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십자가에 여러 번 입을 맞췄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제대로 들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표징은 바로 너희 죄인들을 위한 나의 십자가 처형이다.”

그 후 저는 부활 축제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부활은 셋째 날에 이어진다.”

나: “이틀째 되는 날에 이미 기념한다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헛갈릴 수도 있겠네요.”

구세주: “그래, 맞는 말이야. 나에게 충실해라.”

나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의식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사탄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의식을 퍼뜨리고 있다.”

나: “제단 봉사자들이 깊이 절을 할 줄은 알지만, 성체를 영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세주: “그들은 경외심을 알지 못하며, 나에게 대한 경외심도 없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부활 후에 제가 무엇을 기록해야 하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사람들은 시급히 회개해야 한다.”

나: “예수님, 살아계신 하느님, ‘시급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은 진리이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틀림없이 사실일 것입니다. ‘시급히’란 무엇입니까?”

나: “주님,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너희 앞에 많은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내 딸아, 글을 써라. 앞으로 한동안 기도를 아주 많이 해야 한다.”

나: “주님, 나의 하나님이지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나: “제가 쓴 내용이 맞나요?” 구세주: “그걸로 충분하구나, 내 딸아.”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

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구세주: “그렇게 써도 좋다.”

나: “주님, 제가 주님께 사랑스러운 딸입니까?” 구세주: “그래, 너는 내게 사랑스러운 딸이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붉은 예복 미사.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성체 성사 후에는 행복했고 많은 은총을 받았다.

12시 30분: 신학도 프리돌린이 찾아왔다.

13시 30분: 프리돌린과 함께 묵주기도와 기도회에 참여했다.

15:00~18:30 구세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내용을 프리돌린에게 읽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복돋아주었다.

1992년 4월 20일 부활절 월요일

밤 3시경, 선한 영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해 깨어났던 다른 밤들과는 달리, 그날 밤은 평온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딸아, 많이 기도하라. 잠시 후, 말씀이 승리할 것이니.”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 계신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말 듣기 좋은 목소리라 몇 번이고 듣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꿈꾸고 있는 게 아니었고, 깨어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십자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새벽 3시 30분경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원수들을 위한 기도, 축귀 기도, 상처의 묵주, 자비의 묵주 등 여러 기도를 드린 뒤, 영적 성체를 영하고 온 세상을 위해 그 영적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오늘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까지 기도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더니, 8시였고 뉴스에서 모스타르 시가 지난밤 폭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스타르 시는 메지고리에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는 메지고리에를 부정하는 자니치 주교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1985년 성목요일에 제가 그분을 찾아가 제 경험과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을 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 그가 공산주의자들을, 더 정확히 말해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니치 주교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 신앙을 고백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메지고리에에 그렇게 많이 왔던 다른 주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자니치 주교와의 대화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클라우스 지글러에게 건네주었는데, 그가 피터 짐머만이라는 필명으로 출간한 책에 실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에 대해 글을 썼지만, 주교와의 대화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를 위해 죽으셨지만, 자니치 주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는 그를 천국으로, 연옥으로, 혹은 지옥으로 이끕니다.

제가 말하건대,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다면, 그것은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지 악마에게 넘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사제들은 더 이상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도 귀도 멀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적 계시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때가 너무 늦었을 때야 비로소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뉴스를 본 직후 계속 기도했습니다. 대략 8시 45분경, 저는 영적으로 연합하고 교감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오늘 밤 저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분이 그분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꽤 오래 걸렸구나.”

나: “주님, 제가 바로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후회합니다. 주님, 앞으로 많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신부님께조차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부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세주: “기도해라, 내 딸아, 많이 기도해라.”

나: “하지만 그들이 사적 계시를 믿지 않는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구세주: “그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님.”

오전 10시, 붉은 예복으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12시 30분 – 점심 식사 후 발코니에서 잠시 기도했다. 구세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이 승리할 것이며, 말씀은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발코니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말씀이 오늘 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행동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구세주를 훨씬 나중에는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 관한 복음서가 봉독되었습니다.)

1992년 4월 21일 -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실에서:

기도 후, 구주와 하나 되는 시간 중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해 두어라, 내 딸아. 러시아 전

쟁이 다가오고 있다.”

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러시아만 영향을 받는 건가요?”

구세주: “모두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때와 비슷한 상황일까요?” 구세주: “이 전쟁은 그 전쟁과 비교할 수 없다.”

저: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야 하나요?” 구세주: “가능한 한 빨리 예배당을 지어라.”

나: “당신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부가 없는데요.” 구세주: “내 딸아, 신부가 곧 올 것이다.”

나: “그분이 우리 마을에 머물게 될까요?” 구세주: “그래, 그분은 네 마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나: “사제가 두 분이냐 생기게 될까요?”

구세주: “아니요, 보그트 신부님은 다른 곳으로 가실 거예요. 구세주: “인내심을 가져라, 내 딸아, 모든 일은 제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 “다른 것도 적어두면 될까요?”

구세주: “많이 기도해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 “이건 그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구세주: “그대로 적어라.”

나: “제 가장 사랑하는 구세주님,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이는 당신이 이미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며, 그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제 말로는 그분께 감사를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는 그분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저녁에 묵주기도와 붉은 예복 미사.

1992년 4월 22일 — 수요일

평소처럼 기도했지만, 성당에서도, 저녁 성체성사 후에도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세주님과 하나 될 때,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제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저녁에 마리오니 와서 우리는 일기를 썼다.

오늘 직장에서 민음을 설득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분께 부활절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에게 최근에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 환자는 벌써 10년째 병을 앓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악마의 기운을 감지하고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는 몸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그 화학 물질 좀 치워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성수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최근 들어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온 집시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게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 사람들은 모두 같은 종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완전히 그릇된 교리에 빠져버렸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 6~7명 정도 되는 모두가 나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성수를 떠서 그들 모두에게 뿌렸다. 그리고 베네딕투스 십자가로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저녁에는 묵주기도와 붉은 예복을 입고 미사를 집전했다.

1992년 4월 23일 — 목요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실: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상처 자국을 지니신 오른손 부위에서 여러 번 강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통증은 마치 누군가가 저를 찔러던 것처럼 심했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그것은 불결한 영이다.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네가 드리는 기도가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나: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구세주: “네가 그들에게서 많은 영혼을 빼앗고 있단다.” 나: “모든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너에게는 수호천사가 한 명 이상 있다.”

나: “손에 쏘시는 통증을 느낄 때면, 수호천사들은 그 자리에 없는 건가요?”

구세주: “물론 있지. 하지만 내가 허락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 주위에 불결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 “기도를 그만두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구세주: “내 딸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라.”

나: “앞으로 당분간 저에게 무엇을 권해 주시겠습니까?” 구세주: “금식하라.”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주님, 이걸 저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기도 모임에서도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구세주: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저녁에 나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묵주기도를 드렸다. 로트에는 미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밁골스하임(Mingolsheim)의 로쿠스 예배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미사에 참석했다.

1992년 4월 24일 — 금요일 - 구세주께서 1년 전부터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전 10시 10분, 의사실: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올해와 앞으로의 모든 해는 모두 내 것이다.” 나: “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까요.”

구세주: “그래, 네 말이 옳다. 내 딸아, 지금까지 네가 해온 일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 “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세주: “정말 진전이 없었니?”

나: “저는 요즘 거의 매시간 기도에 몰두하다 보니, 제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과 함께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제 영적 지도자로 계실 건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는 계속 네 영적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나: “저는 슬픔입니다. 선택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제가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요.”

구세주: “이렇듯 되어야만 하오, 내 딸아.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요.” 나는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러시아에서 시작될 전쟁은 거대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전쟁을 막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구세주: “내 딸아, 죄가 너무 무겁다.”

나: “오늘이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요.” 구세주: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저녁에는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를 드렸다.

1992년 4월 25일 — 토요일

아침에 바그하우젤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 성사를 받은 후, 성체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세주님께 우리가 성부님께 편지를 써야 할지, 아니면 아직 시간이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지금 바로 그 때다.”

나: “어떻게 된 건가요, 구세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신학적인 말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제가 말하는 방식 그대로, 제 스타일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구세주: “만약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 저는 마리온에게 가서 우리 둘이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1992년 4월 26일 - 일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오늘 성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해, 특히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다.

구세주와 하나 된 후, 우리가 교황님께 쓴 편지에 뭔가 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 편지는 괜찮다. 보내거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어제 첫 영성체를 한 엔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보그 신부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 앞에서 노래하거나 기도할 때 구세주께 절을 하거나 성체함에 절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의붓아버지와 제 남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그 사제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구세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세 번째까지 반복하셨습니다.

나: “그럼 그 신부의 성체 변화 예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세주: “그는 성체 변화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저: “주님,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구세주: “세상에는 큰 맹목이 횡행하고 있네.”

나: “주님, 제가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세주: “그 사제는 내게 맡겨라.”

오, 저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쓰기조차 힘들었고, 마치 강타를 맞은 듯했습니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제 제가 왜 교황님께 가야 하는지 이해합니다.

주님, 사제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구세주: “그렇다, 내 딸아. 그들은 거의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 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건가요?”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그들은 내 앞에 섰을 때 무관심하다. 그들은 회개해야 한다.”

나: “그들은 믿음이 있지 않나요?”

구세주: “그들은 그 믿음을 위해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나: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구세주: “그래,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당신의 가르침과 자비, 저에 대한 인내와 온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제들을 위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수년 동안 기도 모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오전 10시, 붉은 제의를 입은 미사.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제 앞에 성수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지옥이 저에게 닥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자들과 사제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그 예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베네부쉬 양에게 설교를 맡기신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첫 성체를 받는 아이들에게 항상 성체를 손에 직접 주셨다는 점은, 정말로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점심 식사 때, ‘백의의 주일’ 어린이인 엔그가 슈체텐하우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 카를스루에에서 온 수녀 한 분이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마리오니 와서 우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 후 다시 내 오빠 블라디미르와 조카 라트코가 나를 찾아왔다.

로트에서 온 헤드비그도 나를 찾아왔다. 그 후 일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1992년 4월 27일 - 월요일

차로 직장으로 가는 길에 교통 체증에 갇혔습니다. 덕분에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나는 곧바로 안식하신 영혼들을 위해 촛불을 켜고, 그들에게 성수를 뿌려주었다. 환자들이 오기 전까지, 동료 베로니카와 나는 함께 기쁨의 묵주기도와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바쳤다. 그 후 몇몇 환자들의 엑스레이를 찍고, 치과로 가서 치아 한 개를 충전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치과 의자에 누워 있었다. 치과 의사가 마취 주사를 맞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그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 후 검사 내내 성하를 위해, 성하의 적들을 위해, 주교들과 사제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 밖의 영혼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치료는 약 두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치과의사는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그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땀을 흘린 이유를 램프가 너무 따뜻하고 밝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몇몇 환자들에게 엑스레이를 찍어 주었습니다.

정오 12시, 병원 내 성당에서:

먼저 ‘주님의 천사’ 기도를 드린 뒤, 계속해서 매우 깊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므로 아무것도 묻지 않겠으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일체감을 느끼던 중,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라, 내 딸아, 너는 보그트 신부님과 이야기해야 한다.” 저: “교황님께 편지를 보내기 전에, 아니면 편지를 보낸 후에요?” 구세주: “교황님께 편지를 보낸 후에.”

나: “네, 주님, 그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구세주: “내 딸아, 이렇게 적어라. ‘그가 마음을 바꿀까, 말까?’” 나: “오, 주님,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 제가 그에게 이 말을 어떻게, 언제 전해야 합니까?” 구세주: “오늘 당장 그에게 가라.”

나: “주님, 하지만 저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구세주: “그는 알고 있다.”

나: “제가 그에게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구세주: “그의 구원이다.”

나: “주님, 하나님, 하지만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에요.” 구세주: “그렇게 하렴, 내 딸아, 중요한 일이니.”

나: “주님,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어요. 그에게 가면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요.”

구세주: “두렵니?”

나: “두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이제 저도 그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큰 은총을 내려 주신다면, 모든 것이 다시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그렇다.” 나: “더 쓸 게 있을까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그를 여전히 매우 사랑한다고 써라.” 나: “주님, 어제 일들도 그에게 읽어 드려야 할까요?” 구세주: “오늘 일만.”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러고 나서 나는 구세주께, 저와 함께 사제님을 찾아가실 건지, 아니면 제가 혼자 가야 할지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것이다.”

저는 구세주께 감사드리고 예배당을 나와 일터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머문 시간은 약 40분이었습니다. 보통은 예배당에 15분 정도만 머무르곤 합니다.

일을 마친 후, 저는 그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우체국에 맡겼습니다.

시간은 대략 16시 15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묵주 기도를 드렸다. 16시 45분경 교회에서 잠시 기도한 뒤, 16시 50분에 보그트 신부님을 뵈었다. 신부님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다.

신부님은 친절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부님께 보냈던 편지의 사본을 신부님께 드려 읽어보시게 했습니다.

신부님이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구세주님께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여쭙었고, “지금은 침묵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짧았던 대화였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께 축복을 청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에는 붉은 미사가 없었다. 20.00시 기도 모임:

우리는 구세주를 경배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구세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연도, 즉 마니피카트, 삼위일체 연도, 성모 마리아의 심장 연도, 그리고 모든 성인의 연도를 바쳤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주시는 강렬한 온기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고해성사를 보셨고, 마지막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1992년 4월 28일 - 화요일

9시 45분~10시 45분, 의사실:

오늘은 평소만큼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신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이미 고민하고 계실 것이다.” 나: “이제 저는 교회 당국의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구세주: “너는 여러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나: “보그트 신부님께서 저를 프라이부르크에 등록해 주실까요?”

구세주: “그래, 오스카 대주교께서는 이미 나를 통해 네 목소리에 대해 보고받으셨다.” 나: “네, 지금까지 저와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없으셨나요?”

구세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그분은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구세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부인하고, 비웃더라도, 너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와 함께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나는 성체 분배자 프란치스카에 대해서도 물었다. 구세주: “그녀도 너와 이야기할 것이다.”

나: “그녀에게 성체 분배에 대해 뭔가 말해줘야 할까요?” 구세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녀에게 전해라.”

어제 저녁 기도 모임 후, 구세주님과의 대화 내용을 조금 이야기했더니, 두 분의 여성분이 사제님을 찾아가야 할 때 구세주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세주: “조심해라. 그런 말에 대답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을 했을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나: “구세주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나: “아니요, 주님. 정말 궁금합니다.”

구세주: “너는 교황 성하로부터 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곧 내가 뭔가 잘못 썼나 싶어 구세주님께 다시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영적 지도자이신 분.” 그러자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세주: “너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며, 교황님께 가도 좋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언제 그곳으로 가야 할지, 그건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여기 제 일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께서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야 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저는 이미 성부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위대하신 하느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나의 큰 사랑이시여. 주님과 떨어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사랑과 온유하심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영혼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나는 구세주님과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정오 12시, 병원 예배당에서. 그 후 밖에서 잠시 산책을 하며 성모님께 드릴 작은 꽃다발을 꺾었습니다.

15:00부터 15:45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먼저 일기를 훑어보며 지난 며칠 동안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미사에 참석하여, 성부님과 마리아를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마리아님이 왔고, 우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1992년 4월 29일 - 수요일

오늘 아침에는 다시 더 많이 기도했다.

10시, 의사실에서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너는 엔츠 학장님을 찾아가야 한다.”

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분. 왜입니까?” 구세주: “내가 네게 심어준 가

장 중요한 말을 그분께 전해야 한다.” 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세주: “전쟁에 대해 그에게 말하라. 교회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그 개선이란 무엇입니까?”

구세주: “적어 두어라, 사랑하는 딸아.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습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체는 오직 사제의 축성된 손을 통해서만

전해져야만 한다.

나: “제가 신부님께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세주: “그 편지를 보여줘도 좋다.”

나는 구세주께서 신자들이 성체를 어떻게 영해야 하는지, 서서 영해야 하는지 무릎을 꿇고 영해야 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영원히 명심하라. 나는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니, 내 앞에서는 누구나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해야 한다.”

나: “주님, 하지만 가장 깊은 경의는 주님 앞에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나: “주님, 제가 바로 학장님께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 지역 사제이신 보그트 신부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신부님께서 저를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아주시도록 해야 하나요?” 구세주: “보그트 신부님께 가서, 엔츠 학장님과 약속을 잡으라고 전해라.”

나: “만약 보그트 신부님께서 제가 직접 하라고 하신다면요?” 구세주: “그럼 그분의 책임 하에 그렇게 하거라.”

나: “언제 그렇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 “내 딸아, 가능한 한 빨리 해라.” 나: “주님, 오늘은 좀 엄격하시네요.”

구세주: “내 딸아, 성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넘쳐흐르고 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용서해 주세요, ‘성배가 넘쳐흐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내 딸아,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단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제가 또 뭔가 적어야 할까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그걸로 충분하다. 평안히 가거라.”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30분 동안 구세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정오 12시, 성당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한 뒤,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제가 몇 마디 적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입장이셨다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구세주: “기억해라, 내 딸아, 이것은 사제들을 위한 메시지다.”

저는 지금, 이번 주 안에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 찾아가야 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다음 주말에.”

그러고 나서 저는 보그트 신부님께 직접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전화를 드려야 할지 물었습니다. 전화를 드린다면 퇴근 후 바로

교구장님께 바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구세주: “전화를 걸어라.” (보그트 신부님) 나: “이렇게 쓴 게 맞나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제대로 썼다.”

나: “주님, 사람들이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묻는다면, 저는 도저히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세주: “그들에게 말하거라. 네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나: “하지만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며 외이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제 귀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구세주: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다.”

나: “하지만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도 악마에게서 올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구세주: “그들은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 그러면 그 초자연적인 것이 선한 영에게서 온 것인지,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인지 알게 될 거야.”

13시 15분경, 저는 보그트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엔츠 교구장님께 가라고 말씀하셨으며, 신부님께서 교구장님과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전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놀라시며 다시 한 번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는 제가 직접 약속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는 다소 불친절하셨습니다.

14:00, 직장 내 예배당에서:

저는 눈물을 펄펄 흘렸고, 잠시 기도한 뒤 구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일이 끝나면 직접 그분(엔츠 학장님)을 찾아가거라. 일이 끝난 후에. 미리 전화하지 마라.”

나: “제가 찾아갈 때 그분이 집에 계실까요?” 구세주: “그래.”

나: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조차 모르는데요. 만약 저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죠?” 구세주: “그분은 네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지요, 제 모든 신뢰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병원 내 예배당에 약 15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은총을 받았고, 제 영혼은 즉시 다시 치유되었으며, 저는 행복해졌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슬로흐에 계신 엔츠 데칸님을 찾아가는 길에, 저는 에르츠 신부님을 위해 묵주기도와 다른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17시가 조금 지난 무렵, 저는 이미 비슬로흐의 성 로렌티우스 교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기도한 뒤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 왔지만, 엔츠 신부님께서 어디에 사시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저에게 힘과 평화를 주시기를, 그리고 엔츠 신부님을 뵈는 때 제가 해야 할 모든 말을 마음속에 넣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세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와 한 연로한 여성분께 엔츠 신부님이 어디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이 알려 주셨고, 저는 번개처럼 사제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쁜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구세주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데칸님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엔츠 데칸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 저를 보내셨으니 정말 확실한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데카나트 사무실이 있는 아데나우 광장에서 성체 영성체를 받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돌아오시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19시쯤에 다시 와 보라고 했고, 저는 그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아데나우 광장에 있는 교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엔츠 교구장님은 이미 오래전에 나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가 교구장님을 찾아가면 그분이 집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세주: “그분은 집에 계십니다.”

나: “그럼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구세주: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와 사제관 문 앞으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고, 마음속으로 엔츠 데칸님이 엔츠 데칸님이 집에 계신다는 것을 내면적으로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묵주를 손에 쥐고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를 여러 번 바쳤고, 대천사 미카엘 기도와 라틴어로 된 ‘산투스’도 여러 번 바쳤다. 그러자 한 젊은 신사가 와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내가 묵주를 바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다음에는 사제관 가정부의 어머니인 한 연로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 후, 제가 이미 교구장 관저와 교회에서 본 적이 있는 한 수리공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로 들어온 남자는 제 바로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나요?”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내 안에 있는 악마를 느꼈지만,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경건한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성모송을 하나씩 계속 바쳤다.

그러나 그 악마는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화가 나서 문을 여러 번 두드렸고, 안절부절못하며 나에게 기도를 그만두라고 위협했다.

그는 묵주를 조롱하며 나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고는 때리겠다고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고, 인터폰을 통해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 남자는 분노와 격분 속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고, 잠시 후 성모 마리아님과 천사님들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이 집에 당신의 망토를 펼쳐 주십시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여자가 나에게 들어오라고 말했고, 그 사이에 신부님께서 오셨다고 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녀가 솔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곧바로 악마도 뒤따라옵니다.”

나는 여전히 묵주를 손에 쥐 채 교구장 신부님께 다가가, 구세주께서 신부님이 집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문 앞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 즉 학장님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약 25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일기의 마지막 세 페이지를 그에게 읽어 주었으며, 제가 성부님께 보낸 편지도 그에게 건네주어 읽어보게 했습니다.

그는 보그트 목사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축복을 청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축복을 내려 주셨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차가 주차된 주차장에서 본당 가사 담당 여성을 만났고, 그녀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18시 25분, 나는 이미 로트(Rot)의 교회에 있었다. 나는 엔츠(Enz) 학구장과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다.

성체 성사 후,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그분께 데칸 신부님에 관한 일이 모두 옳았는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 모든 것이 옳았어.”

구세주: “고맙다... 잠시 후, 구세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구세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교회에서 나온 후, 저는 한 수녀님(슈타인하우저)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수녀님을 이단 교리로부터 지켜 주었고, 2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더니, 벌써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 안에서는 악마가 날뛰고 있었다. 분노와 증오가 그에게 드러났고, 심지어 아픈 다리까지 빼앗겨 버렸다. 그 후 루치아도 찾아왔다.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월요일 기도 모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하러 이곳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22시 45분에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잠을 거의 못 잔 밤이 벌써 여러 번이었는데,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구세주께서는 계속 일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은 제게 큰 교훈이 된 날이라고 믿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제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음을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탄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 사탄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지요,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지요”라는 말씀이 적용되며, 데칸 주님께는 “깨어 있으라. 그가 어느 때에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1992년 4월 30일 —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묵주기도도 드렸습니다.

10시쯤에는 의사실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기도하기에 좋았습니다. 그 후,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 환자들, 즉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길 잃은 양들’을 회개시켰습니다.

한 환자는 헝가리에서,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는 루마니아에서 왔고, 그 다음에는 마우어 출신의 독일인도 왔습니다. 참으로 풍성한 어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시 30분이 되어서야 병원 내 성당에서 구세주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 “어제 학장님 집 현관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나: “그래서 그가 저를 공격할 수 없었던 거군요.”

나: “그 남자에게 깃든 불결한 영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제 영적 지도자이시니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꼭 알아야 한다면, 네가 원하신다면 말해 주세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그것은 루시퍼였다.” 나: “루시퍼의 악마인가요, 아니면 루시퍼 그 자체인가요?”

구세주: “루시퍼 그 자체였어.”

나: “그가 혼자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들도 함께 있었나요?” 구세주: “온 무리가 함께 있었느니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학장님 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나요? 제가 학장님과 중요한 일을 상의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이것이 사제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탄은 제가 학장님과 손 성체 영성체 폐지 및 입 성체 영성체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손 성체 영성체는 사탄의 소행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사제들은 내 뜻을 따라야 한다.” 나: “하지만 루시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그는 그들을 모두 차지하고자 한다.”

나: “주님, 제가 제대로 적었나요?” 구세주: “그래, 그게 맞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사제들이 이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나: “왜요?”

구세주: “그들이 진흙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고 굳건히 버텨라.”

나: “구세주님, 제게 무슨 일이 닥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믿을 테니까요.”

구세주: “너는 체로 거르심을 받을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체질당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너는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구세주: “이미 말했듯이, 결국 너는 나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나는 빨간 옷을 입고 교회에 있었다. 성체를 마리온을 위해 바쳤다. 특히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건축가 볼프강이 와서 우리가 기도실을 지을 장소를 둘러보았다. 로즈비타도 함께 있었다.

저녁에 마리온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에리히가 왔습니다. 제가 마리온과 함께 일기를 쓰고 있을 때, 제 남편과 이르마, 에리히는 목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5월 1일 - 금요일

집에서 오전 7시경:

45분간 기도한 후, 저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자 구세주이신 주님, 제가 기록해야 할 말씀을 무엇을 전하시려 합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감히 주님께 무엇을 여쭙볼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 제가 사제들에게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주님, 저는 사제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흙탕에서 구해 주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앞으로 한동안 네가 나를 대신해 말해야 한다. 너는 대주교님께 초대받게 될 것이다.”

나: “누구에게요? 사이어 대주교님인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그분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구세주: “내가 네게 심어준 바로 그 내용을 말하라.”

나: “그분과 언제 이야기하게 되나요?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가기 전인가요, 아니면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말씀드린 후인가요?”

구세주: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나: “나의 강하시고 불멸하시며 거룩하신 하느님,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나요?”

구세주: “기도하고 금식하라.”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구세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다른 것도 기록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한 가지 더 적어 두어라. 지금까지 내가 네게 심어 준 모든 것을 굳건히 지키고 충실하게 따르거라.”

잠시 후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저는 약 30분 동안 구세주님과 깊이 교감했습니다. 그 후에도 기도를 드렸지만, 모든 내용을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글을 짧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리온이 필기를 따라오지 못할 테니까요.

저녁에 목주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는 ‘성모의 5월’ 기도회 개막식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한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마리온이 왔고, 우리는 일기를 썼다.

힐데와 헤드비그가 교회에 다녀온 뒤 우리 집에 놀러 왔고, 나는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었다. 나는 베네부쉬 양이 더 이상 성체를 분배하지 않도록 기도했다.

구세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992년 5월 2일 — 토요일

오전 7시 15분, 저는 바그하우젤로 인도되어 성체 성사를 드렸고, 성체함 바로 앞 첫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체 성사에 함께 참여한 다른 신자들은 제단 뒤쪽, 교회의 뒤편 작은 구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체함과 바그하우젤의 성모님, 즉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성모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체함 앞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즉시 은총을 받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체는 세 분의 신부님께서 집전하셨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고, 구세주께서 제게 오셨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마리온에게 가서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정오 12시에 우리는 ‘주님의 천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시어머니께서 이번 달 안에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았기에 마리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원의 마지막 구역을 깎고 채소를 심었습니다.

16시 25분에 빨간 옷을 입고 교회에 갔고, 거기서 20시경까지 머물렀다.

먼저 몇몇 여성분들과 함께 목주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약 17시 25분까지 혼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 “구세주님, 오늘 아침 바그하우젤에서 성체함 앞에서 미사에 함께 참여한 것이 옳은 일이었나요?”

구세주: “계속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저: “베르톨트 신부님께서 저에게 성체를 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반대편, 즉 다른 신자들과 함께 있는 곳이 아니라 성체함 앞에 무릎 꿇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세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하나 되어 그분이 제 곁에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르톨트 신부님께서 제가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사적으로 성체를 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님, 제가 옳게 한 것입니까?”

구세주: “그분이 너에게 성체를 주려 하신다면, 그분께로 가라.”

나: “하지만 제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 곁에 계셨잖아요.” 구세주: “그래, 내가 네 곁에 있었다.”

더 이상 묻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적어라, 내 딸아”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무슨 말씀이 오실지 생각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달 안에 네 시어머니를 내 곁으로 데려가겠다. 그녀를 위해 기도해라.”

나: “네, 주님, 그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 더 이상 여쭙볼 게 없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오른쪽 눈에서 큰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다.

그때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록하라, 내 딸아: ‘세르비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 “그건 참 슬픈 일이네요, 주님.”

제가 물었습니다. “제 고향이 파괴될까요?”

그때 벨그라드와 판체보라는 두 대도시가 떠올랐다. 구세주: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주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세주: “많이 기도하라.”

나: “주님,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닥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구세주: “내 딸아, 조만간 기록해 두어라.” 구세주: “내 딸아, 힘을 내라.”

나: “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니 제가 강해질 것입니다.” 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교회에서 두 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한 뒤, 저는 성체 성사 미사에 더 머물렀습니다. 성체 성사는 시어머니를 위해 바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제가 너무 오래 외출했던 탓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대개는 저와 대립하기만 하기에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1992년 5월 3일 — 일요일

오전 7시 30분, 집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후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향에 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저를 믿어 줄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글을 써라. 그들은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구세주: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급히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 “주님, 베오그라드와 판체보가 파괴된다면, 그것도 심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그렇다.”

나: “주님, 이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아가들이 낙태당했습니다.” 구세주: “네가 맞겠구나.”

나: “주님, 이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구세주: “여기서는 금식과 기도만이 도움이 된다.”

잠시 후,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충실하라. 평안히 가거라.”

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직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영적 인도자이신 주님, 생동감 넘치는 말씀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전 10시에 로트에서 거행된 성체성사를 참례했습니다.

성체 성사 중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신부는 하느님께 경외심을 보이지 않았습다. 오후에는 레첸베르크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다시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성당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줄곧 요점을 회피하며 말만 돌리셨습니다.

레첸베르크의 '고통의 성모' 성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포도밭을 따라 내려오던 중, 별다른 생각 없이 본당 사제관 앞에서 대성당 사제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다음 번에는 내가 메지고리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곧 오스카르 대주교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은 제게 악수를 건네주셨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분께 그 말을 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마리오이 왔고, 우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는 동안, 남편과 이르마, 헤드비그 헤거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다.

오늘도 악마는 오른손 손목 뿌리를 강하게 찌르는 통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곳에 성수를 뿌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그 고통을 바칠 때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1992년 5월 4일 - 월요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병원의 치과 의자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시, 병원 성당에서:

기도가 끝난 후, 저는 파티마 기도와 다른 기도들을 간절히 드렸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제단 주위를 춤추는 것을 보며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제단 주위에서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그곳은 희생의 제단이다. 그렇게 하면 사제가 아이들의 경건함을 잃게 할 것이다.”

나: “어제 오후 레첸베르크에서 들은 설교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구세주: “그 설교는 오늘날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

나: “제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자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때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기록하라, 내 딸아, —” 침묵 — “너는 떠나야만 할 것이다,” — 침묵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

나: “주님, 나의 하나님,” — 침묵 —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게 해 주실 은총을 주소서.”

구세주: “너는 쿨 총리에게 가야 한다. 그가 백성들에게 기도를 촉구해야 한다.” 나: “그가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구세주: “전쟁이 올 것이라고 말하라.”

나: “베오그라드와 판체보가 파괴될 것이라고도 말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적어라. 그에게 꼭 말해야 한다.”

나: “주님, 그건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구세주: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 “언제 떠나야 하나요?”

구세주: “가능한 한 빨리 가거라.”

나: “주님, 제가 그에게 가면 그가 제 말을 들어줄까요?” 구세주: “그래, 그가 네 말을 들어줄 것이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부디 주십시오.”

그러자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고맙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홀거는 예배당에서 내 곁에서 기도하며, 내가 메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구세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그에게 말했고, 그는 내가 연방 총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었다.

루트비히스하펜에는 성모 마리아 수녀원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도 그곳에 다닌다. 나는 곧바로 스테판 신부님도 떠올렸지만, 신부님은 지금 쾰른 근처에 계신다. 프리돌린이 신부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 후 나는 구세주께 이 방법이 옳은지 물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렇게 해도 된다.”

나: “아직 뭔가 더 적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그렇다.”

휴식 시간이 끝났다. 신선한 공기를 쉼터로 나가기도 못하고 바로 일을 계속했다.

18시 15분, 란더스호펜에 있던 프리돌린에게서 쾰른에 있는 슈테판 신부님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0221—214535 - 성 콜럼바.

그 번호로 세 번이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18시 40분, 피르마젠스와 그 주변 지역에서 온 여섯 명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밉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으로 가서, 로트에서는 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체를 모시는 미사에 참여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콜 연방 총리와 그의 가족을 위해 성체를 모시는 미사를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일곱 명이 그렇게 했다.

집에 돌아와 약 15분 뒤 기도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로쿠스 예배당에 계셨던 윈너 신부님도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신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처음에는 축복을 내리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 후에야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거의 항상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신자 토니는, 우리가 신부님께 축복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을 때 신부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셨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다소 기분이 상한 듯했습니다.

그는 성모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렸음에도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토니가 “그럼 그분은 진짜 신부님이 아니시네요.”라고 말했어요.

신부님은 위에서 누가 말하는지, 성인이냐고 물으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토니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니는 “네, 성 안토니오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1992년 5월 5일 - 화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기도를 마친 후,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어제 저녁 기도 모임에 방문했던 신부님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구세주: “그것은 유혹이었어.”

나: “유혹이라니 무슨 뜻이신가요? 주님께서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부님은 주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구세주: “내가 네게 심어준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한다.” 나: “주님, 너무 불분명합니다.”

구세주: “내가 네게 심어준 내 말은 살아있는 말이다.” 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그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다.” 나: “주교님들은 분명 그 말씀을 지워버리실 텐데요.”

구세주: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주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 “토니가 옳은 일을 한 건가요?”

구세주: “내가 허락했다.”

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나의 영적 지도자님?”

구세주: “사제는 요청이 있을 때 언제나 축복을 내려야 한다.”

나는 스테판 신부님께 전화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 구세주: “편지를 써라, 내 딸아, 수도원에 가거라.”

나: “그곳이 어디인가요, 루트비히스하펜인가요, 오거스하임인가요?” 구세주: “오거스하임이야.”

구세주: “거기서 네가 콜 총리와 가장 빨리 연결해 줄 신부님을 만날 것이다.”

나: “총리의 아들들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구세주: “신부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나: “그 신부님께서 제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구세주: “그래, 그분은 알고 계실 것이다.”

나: “언제 그곳으로 가야 하나요?” 구세주: “오늘 당장 가라.”

나: “신부님께 제가 콜 총리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침묵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분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를 신부님께 말씀드리시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느님,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구세주: “아니요. 내 딸아, 그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소.”

저는 남편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어제 다시 그 불결한 영이 남편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착각한 것인지, 혹시 제 상상일지도 모른다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네 주변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불결한 영들이 있다.” 나: “저는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 너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

나: “주님, 주님 없이는 저는 길을 잃게 됩니다.”

구세주: “맞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 “이렇게 많은 것을 여쭙드렸는데, 또 뭔가 적어야 할까요?”

구세주: “내 딸아, 나에게 물어봐 주어서 고맙다.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오후 12시 15분, 예배당에서:

성당에 들어가기 전, 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루트비히스하펜에 수도원이 있다고 잘못 적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님께서 오거스하임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홀거도 기도하러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니 구세주께 다시 한 번 여쭙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수도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가 “오거스하임에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제 구세주님께 더 이상 여쭙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혼란은 구세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말을 끊임없이 속삭이려는 불결한 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도하며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오른쪽 손등에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자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네가 허락한다면, 불결한 영이 네게 상처 자국을 각인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나: “왜 그가 그런 짓을 하는 건가요?”

구세주: “네가 내가 네게 심어주는 것에 더 빨리 굴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 “하지만 그건 참기 힘든 고통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 “지금까지 넌 올바르게 해왔어, 내 딸아. 많이 기도해라.”

나: “주님, 제가 많이 기도하면 그가 저를 더 심하게 공격할 텐데요.” 구세주: “하지만 그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나: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제 일하러 가야 해요.” 구세주: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오후 4시: 퇴근하자마자 루트비히스하펜으로 차를 몰고 갔다.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곧 만날 신부님을 위해 이미 묵주 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길을 전혀 몰랐지만, 오거스하임에 있는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체함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한 분의 남성만 계셨습니다. 잠시 기도한 후, 구세주님께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가라,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저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방금 전까지 성체함 앞에 무릎 꿇고 있던 그 남자가 벌써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곳에 수도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기”라고 말하며 제 앞의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제가 여수녀원인지 남수도원인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저 “남자”라고만 말했습니다.

나는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고, 현관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성화를 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즉시 성 프란치스코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며, 나에게 적합한 신부님을 보내 주시도록 간구했다.

한 신부님이 오셨고, 저는 그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둘 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나는 잠시 기도에 잠기며 그분이 올바른 신부님인지 확인해 보았다. 그때 구세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분과 이야기해라.”

그분도 겸손하셨고,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평화를 느낄 수 있었기에 저는 그분 앞에서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곳에 남아 성체 성사를 드렸습니다. 성체를 영한 후,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구나, 내 딸아.”

저는 그 신부님과 콜 총리님,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성체를 봉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다시 그 신부님의 염원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신부님께 연방 총리와 면담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 외에도, 러시아에서 닥쳐올 전쟁과 폐지될 예정인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1992년 5월 6일 — 수요일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나는 병원의 치과 의자에 계속 누워 있었다.

치아에 충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고,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지 않았으며, 그 고통을 많은 기도 제물을 위해 바쳤습니다. 특히 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H. 에베르트 박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를 치료해 준 두 치과의사도 서서히 회심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에게는 예전에 고해성사를 받으라고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마친 후 저는 제 근무지로 돌아가 두 시간 동안 환자들에게 엑스레이를 찍어주었습니다.

13시 30분에 저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구세주께 더 이상 질문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구세주와 하나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라, 내 딸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 시며, 사랑하는 예수님, 제 영적 지도자이신 분,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은총과 보호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보호를 내려 주십시오.”

구세주: “너는 가야 한다.” —침묵— “내 딸아.” —침묵—

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로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구세주: “연방 총리, H. 쿨에게, 가능한 한 빨리.”

나: “주님, 하나님, 저는 이미 요아킴 신부님께 H. 콜 총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그분이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나: “그럼 그분이 전화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기다려.”

나: “다른 말은 더 해야 하나요?” 구세주: “내가 네게 말한 바로

그 말을 해라.” 나: “전쟁이 온다는 말 말이에요.”

구세주: “그래, 전쟁이 곧 온다는 것.”

나: “그리고 그분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촉구하신다고 하셨죠.” 구세주: “그래,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해.”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너희는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은 러시아 쪽에서 온다.”

나: “‘그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구세주: “유럽의 사람들입니다.”

나: “주님께서 이 전쟁으로 인해 독일만 위험에 처한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구세주: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

나: “오, 주님, 저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너무 복잡해요. 주님, 나의 하느님, 요아킴 신부님께 약속을 받아 연방 총리인 H. 콜 씨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구세주: “내 딸아, 써라. 신부님께서 약속을 잡아 주실 테니, 네가 연방 총리 H. 콜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나: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평안히 가거라.”

오후 3시경, 저는 메지고리예의 평화의 여왕께서 1992년 4월 25일에 전하신 메시지를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메시지가 제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주었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적어두어야겠습니다:

“메지고리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표징이며,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날들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를 하라는 이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저녁에는 밁골스하임에 있는 로쿠스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성체를 여러 가지 기도를 위해 봉헌했습니다.

1992년 5월 7일 - 목요일

밁골스하임의 신부님이 집전하신 미사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참된 신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그런 사제들에게는 조심해야 한다.” 나: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사제들’이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교황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들이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사제는 교황님께 순종해야 한다.” 나: “로쿠스 클리닉에서 친너 신부님과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구세주: “그래, 너는 그분과 또 한 번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해라. 내가 네게 심어준 것을 굳게 지켜라.”

제가 구세주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세주께서 저에게, 예를 들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구세주께서 그 맞은편 물 위에 서 계셨던 것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구세주께, 의심이 들 때 물속으로 가라앉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당신께로 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내가 네게 살아 있는 믿음을 주리라.” 나: “이 말을 적어두라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구세주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나: “주님, 이걸 제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것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만큼, 분명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텐데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는 네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나님하신 분,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는 구세주께 이제 일하러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나중에 내게 와서 물어 보렴.”

12시 15분 ~ 13시, 병원 내 예배당에서:

나는 기도한 뒤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나: “살아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너에게는 내가 있고, 내가 바로 네 믿음이다.” 나: “정말 아름답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모든 왕의 왕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원하신다면 기꺼이 적어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는 네 생명을 원한다.” 나: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 “왜 제 목숨을 요구하시나요? 이미 주님께 드렸는데요.” 구세주: “네가 내게 드렸지만, 내가 아직 네게서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노라.”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가 네 생명이다. 써라, 내 딸아.”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무엇을 써야 합니까?” 구세주: “내가 네 생명을 정하리라.”

나: “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께서 성모 마리아님을 통해서만 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 말이 내 마음에 든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저녁에는 밋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를 영하며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1992년 5월 8일 - 금요일

10시, 의사실:

기도를 마친 후,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어 물었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내가 네 삶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하신다면 이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나의 일이라.”

13시, 병원 내 성당에서: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적어 놓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너는 오거스하임에 계신 신부님께 가야 한다.”

나: “혹시 다른 신부님께 가야 하나요?” 구세주: “오거스하임에 있는 신부님께 가라.”

나: “저는 먼저 레겐스부르크에 계신 게브하르트 신부님께 가려고 했는데요.” 구세주: “먼저 오거스하임에 계신 신부님께 가거라.”

나: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그래,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야.”

나: “이제 남은 질문은 언제냐는 것뿐이네요.” 구세주: “이번 주말에.”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 “아직 뭔가 적어두어야 할 게 있나요?”

구세주: “내 딸아, 나중에 다시 물어보렴.”

그 후 예배당 밖 복도에 걸려 있던 시계를 보니, 점심 휴식 시간을 벌써 30분이나 넘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세주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15시 30분: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가 신부님들 곁으로 가면 저를 믿어 주실까요?” 구세주: “아니오, 내 딸아, 그들은 의심하고 있단다.”

나: “그분들이 의심하고 계신다면, 제가 왜 그분들에게 가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분들은 너처럼 나를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딸아, 내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 제가 신부님들께 드릴 말씀은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게 옳은 일이야.”

나: “신부님들과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나요?”

구세주: “가능한 한 빨리 헬무트 콜 총리와 대화하게 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다른 것도 적어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신부님들께 내가 전쟁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전할 것이다.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라. 평안히 가거라.”

1992년 5월 9일 — 토요일

오전 7시 15분, 바그하우젤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13:00까지 마리온 댁에 머물며 함께 일기를 썼다. 16:15부터 17:30까지 로트(Rot)의 교회에서 기도했다.

저녁에는 악마가 남편을 통해 나를 향해 맹렬히 공격해 왔다. 나는 다시 많이 기도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평온이 찾아왔다.

1992년 5월 10일 — 일요일

성체 성사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시, 로트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시련을 겪었습니다. 약 30분 동안 기도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세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자 “가라, 내 딸아, 내가 네게 말하는 대로 하라. 고통의 묵주를 바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힘이 솟아올라, 바로 묵주기도 두 번과 연도 한 번을 바쳤습니다. 16시 50분경, 저는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주님께서 그들이 전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세주: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나: “당신은 누구세요, ‘나’?”

구세주: “네 예수야, 내 딸아. 사탄이 수도원을 지배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요아킴 신부님이 연락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라, 내 딸아.”

저녁에 성모 경배.

1992년 5월 11일 - 월요일

정오 12시, 성당에서:

저는 세르비아 전쟁에 대해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알고 싶었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세르비아에 전쟁이 닥칠 것이며, 베오그라드와 그 주변 지역은 파괴될 것이다.”

그 후, 시어머니 일로 악마가 개입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님: “내 딸아, 네 시어머니는 이번 달에 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구세주: “요아킴 신부님이 너에게 전화를 할 것이니, 준비해 두어라.”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나는 이 땅에 징계를 내릴 것이다.” 내가 물었다. “나’는 누구십니까?”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로써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입니까?” (징벌을 통해) 구세주: “나에게 충실한 영혼들을 얻기 위함이다.”

나: “다른 것도 기록해야 하나요?”

구세주: “내 딸아, 이만하면 충분하다. 평안히 가거라.”

기도 모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바그하우젤의 베르톨트 신부님께서 모든 분께 일일이 첫 미사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축복식을 포함해 우리의 기도는 3시간이 조금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뜻밖의 축복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5월 12일 - 화요일

의사실:

나는 구세주님께 징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징계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아버지의 자녀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아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술너 신부님이 갑자기 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밉골스하임에 계신 그분께 가야 할지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가거라, 내 딸아, 그에게로 가거라.” 나: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요?”

구세주: “내 딸아, 적어 두어라. 그분도 내가 엔츠 학장님께 요구한 것과 똑같이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내게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전해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분께 전하겠습니다.”

구세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오늘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로트에 있는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일곱 명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992년 5월 13일 - 수요일

정오, 성당에서: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적어 놓겠습니다.” 구세주: “네 아들은 무사할 것이다.”

잠시 후: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슬로바키아가 위험에 처해 있다. 위험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러시아의 전쟁이 슬로바키아로 닥칠 것이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 이신 분.” 구세주: “가거라.”

- 침묵과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구세주: “요아킴 신부님께.”

나: “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부르지 않으셨는지,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자 영적 지도자이신 분, 당신께서 아시지 않나요?”

나: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라면, 제게 ‘비바 예수와 마리아’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비바 예수와 마리아’라고 적어라.”

나: “왜 요아킴 신부님은 전화하지 않으셨나요?” 구세주: “그에게는 살아있는 믿

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내일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 “좋아요, 신부님께 언제 가야 하나요?”

구세주: “오늘 당장 가거라.”

나: “제가 갈 때 요아킴 신부님이 계실까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분이 계실 것이다.”

나: “주님, 그분이 저와 여전히 대화해 주실까요?” 구세주: “그래, 그분이 너와 대화할 것이다.”

나: “그분께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구세주: “내가 이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라. 그리고 네가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다.” 나: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요?”

구세주: “그러면, 내 딸아, 네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시여,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이미 미리 아시는 거잖아요.”

나: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전쟁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왜 제가 그에게 가야 하나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내게 속한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한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주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보여주는, 주님으로부터 온 표징을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내가 네게 주마.” 나: “그게 무엇일까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요아킴 신부님이 너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줄 것이다.”

나: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구세주: “좋은 일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요아킴 신부님께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저는 베레나와 함께 오거스하임에 있었습니다. 마치 비슬로흐의 엔츠 학장님을 방문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수도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불결한 영을 가진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찢어발기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주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문이 열렸다.

나는 요아킴 신부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먼저 다른 신부님이 나오셨고, 그분께도 구세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전했다.

요아킴 신부님이 오셔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아킴 신부님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제가 콜 신부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8시 40분에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19시 25분에는 이미 밍골스하임의 로쿠스 성당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거스하임에서는 더 이상 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체를 모셨습니다.

저녁 21시 30분에 에리히가 저를 찾아와, 선교사인 젤너 신부님이

제가 있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 두 번이나 “내가 도대체 어디에 온 거지?”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그는 기도 도중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성모 마리아 연도기도도 바쳤습니다.

1992년 5월 14일 - 목요일

나는 어제 수도원에서 나온 남자에 대해 물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건 불결한 영이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을 적어 두어라. 신부님들은 내가 요아킴 신부님께 너에 대해 당부한 대로 행할 것이다.”

나: “그럼 제가 콜 총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앞으로 며칠 안에 몇 가지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나: “그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기도해라,
내 딸아.”

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밁골스하임(Mingolsheim)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다. 사제, 보그트 신부님께 가거라. 다시 한 번 그분께 가거라. 오늘 당장 가거라. 사제들은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

11시 20분경, 제가 다시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듣고 있습니다.”

구세주: “사제, 보그 신부님께 가거라. 그분은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미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알고 있다, 내 딸아. 너는 다시 그분께 가야 한다.” 나: “그분이 ‘왜?’라고 묻는다면요.”

구세주: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해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 그분은
제 말을 믿지 않으실 거예요.” 구세주: “그래도 네가 그분께 가야 한다.”

나: “묵주 기도에 관한 말 말고, 그에게 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구세주: “내 딸아, 그렇게 하면 그가 고통
을 덜 겪게 될 것이라고 적어라.”

나: “하지만 그 말은 너무 가혹한데요.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구세주: “네가 그에게 그렇게 말해 주길 바란다.” 나: “네, 주
님. 그게 무엇입니까?”

구세주: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제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다.”

오후 12시 30분, 성당에서:

제가 구세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그건 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님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저를 믿지 않으실 거
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구세주: “내 딸아, 글을 써라.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간직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토록 힘든 일이다.”

구세주: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가거라.”

나: “네, 주님, 주님의 뜻이니 그렇게 하겠으나, 제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구세주: “고맙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14시 30분: 저는 그분이 어떻게 묵주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사제가 신자들과 함께 묵주를 바치며 인도해야 한다.”

나: “저와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구세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저는 조금 깜짝 놀라 그분이 어떻게 제 곁을 걸어가실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 곁을 걸어가시려는지 생각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구세주: “내가 너와 함께 걸으며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나: “이해가 안 돼요.”

나: “주님, 제가 그 사제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제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
문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나는 모든 사제를 위해 그의 구원을 위해 노력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더 이상 묻지 않겠습
니다. 제가 그분께 가겠습니다.”

로트의 교회에서 성체를 영한 후:

구세주: “가거라, 내 딸아, 그에게로 가거라.”

19시 45분경, 저는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그분께 전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제가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셔야 하나요?”

보그트 신부님: “그것이 제 직업입니다.” 저: “저에게는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구세주께서 제가 이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네, 일기장에 다 적혀 있지만, 그분은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도 속삭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학장님 뵈러 갔었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그분이 또 거짓말을 하셨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보그트 목사님은 웃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엔츠 학장님을 뵈러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분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보그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보그트 목사님을 찾아간 것이 또다시 헛수고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심각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방에서 나와 사제관 복도에 서 있으니, 장식용으로 마녀 인형이 여전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2년 전 콜그루브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한 여성 의사의 진료실에도 마녀 인형이 걸려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그 의사에게 그것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고, 그녀는 마녀 인형을 치워 주었다. 그녀는 심지어 나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나는 그곳에서 나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약 내가 보그트 목사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 목사님도 그 마녀 인형을 치워 주실지 궁금해졌다.

1992년 5월 16일 — 토요일

밤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기도했다.

오전 7시 15분, 바그하우젤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6:00: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아들을 방문했다.

18시 30분,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성심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8시 40분경, 성모님의 간구를 위해 저와 가족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1992년 5월 17일 — 일요일

오전 7시 15분부터 8시 50분까지 기도하며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위대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제가 적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은 이들과 부상당한 이들이 너무 많아 사제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처럼 사제들에게 실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잠시 후:

나: “아직도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세주: “내가 너에게 표징을 주겠다.”

나: “언제, 어디서요?” 구세주: “교회에서.”

나: “제 귀가 맞나요?” 구세주: “그래, 교회에서.”

나: “그러면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그로 인해 회개하게 될까요?” 구세주: “그래, 회개하게 될 것이다.”

나: “하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세주: “아니요, 그들은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사랑하는 예수님.”

구세주: “사제들은 현재 영적 맹목에 빠져 있습니다. 내 딸아, 사제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 “하지만 주님, 제가 이미 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기록해라. 중요한 일이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 “주님,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보스니아의 전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다.”

나: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구세주: “평화를 구하라.”

나: “제발, 전쟁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사랑이 없는 곳에는 오직 증오만 남는다. 내 아이야, 전쟁은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입이 그 말을 내뱉는다. 너희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기도하라.”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사제들은 큰 순교의 길로 빠져들었다.” 나: “제가 제대로 적었나요?”

구세주: “그래.”

그분은 곧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하셨습니다.

나: “주님, 저는 감히 이 말을 적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구세주: “하지만 네가 이미 적었잖니.”

나: “그들의 순교에 대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세주: “그들의 불순종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내 백성의 죄가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이 거대한 진흙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발 저희를 구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나에게 충실하라. 평안히 가거라.”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충실하겠습니다.”

추신: 이날의 내용을 일기에 옮기던 중(저는 모든 것을 먼저 원고에 적습니다), 30분 동안 깊은 잠에 시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구세주께 기도했더니,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악마는 제가 이 내용을 적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전 10시에 로트에서 거행된 성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5시경 마리오니 왔고, 그 뒤를 이어 아드리아네가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후 룩셈부르크에서 프리돌린과 클로드가 왔습니다.

나는 클로드에게 나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후 우리는 성모 경배를 위해 교회로 갔습니다. 클로드는 프리돌린과 함께 신학교에 다녔지만, 사제들에게 실망하여 지금은 신학교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다녀온 후, 나는 다시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클로드에게서 불결한 영을 느꼈지만, 동시에 내 이야기를 듣고 그가 힘을 얻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클로드는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신부님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말했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 후 그는 기도를 그만두었지만, 그 이후로 영적 메마름을 느꼈고, 결국 신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와 프리돌린은 우리 집에서 묵었고, 월요일 오전에 다시 떠났다. 클로드는 남편에게 다시 와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떠났고, 이곳에서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1992년 5월 18일 - 월요일

오늘로 8년 전, 메지고리예에서 성모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오전 8시 45분, 직장에서:

구세주님께서 사제들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분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사제들이 순교의 길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부정한 영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나: “그들의 순교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세주: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저는

계속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다시 혼자 있게 되자, 나는 엑스레이실에서 구세주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너는 가야 한다.”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는 따뜻함과 평화가 가득했다. 그 순간은 정말 아름다웠다. 혼자 있지 않다는 믿음이 들었다.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

나: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셨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나: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상상한 건가요? 제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저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참을성이 없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는 침묵하신다.

구세주께서는 악마가 어떻게 매복해 있는지 내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30분 후, 10시 15분경: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너는 떠나야 한다.”

— 또다시 대답이 없다 —

저녁에 나는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갔다.

19.05.92 — 화요일

오늘로 8년 전,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동안에도, 교회에 있을 때도 아무런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1982년 5월 20일 — 수요일

구세주: “내 딸아, 써라.”

나: “예수님, 자비로우신 사랑이시여,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오직 주님의 뜻이시라면 적겠습니다. 저는 죄인이라, 주님께 물을 권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먼지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주님께서 ‘내 딸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통해,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보호 아래서요.”

구세주: “그래, 그게 옳다, 내 딸아.”

구세주: “내 딸아, 어제는 큰 공격이 있었구나.” 나: “하지만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 “내가 허락한 것이다. 사탄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 심지어 파트리스까지도.”

저는 구세주님께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세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 딸아!” 저: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구세주: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너는 사랑의 학교에 있단다.”

나: “주님, 제 남편 곁에 어떤 더러운 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헤이더 신부님께서 축복해 주신 소금을 남편이 있던 곳에 뿌려 놓았거든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예수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분.” 구세주: “다시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나: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너무 많이 기도하느라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구세주: “내 딸아, 포기하지 마라. 계속 나아가야 한다.”

나: “주님, 제가 총리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이 루시퍼를 거슬리게 하나요?” 구세주: “내 딸아,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다니?”

나: “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

나: “루시퍼의 공격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구세주: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해라. 유혹은 네게 닥쳐야만 한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 신부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피정 중이신 보그트 신부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그 영성 수련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절대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 모든 신뢰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유혹을 허락하시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므로 주님께 충실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말해 주마. 지금은 아니야.” 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게 용서해 주십시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를 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평신도들이 성체를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1992년 5월 21일 — 목요일

오전 9시 20분, 의사실:

저는 구세주님께 시어머니를 이번 달 안에 당신 곁으로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쭙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는 이번 달에 시어머니를 내 곁으로 데려가겠다.”

나: “슈티프트-노이부르크의 신부님께서서는 사도들을 통한 사적 계시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사적 계시는 세속 사제들만이 끝낼 수 있다.” 나는 친녀 신부님에 대해 물었다. 그분은 성체를 직접 나누어 주지 않고 두 명의 성체 봉사자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구세주: “밍골스하임의 신부님은 평신도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게 해서는 안 되었어.”

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신부님이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구세주: “기다려야 했지. 신부님이 몸이 안 좋았던 것은 내 탓이 아니었어.”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잘 들어라. 너는 교회에서 발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로트, 즉 성 레온-로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

래, 로트, 성 레온-로트에서.”

나: “부디,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곧.”

나: “성모님이신지 악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네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보게 될까요?” 구세주: “그래.”

나: “모두요?” 구세주: “소수

입니다.”

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 후 저는 환자들에게 엑스레이를 찍어 주었습니다. 일을 마친 뒤, 저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러 나가지만, 저는 하느님의 가까움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딸아, 이 현시를 기록하라.” 나는 즉시 물었다. “어떤 현시입니까?”

구세주: “너희의 하늘 어머니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그분이 언제나 계시고 너희 곁에 계신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일에 대해 얼마나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기쁘지만, 이는 제가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로터 교회에서 일어날 성모 발현에 대해 제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나: “그게 무엇입니까?”

구세주: “항상 그분께 충실하십시오.” (성모님께).

나: “네, 구세주님,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약속드립니다. 저는 하늘의 어머니께 충실하겠습니다.”

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늘의 어머니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마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너는 하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현시를 보게 될 것이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가 그 목소리를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세주: “그래, 맞다, 내 딸아.”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저녁에 저는 밁골스헬름에 있는 로쿠스 예배당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5월 22일 - 금요일

병원 내 성당에서 12시 10분부터 13시까지.

저: “어제 성 로쿠스 예배당에서 성체 성사를 받을 때, 젤너 신부님께서 주저하시더니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저는 성체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죠. 신부님께서 저에게 성체를 건네주시는 데도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마치 누군가가 손을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그것은 신부님 안에 있던 불결한 영이었다. 그 불결한 영은 네가 무릎 꿇고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 “주님께서 그분이 저와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세주: “사탄이 그 신부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너와 말을 나눴을 것이다.” 나: “제가 그분을 도울 수는 없나요?”

구세주: “나에게 맡겨라, 내 딸아.” 구세주: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나: “무슨 전쟁입니까?”

구세주: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이다.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구세주: “전쟁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나: “제가 아직 기록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기록해 주었

으면 좋겠구나.”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예수님, 그게 무엇입니까?”

구세주: “어제 성모님 발현에 대한 소식을 신부님께 알려야 한다.”

나: “언제요?”

구세주: “앞으로 며칠 안에.”

나: “사랑하는 하느님, 신부님은 저를 믿지 않으실 거예요.” 구세주: “그

래도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나: “이 일을 신부님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아는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는 발현에 대해 말한 것이었다).

구세주: “말해라, 내 딸아, 그들에게 말해라.”

그 후 저는 오거스하임의 신부님에 대해, 왜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가 내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않았더라면 전화를 했을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사제들은 큰 혼란 속에 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신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 “이 일을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나는 발현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원하면 신부님께 먼저 말해도 되고, 사람들에게 먼저 말해도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5월 23일 - 토요일

오전 7시 15분 — 바그하우젤에서 미사.

성체를 영한 후, 나는 성체함 앞에 머물며 기도했다.

먼저 라틴어로 성모님 찬미를 바치고, 이어서 묵주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세주와 잠시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저: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하지만 먼저 제 마음속의 의심과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 주십시오.”

구세주: “성모님의 발현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저의 영적 지도자이시며, 사랑하는 예수님. 붉은 성당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구세주: “이 며칠 안에.”

나: “구세주님, 제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마리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천상의 어머니 마리아의 발현이 이 며칠 안에 붉은 교회에서 있을 것이다.”

나: “제 모든 신뢰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그때 나는 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딸아,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나: “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직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쇼핑을 하러 글로부스(Globus)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차 안에서 항상 기도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제 차가 쇼핑 카트와 부딪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느님과 성모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모시기 위해 촛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촛불을 켜자 촛불에서 큰 불꽃이 제 머리로 뿜어 나와 제 머리카락이 타버렸습니다. 악마는 성모님의 현현을 방해하려 합니다.

오후에는 교회에 가서 16시 30분부터 18시 15분까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이 고해성사를 보며 신부님께, 이 교회에서 성모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아니라고 하였고, 저는 “저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뵈기에 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고, 메지고리예에서도 성모님을 뵈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둘을 시험하셨습니다.

신부님은 구세주께서 제게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저를 깨웠습니다. 그는 불결한 영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는데,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992년 5월 24일 - 일요일

성체 성사 전, 집에서.

저는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성모 마리아의 발현은 성 레온-로트의 로터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나: “로트에서요, 아니면 성 레온에서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두 곳이나 있는데요.” 구세주: “로트에서, 네가 항상 가는 그곳에서.”

구세주: “이 발현을 네가 알아볼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발현 이후 많은 것이 변할 것이다.”

나: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이 며칠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시간은 내가 정한다.”

나: “보그트 신부님께서서는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함께 바쳐야 한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다른 시간에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더군요.”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그 사제, 보그트 신부님은 불순종하는 사제다. 그는 되돌아와 성부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 “보그트 신부님은 제가 그분께 당신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제 뜻이라고 하십니다.” 구세주: “적어두어라, 내 딸아. 네 뜻이 곧 나의 뜻이니라.”

나: “그러면 보그트 신부님께서 슈티프트-노이부르크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사도들을 통해 사적인 계시가 끝났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까.”

구세주: “그것은 성부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나: “성모님께서서는 성체 성사 전인가, 후인가에 나타나시나요?” 구세주: “성모 마리아님께서서는 성체 성사 후에 나타나실 것이다.”

나: “축복 전인가, 축복 후인가요? 그 때면 모든 사람이 밖으로 나가 있을 텐데요.” 구세주: “아직 안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제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구세주: “나에게 충실하라, 내 딸아.”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주님께 충실하겠습니다.”

구세주: “많이 기도해라,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저는 빨간 옷을 입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성모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1992년 5월 25일 - 월요일

오늘은 휴일이었다.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기도하며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님: “적어라, 내 딸아, 그것을 적어 두어라.”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오늘 저녁 로트의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있을 것이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기록하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세주: “나는 네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며, 네 예수이시며, 네 구세주이시며, 네 영혼의 인도자이다.” 나: “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방금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오늘 저녁 로트의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나: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구세주: “오늘은 5월 25일, 내가 기뻐하는 날이다.”

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머리에 왕관과 별을 쓰고 계신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나는 성모님을 오직 거룩한 광채만 띤 모습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 구세주: “너는 내 뜻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나: “하지만 저는 성모님을 뵈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세주: “지금까지 그분을 뵈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까요?” 구세주: “네가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다.”

그 후, 내 눈에서 내 것이 아닌 눈물이 흘러나왔다. 내가 물었다. “예수님, 울고 계십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지금 나는 오직 고통받는 예수일 뿐이다. 잔혹한 행위가 도를 넘었다. 기록해라, 내 딸아,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고 굳건히 버텨라. 나는 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내 계획에 있던 모든 것을 앞당겨야 한다.”

나: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모든 영혼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그것을 기록해 두어라.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나: “하지만 사제들은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니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것처럼 설교합니다.” 구세주: “사제들은 내 뜻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내 딸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는 그 연합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느꼈다.

오늘 저녁 일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의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사 전에 목주를 바치고,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 성수를 뿌렸다. 성모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세주님께서 제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성체를 다른 이들을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바쳤습니다. 설령 악마가 나타나더라도 힘을 얻어 더 강해지고, 악마가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며, 마지막으로 보그트 신부님과 성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부께는 각각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송 한 번, 영광송 한 번, 대천사 미카엘 기도 한 번을 바쳤고, 그 후 성모님께 성모송 세 번을 더 바쳤습니다. 그 후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의 심장’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옆에는 로즈비타가 앉아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끝까지 머물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미사 도중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물렀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저녁 8시,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구세주를 경배했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다가가 그 유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곁에서 울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성모님을 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마가 개입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84년 5월 18일에 성모님을 한 번 뵈었던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저를 그렇게 유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야 더 명확해졌습니다. 도하르트 신부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달래주시며,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도 같은 유혹을 겪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위로 덕분에 저는 다시 기운을 차렸고, 기쁨을 되찾아 기도 모임에 다시 나가 기도했습니다.

1992년 5월 26일 - 화요일

아침에 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구세주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16시 30분경, 오거스하임의 요아킴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전화로 저와 약 25분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제가 콜 총리님께 편지를 써서, 성부님 때와 마찬가지로 면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저는 구세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18시 30분: 목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다시 수녀님이 성체를 분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성체를 받지 않고 제 자리로 돌아가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1992년 5월 27일 - 수요일

약 2시간 동안 기도하며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님: “쓰거라,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세주: “네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하려고, 나는 그 불결한 영이 너에게 말하게 했다. 성모님의 발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 “언제요?”

구세주: “그것은 내가 정하리라.”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불결한 영은 모든 것을 흉내 낼 수 있다.” 나: “주님께서 제가 성부님께 편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는 제 시어머니께서 이번 달에 천국으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모든 일이 아직 이루어질 것이다.”

나: “그리고 요아킴 신부님께서 콜 총리님을 만날 약속을 잡아주실 거라고도 하셨잖아요.”

구세주: “그 약속은 좀 더 기다려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굳이 약속을 잡을 필요는 없다. 다른 방법이 있다.”

나: “주님, 오거르스하임의 신부님들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신부님들 중 누구도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는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면서도 듣지 못하느니라.” 나: “주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 사흘 동안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사탄이 저에게 모든 것을 거짓말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결한 영이 제 마음속에서 저에게 말한 것 같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세주: “너는 이러한 유혹을 겪어야 한다. 나를 향한 길은 가시밭길이며, 거의 모든 사람이 걷는 편안한 길과는 다르다.”

나: “그리고 어제 저녁에 수녀님이 또다시 성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성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세주: “네가 옳게 했구나.”

나: “그런데도 그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성체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구세주: “그녀는 항상 불결한 영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나: “하지만 미사가 끝난 후 차 안에서 그녀를 봤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양 저에게 손을 흔들더군요.”

구세주: “불결한 영은 그녀에게 겉으로만 보이는 기쁨을 주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겉으로만 보이는 기쁨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나: “주님,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나를 신뢰하라.”

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무력해요. 차라리 숨어 지내며 조용히 기도만 하고 싶어요. 기도 모임조차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구세주: “내 딸아, 포기하는 것은 쉽지만 인내를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다. 모든 일에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농부는 수확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구세주: “내 딸아, 많이 기도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평안히 가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게 꼭 필요했던 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제 마음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전에 45분 동안 기도했지만, 어떤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1992년 5월 28일 — 목요일 - 주님의 승천일

성체 미사와 붉은색 행렬.

저녁 — 성모 경배. 그 전에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1992년 5월 29일 — 금요일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1992년 6월 10일 수요일까지 휴가 중입니다.

이른 아침에 먼저 한 시간 동안 기도한 뒤, 영적으로 성체를 모셨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 세상엔 길을 잃고 있다.”

나: “그건 쓸 수 없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께 찬미를 드립니다.”

나: “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불멸의 하나님이니,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으십니다.”

구세주: “진흙이 너무 깊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만약 사제들이 제가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걸 듣게 된다면, 저를 미쳤다고 할 거예요.”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세상은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의 아버지에게 충실하다. 내게 속한 모든 이들은 이미 미쳤다고 선언받았다.”

나: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은 미치지 않았나요?”

구세주: “넓은 길이 끝날 때까지만 그렇다.”

나는 1992년 5월 25일에 악마가 개입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해 물었다.

구세주: “너는 성모 마리아의 현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나, 언제인지는 묻지 마라.”

나: “그럼 보그트 신부님께서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때 나는 성모 마리아의 현현을 생각하고 있었다.)” 구세주: “그는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나: “주님, 지금 불결한 영이 제 곁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 존재를 느끼고 있거든요.”

구세주: “그래, 그 악령은 항상 네 주위를 맴돌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 “주님, 이 세상의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참으로 끔찍합니다.”

구세주: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 대한 경고였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

나: “다른 것도 적어둘까요?” 구세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

하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사랑, 인내와 용기, 그리고 더러운 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점심시간에 약 2시간 반 동안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기도할 힘이 넘쳤고, 숲속에서 시편을 바쳤습니다.

저녁에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를 드렸습니다.

1992년 5월 30일 - 토요일

이른 아침에 약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바그하우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리오나 함께 있었고, 우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16시 20분부터 20시까지 로트(Rot)의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시편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일곱 말씀을 기도한 뒤, 성체성사 미사에 남아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1992년 5월 31일 — 일요일

성체 성사 전에 기도했다. 로트에서 미사에 참석했다.

깊은 묵상 중에 구세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이달 안에 제 시어머니를 데려가시겠다고 제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까?”

구세주: “아니, 내가 아니었다. 내 딸아, 내가 네 마음에 심어준 것을 적어라. 무엇이 내 것인지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적어라, 내 딸아, 너는 내 자녀다.”

저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께 찬미를”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그 말씀을 세 번 들었습니다.

그러자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아침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오후 7시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오늘이 5월 기도회가 열리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기도회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 9시경에 저는 묵주기도를 한 번 더 바쳤습니다.

1992년 6월 1일 월요일

저는 여전히 휴가 중이라 집에 있었고, 기도실을 마련하기 위해 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실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아끼

밤 3시에서 4시 사이에 묵주기도와 성심 기도문을 바쳤습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도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숲속을 산책하며 묵주기도 두 번을 바쳤다. 저녁에는 로트

로트 교회에서

열린 묵주기도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0시에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경건함에 대해, 그리고 성체를 올바르게 영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구세주께서 유혹을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있었다면 제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을 테니까요. 그랬다면 악마가 이겼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좋은 분이시지만 고집이 세십니다. 일요일 대신 항상 토요일 저녁에 미사에 참석하십니다. 성체 축일에도 성체 행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을 선호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평신도에게서 받은 사제에게서 받은 성체를 모시는 데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히틀러의 추종자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열렬히 숭배하고 계십니다. 제 기도 모임에는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저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회심과 신념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하는 말에 더 쉽게 영향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를 좋아합니다. 시어머니이시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다림질 같은 일을 대신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면 시어머니도 우리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시는데, 예전부터 늘 그래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5월에 돌아가셨더라면, 악마가 제 모든 것을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아마도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도 옳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언제 죽을지는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세주께 충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유혹이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테니까요.

1992년 6월 2일 — 화요일

나는 6시 30분에 밉골스하임에서 열린 아침 미사에 참석했다.

미사가 끝난 후,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다가 현재 본 근처의 성 아우구스티노에 거주하고 있는 슈타일러 선교회 소속 윈너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구세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신부님께 전해 드렸을 때, 신부님은 기뻐하셨습니다.

1992년 6월 3일 - 수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45분까지 저는 기도하며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혹이 닥쳐오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세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께 찬미를 드립니다.”라고 저를 맞이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께 찬미를 드립니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나: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주님께서 원하시니 제가 적겠습니다.” 구세주: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의 교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 “성모 마리아는 누구십니까?”

구세주: “그분은 나의 신부이자, 나의 딸이며, 나의 어머니이자 너희의 어머니이다.” 구세주: “내 딸아, 의심하지 마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 현현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감히 묻지 못하겠으니, 저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구세주: “이제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나: “믿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구세주: “나는 네 예수다.”

나: “주교와 교황, 그리고 콜 총리에 관한 일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구세주: “아직 올 것이다.”

나는 성모 발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구세주님께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해 주셨다고 상기시켜 드렸다.”

구세주: “그녀는 나타나실 것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나: “당신은 교회 안에서 표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그 표징은 성모님의 발현보다 먼저 올 것이다. 이 표징은 사제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 내 딸아,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너는 교회 당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주의하고 나에게,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충실하라.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구세주: “내 딸아, 많은 희생을 바쳐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어제 천녀 신부님과 이야기했을 때,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 “내가 너를 대신해 말한 것이다.”

나: “그 점을 분명히 느꼈고, 그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신부님은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나요?”

구세주: “보아라, 내 딸아, 나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나는 오직 너희를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다.”

나는 한동안 더 간절히 은총을 청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께 여러 번 기도를 드렸을 때, 제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온기와 넘치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평온함과 평화를 느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6월 4일 — 목요일

밤에는 4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다시 8시 10분부터 10시까지 기도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한 후,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사랑하는 예수님,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

구세주: “너는 곧 트렁크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구세주: “그분이 그 형제에게 성체를 손에 건네준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 “네, 주님, 저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는 신부님이 ‘주님, 저는 감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성체를 모셨더군요.”

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형제가 성체를 받는 모습이 너무 탐욕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 일로 너희 둘 다 나를 모욕한 것이다.”

나: “하지만 주님, 신부님이 그 형제에게 성체를 손에 건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구세주: “그 말이 맞다. 사제가 성체를 성스러운 손이 아닌 곳에 건네지 않도록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당신을 모욕했으니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주님은 제 안에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글을 쓰도록 제 손도 사용하십니다.”

구세주: “그게 내 마음에 든다, 내 딸아.”

나: “무엇을 써야 할까요,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올바른 내용만 쓸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청합니다. 제게 확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네가 초대받았다.” 나: “누구에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나: “주님, 하나님

, 누구에게요?” 구세주: “한 위원회로.”

나: “제가 상상한 건가요?”

구세주: “너는 한 위원회에 초대받게 될 것이다.” 나: “언제, 어디서, 왜요?”

구세주: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인내하라.”

나: “그 위원회에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건가요?” 구세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주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구세주: “그렇게 될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밖에서는 이미 두 명의 여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로즈비타의 시누이였고, 다른 한 명은 블랙포레스트에 사는 페르디난트 토메 신부님의 여동생이었다.

시계는 10시였고, 나는 그들과 내 회심에 대해 약 4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10시 50분: 나는 구세주와 다시 한 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반드시’라는 느낌은 다소 묘했습니다. 하지만 유혹이 닥쳤을 때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1984년의 환시는 영 분별 덕분에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눈에 보이지만, 목소리는 듣기만 할 뿐이라 그 목소리를 분별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목소리를 분별할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사랑과 은총을 느끼게 해 주시며, 침묵을 분별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유혹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성들 때문에 방해받았지만,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성모님의 발현은 약 4주 후에 있을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사랑하는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께서는 곧바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어디에서요?”

구세주: “붉은색 교회에서.” 나: “다른 건 더 알아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 딸아,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항상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구세주: “많이 기도하고, 금식도 하거라, 내 딸아.”

나: “사랑하는 하느님, 노력하겠습니다.”

룩셈부르크의 클로드가 떠올랐지만, 묻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클로드를 대신해 글을 써도 좋다. 그는 지금 사제가 될 수 없다. 너희는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제가 다시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구세주: “그래, 네가 내 뜻을 이루었구나.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저녁에는 교회에서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6월 5일 - 금요일 - 성심 금요일

저는 아직 휴가 중이었기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집에서 성심 연도, 성모 연도, 성령 기도 등을 드렸습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교회에서 일어날 이 표징은 네게 일어날 것이다.” 나: “주님,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가올 이 표징이 네 안에서 작용하게 하라.” 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내 은총이 네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용기 있게 버티며, 다른 이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나: “하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구세주: “나와 함께라면 너는 강하다.”

나: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구세주: “그 시간은

내 것이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저는 주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제발 저를 주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말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찬양하고 찬미해야 합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사람들은 그릇된 길에 있다. 그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여기 계심을 깨달은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라. 내가 네 길이다. 이 길에서는 네가 길을 잃을 수 없다. 내 딸아, 내가 네게 나에게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주리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께 충실할 은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에게 충분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바로 행복 그 자체이심을 깨달았으며, 이제 영원토록 그 행복을 기다립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글로 내게 기쁨을 주었구나.” 나: “네, 사랑하는 하느님, 그것은 제 입이 아니라 제 마음이 말한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아직 피어날 향기로운 꽃의 꽃봉오리일 뿐이다.”

그 후 나는 구세주께서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주기도와 미사를

드리러 나는 빨간 옷을 입고 교회에 갔습니다.

1992년 6월 6일 - 토요일

나는 오전 7시에 밁골스하임의 성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독일인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약 20분 동안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그분은 목발 두 개를 짚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16시 30분 - 18시 15분: 교회에서 로트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보그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도 받았습니다.

1992년 6월 7일 - 성령강림절 월요일

저는 7시 45분부터 9시 05분까지 기도했습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원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

아, 내가 네게 말하리라. 너는 참을성이 부족하구나.”

나: “이 말을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적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제가 제 영혼 속에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

다.

구세주: “성모 마리아님의 발현은 조만간 있을 것이다.” 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4주 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내 딸아, 너도 알다시피, 성모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나: “왜 성모님을 붉은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너희 교회에서 기도가 많이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주변의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구세주: “나는 이 교회에서 많은 용감한 신앙 고백자들을

얻고자 한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게 주는 이 표징은 나의 표징이니라. 내 딸아, 이 표징은 성모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나타날 것이다.”

나: “이 표징이 나타날 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침묵해야 합니까? 이 표징은 저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도 위한 것입니

까?”

구세주: “너에게 은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성령께서 네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 어머니께 기도하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너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 “주님, 저는 이걸 쓸 수 없습니다.”

구세주: “쓰거라. 네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너를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라. 내 딸아, 우리에게 충실해라.”

나: “주님과 성모님께 충실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성모님을 무척 사랑하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이제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네게 내리기를.”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십자 성호를 긋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것이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나는 붉은 예복을 입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6월 8일 - 성령강림절 월요일

밤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평화를 위해, 그리고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꾸짖으시고 유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저는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임을 압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모욕하고 참을성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더 나아지겠다고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제때가 있으며,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그것이 옳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아담과 이브 이후로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어머니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구세주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 마음은 그 표징에 쏠려 있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받는 이 표징은 나로부터 온 것이며,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너는 그 표징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 “네, 주님, 이제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 표징이 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세주: “세상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나의 모든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다가올 그 시간을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라.”

나: “어떤 시간이에요?”

구세주: “심판이다. 각자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벌써 심판에 대해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구세주: “사랑아! 벌써부터 그래야 한다. 사랑이 야말로 너희 모두가 심판받을 때의 척도다.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라. 나는 사랑이다, 내 아이야.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그 사랑을 퍼 담을 수 있다.”

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랑을 채우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세주: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아버지를 선택했단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지금까지보다 이 사랑을 더 많이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간청합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제게 많은 사랑을 내려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믿음을 가져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저녁, HI 미사에서 ‘In Rot’을 불렀습니다. 20시에 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1992년 6월 9일 - 화요일

오늘은 휴가의 마지막 날이었다.

밤 4시부터 5시 30분까지 나는 평화를 위해, 사제들과 바티칸을 위해 기도했다.

구세주: “어제 기도 모임에서 네가 옳은 말을 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계속 그렇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의 기도(성령강림절 월요일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 나: “로즈비타가 어젯밤 고통을 겪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일기 사본을 보관하라고 건

네주었습니다)

구세주: “부정한 영들은 그녀가 네가 쓴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내 보호 아래 있다.”

나: “제 남편이 어제 제가 너무 오래 말했다고 하더군요.” 구세주: “그가 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그의 말을 듣지 마세요. 원수 또한 네 집 안에 있습니다.”

나: “나의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이 정말 아름다워요. 제 안에 평온과 평화가 가득해요.”

구세주: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 “오, 나의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할 말이 더 있으신가요?” 구세주: “내 딸아, 쉬어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 하는 딸아.” 나: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는 다시 잠들겠습니다.”

10시 40분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10일간의 휴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기도했지만, 구세주님께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나: “글을 써야 할까요?”

구세주: “쓰거라. 네가 내뱉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부정한 영이 너를 흉내 낼 것이다. 그는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 네가 쓴 것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구세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 딸아, 너는 그 더러운 영을 알아차렸고, 앞으로도 항상 그를 알아볼 것이다. 너에게 은혜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 많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에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묵주기도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를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1992년 6월 10일 — 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구세주: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세주: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사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해라.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미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 “그분은 신자들과 함께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너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나: “어떤 신부님께 가야 하나요?”

구세주: “보그트 신부님께 가거라.”

나: “하지만 그분은 불순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그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내 딸아, 그에게 가거라.” 나: “이 전쟁이 독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구세주: “모두에게.”

나: “그분께,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도록 무언가 전해 드려도 될까요?” 구세주: “그분께 전하거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느니라.”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 이신 분, 감사합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정오 12시에 저는 직장의 성당에서 ‘주님의 천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홀거가 저에게 읽을 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16시: 집으로 가는 길에 보그트 신부님을 위해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17시 50분경,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들러 잠시 기도했습니다.

18시 00분부터 18시 30분까지 보그트 신부님을 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1992년 5월 24일, 5월 29일, 6월 3일, 6월 5일, 6월 7일, 6월 8일,

그리고

오늘인 1992년 6월 10일자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들으며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그냥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축복을 청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를 떠나며, 저는 이 일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보그트 신부님은 “그 말을 구세주께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은 이미 그 말을 들으셨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신부님이 구세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9시, 나는 로쿠스 예배당에 가서 묵주 기도를 드리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트렁크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지금 트렁크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눌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나: “그분이 저와 이야기해 주실까요?” 구세주: “그래, 그분이 너와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의 대화는 약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트렁크 신부님께 구세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1992년 6월 11일 —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의사실:

저는 구세주께, 어제 보그트 신부님께서 이 모든 것이 위협적인 메시지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구세주: “나에게 맡겨라.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트렁크 목사님에 대해 물었다.

구세주: “네가 그분을 찾아간 것은 옳은 일이었다.”

나: “하지만 그분은 오스카르 자이어 주교님께서 그에게 손으로 성체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세주: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주님께서 성부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거나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맞습니다.”

나: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주교가 사제에게 손으로 성체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사제는 주교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구세주: “아니오.”

나: “제발 ‘아니오’ 말고 다른 말을 해 주세요.”

구세주: “그 사제는 내 눈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다.”

나: “그 신부는 교황님도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했는데요.”

구세주: “교황님께서는 강요당하고 계신다. 모든 주교가 교황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나: “그 신부는 ‘천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지만, 주교가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 알 바가 아닌가요?”

구세주: “아니, 그건 네가 신경 써야 할 일이다. H. 트렁크 신부는 ‘천사의 사역’에 가야 한다. 그에게 나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전해라.”

나: “그분은 주교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하지만 그는 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가 천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의 뜻입니까?”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은 오랫동안 내 뜻이었다.”

나: “제가 쓴 내용을 주교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구세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교는 사적 계시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교황님께서 강제로 손으로 성체를 영하게 하신다면, 사제도 자신이 강요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세주: “내 딸아, 교황 성하께서는 내게 순종하느니라. 그분은 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시느니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그렇게 물어본 것이 내 마음에 든다.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12시 05분 ~ 13시 00분 사이, 성당에서:

구세주: “내 딸아, 잘 들어라. 나는 사랑이며, 겸손이며, 온유이며, 평화이며, 평온이며, 인내이며, 기쁨이며, 진리이며, 빛이며, 길이다. 나는 네 생명이다.

이것과 상반되는 모든 것은 불결한 영이다. 명심하라. 나와 대화한 후에는 평온과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불결한 영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불결한 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도 여기 있느니라.”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오늘 네가 쓰는 것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어라.”

나: “그리고 마리온, 그녀가 써야 하고 로즈비타가 간직해야 한다는 건가요, 맞나요?” 구세주: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돼.”

나: “하지만 제게는 신부가 필요해요.”

구세주: “사제를 네게 보내 주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나: “어떻게 하면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한 마디만 더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내가 네게 한 말이 네 마음을 채워 줄 것이다.”

나: “무엇으로요?” 구세주: “사랑으로.”

나: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

1992년 6월 12일 — 금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며, 예수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무엇을 써야 할까요?”

나는 그 음성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악한 자가 개입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보라, 내가 허락할 때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나: “내 안에 강한 온기와 평온, 평화가 느껴집니다. 제 마음은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느낌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나: “하지만 주님 없이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없어요.”

구세주: “그래, 그래서 네게 내가 필요한 거야. 그 시련은 당국에서 오는 거야.”

나: “전 시험을 정말 못 보거든요. (학교 시험이 떠올랐습니다.)” 구세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5월에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가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불결한 영은 이를 통해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것과, 평신도들이 성체를 분배하는 것도 옳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만약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너는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이 옳다고 믿었을 것이다.”

나: “하지만 불결한 영이 개입하면 그걸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구세주: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나는 온유함이다.”

나: “그럼 베오그라드 일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악령이 개입했습니까?” 구세주: “아니, 그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 “지금까지 제가 알아차린 바로는, 불결한 영이 두 번 간섭한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와 1992년 3월 25일, 성모님 발현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4주 뒤’라고 발표되었을 때였죠.”

구세주: “그것은 단지 그가 개입했던 부분들일 뿐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직접 해야 합니다.”

나: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구세주: “내 가르침을 옹호하고, 나에게 충실하며, 미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말해 주겠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제 더 잘 이해하겠습니다.”

나: “오늘 아침에 차를 몰다가 트램과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사고가 났을 뻔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성모 마리아 연도를 바쳤습니다. 마침 ‘Virgo Prudentissima - ora pro nobis’를 기도하고 있을 때, 눈앞이 환해져서 트램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눈으로 전차를 알아 차리기 전에 이미 제 발은 브레이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수호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구세주: “끊임없이 기도하라. 불결한 영이 너를 파멸시키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구세주: “기록해 두어라, 내 딸아. 슬로바키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 “몬테네그로는 어떻습니까?”

구세주: “몬테네그로는 곧 멸망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더 이상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부디 내려 주십시오.

HI. 로트의 교회에서 미사와 목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1992년 6월 13일 — 토요일

아침 미사를 드리러 밉골스헬름의 로쿠스 예배당(오전 7시)에 갔습니다.

그 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목주기도 두 번을 바쳤습니다. 14시 00분에, 저 역시 로트에 사는 형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날은 제 형 폴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막내 동생 블라디미르도 그곳에 있었고, 여동생 소냐와 조카들

등등도 함께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비웃지 않았고, 모두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구세주 곁에 있는 것이 바비큐 파티보다 더 좋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고해성사 중에 저는 신부님께 교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신조 고백 때 성체함을 향하지 않고 신도들을 바라보신다는 점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성체함에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의 본보 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2년 6월 14일 — 일요일

저는 오전 7시 10분부터 8시 25분까지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 연합 기도 중:

구세주: “내 딸아, 너는 고해소에서 아주 잘 말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 말해 주었다. 그 사제는 너희가 나눈 대화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틀렸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텅 비어 있어도 놀랍지 않습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가 무 엇을 알아야 합니까?”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전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스니아의 전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여쭙보는 것을 깜빡했네요.”

나: “주님은 성체의 작은 조각들 속에도 현존하십니까?” 구세주: “그래, 나도 그 작은 조각들 속에 현존한 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그곳에서 전쟁이 멈추면, 다른 곳에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내 딸아, 사람들은 불만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잠시 후,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 말을 적어두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적어두어라.”

나: “깊은 평화와 온기를 느낍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방금 저에게 주신 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쓸 능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저도 시인은 아니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게 머물러라. 평안히 가거라.”

10시 - 붉은 예복 미사.

13시 00분, 묵주기도와 묵상.

오후에 마리오이 왔고, 우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 후 저는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1992년 6월 15일 — 월요일

의사실에서: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소연했다. 구세주: “나는 너를 사랑

한다, 내 딸아.” 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세주: “지금까지 네가 잘 해왔어.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나: “주님, 그들이 여전히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내 딸아, 조만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네 임무는 사제들에게 신자들에게는 오직 입으로만 성체를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나: “하지만 다들 주교님들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구세주: “그들에게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전해라.”

나: “그러면 사제들에게 사적 계시를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공인된 사적 계시를 믿지 않는 사제들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지 못한다.”

나: “주님, 제가 제대로 적었나요?”

구세주: “내 딸아, 그렇게 쓴 것이 마음에 든다. 평안히 가거라.”

18시 30분, 로테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20:00 기도 모임: 도하르트 신부님과 바그하우젤의 베르톨트 신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리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1992년 6월 16일 - 화요일

10시 00분, 의사실:

구세주: “기록해라, 내 딸아, 사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너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전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나: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랑하는 하느님, 더 심해진다는 게요?” 구세주: “전쟁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나: “아직도 그렇게 많은 증오가 남아 있나요?” 구세

주: “거의 증오뿐이다.”

나: “아직 더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적어 두어야 한다. 예배당이 허가를 받을 것이다. 기부금이 들어올 것이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리를 마련할 곳이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그 만남에서 저는 큰 온기와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주님은 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을 아십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저는 주님께 충실하겠습니다.”

18시 30분에 저는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를 드렸습니다.

성체 성사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성체 영성체 후, 저는 구세주님께 그것이 옳은 일인지, 즉 오늘 아침 성당에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믿어도 좋다. 맞다.”

1992년 6월 17일 — 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글을 쓰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원치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구세주: “세상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하고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선지자들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세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생충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나: “그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이다.”

나: “어떻게 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까?” 구세주: “그들은 내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나: “그가 부정한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나요?” 구세주: “거짓 선지자는 많은 추종자와 동조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나: “그리고 당신의 영의 인도를 받는 다른 이들은요?” 구세주: “그들은 아주 소수다.” (추종자들)

나: “사랑하는 하나님,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구세주: “내 딸아, 그들에게는 사랑이 부족하다. 거짓 예언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들을 믿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나: “주님, 그 둘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건 오직 주님과 함께일 때뿐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오직 나와 함께 일 때만 가능하단다.”

나: “조만간 그런 예언자와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구세주: “그래, 여러 명과 말하게 될 것이다. 내 딸아, 인내심을 가져라. 나에게 충실해라.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나서 나는 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는 밁골스하임의 성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6월 18일 — 성체 성혈 대축일 — 목요일

나는 오전 7시 45분부터 8시 45분까지 기도하며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사람들은 지금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 나: “심연이라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구세주: “지옥으로 가는 것이야, 내 딸아. 그들은 모두 자유 의지로 그렇게 선택했단다.”

나: “다른 사람들은 당신께서 자비롭고 자애하신다고, 사랑하는 하느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구세주: “그 영혼들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선택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구세주: “세상의 왕이라.” 나: “왜 그를 왕이라고 부르시나요?”

구세주: “그의 교만함으로 그의 자녀들을 알 수 있느니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오늘은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체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이 축일에는 내가 거의 송배받지 못하네. 내 딸아,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졌단다. 영혼의 정화가 곧 닦쳐올 것이다. 징계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나: “아직 더 적어야 할 게 있나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나: “하지만 주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께 영광을 돌리며, 비바 예수 에 마리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세주: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

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독일어로 이렇게 적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십니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당신은 저를 온전히 가지셨습니다. 나의 구세주여, 저는 당신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저를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당신께 속해 있음을 항상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왜 다시 모든 것을 원하시나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구세주: “너도 알다시피, 내 딸아.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질 것이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고 굳건히 버텨라.”

8시 45분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르며 교회에 가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사는 9시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를 마쳤고, 9시 3분 전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신자들이 성체를 합당하지 않게 영하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결국 성체를 영한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교회 안에는 정신이 나간 사람도 한 명 있었다. 성체 변모 예식 전에 그는 교회를 떠났다. 나는 아들을 위해 성체를 봉헌했다.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13시 00분에 묵주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갔고, 그 후 묵상 시간에 머물렀습니다.

19.06.92 — 금요일

목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붉은 옷을 입고 교회에서 미사와 묵주기도에 참석했다.

1992년 6월 20일 — 토요일

집에서 오전 7시부터 8시 45분까지, 약 45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합일 중에 저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자 하나님하신 분, 원하신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써라.”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가톨릭 대회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들은 독신 생활을 폐지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성체 성사를 집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그들은 스스로를 가톨릭 신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 마음과 닮은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여성이 성체를 거행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기록하라, 내 딸아, 그것은 루시퍼의 소행이다.” 나: “그리고 독신 생활은요?”

구세주: “사제는 내 본보기를 따라 사제로서 살아야 하며,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 가톨릭 신자라는 것은 교황님께 충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왜 보그트 신부님은 신앙고백을 할 때, 지성체가 모셔져 있을 때 성체함이나 구세주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시나요? 왜 신자들을 향해 서 계신 건가요?”

구세주: “아직도 자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 “주님, 주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부가 없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사제가 올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믿지 않으니 나를 실망시키고 있다.”

나: “부정한 영이 끼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구세주: “그것도 있어야만 해.”

나: “사랑하는 하나님, 믿고 싶지만 도하르트 신부님, 포그트 신부님, 그리고 제 남편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구세주: “나도 알고 있다. 네가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분임을 증명해야 한다.” 나: “어떻게요?”

구세주: “너에게는 내가 있잖니.”

나: “네, 주님이자 하나님하신 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9시경, 나는 비젠타에 있는 마리온 댁에 도착했다. 그녀 곁에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나는 내 경험과 회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불결한 영의 강력한 공격을 느꼈다. 그 불결한 영은 꽤 강해서, 여러 번 내 이야기를 방해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한 소년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너는 고해성사를 받지 않았구나.” 저는 그에게 성수를 뿌려주었습니다. 오후에 그 소년은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가톨릭의 날 행사에서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도 그곳에 참석했죠. 그는 5년 전에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받았었는데, 오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난 듯했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번 가톨릭의 날 행사에서 저는 많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과 구강 성체 영성체를 자주, 그리고 많이 옹호해야 했습니다. 그 후 세 대의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의 보좌주교인 볼프강 키르히게스너 주교님께도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메지고리에의 열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리고 왜 아직 그곳에 가보지 않으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네, 하느님께서 어디에나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네, 여기에도 계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대화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께 축복을 청했습니다. 마리오노도 함께 있었습니다.

힘든 가톨릭의 날 일정을 마친 뒤, 저는 결국 고해성사도 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겸손한 사제인 앵겔베르트 레크텐발트 신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훌륭한 고해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말할 때, 베아테 함브슈가 세 번이나 함께했습니다. 저는 베아테가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이번 가톨릭의 날을 계기로 구세주를 위해 일하기 위해 진정으로 깨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할 때 구세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리오노도 부지런히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행사에는 많은 ‘잃어버린 아들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이 은총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6월 21일 — 일요일

저는 7시 45분부터 9시까지 기도하며 가톨릭의 날 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실망했고, 어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 대의 카메라 앞에서 했던 말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어제 네가 한 일은 잘한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말하였다.”

나: “그럼 마리오노와 베아테는요?”

구세주: “그들은 나의 도구들이라, 내 딸아, 계속 나에게 충실하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가톨릭의 날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 금방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더 이상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사랑은 간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 내 딸아,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나: “하지만 지금 불결한 영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영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제 손에 경련이 느껴집니다.”

구세주: “그도 나를 찾을 수 없어서 화가 나 있다.”

구세주: “나와 함께라면 너는 언제나 그를 이길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는 그도 있다.”

나: “하지만 마음속에는 평온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느낌이에요.” 구세주: “그 불결한 영은 그곳에 들어올 수 없어. 네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 “말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며, 네 영혼의 인도자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묻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13:00 — 로트(Rot) 교회에서 묵주기도.

1992년 6월 22일 — 월요일

의사실에서:

그 순간 나는 구세주를 너무나 사랑하여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곳에는 엄청난 사랑이 가득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네가 쓰는 모든 내용은 책으로 출판될 것이다.”

인쇄되기 전에 사제께서 검토하실 것이다.”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조용히, 은밀하게 지내야 할까요?” 구세주: “나는 그 책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

나: “너무 과한 부분들은 일부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구세주: “그건 신부가 할 일이다.”

나: “주님, 저에게는 신부가 없는데요.” 구세주: “내가 너에게 신부를 보내주겠다.”

나: “주님, 이 책이 출판되면, 그들은 저를 교회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진리를 썼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이 책은 곧 인쇄되어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우리가 더 빨리 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구세주: “그래, 네가 할 수 있다.”

나: “주님, 이 책에 대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1992년 6월 11일자 내용을 트렁크 신부님께 읽어 드려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해.”

나: “아직 더 적어야 할 게 있나요?”

구세주: “내 뜻을 따르는 내 딸아, 고맙다.” 나: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18시 30분 묵주 기도, 레드 성당에서 미

사

20시 00분 기도 모임

1992년 6월 23일 — 화요일

10시 00분, 의사실:

오늘 아침에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구세주님과 하나 되는 도중, 의사들이 몇 번이나 나를 방해했습니다. 구세주님: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사랑하는 예수님, 무엇을 적어드리면 좋겠습니까?”

구세주: “내 딸아, 유럽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러시아 전쟁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오전 10시 55분경, 저는 12세 소년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 아이는 코피가 나고 코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이 구 동독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도문을 건네주었고, 그는 기뻐했다. 그 후 나는 그에게 내가 성인으로 세례를 받은 일에 대해 몇 마디 더 이야기해 주었다.

잠시 후(엑스레이 촬영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예수님께 마음을 돌렸습니다. 마치 인도하심을 받는 듯, 제가 구주와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주: “기록하라, 내 딸아, 이것이 중요하다.”

나: “주님,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또한 “제가 적어야 할 내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들 모두를 기도로 부르라.”

나: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제대로 들었다.” 구세주: “모두를 기도로 부르라.”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제들은 듣지 않습니다. 콜 총리님께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을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을 욕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을 비방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발 조연을 주세요. 어떻게 사람들을 기도하러 불러야 할까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직접 콜 총리님께 가거라.”

나: “언제 그분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세주: “가능한 한 빨리.”

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세주: “사

랑하는 딸아, 서둘러라.”

나: “네, 주님, 제가 총리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구세주: “이 전쟁은 더 많은 사망자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나: “제 주변에서, 제가 성수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들(악마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느낍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들에게는 이것이 고통이지만, 네가 쓰는 글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네 곁에 머물러야만 한다. 최고 통치자가 그들을 강요하고 있다.”

나: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루시퍼이시군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맞췄구나.”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기도 모임이 끝난 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 1시였죠. 불안감이 밀려왔고, 마치 온몸의 피부 아래에 벌레들이 기어 다니다 움직이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즉시 악마를 떠올리고 바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침대에 성수를 뿌리고 짧은 축귀 기도를 드렸더니,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성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제가 잠들었던 침대가 젖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구세주: “그래, 정말 많았어. 네가 그걸 봤더라면 죽었을 거야.” 나: “하느님,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구세주: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은 후에야 믿게 될 거야.”

나: “저는 이 일을 당분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역겨운데, 지옥은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느님, 제발 사람들을 구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

1992년 6월 24일 - 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저는 간절히 기도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내용을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적어라.”

나: “구세주님의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깊은 평화를 느끼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몇 시간이고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세주: “나는 내 백성들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말씀을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구세주: “사람들은 더 일찍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다시 방해를 받았습니다. 베로니카가 저를 불렀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제게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젊은이였는데, 이제 곧 의대 과정을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개신교 목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그 후 오늘날 나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안드레아스는 이제 서른 살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학업을 마치면 스위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수입이 더 좋고, 급여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오, 성당에서. 나는 항상 성당에 있다. 일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건,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다.

19시 30분, 로쿠스 예배당 — HI. 미사.

1992년 6월 25일 — 목요일

목소리가 나지 않음 —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가서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를 드렸다.

1992년 6월 26일 — 성심 대축일

기도 모임:

구세주: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감히 여쭙보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세주: “나에게 충실하기를 바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성체성사.

1992년 6월 27일 - 토요일

오전 7시 15분에 나는 바그하우젤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마리온과 함께 일기

를 쓰고, 헬무트 콜 연방 총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6시 30분부터 18시 15분까지 나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보았다. 저녁에는 란테르스호펜 (Lantershofen)에서 신학도 두 명, 마티아스와 프리돌린이 찾아왔다. 밤이 깊을 때까지 나는 그들에게 일기를 읽어 주었다.

1992년 6월 28일 - 일요일

집에서 약 한 시간 동안 기도했다. 프리돌린이 욕실에서 노래를 불렀다. 남편도 방해했다. 구주와 하나가 되기 어려웠다.

프리돌린, 마티아스, 그리고 저는 바그하우젤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성체성사 후, 구세주께서 저에게 그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침에 적어 두었던 종이를 찢어 버렸던 것은, 그 내용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세주께서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에밀리안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에밀리안 신부님과 저는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리돌린과 마티아스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나는 혼자자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구세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나는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에밀리안 신부님은 구세주님께서 성체의 작은 조각들 속에서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다. 대화가 끝난 후, 나는 그분께 축복을 청했다.

그 후 점심 식사까지 1시간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프리돌린은 기도를 드렸고, 마티아스는 제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13시 30분에 교회로 가서 묵상을 드렸다.

집에 돌아오자, 우리는 평화를 위해 라틴어로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1992년 6월 29일 - 월요일

10:00 의사실:

어제 에밀리안 신부님과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님께 성체 조각 속에 계신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그 작은 조각들 속에도 내가 계시다. 잘 들어라, 내 딸아, 그 신부는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구세주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 내 딸아. 전쟁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든 이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구세주: “마음속에 증오를 품은 모든 자들이다.” 나: “그리고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요?”

구세주: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나: “하지만 증오를 품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랑을 품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구세주: “그 소수 곁에 내가 함께 있으니,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

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구세주: “그렇다, 내 딸아.”

구세주: “너는 사랑을 품은 소수에 속해 있구나.” 나: “그럼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묻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나의 신랑이신지 궁금해했다. 구세주: “그래, 나는 네 신랑이다.”

나: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나의 신부다.”

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제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부란 무엇입니까?” 구세주: “신부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하지만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당신의 신부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단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충실하게 남아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평안히 가거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충실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HI. 미사와 장미경, 붉은색.

인도에서 온 한 신부님이 대리 사제로 오셨고, 보그트 신부님은 요양 중이셨습니다.

20:00 기도 모임: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1992년 6월 30일 — 화요일

10시 의사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구세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맡겼고, 마지막에는 모든 영혼들을 맡겼습니다. 구세주님: “내 딸아, 네가 한 말이 내 마음에 든다.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네가 지쳤으니 좀 쉬어라.”

나: “하지만 내일은 피르마젠스 근처의 로달벤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대한 큰 표징이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 거기로 가거라, 내 딸아. 그 표징은 내 표징이다.” 나: “이 표징은 분명 교회에서 송배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구세주: “사제들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나: “하지만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 뭔가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요.” 구세주: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

구세주: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잠시 후:

구세주: “그 표징이 올 것이다.” (구세주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표징.)

나: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하나요?” 구세주: “항상 내 안에 머물러라.”

나: “네, 주님, 제 유일한 소원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으니까요.”

구세주: “그 표징은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구세주: “그 표징이 네게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신랑이신 분, 또한 제가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게 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으니까요.”

구세주: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딸아.”

구세주: “너에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돕는 사명을 주겠다.” 나: “다른 영혼들이란 누구입니까?”

구세주: “의심하는 영혼들이다.”

나: “오, 주님, 그 수가 참 많군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신부여, 평안히 가거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제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너는 나의 신부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신랑이신 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

1992년 7월 1일 - 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약 10분간의 간절한 기도 후, 15분 정도 침묵이 흘렀고, 그 후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딸아, 큰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회개하고 금식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후에는 와프지그 가족의 집에서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여러 신자들이 참석해 두 방이 모두 꽉 찼습니다. 그 후 우리는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베버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드린 마지막 미사였던 것 같습니다. 베버 신부님께서서는 곧 은퇴하실 예정입니다.

그 후 우리는 브리짓과 프란츠의 집으로 갔습니다. 프리돌린도 그곳에 있었고, 요제프, 마르쿠스, 마티아스라는 세 명의 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브리기테와 프란츠의 집에는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제 경험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992년 7월 2일 - 목요일

10시, 직장 내 진료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무엇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구세주: “네 미래를 내게 맡겨라.”

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과 미래는 이미 주님의 손에 맡겨졌으며,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 내 마음에 든다.”

나: “네, 주님, 예수님, 주님께서 그토록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오직 선함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미래는 내가 정한다.” 나: “주님께서 정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 그것만 행하면 된다.” 나: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내가 네가 알 수 있게 해 주리라.”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나의 신랑이시여?” 구세주: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굳게 믿어라.”

나: “주님, 나의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는 굳게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미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나: “제 미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네 미래, 그것은 내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소서.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 내 마음에 든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신부여, 평안히 가거라.”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세주께서 나를 안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다.

구세주: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안고 가겠다. 그때 너는 두 곳에 동시에 있게 될 것이다.”

나: “하지만 주님, 저는 단 한 명뿐입니다.” 구세주: “

내가 너를 늘릴 수 있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 “주님, 왜 저를 두 곳에 두셔야 합니까?”

구세주: “불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물어봐 준 것이 참 기쁘구나.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게 남아라.”

나: “네, 주님이자 하나님, 저는 주님께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1992년 7월 2일 - 목요일

로젠크란츠와 HI 미사, 붉은색.

1992년 7월 3일 — 금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하느님의 뜻이시라면 기록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니 적어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시간을 바꾸고 싶다.” 나: “어떻게 시간을 바꿀 수 있나요?”

구세주: “내가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구세주: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님, 또다시 위협의 메시지이시군요.” 구세주: “사람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주님께서 재앙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가뭄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지금 또 불결한 영을 느낍니다. 그 영이 제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상상한 건가요?”

구세주: “그래, 여러 명이다.”

나: “오늘 아침에 벌써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구세주: “계속 기도해라.”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 “나와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 “당신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나: “사실 저는 마치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적어두면 될까요?” 구세주: “적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 “주님, 나의 하나님,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16시부터 17시 사이에 정원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 10주전자를 다 준 후, 몸이 나빠지고 메스꺼움과 현기증이 나더니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천천히 침대로 향했습니다. 즉시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이 축성해 주신 성수를 마시고, 입안에 니트로링구알

스프레이 04를 뿌렸습니다.

아들이 의사를 부르려고 했다. 그러자 상복부에도 통증이 느껴졌다.

가슴 통증은 약 15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일기를 다 써야 하니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축성수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성체 성사를 마친 후에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저의 구세주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그 후 란터스호펜에서 온 프리돌린과 로트에서 온 에리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바바라 바이간드의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1992년 7월 4일 - 토요일

한 시간 동안 기도한 뒤, 나는 연합 기도 중에 구세주님께 오늘 글을 써도 될지 여쭙어 보았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글을 쓸 수가 없네요.”

구세주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악마는 우리가 아무것도 적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아프십니다. 요 며칠 동안 교회에도 가지 못하셨고 걷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집에서 메시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가장 건강한 사람인 양 무거운 진공청소기로 계단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느님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먼저 기도하면 나중에 사랑으로 청소나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막 다시 집중하려던 참에 남편이 방해했습니다.

구세주께서 저와 대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직장이 집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 이웃집 개가 짖고 있고, 길 위의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구세주님, 저는 당신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15분 후: 남편이 나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도록 수화기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구세주이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만약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구세주가 아니라 악마라면 차라리 당장 죽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구세주께 드렸지, 악마에게는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쓰거라, 내 딸아. 나를 향한 길은 가파르고 좁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렇다, 내 딸아, 너도 그 길 위에 있다. 길이 가파를수록 너에게 닥치는 유혹도 더 많아진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줄 신부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경험도 없고, 글을 쓰는 데 서툴러서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며,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틀림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제 사랑입니다. 구세주님,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이 유혹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역시 연약한 사람,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니까요.”

16:30 - 19:45: 이 시간 동안 저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 심지어 성체 성사까지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후, 보그트 신부님을 대신하여 사목하신 폴 아담부쿨람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1992년 7월 5일 — 일요일

7시 30분 - 9시 15분: 집에서 성체 앞에서 기도하며 미사에 합심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네가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할 시간을 내가 주겠다.” 나: “주님, 제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이것이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까?”

구세주: “그래, 이 임무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나: “이 임무를 복음과 비교해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해도 된다.”

나: “제가 추측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임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주는 이 임무는 네가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나: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구세주: “성부님께 드릴 편지를, 이곳에서 대리하고 계신 신부님께 전해라. 그 신부님이 성부님께 직접 전달해야 한다.”

나: “그 신부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구세주: “그래, 그것이 나의 뜻이었다.”

나: “그 신부님도 그렇게 하려 합니까?” 구세주: “그래, 그 신부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나: “성부님께 드릴 편지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13시 30분에는 목주 기도가 있었고, 묵상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드비그 H. 씨는 목주 기도 후에 성혈에 대한 연도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잠잘 이불을 찾고 있던 두 명의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헤드비그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헤드비그 H.와 함께 목주기도를 드렸습니다. 노숙자 중 한 명은 곧바로 잠들었고, 다른 한 명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불 두 장을 선물했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18시 30분: 나는 망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목주기도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헤드비그도 함께했습니다.

1992년 7월 6일 - 월요일

10시 00분 의사실:

환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환자 수가 적습니다. 덕분에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저는 쓸데없는 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곳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나는 구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이제 너희 모두가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왔다. 조심하라, 사탄은 강하다. 많은 이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영은 원하나 육신은 약하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머무르고 있다.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구세주: “내 딸아, 의심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나: “지금 내 안에서 많은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지만, 그 목소리를 단지 ‘목소리’라고만 부르는 것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라고는 보통 큰 소리로 들리거나 말을 할 때를 말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자 하느님이신 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누구나 이 소리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제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큰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분명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이 큰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미사).

20:00 기도 모임: 우리는 두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1992년 7월 7일 - 화요일

10시 의사실:

저는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내게 필요한 것은...”

나: “주님, ‘내 딸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세주: “예수라고 기록해도 된다.”

구세주: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굳건한 신앙인들이 필요하네. 너는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내 딸아.”

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세주: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부디 베풀어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게 주마.”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주님은 저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다음에는 주님에 대한 충성을, 그리고 이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미덕인가요?”

구세주: “그래, 그것들이 바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덕들이다.”

나: “베커 부인이 저에게 쪽지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R. 데닝거라는 청년이 크론병을 앓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세주: “그 분은 이 십자가를 사랑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나: “십자가를 제대로 썼나요?”

구세주: “그래, 내가 그에게 준 바로 그 십자가다.” 그 후:

구세주: “내 딸아, 바바라 바이칸드의 책이 너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어 기쁘구나.”

나: “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책은 정말 최고의 책 중 하나예요.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구세주께 드렸기 때문에, 휴가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저: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세주: “집에 머물러라,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할 게 있나요?”

구세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7월 8일 - 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베로니카와 저는 함께 고통의 묵주를 바쳤고, 그 후 보혈의 연도 및 다른 기도들도 드렸습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문제와 화, 의심,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조만간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나: “어디에서요?”

구세주: “모두가 나의 자녀들이니, 기도를 드려야 한다.”

구세주: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가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딸아,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고 적어 두어라. 독일은 세르비아를 상대로 한 이 전쟁에 가담할 것이다.” 나: “그럼 결국 세르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곧.”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당신의 영이 제 영과 하나가 되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구세주: “그래, 그렇다.”

구세주: “조심해라, 유혹이 더 강해졌다. 내 딸아, 내 손을 단단히 붙잡아라.”

나: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수호천사가 이를 상기시켜 주고 저를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성모 마리아님께서 모든 자녀들과 저에게 그분의 보호의 망토를 펼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오후 3시 45분, 오거스하임의 요아킴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부님과 약 1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

가 H. 콜 연방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셨습니다. 저는

“뮌헨에서 발레 공연을 관람하고 계셨던 총리님과 부인님을 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보던 뉴스 방송을 통해 두 분

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편지를 읽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휴가철에는 우리 교구에서도 수요일마다 성

체 미사가 있었기 때문에, 로쿠스 예배당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나: “베로니카의 휴가 전인가요, 아니면 휴가 후인가요? 그리고 저는 성부님께 알현을 받게 될까요?”

구세주: “그래, 너는 그분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나: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필요는 없다. 네 미래는 내 것이다.”

나: “네, 주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그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그 걱정은 주님께서 제게서 덜어주시는 거군요.”

구세주: “네가 제대로 썼구나, 마음에 든다. 그렇게 될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

히 가거라.”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성체 성사 후 잠시 후, 나는 아담부쿨람 신부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래야 구세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분께 전할 수

있을 테니까.

교회에서 나오자 신부님께서 내일 하이델베르크로 가느냐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구세주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내일 오전 6시 45분에 교회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이델베르크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친절하게 작별 인

사를 하셨습니다.

성체 분배 보조자인 안톤이 제가 그 신부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사람들은 비행기로부터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나: “이 말이 독일 연방공화국에도 해당

되나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독일 연방공화국이 비행기의 위협을 받고 있나요?” 구세주: “그래, 곧. 비행

기들은 동쪽에서 올 것이다.”

나: “주님, 제가 써야 할 내용이 참 가혹하군요.”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은 모두 기도해야 한다.”

구세주: “내 딸아,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졌다. 그들을 기도로 불러내라. 나는 다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모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또 뭔가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네가 쓰는 모든 것은 곧 인쇄되어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마리온과 제가 더 빨리 쓸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글을 쓸 때 방해가 너무 많아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거든요.” 구세주: “내 딸아, 너희는 노력해야 한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합일하는 순간, 저는 따뜻함과 넘치는 사랑을 느꼈고, 특히 평온과 평화를 비롯한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구세주께서 제 안에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세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미리암 출판사에서 온 소포 하나를 열었습니다. 회보에서 저는

H. 요제프 쿤즐리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분이 그 책을 인쇄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는 울기 시작했고, 그를 위해 촛불을 켜고, 성수를 뿌린 뒤 즉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를 붉은 예복 차림으로 드렸다.

성체 성사 후, 나는 성 파울 아담부쿨람 신부님께 드릴 편지를 그분께 건네며, 직접 신부님께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월요일

19시 45분에 제 일기에서 구세주께서 그분을 위해 하신 말씀을 읽어 드리겠다고 초대했습니다. 또한 20시 기도 모임에도 초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 집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마리온이 왔고, 우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1992년 7월 11일 - 토요일

나는 7시 15분이 아니라 8시 15분에 바그하우젤 교회에 도착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 이르마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 지금 몇 시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제가 “7시 15분”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이미 8시 15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마리온에게 가서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오후에는 16시 30분부터 19시 45분까지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1992년 7월 12일 - 일요일

7시 50분 - 9시: 기도 후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세상은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유럽이 다시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나: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구세주: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나: “그것이 ‘체질’입니까?” 구세주: “그래, 사탄은

이미 체질하고 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세상은 지금처럼 죄에 휩싸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전쟁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들만큼이나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내 딸아,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 너희는 많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나: “다른 것도 적어두면 될까요?”

구세주: “나는 아주 많은 기도 모임이 필요하다.”

나: “저희 주변에는 기도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구세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매일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다. 네가 이끄는 기도 모임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그 열매들은 아직 익어야 한다.”

나: “그 열매들이 익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세주: “사랑해야 한다.”

나: “감히 여쭙보기가 두렵습니다. 모든 말이 마치 경고처럼 들리거든요.”

구세주: “거의 모든 묵시록은 경고의 메시지다.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위로해 줄 수 없다. 너희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세상의 왕인 그들의 아버지를 선택했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세상의 승리자이자 구세주이시니, 그들을 모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사람들의 자유 의지가 그들을 심연으로 몰아넣고 있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파멸하지 않도록 구해 주십시오. 세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이 고통스러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전 10시: 나는 HI. 로트 미사에 참석했다.

13시 30분: 로트 교회에서 묵상 없이 묵주 기도를 드렸다. 폴 신부님께서 묵상 시간을 진행하지 않으셨다.

1992년 7월 13일 - 월요일

10시 00분 의사실:

저는 간절히 기도한 뒤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잘 들어라. 인쇄된 모든 문서는 한 신부가 가져가서 검토하고 인쇄하도록 할 것이다. 어느 출판사에서 인쇄할지는 그 신부가 결정할 것이다. 그것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이 강하니 네 일기를 조용히 간직해라. 사탄은 내가 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책이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나: “아직 더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기록해야 한다. 내 영이 네 영과 연결되어 있으면, 네가 내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앞으로 며칠 동안 전쟁이 더 격렬해질 것이다.” 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스니아인가요, 러시아인가요?”

구세주: “양쪽 모두야, 그렇게 적어두렴, 내 딸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나: “또 알아야 할 게 있나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없이 혼자 가지 마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항상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구나,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1992년 7월 14일 — 화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연합 모임에서: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나: “또 전쟁 때문인가요?”

구세주: “그래, 세르비아를 위해 기도해라.”

나: “H. 파니치 씨가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구세주: “그것은 사탄이 놓은 함정이다.”

나: “그럼 그 사람은 세르비아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구세주: “아니,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나: “세르비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나요?” 구세주: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르비아에서 벌어질 전쟁으로 인해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이 잃어질 것이다.”

잠시 후, 나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성모님의 발현이 곧 있을 것이다.” 나: “어디에서요?”

구세주: “붉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해라. 그 징조가 머지않아,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나: “왜 ‘조만간’이라고 하는 거야?”

구세주: “시간은 내가 정하기 때문이다. 이 교회에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구세주: “내 딸아, 잘 들어라.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나: “아니요, 주님이자 하나님이신 분, 저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18시 30분, 로사리오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21시경, 폴 아담부쿨람 신부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월요일에 다시 기도 모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92년 7월 15일 — 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저는 기도하며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사람들은 사탄의 올가미에 걸려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모든 사람을 떠올립니다.” 구세주: “그 올가미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나: “그건 돈 보스코의 환상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구세주: “내 딸아, 네 말이 틀리지 않다. 그들은 모두 회개해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나: “다른 것도 적어두면 될까요?” 구세주: “그래, 적어라. 그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 그게 무엇입니까?”

구세주: “올해 세르비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적어 두어라, 내 딸아, 교회 안의 큰 타락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주교들은 교회의 참된 교리로 돌아와야 한다.”

나: “지금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타락이 있는 건가요?” 구세주: “내 몸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습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 “저는 정말 무력하네요.”

구세주: “그렇다.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너는 무력하지 않다.”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세주: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라. 그것이 도입된 만큼 빨리 다시 폐지되어야 한다. 내 딸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벌이 내릴 것이라고 기록해라. 나에 대한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다.”

구세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라. 네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1992년 7월 16일 — 목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기도 후,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과 주님께서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영을 주님의 성령과 하나 되게 하므로, 다른 이가 끼어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모든 사람은 넓은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시간을 단축해야 하므로, 회개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으나 그들을 장사 지낼 사제가 없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 “제가 쓴 것으로 충분하나요, 아니면 더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너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건축가 볼프강에게 설계도를 더 빨리 완성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저도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세주: “모든 것이 제때에 준비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발 성당을 짓는 데 도움을 줄 일꾼들도 보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단다.”

나: “왜 ‘우리’라고 말씀하시나요?” 구세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은총을 청합니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7월 17일 - 금요일

10시 00분, 의사실:

저는 기도하며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 “주님께서는 전쟁이 1992년 7월 1일에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러시아 전쟁.”

나: “사랑하는 하느님, 왜 이 전쟁을 ‘러시아 전쟁’이라고 부르시나요?”

구세주: “그들이 세르비아인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 “뭔가 더 적어두면 될까요?”

구세주: “그래. 조만간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힘 있는 기도자들이 필요하다.” 나: “구세주님, 힘 있는 기도자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너는 곧 성모 마리아의 현시를 보게 될 것이다.”

나: “하지만 그 말씀은 이미 해주셨잖아요.” 구세주: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나: “‘다가오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그녀를 사랑해라.”

나: “제가 성모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구세주: “네가 성모님과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구나.”

나: “사랑하는 예수님, 앞으로 성모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글이 마음에 든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오후에 저는 연방총리실(AZ: 012—K—0007772/92/0()01)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사본 참조, 155쪽 - 18시 30분에 나는 이 기도를 위해 교회에서 묵주기도를 바쳤고, 성체성사 미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성체 성사를 받은 후, 구세주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19시 40분 무렵이었습니다.

구세주: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 “네, 믿습니다.”

구세주: “그를 위해 기도해라. 넌 연방 총리로부터 또 다른 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나: “네, 주님, 그를 위해, 그리고 이 사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992년 7월 18일 — 토요일

오전 7시 15분에 바그하우젤 교회에 갔고, 그 후 마리온 댁에 들렀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 미사 후처럼 말이죠. 그 때 우리는 일기를 쓰곤 하거든요. 오늘 저는 모니카 함브쉬에게 바바라 바이간드의 책을 선물했고, 그 책을 다 읽으면 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로트(Rot)의 교회에서: 기도를 드린 뒤, 파울 아담부쿨람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집에 막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악마가 헤드비그 H.와 제 남편을 통해 작용했습니다. 헤드비그는 어딘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제가 교회에서 머리 스카프를 꼭 착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머리 스카프를 써야 한다는 건 저도 믿지만, 정작 본인은 쓰지 않으면서 남을 비꼬아서는 안 되죠.” 저는 구세주님께서 오늘날 1,000명의 여성이 머리 스카프를 쓰고도 마음이 더럽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만약 구세주님께서 이 무덤위 속에서 제가 교회에서 머리 스카프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기꺼이 머리 스카프를 쓰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목주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유혹은 고해성사를 마친 직후에 찾아오곤 합니다.

1992년 7월 19일 — 일요일

밤 4시 20분부터 5시 20분까지, 그리고 아침 8시부터 9시 15분까지 기도했다.

어젯밤, 오늘 밤, 그리고 오늘 아침 내내 불결한 영의 괴로움을 겪었기에, 기도 후 연합의 순간에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나: “제가 글을 쓰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쓰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구세주: “아니, 계속 글을 쓰기를 원한다.”

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불결한 영이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사람들은 밧줄 위에 서 있는데, 비틀거리고 있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모호합니다.” 구세주: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을 능력이 없다.”

나: “왜 그들은 믿을 능력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 구세주: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구세주: “나에게 물어보아라, 내 딸아.”

나: “제가 쓴 글을 읽어줄 신부님이 아직 없어서 어렵네요.”

구세주: “사제 한 분이 더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읽어보시고 최대한 빨리 인쇄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 후:

구세주: “앞으로 전쟁이 더 심해질 것이다.” 나: “정치인들이 평화를 맺은 줄 알았는데요?”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그들은 나와 평화를 맺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이 평화의 왕이다. 나 외에는 아무도 평화를 줄 수 없다. 세속적인 평화는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평화일 뿐이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계획 속에서 이를 예언해 두었다.”

나: “그 계획이란 게 무엇입니까?”

구세주: “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나: “주님, 하나님,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구세주: “강한 자들도 가려질 것이다.”

나: “제발, 구세주님, 우리가 너무나 약하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구세주: “사람들의 교만은 뿌리 뽑혀야 한다. 사람들은 구세주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해야 한다. 내 딸아, 나를 사랑하라. 평안히 가거라.”

오전 10시에 로트(Rot)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했고, 오후 1시 30분에는 목주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1992년 7월 20일 - 월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매일 아침처럼 오늘도 기도를 드린 뒤, 주님과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이것이 중요하다.”

그 순간부터 아르ント 박사에게 네 번이나 방해를 받았다. 의사는 꽤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서둘러 계속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구세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면 이런 일이 자주 자주 일어난다. 의사들은 방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보통 이 방에서 환자 소견서를 작성하거나 업무상, 사적인 전화를 꽤 많이 걸곤 합니다. 그들이 쓸데없는 대화를 나눌 때면,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방에서 일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대개 30분 정도 머뭅니다. 그 외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엑스레이실에서 환자들에게 엑스레이를 찍어줍니다.

방이 비자, 나는 구세주께 저에게 전하고 싶으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의심하지 마라.”

저: “주님,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기록하겠습니다.”

구세주: “큰 지진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진동을 느낄 것이다. 매우 강력할 것이다.”

나: “그것도 형벌에 포함되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한 벌이다. 나를 향한 불순종 말이다.” 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구세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기도해라.”

나: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세주: “그렇다, 내 딸아

.”

구세주께서는 제가 적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세주: “나에게 충실하라, 평안히 가거라

.”

그리고 나서 나는 결국 구세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적기로 결심했다. “사제들과 정치인들이 공모하고 있다.”

결국 그 말을 적어 놓으니,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구나, 내 딸아.”

18시 30분, 로젠크란츠와 성체성사(붉은 미사).

20시 00분 기도 모임: 폴 아담부쿨람 신부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그 후 고해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프리돌린도 있었고,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1992년 7월 21일 — 화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네 삶은 바로 나다.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으니, 내가 너를 돌보겠다.”

구세주: “내 딸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나: “그게 무엇입니까?”

구세주: “그중 하나는 이렇다. 사제들은 나에게 속해야 한다. 세속적인 것을 혐오해야 한다. 그들은 교황님과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 교황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제들은 교회의 참된 교리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제는 ‘두 번째 예수’가 될 수 없다.”

구세주: “내 딸아, 너를 조롱하는 모든 이들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맡겨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내 표징이 너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가오고 있다. 나에게 충실하고 굳건히 버텨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한 가지 더 여쭙보고 싶습니다. 홀거와 프리돌린에게 일기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게 옳은 일이었나요?”

구세주: “계속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질문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든다.”

나: “왜 항상 저에게 당신께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당신께 충실하지 않은 건가요?” 구세주: “아니, 하지만 너는 내 일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나: “주님, 그게 무슨 뜻이신가요?”

구세주: “네게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 자유 의지를 네게서 뺏을 수 없단다.” 나: “하지만 저는 항상 제 의지를 주님의 뜻과 하나로 합치는데요.”

구세주: “그래도 내일 너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단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죽고 싶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주님과 헤어지게 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자녀이며,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남고 싶습니다.”

구세주: “네가 쓴 그 글은 나에게 중요했단다.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7월 22일 — 수요일

오전 8시 15분, 의사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쓰는 글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세주: “네가 쓰는 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아드리아해에 있는 군함들은 몬테네그로와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현재 평화 상태입니다.” 구세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단다.”

나: “제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구세주: “그래, 붉은 옷을 입은 새로운 사제가 곧 올 것이다.” 나: “그것이 프라이부르크의 뜻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뜻인가요?”

구세주: “그것은 나의 뜻이다. 새로운 사제는 미사 전에 성모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이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 신들이 큰 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한다.”

저는 게브하르트 하이터 신부님께 가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구세주: “그분께 가거라, 가거라. 그 분과 이야기해라.”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많이 기도해라. 평안히 가거라.”

오후에 나는 글로부스(Globus)에서 장을 보았다. 장을 다 보고 내 차 앞에 서 있었을 때, 장바구니 속 화장지 아래에 샴푸와 빗이 하나씩 더 있는 것을 보았다. 둘 다 계산대에서 결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즉시 돌아가서 그 물건들의 대금을 지불했다. 계산원 아줌마는 요즘에는 이런 일이 드물다고 내게 말했다.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유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세례를 받은 후로는 양심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5마르크가 과다 청구되었다면, 나도 다시 가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게 유리한 일이라면 저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악마는 자신이 저를 위해 파놓은 구렁이에 빠질 테니까요.

18시 30분, HI. 미사와 로트에서 묵주기도.

1992년 7월 23일 — 목요일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저는 의사실에 있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나: “네, 듣고 있습니다, 주님.”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세상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사탄이 그의 최강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세상은 그에게 눈이 멀어 있다. 그는 이번에는 큰 전리품을 챙겨 갈 것이다. 거의 모든 이가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나: “제가 무언가를 알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구세주: “그래,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렴. 제발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네가 쓴 모든 것은 인쇄해야 한다.”

나: “주님께서 사제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그래, 사제 한 분도 오실 거야.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야.”

나: “주님, 저는 그분이 손으로 성체를 받는 관습의 폐지 부분과, 평신도가 성체를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빼버릴까 봐 두려워요. 그분이 그 것을 인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을 것이다.)

나: “그렇다면 그 사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이 사제를 위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렇게 하거라.”

나: “주님, 요셉과 기젤라가 사는 그곳에 가서 강연을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그곳에 가서 강연을 한다면 내가 매우 기뻐하리라.” 나: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구세주: “그래,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니?” 나: “정말 기대되네요.”

나는 구세주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놀라움 속에 기다렸다. 구세주: “그 징조가 올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나님, 지금은 ‘언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저는 주님과 결코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살아 계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그 후 아르ント 박사가 저를 방해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개인 휴가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엑스레이 봉투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구주님과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정오, 병원 내 예배당에서.

기도를 마친 후, 나는 구주와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나: “오늘 오전, 주님께서 저에게 그 표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 일이 네게 일어날 것이다.”

나: “주님, 저는 그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

구세주: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게 머물며, 평안히 가거라.”

나: “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충실하겠습니다. 다시 저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스레이 촬영 중: 한 젊은 여성이 넘어져 얼굴을 부딪혔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엑스레이를 찍어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저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해요.” 나: “하지만 고해성

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녀: “전 개신교 신자예요.”

제가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도문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환자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신혼 전야 파티에서 그의 얼굴 전체를 난타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불결한 영이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기도지를 건네주고 고해성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추가 검사를 받으러 다시 의사에게 갔습니다.

18시 30분, 로사리오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7월 24일 - 금요일

오전 9시, 의사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나는 나의 신앙을 수호할 많은 고백자들이 필요하다.”

나: “하지만 주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공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구세주: “보아라, 내 딸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기도하라, 내 딸아, 그리하여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해방되게 하라. 부정한 영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내 딸아, 기록하라.

지금까지 네가 쓴 것은 모두 옳다.” 나: “하지만 제게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구세주: “네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나: “당신은 제 영적 지도자이시니, 레겐스부르크의 게브하르트 신부님께 제 일기를 읽어드려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도 괜찮다.”

나: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구세주: “그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나: “뭐요?”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구세주: “보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나: “네, 그건 저도 이미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네요. 그들은 제가 혼자 중얼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세주: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지.”

나는 구세주께 베아테가 오타를 고치기 위해 일기를 교정해도 되는지 물었다. 구세주: “그렇게 해도 된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7월 25일 — 토요일

나는 바그하우젤에서 아침 미사에 참석했다. 베아테가 고해소에 들어갔을 때, 그녀가 고해소에 약 한 시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나는 그녀와 베르너 에곤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다. 저녁에 우리는 레겐스부르크로 떠나려고 했지만, 캠핑카가 고장 났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자동차를 타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1992년 7월 26일 — 일요일

오전 9시 45분경, 남편과 나는 레겐스부르크의 카르멜회 수도원 교회에 있었다. 그 후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훌륭한 스승이었다. 신부님은 일기 중 며칠 분량을 검토하셨다.

그분은 구세주께서 제게 주시는 영감을 검토하시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성경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성경 학자이시며, 직접 성경을 번역하고 해설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일기 내용을 많이 읽어 드렸고, 어떤 낱들의 기록에 대해서는 그분이 즉시 해당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7월 3일자 일기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게브하르트 신부님께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자, 신부님께서 다시 복음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신부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물과 양초, 소금, 성화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그분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구세주께서 이미 미리 세상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게브하르트 신부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점이 특히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그분에게는 확신이 되었고, 동시에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말씀하시는 데 있어 매우 정확하고 정중하십니다.

우리가 레겐스부르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다시 불결한 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200km를 혼자 운전해야 했고, 남편은 차 안에서 제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묵주기도와 다른 기도들을 끊임없이 바쳤습니다. 남편은 레겐스부르크에서 고해성사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유를 더 이상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구세주께 바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글을 쓰며 구세주님과 하나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수다를 떠는 여성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해받았습니다. 저는 그 불결한 영이 이 여성들을 통해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불결한 영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세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자정 무렵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92년 7월 27일 -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실:

기도 후, 나는 구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전쟁은 조만간 더 심해질 것이다. 많이 기도하라.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18시 30분,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

20시 00분 기도 모임. 도하르트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주셨다.

1992년 7월 28일 — 화요일

10시 00분, 집에서:

나는 기도하며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구세주: “너도 지금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 수 없겠지.”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 “네, 주님,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구세주: “두렵니?”

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니까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이렇게 적어라: 사람들은...”

그 순간, 나는 들은 내용을 더 이상 적어가기를 주저했다. 앞으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다.

구세주: “한 마디 한 마디 적어라.” 나: “네, 그렇게 하겠

습니다, 주님.”

구세주: “사람들은 수많은 재앙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 마음속으로 나는 ‘어디에?’라고 물었다.

구세주: “어디냐고 묻느냐? 내 자녀들은 어디에나 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 “주님, 제가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볼프람을 떠올리며 그의 사정을 위해 기도했다. 구세주: “잘 될 것이다.”

나: “그 일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그가 하는 일은

나의 뜻이다.”

구세주: “너는 아직 뭔가 더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적어야 할 내용은 좋지 않다.” 나: “하지만 주님,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구세주: “맞아, 내 딸아.” 나: “그럼 그걸 지워야 할까요?” 구

세주: “아니.”

나: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

그래.”

나: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구세주:

“네 건강이다.”

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착각한 건지도 모르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네 건강을 원한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제 건강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제 건강보다 더 강하니까요. 제발 제가 당신과 결코 헤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글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제 영혼의 인도자이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

성체 성사 후, 나는 구세주께 여쭙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주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건강을 요구하셨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다시 묻게 되어 죄송합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내가 네게 건강을 청했고, 너는 그것을 내게 주었다

.”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감사드립니다.”

1992년 7월 29일 - 수요일

10시 05분 ~ 11시 45분, 집에서: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네가 내가 네 건강을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네 건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린다.”

나: “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흘러나왔다. 내가 물었다. “주님, 울고 계십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내 눈물은 고통이다. 네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내 눈물이다.”

나: “마치 주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아주 특별한 평안도 느껴져요. 정말 아름다워요. 모든 문제와 걱정이 사라진 것처럼 내면이 너무나 자유로워요. 두려움도, 의심도, 마음의 짐도 없어요.”

나: “제가 주님께 드린 건강에 대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고 싶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세주: “네가 생각하는 바를 말해 보렴.”

나: “제 말은, 주님께서 제게 질병이나 고통을 주실 때,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을 기록해 두어라. 그것은 속죄의 고통이다.” 나: “이 속죄의 고통을

통해 제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세주: “우선 너는 나와 함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나: “오,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대로,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서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을까 미리 걱정됩니다.”

구세주: “나 없이는 분명 등을 돌리겠지만, 나와 함께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세주: “나에게 충실하라.”

나: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 충실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세주: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아침을 나에게 바치라.”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세주: “네게 내 표징을 주마. 내 상처 자국들이다.” 나: “어디요, 집에서요?”

구세주: “교회에서.”

나: “몸의 어느 부위에요?”

구세주: “다섯 군데 모두. 심장과 손, 발에.”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눈에 보이는 상처들, 고름이 나지 않는 상처들.” 나: “그 말은,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뜻이군요, 제 안에서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맞췄구나.”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그 상처 자국을 가진 채로 병원에서 일해야 하나요?” 구세주: “미래는 내 것이니, 내 딸아.”

나: “네, 주님, 저는 이미 제 미래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오, 하나님, 하지만 그 상처 자국들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렇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와 함께하는 십자가는 달콤하구나.”

나: “달콤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너는 나와 함께 끝까지 그것을 지고 갈 것이다.”

나: “주님, 그 상처 자국들은 성 프란치스코와 복자 피오 신부님 때와 같은 것입니까?” 구세주: “그래, 성 프란치스코와 복자 피오 신부님 때와 똑같은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오 신부님도 성인이셔야겠네요.”

구세주: “그래. 그는 곧 성인이 될 것이다.”

나: “만약 제가 그 상처 자국 때문에 죽게 된다면요?”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불멸이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저는 주님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구세주: “사랑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느니라.”

나: “그 말을 듣니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주님과 함께라면 끝이 없군요.”

구세주: “나는 시작이자 끝이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영적 인도자이시여,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입니까?”

구세주: “어둠 속에 살며 언제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다.” 나: “사제들도 지옥에 갈 수 있나요?”

구세주: “네, 그들도 갈 수 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모든 영혼을 위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나: “그건 너무 많은데요.”

구세주: “내 딸아,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

나: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모두를 그렇게 사랑해야 해요.”

구세주: “나와 함께라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 없이는 너희는 사랑할 수 없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감사한다. 평안히 가거라.”

저녁에는 로쿠스 예배당에서 자이레 출신 신부님이 집전하신 성체성사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자이레 출신 신부님이 집전하셨습니다. 그분은 미사 독경을 조금 서둘러 진행하셨습니다. 성체를 나누어 주실 때, 제가 성체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서 저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한 수녀님이 제가 구세주를 영접하고 싶다는 신호를 신부님께 보내아 했습니다. 신부님은 저로부터 약 1미터 정도 떨어져 계셨지만, 여전히 저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성 로쿠스 예배당은 요양 병원 건물 안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약 4주마다 그곳의 신부님이 바뀌는데, 대부분은 요양을 위해 머물며 그 기간 동안 영적 돌봄을 담당합니다. 신부님들은 종종 슈타일러 선교회 소속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온 신부님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7월 30일 — 목요일

9:00 - 10:45 집에서:

먼저 기도한 뒤,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성스러운 오상(五傷)을 받게 된다면 과연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구세주님께 등을 돌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세주님께 이를 견딜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간구했고, 그 은총을 주신다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세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잃게 될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신의 친밀함과 사랑이 어떤 상태인지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미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며, 그 사랑 없이는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와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다섯 개의 열린 상처 자국을 지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네가 짊어지게 될 상처들은 나의 상처들이다.”

구세주: “그 말은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나의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세주: “네가 겪게 될 속죄의 고통은 곧바로 닥칠 것이다.” 나: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준비해야 하나요?”

구세주: “지금 네 모습 그대로면 나에게 충분하다. 네가 한 말대로 지켜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약속드립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구세주: “그에 대한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고 계속 나를 사랑하라. 평안히 가거라.”

몇 주 동안 왼쪽 어깨와 상완이 아팠습니다. 골수염입니다. 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그 고통을 바쳤습니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붉은 예복 미사.

보그트 신부님께서 요양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성체 성사 후, 저는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지만,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제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너는 성스러운 다섯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믿어라. 네가 착각한 것이 아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성체 성사 후에 이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나는 엄청난 기쁨과 사랑을 느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1992년 7월 31일 — 금요일

9:00~11:00, 집에서:

저는 기도하며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 “저의 끝없는 사랑이시며, 사랑하는 예수님, 원하신다면 제가 글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써라. 나는 내게 충실하고, 나의 분노를 달래줄 많은 영혼들이 필요하다.”

나: “당신은 분노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구세주: “내 딸아, 사람들은 불순종하느니라.” 나: “사제들은 하느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구세주: “내 은총 안에 있는 사제들은 이미 내가 그들에게 주입해 주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다. 내 딸아, 하지만 그 수는 매우 적다. 더 많은 훌륭한 사제들이 생기도록 기도해라. 오늘날 사제들은 더 이상 설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에게 마음을 달아버렸다.”

나: “제가 주님으로부터 다섯 가지 성흔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구세주: “내 딸아, 아직은 침묵 속에 간직해 두어라.”

나: “왜 아직 말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네가 받게 될 다섯 상처는 내 상처들이니, 그들 중 그 누구도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 “당신의 상처를 지닌 다른 이들,

예를 들어 성 프란치스코나 다른 분들처럼요?”

구세주: “그래, 교회는 이미 이해했지만, 그들(사제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조롱하고 있다.” 나: “조롱한다는 뜻의 다른 단어를 말해 줄 수 있나요?”

구세주: “그들은 성체 성변화 때 무관심해졌습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도 그 성흔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그때 너는 너 자신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이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 이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비하면 한 톨의 먼지에 불과하군요.”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세상은 위기에 빠져 있다.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위기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구세주: “이 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 “그것이 이 분노의 주된 이유인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맞췄구나.”

나: “하지만 주님,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은 사탄의 그물에 걸려 있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누구를 위해 주님과 함께 속죄의 고통을 겪게 될까요?” 구세주: “사탄의 그물에 걸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러려면 정말 위대한 투사가 되어야겠네요.”

구세주: “내 딸아, 나와 함께라면 너는 이미 위대한 존재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으니,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곳, 그리고 속하고 싶

어 하는 곳에 속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대로 적었는지 물었습니다. 구세주: “그걸로 충분하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충실하라. 평안히 가거라.”

글쓰기를 마치고 발코니로 통하는 커다란 금속 미닫이문을 닫았다. 그러자마자 내 손가락이 문 사이에 끼고 말았다.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고 피가 났다.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고통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바쳤습니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 붉은 예복을 입고.

1992년 8월 1일 - 토요일

오전 7시 15분에 바그하우젤 교회에 있었다. 오후 1시 20분부터 2시 10분

까지 집에 있었을 때: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이걸 적어두면 될까요?”

구세주: “그걸 적어두어도 좋다.”

나: “이미 몇 시간 동안이나 이토록 강하게 느껴온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세주님과 그토록 간절히 하나 되고 싶어 참을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 단지 제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와 하나가 되고자 한 것은 나의 뜻이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주님께서 저와 하나 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제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구세주: “그래, 네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게 닥칠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무엇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여겠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선택받은 자다. 의심이 있느냐, 내 딸아?” 나: “아니요, 주님.”

그 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고, 나는 내게 닥칠 일이 무엇일지 생각했다. 구세주: “그것이 네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 “아니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닥칠 일 때문에 울어야 하나요?” 구세주: “기뻐해도 된다.”

나: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 기뻐할 만한 일이 생각나지 않아요.”

구세주: “너는 성모 마리아와 영원히 연결될 것이다.” 나: “제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요?”

구세주: “너도 그분께 말씀하실 수 있다.” 나: “이미 그분께 말씀드

렸습니다.” 구세주: “그분도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 “그 말은, 제가 주님을 듣는 것처럼 그분도 들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너는 나를 듣는 것처럼 그분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다.” 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구세주: “그분은 네게 자신을 소개하실 것이며, 너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것이다.” 나: “네, 주님, 벌써부터 기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구세주: “표징이 나타나자마자.”

나: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성 레온-로트의 교회에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그래,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야.”

나: “한 번만요?” 구세주: “여러 번.”

구세주: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간직하라.”

나: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간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입에서 나온다고 하셨으니, 제 혀가 이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게 그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성모 마리아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토록 큰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와도 말씀해 주시려는 사랑스러운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자비의 어머니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님,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15:30 - 18:15: 저는 교회에서 빨간 옷을 입고 기도했고, 보그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1992년 8월 2일 — 일요일

8:00 - 9:20: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은 네가 나에게 ‘예’라고 대답한 것에 대한 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너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나: “저는 항상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끊임없이 당신께로 이끌립니다.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세주: “네가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이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나는 네게서 네 자의식을 원한다.” 나: “제발, 그걸 표현할 다른 말을 알려주세요.”

구세주: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해 행하리라.”

나: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세주: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군요.” 나: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세주: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나: “그러면 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이군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그렇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때 나는 겸손에 대해 생각했다.

구세주: “잘 말했구나, 내 딸아. 맞아, 그러려면 겸손이 필요하단다.”

나: “주님, 저는 매일 겸손을 구합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미덕이니깐요.”

구세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며,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임을 깨닫고,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그토록 기뻐하는 겸손에 도달한 것이다.”

나는 성체 성사를 제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서둘러야 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도 그곳에서 네가 필요해.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10시, 붉은 예복 미사.

13시 30분 묵주기도 – 그 후 성상의 상처를 기리며 기도했다. 19시 00분, 집에서 고통의 묵주기도를 바쳤다.

1992년 8월 3일 - 월요일

오전 8시 ~ 10시, 의사실:

구세주께 간절히 기도한 후.

구세주: “내 딸아, 네 말을 잘 들었다. 네게 일어날 일과 앞으로 닥칠 일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딸아, 네 임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제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세주: “너는 온전히 나를 의지해야 한다.”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글을 쓸 때 제 마음이 끼어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불안해질 테니까요.”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계획을 세웠으니,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두려워합니다.” 구세주: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발 제가 주님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주님께 더 이상 무엇을 여쭙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적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적어 두어라.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을 이루어 줄 사람이 내게 있다.”

나: “주님, 왜 이것을 ‘사역’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 일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다, 내 딸아.”

나: “주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겠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속죄의 고통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며,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는 주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각이 바로 제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옳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말이 내 마음에 든다.” 나: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구세주: “정말 소원이 없니?”

나: “제가 너무나 합당하지 못해서 감히 무엇을 소원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구세주: “소원해라, 내 딸아.

내가 원하노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사랑과 충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지고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레온-로트의 교회가 교황 성하의 뜻에 따라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다른 교회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반을 사용하여 입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매일 고해성사와 고해 상담을 위해 항상 준비된 사제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성체 성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직 사제의 성별된 손을 통해서만 분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성스러운 천사들과 성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더 많이 공경받기를 바랍니다.

사제가 신자들과 함께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고, 설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미사 중에 사제가 복사들과 함께 성체함에 몸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 집에 지어질 성당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성상(성상)을 공경해야 합니다.

- 이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해 사람들이 육체적, 영적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 이 성당에서 기도하는 사람 중 누구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소서.

- 저의 가족, 즉 현재 세대와 그 이전 세 대가 구원받기를 빕니다.

- 이 성당에 특별한 보호를 내려주시고, 제가 죽은 후에도 이곳에서 기도가 계속되기를 청합니다.

- 이 성당에서, 오 하느님, 지금까지 그 어떤 성당에서도 드러진 것보다 더 많은 영광과 찬미와 감사가 당신께 바쳐지기를 빕니다.

주님, 제가 나열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말하건대,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언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주님,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을 기록해라. 네가 기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아주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은 평온과 평화, 그리고 사랑하는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님께 대한 큰 사랑 속에 있습니다.

로트에서는 성모 미사가 없었기에, 저는 19시 30분에 로쿠스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20시 15분 기도 모임. 이 기도 모임은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4일 - 화요일

집에서 10시 55분부터 11시 55분까지. 먼저 기도한 뒤, 주님과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구세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

여,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구세주: “마티아스가 안드레아스(벨기에의 안드레)와 함께 금식하러 갔다는 것이다.” 나: “하지만 예전에는 사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니라.” 나: “마티아스에 대해 또 알아

야 할 것이 있나요?” 구세주: “그를 위해 기도하라.”

나: “그리고 베아테는 어떻습니까?”

구세주: “그녀는 더 이상 네 일기를 읽지 말아야 한다.” 나: “하지만 네가 그

녀가 교정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구세주: “하지만 바꾸면 안 된다.”

나: “프리돌린은 어때요? 제가 받게 될 성흔에 대해 스테판 신부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세주: “그는 그 사실을 침묵 속에 간직해야 한다.”

나: “조만간 피정을 가도 될까요?” 구세주: “아직은 아니야.”

구세주: “나는 네 영적 지도자다.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나는 수도꼭지 이야기를 한 그

여자에 대해 구세주께 여쭙었다.

구세주: “프리돌린에게 그 여자를 조심하라고 전해라. 프리돌린을 위해 기도해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 모든 청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돌린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세주: “프리돌린이 월요일에 기도 모임에 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기쁘구나.” 나: “그렇다면 마리온이 일기를 더 이상 쓰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구세주: “그녀는 계속 쓸 것입니다.”

나: “제 자리에 계셨다면, 마티아스의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구세주: “내 딸아, 그 일은 내게 맡겨라.”

나: “제가 뭔가 더 적어두면 좋겠습니까?” 구세주: “그래, 네가 뭔가 더 적어주었으면

좋겠어.”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나는 시장님을 떠올렸다.

구세주: “그와 이야기해라. 네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네 마음에 넣어 주겠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한 가지 더 여쭙볼 게 있습니다. 8월에 스키오로 가야 할까요?” 구세주: “거기로 가지 마라. 나에게 순종하며 머물러라.”

구세주: “내 딸아, 이제부터 나올 말은 꼭 적어 두어야 한다. 네가 받게 될 상처 자국들은 올해 안에 나타날 것이다.”

나: “올해라고 하시는 게 언제입니까?” 구세주:

“1992년이야.”

나: “네, 주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나: “주님, 제가 결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세주: “오직 내 말만 들어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네가 나로부터 받게 될 이 표징은, 모든 눈먼 자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귀머거리들이 다시 들을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기록해 두어라, 내 딸아. 이 표징, 곧 네 안에 새겨질 나의 상처 자국은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나: “주님,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그것은 누룩이 될 것이다. 네 책을 통해 그것은 빠르게 퍼져 나갈 것이다. 네가 받게 될 그 상처 자국들 앞에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저녁에 나는 말슈(Malsch)의 교회에 갔습니다. 먼저 밁골스하임(Mingolsheim)에 갔지만 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놓치지 않으

려고 말슈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1992년 8월 5일 - 수요일

10시 45분부터 12시 45분까지 집에 있었다.

저는 기도한 뒤 구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죄에 대해 깊은 회개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느꼈고, 주님께서 저를 그분의 도구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 느껴집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겸손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거의 매주 고해성사를 보러 가고, 매일 회개하지만, 여전히 죄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제가 회개하는 죄들이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가장 작은 죄조차도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실 분은 분명 극소수일 것이며, 보그트 신부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믿겠느냐?”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이미 저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 “하지만 너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구나.”

나: “제발 그 의심을 없애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하지만 그 의심은 자꾸만 다시 찾아오네.”

나: “부디 다시 그 의심들을 없애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의심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에서 지켜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나: “네, 주님, 제 믿음이 바위처럼 굳건해지도록 제발 저를 의심으로부터 지켜 주세요.” 구세주: “기록해 두어라, 내 딸아, 인내를 실천하라.”

나: “인내는 큰 미덕입니다. 저는 그 미덕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세주: “네가 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

나: “네, 주님, 저는 인내를 실천하겠습니다. 제 조급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정화시켜 주셔서 제가 온전히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하늘에 계신 모든 성인과 함께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겠습니다.”

나: “주님, 제가 믿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었나요?” 구세주: “전혀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마디 한 마디 그대로 적어라.”

구세주: “나는 네 온 존재를 원한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자비로우신 예수님, 제 온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 “그에 대해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겪게 될 속죄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다.” 나: “하지만 그 말씀은 이미 저에게 하셨잖아요.”

구세주: “그때 너는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나: “그럼 제 몸은 어떻게 되나요?”

구세주: “네 육신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표징이다.” 나: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네요.”

구세주: “네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에게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다면, 사람들은 저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세주: “어둠 속에서 비칠 빛이다.” 나: “그 말은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된다는 뜻입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 드러난 상처 자국들이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눈먼 자조차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받게 될 이 상처 자국들 때문에, 너는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리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나: “주님, 제가 이렇게 쓴 게 맞나요? 틀린 부분은 지워야 할까요?”

구세주: “아니, 내가 쓴 것이니 네가 쓴 것이 아니다. 네 손은 나의 도구다. 내 딸아,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나에게 충실하라. 평안히 가거라.”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

1992년 8월 6일 — 목요일

저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기 전 한 시간 동안 깊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게 옳았어.”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사람들은 시급히 회개해야 한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탄은 강하다. 기도로 그를 굴복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요즘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시장에게 말해라. 그가 너를 콜 연방총리와 연결해 주도록 하라.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나: “콜 연방총리의 편지를 시장에게 보여 드려야 할까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해도 좋다. 시장이 원한다면, 연방총리에게 네가 그분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편지를 쓰게 하라. 시장에게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라.”

나: “그 편지를 시장님께 읽어드려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나: “무엇을 써야 할지 묻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구세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 딸아. 써라. 세상은 지금처럼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나는 그들을 거의 다 뺏어내고 싶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모두 내 자녀들이다.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내가 네가 계속 쓰기를 원한다. 내 딸아, 내 소원을 들어다오.”

나: “무슨 소원입니까?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구세주: “아니, 너는 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주님,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의 어떤 소원이라도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나의 소원은 너를 내 곁에 안고 가는 것이다.”

나: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면,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어디로든 저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너는 내가 원하는 곳과 이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나: “주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남편이 나를 방해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 순간 구세주께서 내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구세주: “내 딸아, 네 마음이 찢릴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소서.”

구세주: “그러면 네 마음은 나의 마음이 될 것이다. 네 마음에서 흘러나올 피는 나의 피이다. 이 피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질 것이다.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하다.”

나: “오, 주님,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피는 너희의 구원이다.”

나: “오, 주님, 성체 성사를 받을 때 주님을 손으로 모시거나, 성체의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오, 사제들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부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성체를 손에 건네줄 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그렇다.”

나: “주님, 글을 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삼위일체이신 주님께 대한 이러한 신성모독과 경외심 결여, 무관심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할 지경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 그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하소서.”

구세주: “내 딸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계속 글을 써 준 것이 기쁘다. 나를 사랑하라. 평안히 가거라.”

오후 4시 15분경, 나는 마르틴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나는 그분과 콜 연방총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콜 연방총리와 저를 연결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분께 미사를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18시 30분, 로젠크란츠 기도와 성체 성사를 붉은 예복 차림으로 거행했다.

1992년 8월 7일 - 금요일 - 성심 금요일

10시 00분 ~ 11시 30분, 집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구세주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겠으나, 한 가지 두려운 것은 고통 중에 주님과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세주: “네가 고통받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도 너와 함께 고통받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는 울었습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네 마음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네 마음에서 나올 말들은 나의 말이 될 것이다.”

나: “그게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성령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다른 사람들 그 사실을 알아차릴까요?”

구세주: “모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알 것이다.” 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세주: “그들은 너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미쳤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 “네가 무언가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것이다. 내 딸아, 그때 너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나: “그게 주님이신 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구세주: “그래, 너는 이미 여러 번 알아봤지.”

나: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 저에게 또 다른 일이 닥칠까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주님의 상처 자국을 받게 된다면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건대,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미래는 내 것이다.”

나: “네, 주님,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 “뭔가 더 적어줄까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게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구나.” 나: “사랑하는 하나님, 원하시면 드릴게요.”

구세주: “적어라. 나는 네가 나에게 온전히 헌신해 주기를 원한다.”

나: “주님, 저는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다루소서.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충실하게 머물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리라.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18:30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8월 8일 - 토요일

11:00 - 12:45: 기도가 끝난 후,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구세주께, 내가 다섯 상처를 받고 내 심장이 꿰뚫릴 것이라는 사실을 보그트 신부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네 사제인 보그트 신부님께 네가 나로부터 다섯 상처를 받게 되고 네 심장이 꿰뚫릴 것이라고 말하라.”

나: “하지만 주님, 신부님은 분명 또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 “내 딸아, 때가 너무 늦었을 때야 비로소 신부님은 믿게 될 것이다.”

나: “오, 하느님, 그렇다면 그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구세주: “아니야, 내 딸아. 소용이 있단다.”

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구세주: “그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구세주님과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것도 적지는 않았다. 구세주: “자, 이제 적어라, 내 딸아. 잘 들어라.”

나: “네, 구세주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제 마음은 이를 알아차리고 느낄 것입니다. 제 마음은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직 저를 속인 적이 없으니까요.”

구세주: “네가 적어 둔 모든 것을 잘 간직해라.” 나: “하지만 그 말씀은 이미 한 번 하셨습니다.”

구세주: “사탄은 네가 쓴 것을 선한 사람들을 통해 파괴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한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더 잘 간직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요와 침묵이 흐른 뒤, 제가 쓴 것으로 충분한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아니야, 내 딸아, 네가 쓴 모든 것은 훗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구세주: “내 사역은 완성될 것이다. 위대한 자들도 아직 놀라게 될 것이다.”

나: “위대한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구세주: “주교들이다. 그들은 이 사역을 통해 열매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역의 포도나무는 바로 나다. 나는 모든 이를 위해 내 피를 흘릴 것이니, 즉 가장 큰 죄인이라도 원한다면 회개할 수 있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모든 죄인은 의인들처럼 내게 소중하다. 내 딸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너는 나와 함께 이루어낼 것이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완성할 것이다. 나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 딸아, 네 길은 나의 길이다.”

나: “그렇다면 저는 이 길에서 길을 잃지 않겠습니다.”

구세주: “너는 이 길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게 와 주어서 고맙다. 평안히 가거라.”

16시 30분, 로트(Rot)의 교회에서: 나는 목주 기도를 드렸다. 오늘 로트에서는 고해성사가 없었기 때문에, 17시 45분경 로쿠스 예배당(Rochuskapelle)에서 고해성사를 받았다.

19시 00분, 밁골스하임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8월 9일 — 일요일

8시 15분 - 9시 45분: 기도를 마친 후, 나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구세주님과 하나가 될 때면, 저는 항상 영적 성체를 모시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세주님: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적겠습니다.”

구세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나는 내 자녀들을 끝까지 시험해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준 임무는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마련해 두었다.”

나는 구세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구세주: “그래,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라. 네 임무는 나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서 여전히 받는 사랑은 사방으로 빛을 발하는 귀중한 보석과 같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곳마다 사랑이 흘러넘칠 것이다.”

나: “주님,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까요?”

구세주: “그래, 네가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베풀게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딸아, 이것을 또 기록해 두어라: 네가 받게 될 성흔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어제 (로쿠스 예배당에서) 신부님이 네게 성흔이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했지. 네가 기록해도 좋다. 그것은 지극히 드문 큰 은총의 선물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 기록해 두어라. 너는 그 상처 자국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며, 오랫동안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원할 때까지 말이다.” 나: “네, 나의 주님 이자 하느님, 나의 자애로운 아버지. 제가 받게 될 이 지극히 드문 큰 은총의 선물에 대해 벌써부터 감사드립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그 상처 자국을 주님과 함께 지니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상처 자국 때문에 걱정하고 있구나. 그 걱정을 내 손에 맡겨라. 이제 그 걱정은 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게 하라.”

나: “오, 주님, 지금 저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제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세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 지금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 “이제 더 이상 적을 게 없나요?”

구세주: “그래, 아직 한 가지 더 적어야 한다.” 나: “네, 주님, 무엇입니까?”

구세주: “네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다.”

나: “혹시 더위 때문인 줄 알았어요. 타는 듯한 고통이에요.” 구세주: “네가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 “주님의 고통이 사랑인가요?”

구세주: “그래, 너희, 나의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나: “주님, 저에게 주시는 모든 고통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제발.”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글이 마음에 든다. 고맙다. 너와 함께 있고, 네 곁에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13시 30분, 교회에서 붉은 목주기도. 오늘은 목상 시간이 없었고, 저는 교회에 남아 한 아이의 세례식에 참석했습니다.

19시 00분, 로쿠스 예배당에서 성체 성사를 드렸습니다.

1992년 8월 10일 - 월요일

기도 후:

나는 구세주께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가 무언가를 적어 드릴까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적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 후 침묵이 흘렀다.

구세주: “내 딸아, 한 마디 한 마디 적어라.” 나: “네, 주님.”

구세주: “네가 겪는 모든 고통을 종죄인들을 위해 나에게 바치거라. 네 두려움은 내가 이미 없애 주었노라.”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나: “사랑하는 하느님, 아까 제가 울면서 상처 자국을 건딜 수 없을까 봐 두려워했을 때 그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이 그쳤고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웃 나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나: “주님, 여쭙볼 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H. 콜 연방총리께 팩스로 편지를 보내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해.” 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나는 철저한 비밀을 원하니,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나: “도하르트 목사님께는요?”

구세주: “그분께는 말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네게 상처 자국이 나타나면, 그들은 모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딸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나를 사랑해 주렴. 우리가 항상 하나 되는 것이 나의 뜻이자 네 뜻이다. 이 뜻을 아무도 네게서 빼앗을 수 없으니, 네가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나: “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큰 사랑이시여.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속죄의 고통을 위해 아직 준비해야 하나요?”

구세주: “내 딸아, 깨어 있으라. 그리고 결코 네 마음을 나에게 닫지 말라.”

나: “주님, ‘나에게 마음을 닫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른 말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세주: “내가 원할 때,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싶다.”

나: “하지만 주님, 주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시고 절대로 저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세주: “나는 항상 네 곁에 머물 것이다. 믿어라.” 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았다고 말하더군요.” 구세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구세주: “내 딸아, 한 가지 더 적어라.”

나: “하지만 주님, 제가 마음을 닫았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세주: “너는 자주 그렇게 한다.”

나: “하지만 전 그걸 모르는데요. 주님께서 제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세주: “세속적인 것보다 나를 먼저 선택하라.”

나: “하지만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실 때를 저는 아직 모르는데요.” 구세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두어라.”

나: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구세주: “내 딸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라.”

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 구세주: “내 소원을 이루어라.”

나: “네, 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게 닥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구세주: “내가 네게 주실 상처 자국을 장갑을 끼지 않고 그대로 지니기를 바란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주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이 끼어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세주께서는 다시 한번, 장갑을 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약 의사들이 장갑을 끼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구세주: “그럼 내가 한 말을 전하라.”

나: “다른 사람들이 제가 자랑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요?” 구세주: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라.”

저는 에이즈나 감염을 떠올렸습니다. 구세주: “이 상처들은

고름이 나지 않아.”

나: “상처를 완전히 드러내야 하나요, 완전히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자 하나님, 제가 그 상처 자국을 받게 되면 기절하게 될까요?” 구세주: “너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받게 될 것이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해했습니다.”

나: “그 상처들을 한꺼번에 받게 될까요, 아니면 먼저 손부터 받게 될까요?” 구세주: “나에게 맡겨라.”

나: “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구세주님과 함께한 이 1시간 반은 마치 5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를 드렸습니다.

20:00 - 기도 모임

1992년 8월 11일 - 화요일

9시 00분부터 10시 00분까지 프리돌린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1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혼자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내 사랑아, 그 것을 적어라.”

오늘은 ‘내 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구세주: “내 사랑아, 그렇게 기록해야 한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구세주: “네가 쓰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인쇄될 것이다. 내가 네게 보내줄 사제에게 맡겨라.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써라, 내 딸아, 네 실수는 신경 쓰지 마라. 그 실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게 만든다.”

나: “주님, 왜 이 글을 이렇게 서두르시는 건가요? 이게 책이 될 거라고요.”

구세주: “내가 다시 시간을 단축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

나: “이 책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구세주: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라.”

나: “주님, 저는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소서.” 그 후: 나는 프리돌린을 떠올렸다

구세주: “너희가 함께 기도한 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프리돌린에게도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는 사제가 될 것이다. 계속 그와 함께 기도해라.” 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 도하르트 신부님이 떠올랐고, 이것이 구세주의 뜻에 맞는 일인지 고민했다.

구세주: “네가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 기뻐다.”

그리고 나서 프리돌린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성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말해 준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두려웠습니다.

구세주: “그에게는 말해도 된다. 너도 알다시피, 내 딸아.”

나: “네, 주님, 그 말씀은 전에 한 번 들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는 구세주께 다시 물었다.

“제가 성혼을 받게 되면, 왜 장갑을 끼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나는 대담한 고백자들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쳐야 한다.”

12시가 되어 저는 주님의 천사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제가 성모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구세주: “나도 함께 있단다.”

나: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으니, 오늘과 앞으로 다가올 내일까지도 다 바친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 “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이 말을 적어 두어라. 내가 네게 요구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더 주겠다.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나: “주님,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예’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는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러면 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네가 잘려 나갈 것이다.” 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세주: “허영심을 버려라. 더 겸손하게 입어라. 옷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발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나는 그때, 그중에서 몇 켄레를 남겨둘지 생각했다. 아마 두 켄레 정도.

(신발에 대한 부분은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적었습니다.)

나: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것을 여쭙고 싶어요. 제가

제가 머리에 수건이나 스카프를 두르는 것을 원하시나요? 제가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가요?”

구세주: “그래, 나에게서는 그게 아주 중요해.” 구세주: “내 딸아, 그 머리 덮개를 쓰거

라.” 나: “병원에서요, 아니면 교회에서요?”

구세주: “어디서나.”

나: “하지만 머리 덮개를 쓰는 건 저한테 어려울 것 같아요. 나: “왜요?”

구세주: “네가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게다가 내 선택받은 자들은 예로부터 항상 머리 덮개를 써 왔기 때문이다.”

나: “그건 전통 때문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가요?” 구세주: “내가 원하기 때문이야.”

나: “하지만 보그트 목사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요.” 구세주: “너는 나의 신부인가?”

나: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도 머리 덮개를 써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야.”

나: “제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할 거예요.” 구세주: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니,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 덮개를 쓰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게 바라는 대로 행하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바를 항상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진주다. 나에게 충실해라. 평안히 가거라.”

오후 6시 30분, 나는 프리돌린과 함께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서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를 드렸다. 성체성사 전후로 나는 구세주께,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이에 “예”라고答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서 구세주님께, 성모 마리아님께서 제가 십자가를 지는 데 도움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 저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결코 그분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영혼들의 구원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분과 함께 이 속죄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성체 성사 후, 구세주께서는 저와 하나 되시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고맙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충실해라. 내가 받아들이겠다.”

1992년 8월 12일 - 수요일

나는 밤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리고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기도했다. 아침에 나는 기도

하며 주님과 일치를 이루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을 기록해라.”

나: “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구세주: “네가 나에게서 받게 될 상처 자국들은 네 손과 발, 그리고 네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선한 뜻을 가진 영혼들을 위해 많은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내 딸아, 그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피일 것이다. 나의 피는 깊이 숭배받아야 한다. 내가 이 피를 흘릴 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네 임무다. 그것은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될 것이다. 나는 네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네 신랑이다. 항상 너와 하나 되는 것 또한 나의 뜻이다. 나와 함께라면 네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 “주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내가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 “네, 주님,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상처 자국에서 피가 흐를 것이다. 처음에는 금요일에. 그날은 일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너를 일에서 면제해 줄 것이다.”

나: “그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구세주: “다른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내 딸아, 확신해라.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구세주: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가시관을

떠올렸다.

구세주: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시관도 그 과정의 일부다. 너는 먼저 채찍질을 당하고, 그다음에 가시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갈바리아에서 겪었던 고통과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너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십자가 처형이다. 네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될 것이다. 이 속죄의 고통은 나의 속죄의 고통이다.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나: “제발,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 두려움만 없애 주시고, 제가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가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 주세요. 만약 그가 저에게 무언가를 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저주에서 구원받게 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그 일을 책임지겠다.”

구세주: “너는 다른 영혼들보다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너를 위해 많은 기도가 드려질 것이다. 많은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

구세주: “네 임무는 여전히 나에게 항상 충실하는 것이다.”

나: “제가 당신께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은총은 이미 저에게 주셨잖아요.” 구세주: “그래, 이미 그렇게 해 주었다.”

나: “하지만 저에게는 사제가 필요합니다.”

구세주: “한 분이 오실 것이다. 사제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구세주: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평안히 가거라.”

19:00, 밁골스하임(Mingolsheim)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8월 13일 — 목요일

9시 50분 ~ 11시 00분, 집에서:

저는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오, 내 딸아, 그것을 기록하라. 네가 쓰는 모든 것은 나의 뜻이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모든 일에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모든 이를 위한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다.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죄를 지은 너희 인간들은 깨어나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바친 것으로 너희가 평가받을 때가 왔다.

모든 사람은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내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보고 듣게 하려고 눈과 귀를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모든 것이 그저 광기일 뿐이다. 나의 진노가 모든 이에게 내릴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아, 깨어나라! 나는 어둠의 신이 아니라 빛의 신이다. 내 빛 안에 머물라. 너희를 비추는 빛을 구하라. 어둠이 닳치면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둠의 신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내 딸아, 그들 모두를 기도로 부르라. 나의 어머니이자 너희의 어머니께서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시니, 너희 모두 그녀께로 돌아가라.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희의 기도(중보)를 내게 전해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 딸아, 네게 닥칠 모든 일을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의 성심에 맡겨라. 그분의 성심은 곧 나의 성심이기도 하니깐. 그러면 원수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딸아, 계속 기록해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분.”

구세주: “네 속죄의 고통에 대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네 ‘예’라는 대답에 감사하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네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나는 네 생명이다, 내 딸아. 나는 네 약함을 알고 있다.

적절한 때에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리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네가 겪게 될 속죄의 고통은 문 앞에 와 있다. 때가 되면 내가 문을 두드릴 것이다. 나에게는 모든 일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다.

내 딸아,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며 지금 너에게 축복을 내린다.” 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구세주: “내 딸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평안히 가거라.”

나는 “아멘”이라고 말했다.

그 후: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몰랐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마음에 든다.”

점심 식사 직전에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대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라고도 했다.

아들은 “어차피 엄마 말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토마스처럼 주님의 상처 자국을 직접 봐야만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가끔은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 전체가 불결한 영이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록 저 혼자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주님이자 하느님께 충실할 것입니다.

18시 30분, 로젠크란츠와 성체 성사(붉은 미사).

오늘 복음에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이를 믿지 않았던 토마스에 대해 이야기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체 성사 후, 저는 구세주님께 제가 보그트 신부님께 가서 구세주님께서 제게 상처 자국을 주셨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구세주: “그분께 가서 이야기해 보아라.”

그래서 미사가 끝난 후 보그트 신부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믿고 계시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네, 믿습니다.”

그리고는 구세주님께서 “너무 늦은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분께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 축복을 청한 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92년 8월 14일 - 금요일

10:00 - 11:45 집에서:

기도 - 일체감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내가 네가 적기를 원한다.” 나: “네,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영적 지도

자이신 분.”

구세주: “내 딸아, 전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다. 원수는 이미 큰 전리품을 빼앗아 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과 화해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 전쟁은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으나, 앞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라. 그들은 사탄의 베일에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은 내 앞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많은 이들을 내뱉어야 할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모든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내 마음에 든다. 나는 이 일을 특별히 보상해 주겠다.”

나: “주님, 상처 자국에 대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고 하셨는데, 보그트 신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전에 제가 알아야 할 것이나 깨달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부정한 영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네가 받게 될 상처 자국은 내 것이며,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나: “어떻게 말입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구세주: “상처에서 흘러나올 피는 내 피다. 사람의 몸에는 그렇게 많은 피가 없어, 그 피가 흘러나올 수는 없다.”

나: “하지만 과학자들에게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요.”

구세주: “이 상처들은 낫지도 않고 고름이 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상처들은 맹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빛을 발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흘릴 이 피가 그들의 구원이 될 것이다. 내 딸아, 그때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이라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기록하라, 내 딸아.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떤 이들에게는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 영혼들은 이미 그들의 아버지를 선택했다.”

나는 구세주와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교회에서 상처 자국이 새겨질 때 너는 큰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의 비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 “주님, 그렇게까지 아픈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다.” 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될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느낄 고통에 비하면 겁을 먹는 건 별일 아니야. 이 지옥 같은 고통은 지옥에 비하면 한 방울에 불과하단다.”

나: “네, 주님,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고, 구세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 주실지 궁금해했다.

구세주: “그래, 아직 한 가지 더 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네게 성혼을 새겨 주겠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뜻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지금과 영원토록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가장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지워야 하나요?” 구세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겠느냐?”

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나: “‘가장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제가 너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를 축복하노라.”

- 나는 무릎을 꿇었다 -

구세주: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금과 영원토록. 아멘.”

대개 그렇듯이 나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모든 사람과 연옥에 있는 모든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영적 성체를 봉헌했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붉은 예복 미사.

성체 성사를 마친 후, 나는 구세주께 H. 콜 총리에게 팩스를 보내야 할지 여쭙어 보았다.

구세주: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내가 원하노라.”

늦은 저녁에 나는 로즈비타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들이 연방 총리에게 편지를 팩스로 보내는 것을 도와주었다.

23시 30분경, 나는 다시 한 번 묵주기도를 드렸다.

1992년 8월 15일 — 토요일 - 성모 승천일 새벽 4시 15분에 기도

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그 편지는 옳았다. 편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독일인들은 이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나: “제가 그 말을 해야 하나요?”

구세주: “물어보면 말하거라. 백성들을 기도로 불러내야 한다. 기도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내 딸아, 많이 기도하라. 사탄은 강하다.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적어 둔 모든 것을 잘 간직해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보호를 베풀어 주겠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나는 마리오나 함께 있었고, 우리는 글을 썼다.

16시 30분부터 19시 45분까지 나는 로트(Rot)에 있는 교회에 있었다. 그곳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19시 미사에도 참석했다.

1992년 8월 16일 - 일요일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성심을 통해 많은 영혼들과 가련한 영혼들을 구세주께 맡겼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세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모든 영혼을 위해 속죄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갑자기 크고 무거운 눈물이 제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것은 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흘린 것은 구세주의 눈물이었습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너는 모든 영혼을 위해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 그들은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 모든 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속죄의 고통은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이것을 적어 두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과 앞으로 줄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자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나: “주님, 하지만 그건 가장 큰 미덕이잖아요.”

구세주: “그래, 적어 두어라. 이 미덕을 얻는 이는 드물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를 줄 수 있다. 이 사랑으로 너는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이 큰 선물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감사를 표했단다. 네가 원한다면 이 사랑을 나로부터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 사랑이 네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너를 통해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딸아, 너는 나의 성체함이다.”

나: “오,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네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 네가 네 사제에게 말했듯이, 네 마음은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성만은 마음이 이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네 마음속에 있다, 내 딸아.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사랑 없이는 너희는 살 수 없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내 딸아, 네가 기다리는 사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나: “나의 구세주님, 큰 고통 속에서 저를 주님과 분리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구세주: “아무도 너를 나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으니, 너는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주님과 갈라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구세주: “너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오, 주님,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도감이 듭니다.” 구세주: “그렇다, 내 딸아.”

나: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속죄의 고통을 겪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이 말이 내게 특히 마음에 든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나와 함께라면 네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다. 그렇다, 내 딸아, 나는 네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다. 네 몸은 나의 몸이다. 네 뜻은 나의 뜻이다. 네 축복은 나의 축복이다.”

나: “주님, 제가 축복해도 될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많이 축복해야 한다.” 나는 축복이 아주 위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세주: “나도 위대하다.”

나: “어떻게 축복해야 하나요?”

구세주: “내가 네 손을 이끌어 주리라.”

나: “오, 주님, 이제 다 끝났어요.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하나요? 원하시나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네 이웃 안에서 나를 더 사랑하라.”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 “아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께 지금과 영원토록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마리아님도 언급한 것이 옳았나요?” 구세주: “그 말을 듣게 되어 기쁘다.”

13: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기도회.

19:00, 밍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거행된 미사.

1992년 8월 17일 - 월요일

10시 의사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나: “주님, 그건 제가 쓸 수 없는데요.”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네가 행동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든다. 계속 그렇게 해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사랑의 하느님이다. 네가 나에게서 받는 사랑을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사랑이 네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 “주님, 저는 상처 자국을 받아야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다. 나는 네 안에 모든 것이니라.”

나: “주님, 제 가슴 속에 불타는 듯한 열기를 느낍니다.”

구세주: “나는 사랑의 불이다. 이 불은 아무도 끌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타오른다.”

나: “주님,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구세주: “그 일이 네게 닥치도록 내버려 두어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나: “주님, 주님과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대학 병원의 이 의사실로 오셔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엑스레이 조무사에게까지 내려오시다니.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어요. 주님, 말로 감사를 다 드릴 수 없네요. 주님을 향한 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오, 주님, 주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지금 그 사랑을 너무나 강하게 느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에 준비되어 있으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가 주님께 그렇게나 합당하다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있는 그대로면 나에게 충분하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그러니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저도 목마르거든요.” 구세주: “네가 그렇게 말해 주니 기쁘구나.”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

20:00 기도 모임.

1992년 8월 18일 — 화요일

10시, 의사실:

깊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린 후,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기록해라. 내가 나의 사명을 완수할 때가 왔다.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내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물었다. “이 눈물이 주님의 눈물입니까?”

구세주: “그래, 내 눈물이다. 너를 위한 고통이다. 내 딸아, 내 일이 너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나: “주님, 주님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은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십자가 처형이다.” 나: “그것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구세주: “갈바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 “성모님께서도 함께 계실까요?”

구세주: “너의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는 모든 십자가 처형에 함께 계신다. 그분께서 너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라.”

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를 많이 흘리게 될까요?” 구세주: “거의 전부.”

나: “그럼 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나요?”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구세주: “나는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 네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곧 네 생명이다.”

나: “그러면 이 흘린 피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겠군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아주 많은, 정말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회심할 것이다. 치유도 일어날 것이다.”

나: “그럼 누가 치유받을 수 있나요?” 구세주: “누구나.”

나: “주님,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병든 것은 아니잖아요.”

구세주: “그렇다. 가장 큰 병은 거의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구세주: “그걸 알고 있네, 내 딸아.”

구세주: “기록해 두어라, 내 딸아. 네게 나타날 성흔들, 그것은 며칠 안에 일어날 것이다. 준비해 두어라, 내 딸아.”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견뎌내고 굳건하고 충실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도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확신해라. 그 후로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너는 나의 도구이니라.”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자애로운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리라.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8:30 로사리오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08.92 — 수요일

10시 00분 - 진료실:

구세주: “내 딸아, 한 마디 한 마디 적어라. 네가 나에게서 받게 될 성흔은 큰 축일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피를 흘릴 것이다. 흘러나올 그 피는 거룩한 피이다.”

나: “주님, 하지만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세주: “그렇다면 네가 아닌 것이다. 바로 나다. 네가 받게 될 상처 자국은 깊은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신가요?”

구세주: “표면적인 상처 자국이 아니다. 기록해라, 내 딸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흘러나올 이 많은 피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가 상처 자국을 받게 될 날을 정해 두었다. 그날은 나와 나의 어머니이자 너희의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날이다.”

나: “주님, 그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꼭 알아야만 하는 건가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제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제가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영이 제 곁에 머물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네가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간직하기를 원하노라.” 나: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공간이 부족하고, 호기심 많은 자들이 먼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 “네,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 “주님, 이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나요?”

구세주: “아니야, 내 딸아, 너는 모든 것을 인내심과 사랑으로 견뎌내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 점에 있어서는 저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인내의 미덕을 주셨고, 사랑도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으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주님, 그 일(상처)이 닥칠 때, 미리 뭔가 느낄 수 있을까요?” 구세주: “너는 나의 사랑을 느낄 것이다. 나는 사랑 그 자체이니라, 내 딸아.”

나: “네, 주님, 이해했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내 곁에 안고 있노라.”

나: “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어디로든 저를 안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 “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너무 행복해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밍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8월 20일 - 목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처음부터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드릴게요.”

구세주: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내가 정하리라.”

나: “주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움직이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다. 내게 속한 자는 나를 따라 질서를 잡아야 한다.” “적어라, 내 딸아.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를 따라 엄격히 순종하기를.”

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제 혀가 잠잠해지도록 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할 때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 “하지만 주님, ‘엄격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하리라.”

나: “이제 제가 뭔가 잘못할까 봐 두려워요.” 구세주: “내 딸아, 나와 함께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 “‘엄격하게 정하다’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네 ‘예’는 ‘예’이고, 네 ‘아니오’는 ‘아니오’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평소보다 당신이 더 엄격한 아버지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상상한 것일까요?”

구세주: “내 딸아, 세상에는 끔찍한 악행들이 만연해 있다. 내가 시간을 단축시켰다. 원수는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나는 원수가 원하는 많은 일들을 허용할 것이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부디 모든 이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하십시오. 저는 선행하고 자비로우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때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 손을 단단히 붙잡아라.”

나: “모든 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오, 병원 내 예배당.

구세주: “네가 무언가를 적어두기를 바란다. 내가 네가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네가 받게 될 성흔을 끝까지 지니는 것이다.”

나: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들이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그 상처 자국들은 너에게 많은 문제와 골칫거리를 안겨줄 것이다. 모든 문제와 골칫거리를 내게 맡겨라. 내가 모두 해결해 주겠다. 혼자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마라. 너는 내게 순종해야 한다. 내 딸아, 먼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딸아, 내가 네가 경건해지기를 원한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것은 제게 꼭 필요한 큰 미덕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을 적어 두어라. 오늘 바로 그 순종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세주: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18시 30분, 로사리오와 성체 성사(붉은 예복).

1992년 8월 21일 - 금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어제 나는 글쓰기를 거의 그만두려고 했다. 글쓰기도 이해도 너무 서툴러서 화가 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는 계속 글을 쓴다.

구세주: “네가 글을 쓰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딸아, 네가 계속 글을 쓰는 일은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너를 대신해 글을 쓸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게둔드를 계속 가져야 한다.”

“쓰거라, 내 딸아, 내가 네 남편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주리라.” 나: “이걸 써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써라.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 “주님, 그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다는 것만은 압니다. 제발, 그가 길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가 경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리라.”

나: “주님, 나의 하나님이지요, 감사합니다.”

구세주: “네 남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징계는 필요한 것이다.” 나: “구세주님, 어제 저는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이해해 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며, 그들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하라, 내 딸아, 내가 곧 진리이다.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대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들은 예전에도 나를 그렇게 대했단다. 계속 겸손하고 온유하게 지내라.” 나: “주님, 겸손과 온유함을 구합니다. 제게는 부족합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제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행동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든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라. 나는 너를 내 뜻대로 다스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는 나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또한 나의 뜻이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잠시 후: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것을 기록해라. 나는 내 계획을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너는 나에게서 다섯 가지 성흔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예’는 ‘예’이다. 너에게는 고통도 은총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지금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기며, 영원히 주님의 마음속에 머물고 싶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네게 닥칠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내 사랑을 네게 쏟아붓겠다. 이 사랑으로 너는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나: “주님,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구세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 “정말 아름다워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사랑이 그 화를 지워버린 것 같아요.”

구세주: “그렇다, 내 딸아.”

나: “주님이자 하나님하신 분, 이 큰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저는 여느 때처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8시 30분, 로젠크란츠와 성체성사(붉은 미사).

1992년 8월 22일 — 토요일

오전 7시 30분 – 9시 기도 – 일체화.

구세주: “내 딸아, 한 마디 한 마디 적어라.” 나: “네, 나의 고귀하신 사랑이시여.”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네 온전한 헌신을 원한다.”

나: “주님, 저는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드리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까?”

구세주: “네 감각 기관들을 내게 바쳐라.”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제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구세

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보고 들을 것이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너는 나로부터 다른 감각 기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나: “주님, 이것이 신비주의에 속하는 것입니까?” 구세주: “그

래, 그것은 신비주의에 속한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는 너에게 성흔에 대한 동의를 더 요구한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나의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사랑이시여, 제가 주님께 동의합니다. 제 몸에 성흔을 새기셔도 좋습니다. 제 몸은 이제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영혼의 구원과 선의를 가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걸로 충분하다.” 구세주: “나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만 했다.”

구세주: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나: “주님, 이것을 적어

두어야 할까요?” 구세주: “그래, 적어라.”

나: “주님, 제가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네가 바로 그 아
이야, 내 딸아.”

나: “주님, 제가 가장 큰 죄인일까 봐 두렵습니다.” 구세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가
너무나 작기 때문이야.”

나: “오, 주님, 저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저는 정말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제발 저를 주님의 사랑의 샘에
잠기게 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네가 온전해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님, 저는 이 땅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 이미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에게는 아직 네 욕이 남아 있구나.”

나: “욕이라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네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너는 천국으로 가는 예비 단계에 있는 것이니, 지옥으로 가는 예비 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그 말은, 제가 아직 연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구세주: “내 딸아, 그 일은 내게 맡겨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라.”

구세주: “지금까지 너는 내 뜻을 이루었다. 계속 내 안에, 나와 함께 머물러라. 그러면 앞으로 닥칠 다른 일들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주님, 자애로운 아버지,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항상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을 찬미합니다. 지금과 영원토록. 아멘.”

16시 30분부터 17시 15분까지 나는 로트(Rot)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보그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다.

18시 15분에 밁골스하임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아드리아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케젠하이머 신부님으
로부터 성체를 영할 때, 그녀는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21시경, 저는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1992년 8월 23일 - 일요일

8시 20분: 늘 그랬듯이, 일체화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것을 기록해라. 네 임무는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들 모두를 사랑하라. 모든 영혼
은 나에게 소중하니,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소중하다.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저는 어제 밁골스하임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공격을 받았던 일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성체 성사 전에는 평화를 느꼈으나, 성
체를 영한 후와 합일 후에야 비로소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구세주: “부정한 영들은 항상 네 주위에 있으며, 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려
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 “주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제가 무릎을 꿇었을 때 왜 불결한 영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구세주: “누군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불결한 영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네가 보게 하려고.”

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이들도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성체를 영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생 제물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게 부탁할 것이 있다.”

나: “네, 주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더라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네가 모든 것에 ‘
예’라고 대답해 주기를 원한다.”

나: “주님,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구세주: “그래, 그것을
적어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사랑이 넘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하지만 제가 ‘예’라고 말할 때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영분별의 은총도 필요합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영을 분별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았다.

구세주: “적어라.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다.”

나: “주님, 저에게 사랑을 더 주실 수 있나요? 제 영혼은 더 많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저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치 빵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은 타오르는 사랑의 화로이십니다. 저는 이 사랑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구세주: “너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네가 속죄의 고통을 겪게 될 때,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 내 딸아, 너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 “네, 주님.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나: “H. 콜 연방총리의 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세주: “내 딸아, 아직 기다려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정치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라.”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10시, 붉은 예복 미사.

13시 00분, 목주기도와 묵상.

오후에는 심한 두통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구세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 월요일

오전 9시 45분:

나: 사랑하는 하느님, 어제와 오늘 아침 3시에서 6시 사이에도 쉼 없는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은 내가 겪은 속죄의 고통이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오늘 밤 2시간 반밖에 못 잤는데, 이제 일하러 가야 하고 오늘 저녁에는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치 밤새 폭 잔 것처럼 기운이 넘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나: “주님께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말에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 가야 할까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구세주: “내 딸아, 게브하르트 신부님께 가거라, 그분께 가거라.”

나: “제가 주님께 받을 성흔에 대해 그분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세주: “그분께 말하거나, 네가 쓴 내용을 읽어주어야 한다.”

나: “주님, 휴가는 언제 내야 할까요?” 구세주: “9월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라.”

나: “어제 룩셈부르크에서 온 클라우디우스에게 (상처 자국에 대해) 말해 준 것이 옳은 일인지 걱정했어요.”

구세주: “그 말을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나였다.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너는 단지 나의 도구일 뿐이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어제 그 일이 속죄의 고통의 시작이었나요?” 구세주: “그래, 그게 시작이었어.”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네가 나에게서 받게 될 상처 자국들, 그것은 곧바로 일어날 것이다.”

나: “주님, 그 말씀은 이미 해주셨잖아요.” 구세주: “네가 준비

되기를 바란다.” 나: “준비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내가 원할 때,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사랑하

는 하느님, ‘가장 빠른 때’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것은 매 순간, 매 시간, 혹은 매일 일어날 수 있다.” 나: “주님은 저에게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세주: “너는 너그러워야 한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가 너그러워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준비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지금 이미 그 은총을 네게 베풀고 있다.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이는 드물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 큰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제 가슴이 불타오르네요. 오, 제 타오르는 사랑이여,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이 모든 고통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사랑이 이길 것이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게 모든 것에 대한 인내와 사랑을 기대한다. 그것들은 네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니, 그저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면 된다.”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어제 너와 함께 고통받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다.” 나: “주님, 저도 고통 속에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그렇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게 감사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온 한 환자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우리 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함부르크 출신으로, 1909년생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과거에 대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성수를 뿌리고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특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 더 심하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코를 물어뜯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코를 물어뜯고 가라고 말했다.

그 직전에 저는 이미 그를 위해 기도한 상태였고, 그 후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또 다른 환자는 러시아 불가 강 유역에서 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제가 건네준 기도 쪽지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18시 30분 - 묵주기도와 성체성사.

20시 00분 기도 모임.

1992년 8월 25일 - 화요일

1992년 8월 26일 - 수요일

10시 00분 의사실:

나: “주님, 제발 ‘가장 빠른 시간’을 뜻하는 다른 단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독일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구세주: “내 딸아, 하지만 너는 이해했잖아.” 나: “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게 전해준다면,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 “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성혼을 받게 될 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내 딸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네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다. 다른 이들은 너를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나와 함께하면 너는 그들을 모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사랑은 내 안에 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너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많은 시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까?”

구세주: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견뎌내리라.” 나: “주님, 제 ‘나’를 없애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네 ‘나’는 바로 나다.”

나: “그건 아직 제 습관인데,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나: “주님, 제가 한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주님께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 하나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 영혼을 굳건하게 하여 네가 모든 일에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했다.” 나: “그 말은, 제가 이제 용기가 강해졌다는 뜻이군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내 딸아, 나는 특히 용기 있는 자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19:00 — HI. 미사, 로쿠스 예배당에서.

1992년 8월 27일 — 목요일

10시 00분, 협회 내 의사실:

구세주: “내 딸아, 내 말 들리니?” 나: “네, 주님,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헤르만 박사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잠시 후 :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게 무슨 일이 닥칠까요?” 구세주: “그래, 채찍질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죄인들을 위해 그것을 바쳐라.” 나: “네, 주님, 중죄인들을 위해 그것을 바치겠습니다.”

구세주: “준비하라, 내 딸아.” 나: “낮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밤에 일어날까요?” 구세주: “밤에, 내 딸아.”

나: “그 채찍질은 피가 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가 나는 채찍질일까요?” 구세주: “피가 나는 채찍질일 것이다.”

구세주: “그 고통을 견뎌내라.”

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채찍질 다음 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그 걱정을 떠맡았다.”

나: “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 안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 고통을 우리는 함께 느낄 것이다. 네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리라. 내 딸아, 나의 명에는 달콤하다.”

나: “더 쓸 게 있을까요?”

구세주: “그만하면 충분하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8월 28일 - 금요일

10시: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적어라.”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저는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은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더 큰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네 간구를 알고 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듭니다. 나의 뜻은 너를 내 안에 품는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시련을 잘 견뎌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올 것이다.”

나: “주님, 제가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하나요?”

나: “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지금 제게는 단 하나의 소원만 있습니다. 바로 큰 고통 속에서도 결코 주님과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기록해 두어라. 그 큰 고통들은 나의 고통들이다. 너는 속죄의 고통, 즉 성스러운 다섯 상처를 한 번에 받게 될 것이다. 그 고통들이 네 안에 스며들게 하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가 그 고통들이 제 안에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구세주: “내가 네 안에, 네 곁에,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정한 영은 네 곁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 “이 일이 곧 일어날까요?”

구세주: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가까워.”

나: “주님, 주님께서는 붉은색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나: “네, 주님, 이해합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하라. 나에게는 그릇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네가 나와 함께 견뎌야 할 모든 것은 하늘에서 네게 주어질 큰 상이 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상처 자국을 드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장갑이나 가리개 없이 말입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 상처 자국이 생기면 드러내어 드러내라. 네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내 뜻이다.”

나: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그리고 금요일에 상처에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구세주: “그때는 내가 네게 알려주는 대로 하거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내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뒤쪽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될까요?”

구세주: “가서 네 의무를 다해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네 평화이니라.” 나: “사랑하는 예수님, 그럼 일하러 가볼게요.”

나: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성체 성사 후, 저는 구세주님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그분께 찾아가야 할까요?

구세주: “그분께 가거라, 내 딸아, 가거라.” 나: “그분께서 저를 받아

주실까요?” 구세주: “그분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1992년 8월 29일 — 토요일

오전 7시 15분, 로트, 자택:

사실은 레겐스부르크에 계신 게브하르트 신부님께 가려고 했지만, 먼저 편지를 써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요란한 뇌우가 몰아쳤는데, 그것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써라. 너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 중 하나는 아직 너를 지지해 줄 신부가 없다는 것이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이 유일하다. 네가 그분께 가는 것이 기쁘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내가 그분을 통해 너에게 말할 것이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너에게 딱 맞는 신부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괜찮다.”

나: “그 밖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구세주: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겉으로만 믿는 척할 뿐이다. 네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다.”

구세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라면 너는 그들 모두를 이길 것이다. 내 딸아, 한 마디 한 마디를 적어라.”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성: “네게 생길 상처 자국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내가 정하리라.”

나: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음성: “적어라, 내 딸아,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 “주님, 나의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성령에 의해 선택받았다. 그리고 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내 아들과 함께 속죄의 고통을 겪는 동안, 네 하늘의 어머니께서 너를 지지하고 곁에 머물 것이다. 나와 내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딸아, 네게 닥칠 모든 어려움은 하나하나 우리와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네 십자가의 길은 나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다. 너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이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나: “인내와 끈기, 그리고 많은 사랑을 청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내 딸아, 그것들은 네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예수님께서 성혼을 받으실 시간을 정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곧 예수님이시며 성령이시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떼어 놓을 수 없다.”

나: “저는 고통 속에서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나는 사랑이다. 고통은 속죄이다. 내 딸아, 너는 죄인들을 위해 고통받을 것이다.”

나: “알겠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오, 나의 큰 사랑이시여, 제가 주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내 딸아,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라면 네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딸아: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선택받은 딸아.”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레겐스부르크-

편지를 쓴 후 우리는 레겐스부르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은 불결한 영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많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겐스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다시 괜찮아졌고 폭풍도 그쳤습니다.

저는 게브하르트 신부님을 만났고, 우리는 먼저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저는 수도원 내에 있는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체가 모셔져 경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부님께서 묵주 기도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5시 15분, 카르멜회 수도원에서 저는 구세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체 앞에서 그 말씀을 적었습니다.

구세주: “나는 게브하르트 신부를 통해 네 남편에게 말하여, 네가 나로부터 성혼을 받게 하리라. 확신하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 “주님, 제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세주: “네 남편이 네 아들에게 상처 자국이 나타날 때 말해 줄 것이다.” 구세주: “여기까지 와 주어서 고맙다.”

나: “제가 이곳에 오기를 원하셨나요?” 구세주: “그래, 네가 이곳에 오기를 원했다.” 나: “그럼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군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너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야.” 나는 이 말을 적고 싶지 않았다.

구세주: “적어라.”

나: “주님, 왜 저를 보석이라고 부르시나요?”

구세주: “보석은 귀중하니, 잘 지켜야 한다.”

나: “주님, 저는 주님과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구세주: “그 말을 적어라. 그래, 네가 바로 그 보석이다, 내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수녀원 교회에 깜빡 잊고 머물러 버린 탓에, 남편은 한 시간 넘게 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도나우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워 두었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과 약 18시 30분경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이 오셨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약 두 시간 동안 수도원 내 자신의 방으로 가셨습니다.

돌아오시면서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우리 예배당에 놓을 큰 성모 마리아 상을 가져다주셨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남편에게 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게브하르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게브하르트 신부님과 저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신부님께 일기장을 계속 읽어 드렸습니다. 21 시경, 남편과 저는 게브하르트 신부님을 수녀원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저는 게브하르트 신부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그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은총입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 찬 사제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모든 면에서 정확하시고, 성경을 잘 설명해 주시는 훌륭한 성경학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은 사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그분이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곁에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사제들은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게브하르트 마리아 헤이더 신부님께 가야만 합니다. 저에게 이 신부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8월 30일 - 일요일

레겐스부르크의 '살베 레지나' 캠핑카, 도나우 주차장에서:

오전 7시 45분, 기도 모임: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적어라." 갑자기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다.

구세주: "사랑은 바로 나다. 내 딸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 "계속 나와 함께 계실 건가요?"

구세주: "너는 내 것이다."

나: "오, 주님, 주님과 함께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기록해라. 어제 게브하르트 신부님과 나눈 대화는 옳았다. 네가 나로부터 받게 될 성흔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나타날 것이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아주 가까워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나중에 채찍질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나요?" 구세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구세주: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나는 네가 손의 상처 자국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기를 원한다. 내가 네게 요구한다."

나: "하지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구세주: "내가 그 상처 자국에서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나: "주님,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입니까?"

구세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 내 딸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다시 볼 수 있도록 이 빛이 필요하다."

나: "그럼 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세주: "나는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다. 나와 함께라면 네가 추위를 타지 않을 것이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한 가지 더 적어두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기자들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많은 호기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호기심은 불순한 영에서 비롯된다. 나는 기자 없이 사람들을 네게로 이끌겠다. 호기심 많은 자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잊지 마라, 나는 상처 자국을 지닌 주님이다. 너는 나의 도구다. 내 딸아, 나와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위험에 대해 경고해 줄 것이다. 내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모든 회심과 수많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내 딸아, 조심하고 평안히 가거라."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9시 30분에 저는 성체 현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9시 45분에는 카르멜회 수도원에서 성체 미사가 있었는데, 저희도 함께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게브하르트 신부님께서 다시 저희 캠핑카로 오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도 거의 비슷한 크기의 십자가상이 걸려 있었는데, 그건 우리 것이 아니어서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무척 아끼고 있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섯 성흔이 붉은 색으로 표시된 또 다른 십자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레겐스부르크로 떠나기 전, 저는 구세주님께, 만약 그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작은 신호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게브하르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제가 일기에서 읽어 드린 내용을 경청하시고, 저에게 가르침과 힘, 용기를 주셨으며, 앞으로 다칠 고통에 대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신비주의에 정통하시며,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구세주님께서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듯했고, 그 말씀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많은 양초와 성수를 축성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런 고통 없이 혼자 운전했습니다. 그는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1992년 8월 31일 - 월요일

10시 - 의사실:

구세주: “사랑하는 내 딸아, 적어 두어라.”

나: “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사랑하는 예수님.”

구세주: “네가 받게 될 상처 자국들은 이 며칠 안에 나타날 것이다. 내 딸아, 준비해라.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근심을 짊어졌다. 너는 나의 도구다. 네가 적어 둔 모든 것을 잘 간직해 두어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상처 자국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통해 너는 모든 것을 견뎌낼 것이다. 사랑이 너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 안에 있다. 너는 온전히 내 안에 있다.”

구세주: “너는 이 며칠 동안 네 마음속에 큰 불길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내 사랑의 불길이다. 내 선택받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불길을 견디지 못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하지만 제가 이 불길을 견딜 수 있을까요?”

구세주: “내 딸아, 적어 두어라. 처음 겪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것이다(고통 — 아마도 상처 자국 때문이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 “그럼 기도 모임은요?” 구세주: “기도하고 있어요.”

나: “제가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실까요?” 구세주: “나는 항상 네 곁에 있다.”

나: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구세주: “사랑하는 내 딸아, 나도 너를 무척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나: “제가 쓴 대로 괜찮을까요?”

구세주: “그래, 고맙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

20시 00분 기도 모임

1992년 9월 1일 — 화요일

의사실에서:

구세주: “내 딸아, 어제 네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나: “주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세주: “어제처럼 이런 유혹을 자주 겪게 될 것이다. 굳건히 버텨라.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게 맡겨라.”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한 말이 내 마음에 든다.”

구세주: “내 딸아, 앞으로는 모든 일을 나와 상의하기를 바란다. 먼저 나와 의논해라. 나에게 하소연해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먼저 나에게 말해라. 무언가 필요하면 먼저 나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네게 모든 것을 주고 채워줄 수 있다. 네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속죄의 고통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내 딸아.”

나: “주님,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부디 내려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그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평안히 가거라.”

나: “감사합니다, 나의 큰 사랑이시여.”

18시 30분, 묵주기도와 붉은 미사.

20시 30분경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저는 오늘 아침 구세주님께서 저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님께서 12시 15분과 성체 성사 후 교회에서 그 비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털어놓자 게브하르트 신부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1992년 9월 2일 — 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기도 연합!

구세주: “네가 적어두기를 바란다.” 나: “네, 주님, 무엇을요?”

구세주: “내가 게브하르트 신부님이 전화하도록 하셨다. 그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네게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가 다시 전화할 것이다.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속죄의 고통은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나: “그 고통은 어떤 모습일까요? 피 흘리는 고통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구

세주: “그 고통이 네게 닥쳐오게 내버려 두어라.”

나: “그럼 내일과 모레는 일하러 가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가도 된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 알겠습니다.” 나: “오늘도 수영하러 가도 될까요?” 구

세주: “수영하러 가거라.”

구세주: “내 딸아, 너에게 할 말이 하나 더 있다.” 나: “네, 주님이자 하나님이신 분.”

구세주: “내가 네게 주는 선물이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라.” 나: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는 건가요?”

구세주: “나의 거룩한 다섯 상처 자국이다.”

나: “주님, 제 안에 그 상처 자국들이 스며들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작용하실 수 있도록, 제게 힘과 용기, 사랑,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 저는 연약해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주님, 저는 두려움도, 의심도 없으며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 곁에 계시며, 제 안에 계심을 알기에 주님께 충실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대로 머물러라. 너는 내 뜻을 이루고 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제 앉아 있어도 된다.”

(아마도 그때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사는 분명 제가 바닥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을 테니까요.)

구세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H. 밋골스하임의 로쿠

스 예배당에서 열린 미사.

1992년 9월 3일 - 목요일

방사선과 — 10시 30분~11시 05분 사이 기록: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제 영혼의 인도자이신 분.”

구세주: “내 딸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게서 받는 모든 것을 인내로 견뎌내라. 시작은 매우 힘들 것이다. 내 선택받은 이들 중 누구도 쉽게 겪은 이는 없었다. 모두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길을 걸어왔다. 너는 나의 성스러운 다섯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니, 언제인지는 네가 알 것이다.”

나: “날짜는 알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요.”

구세주: “성체 성사 후에. 너는 다섯 상처 자국을 한꺼번에 받게 될 것이다.” 나: “그러면 고통으로 죽을 것 같아요.”

구세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허락할 것이다.”

나: “아직 의사에게 가야 하나요?”

구세주: “아니, 그 후에는 침대에 누워도 돼.” 나: “그럼 아직 걸을 수 있나요?”

구세주: “그래, 아직 걸을 수 있어.”

나: “지금까지 제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구세주: “아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라.”

나: “몇몇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말해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말하지 마라. 몇몇 사람에게만 말해라. 오늘 네가 다시 속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오늘 네 손은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나: “채찍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제발 제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그 은혜는 네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 딸아.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니, 내게 소중히 여겨라.”

나: “네, 사랑하는 예수님, 저도 주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주님께 충실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계속 써라. 내가 하늘에 너를 위해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해 두었다.”

나: “그걸 적어두라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그걸 적어두렴.”

구세주: “그러니 부탁하노니,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거라. 나와 함께라면 너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겠지만, 오직 제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구세주께, 상처 자국을 마음에 새기고 침대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었다.

구세주: “너는 일정 기간 침대에 머물러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구세주: “성체는 집에서 영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 나: “부디, 상처 자국이 새겨지기 전에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세주: “그렇게 하겠네.”

구세주: “이제 내 딸아,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구세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평안히 가거라.”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께 찬미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1992년 9월 4일 — 금요일

나: “나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분. 지금 제 마음에 담긴 것을 적고 싶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제가 밤에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당하는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채찍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늘은 성흔을 새기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주님께 충실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욥을 떠올렸고, 몇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속죄의 고통을 피하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심한 두통은 처음 겪어 봅니다. 저는 그 고통을 바쳤고, 다시 겪게 되더라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제라면 어쩌면 이 유혹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결코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이시여, 이에 대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세주: “내 딸아, 적어 두어라.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 이신 분.”

구세주: “네가 쓴 모든 것이 옳다. 네가 기대했던 모든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시기는 내가 정한다.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오늘 밤 교회에 모일 모든 이들은 일어날 일들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거의 모두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을 위해 빛이 비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 의무를 계속 다해라.

그들은 나의 사역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나는 살아 계신 나무요, 너는 나의 열매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거라.”

18:30 로사리오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9월 5일 - 토요일

8시 —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계획을 바꿨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될 것이다.

나: “제가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다. 시간은 내가 정한다.” 나: “당신은 성체 성사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제 더 이상 여쭙볼 수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희에게 탈출구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구세주: “더 끔찍한 시기가 올 것이다.”

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느님, 앞으로 닥칠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유럽에서 일어날 대 전쟁이다.”

나: “그럼 예배당을 지을 필요는 없나요?”

구세주: “그래도 지어라. 그 성당은 무사할 것이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으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나는 성흔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구세주: “네가 묻는구나. 그래,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 날은

내가 정하리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많이 기도하라, 내 자녀들아, 기도하라. 사탄의 힘은 헤아릴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허락했다. 그는 나에게서 등을 돌린 모든 것을 빼앗아 가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넓은 길을 선택했다. 내 딸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충실하라. 나는 나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를 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보호 망토 아래에 있으니, 그곳에는 원수가 설 자리가 없다. 너희 어머니께 많이 기도하라. 나는 그녀의 중보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녀들을 떠나지 않는다.”

나: “하지만 이 전쟁은 막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 “금식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나: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요?”

구세주: “미리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제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조언,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일에 대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무릎을 꿇었다.

구세주: “내 딸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평안히 가거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과 영원토록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16시 30분부터 19시 45분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그 후 성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92년 9월 6일 - 일요일

7시 30분 - 9시 20분:

기도하던 중 다시 약간의 의심이 들었고,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네가 받게 될 성혼은 이 며칠 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 시간은 내가 정하리라.”

나: “주님,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다!” 내 딸아,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의심하지 마라, 내 딸아, 네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충실하고 굳건히 버티어라.

나: “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결코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껴안겠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 다섯 개의 성혼은 내가 네게 주리라.”

나: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처럼 천사가 주실 줄 알았어요. 어쩌면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구세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제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책에 쓰여 있는 대로만 믿어서는 안 되겠군요. 주님께서는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법이니까요.” 구세주: “그래, 바로 그렇다, 내 딸아.”

나: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 마음은 나에게서 뿔어져 나올 빛으로 뿔려질 것이다. 이 빛이 네 마음을 관통할 것이다. 네 마음속에 불이 타오를 것이다. 이 불은 나의 사랑이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네 안에 모든 것이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나: “그건 마치 성 바오로 성인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구세주: “내 딸아, 나는 이미 일어난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때와 똑같은 하느님이다. 내 딸아, 너는 오직 내가 사용할 도구일 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 “주님, 지금 교회에 가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하거라, 내 딸아.”

나: “벌써 9시 15분이에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무릎을 꿇었다.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0시 30분, HI. 미사(붉은 예복).

13시 00분 묵주기도와 기도회.

1992년 9월 7일 - 월요일

3주간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구세주: “기록하라, 내 딸아.”

나: “네, 자애로운 아버지시며, 나의 신랑이신 주님.” 구세주: “네 속죄의 고통이 곧 닥칠 것이다.” 나: “무슨 뜻입니까, ‘곧’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구세주: “그 ‘곧’은 때가 되면 내가 정하리라. 내 딸아,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일,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구세주: “네 미래 말이다.”

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 것처럼요.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에요. 심지어 주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의사들은 지금쯤 ‘이 사람은 정신과에 가야 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제정신이 있고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네 임무는 나를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말이다. 내 딸아, 나는 네 곁에 있는 것이 기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든다. 지금 네가 품고 있는 근심들을 내 손에 맡겨라.”

나: “이 모든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기록해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또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뜻이다. 네가 받게 될 다섯 개의 성흔은 너와 다른 이들에게 빛을 주어, 네가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의 빛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빛이며 진리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그래도 글을 써 주어서 고맙다. 내 딸아, 너를 축복한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18시 3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20시 00분 기도 모임.

1992년 9월 8일 - 화요일

오전: 기도 후 - 일체화

구세주: “다섯 가지 성흔이 곧 새겨질 것이니, 그러니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내 딸아, 내가 그 시간을 바꿨다.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사람들이 제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구세주: “말해도 된다. 부인할 필요는 없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다.”

나: “주님, 제가 성흔을 받게 될 때 사제가 없다면, 그때도 주님께서 영적으로 제게 오시겠습니까?”

구세주: “나는 항상 네 곁에 있단다, 내 딸아. 그때 나는 네 안에 모든 것이 될 것이며,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구

세주: “네 삶은 나의 삶이다.”

나: “주님,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저는 그 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후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9시: 나는 프리들린과 함께 바그하우젤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8시 30분: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이미 바그하우젤에서 구세주를 모셨기 때문에 로트에서는 성체를 영하지 않았습니다.

20시 30분: 구세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브하르트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 2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9월 9일 - 수요일

집 — 기도 — 구세주와의 일체감: “쓰거라, 내 딸아

.” 나: “네, 자비로우신 예수님.”

구세주: “네가 쓴 모든 것은 내 공로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있다. 네 임무는 계속 쓰는 것이다. 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 것을 기뻐한다.

네 실수는 신학자들의 실수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신학자들의 실수는 사람들을 심연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내 딸아, 계속 써라. 나는 네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을 알고 있다. 네게서 그 두 가지 모두를 기쁘게 여긴다. 네가 겪는 속죄의 고통은, 바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네가 나로부터 받는 고통만큼, 너는 그만큼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고통 속에 영혼의 구원이 있다. 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기에, 너 안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제 더 잘 이해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구세주: “조금 더 적어라. 네가 나에게서 받게 될 다섯 개의 HI. 상처 자국들은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다. 고통이 닥쳤을 때 그 상처 자국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라.”

나: “고통이 닥칠 때, 제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네가 알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두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가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총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겸손함을 유지하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나를 사랑하라. 네 사랑은 나의 사랑이다. 네가 나를 점점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세주: “네 의무를 다해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무릎을 꿇고 구세주께, 곧 올 두 여성, 마리안네와 뮐러 부인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청했다.

구세주: “그래, 그들에게도 축복을 내리겠다.” 구세주

께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밍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열린 HI 미사.

1992년 9월 10일 -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자택:

기도와 일체감.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하라. 내가 네가 기록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다.”

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구세주: “내가

너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나: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구세주: “

끝까지 온 십자가의 길을 다 걷는 것이다.”

나: “제가 이 시련을 감내해야 합니까?”

구세주: “이 고통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의 진노는 그들에게 미칠 것이다. 네가 흘릴 피는 선한 뜻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지, 신성모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세주: “그때는 그랬지, 내 딸아.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아버지를 선택했다. 신성모독자들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나: “그들이 신성모독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구세주: “내가 그들을 알아볼 것이지, 네가 아니다. 내 딸아, 한 가지 더 적어 두어라. 네게 나타날 상처 자국들은 이 며칠 안에 일어날 것이다.”

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려움도 의심도 없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꾸짖을 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너는 그들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네 영혼의 인도자다. 설령 네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린다 해도, 나에게서는 여전히 옳은 일이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간과한다. 네가 모든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 사탄은 교활하니 조심하라. 네가 나쁜 일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네 주변에 둘 필요가 없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모두 먼저 기도하러 보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많은 골칫거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제가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부디 내려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온전히 내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그렇다면 사제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구세주: “모든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니, 모든 사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나: “하지만 주님, 저도 주님을 모두 사랑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저를 모두 사랑해 주시지 않잖아요.” 구세주: “

그렇다, 내 딸아. 너희도 나를 모두 사랑하지는 않는다.”

나: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로사리오와 붉은 미사

1992년 9월 11일 - 금요일

오전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남편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의 성경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구세주: “네가 글을 쓰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앞으로 당분간 사탄의 공격을 더 자주 받게 될 것이다. 네 가족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네 편이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길을 찾는다. 너희가 마리아를 통해 나에게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찾는 것처럼, 부정한 영도 너희에게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찾는다. 내 딸아, 어제 네가 한 일은 옳았다. 내 딸아, 부정한 영들은 특히 너에게 분노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라면 너는 그들을 모두 이길 것이다. 내 딸아, 네 남편을 위해 기도해라. 그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써라, 내 딸아. 너에게 타오르는 불이 내릴 것이다.”

나: “그건 쓰지 않겠어요. 그건 분명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구세주: “아니야! 사랑의 타오르는 불이야.”

나: “주님, 이제 제가 화상을 입을까 봐 무섭습니다.” 구세주: “너는 내 사랑 안에서 타오를 것이다. 이 불로 너는 온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나: “네, 주님이자 하나님이신 분, 제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제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결코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 “구세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붉은 색의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끄는 곳으로 네가 가야 한다.”

나: “주님,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세주: “나에게 물어보아라! 나를 향한 길은 점점 더 가파르게 될 것이다.” 나: “주님, ‘가파르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더 힘들어지고 많은 힘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 힘은 오직 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 너와 네 이웃들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가파른 길에서 그들을 잃을 수도 있다.”

나: “네, 주님. 앞으로 저와 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힘을 구하겠습니다.” 구세주: “네 마음은 이미 나의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해. 이 마음에서 많은 은총이 흘러나올 것이며, 이 상처 입은 마음은 사랑의 샘이 될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이것이 이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네 마음속에서 느끼는 이 타는 듯한 열기는 내 사랑의 불꽃이니, 내가 원할 때면 더 강해질 것이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저는 이 불을 느끼지만,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 불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영혼은 주님 곁에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마치 타오르는 화로 같고,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성심 기도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타오르는 불길’이시여,

지금까지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이 큰 은총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심장은 살아 숨 쉬는, 타오르는 사랑의 화로이십니다. 오, 이 불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빕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심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저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기쁘구나. 있는 그대로 머물며, 내 손을 굳게 붙잡아라.” 나: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시 30분부터 19시 45분까지 로트(Rot) 교회에서 기도와 미사.

1992년 9월 13일 -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집에서

오늘 밤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우리 집 앞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우리 집 맞은편에 차를 주차해 두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기도 연합!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하라. 나는 네 곁에, 네 안에, 그리고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너는 어제와 오늘 밤에 그 일을 목격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너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한다. 그는 강하지만, 내 딸아, 너는 나와 함께할 때 훨씬 더 강하다. 내 딸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네 기도 모임에 충실해라. 사탄은 네 기도 모임을 흩어놓는 것보다 더 좋아 하는 일이 없다.”

구세주: “내 딸아, 어제 네가 느꼈던 타는 듯한 고통은 내 고통이었다.”

나: “하루 종일 그 타는 듯한 쑤시는 통증을 느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없어요.” 구세주: “나는 이 며칠 동안 일어날 일을 위해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지금 네 마음속에 타는 듯한 열기를 느끼고 있겠지.”

나: “하지만 그 강도가 그리 세지는 않아요.”

구세주: “하지만 아주 강해질 것이다.” 나: “제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구세주: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나: “그럼 의사를 불러야 하나요?”

구세주: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나: “네, 주님, 제가 주님께 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상처 자국은 교회에서 받게 될 거야.” 나: “빨간색으로요?”

구세주: “그래, 빨간색으로.”

나: “그럼 주님을 뵈게 될까요?”

구세주: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게서 나오는 빛으로 너는 상처 자국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빛은 내가 원할 때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빛이며 어둠을 몰아낸다. 내 딸아, 네가 받게 될 상처 자국들은 바로 나의 상처 자국들이다.”

나: “하지만 그 말씀은 이미 한 번 하셨잖아요.”

구세주: “이것은 세상이 너에게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다. 주교들조차도 빛이 부족하여 더 이상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겸손해라. 그들은 이 빛으로 비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 딸아, 나는 그들을 모두 사랑한다.”

나: “주님, 그들이 이를 모독한다면요?”

구세주: “모독하는 자들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나: “어떻게요,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구세주: “그들에게 부족한 사랑을 네가 베풀어 줌으로써 말이다.” 나: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그 사랑은 바로 나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세주: “너는 내가 사용하는 나의 도구이다.”

나: “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구세주: “나는 선한 뜻을 가진 자들을 깨우쳐 주리라. 그들도 네가 깨달았듯이, 네 마음속에서 내가 곧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네, 주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과학은 이성으로 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사랑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구세주님, 우리를 기다리는 천상의 것에 비하면 세속적인 과학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글이 마음에 든다. 이제 너를 축복하리라.” 나: “전 세계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구세주: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들, 성령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께 지금과 영원토록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12시 45분에 나는 묵주기도와 ‘붉은 묵주’ 기도를 드렸다.

14시 30분, 저는 헤트비그와 함께 밍골스하임의 로쿠스 예배당에서 고통의 묵주기도와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슈타일러 신부님(선교사)과 30분 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992년 9월 14일 - 월요일

집에서:

오전 2시 10분부터 3시 05분까지 기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기도 연합

나는 울었습니다! 어제 저녁 로쿠스 예배당의 한 신부님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을 옹호하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만약 그분이 원하신다면 저에게 답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은 입으로 성체를 받는 것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신부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주님,

제가 착각한 것일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착각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는 사제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여전히 이를 옹호하고 있으니, 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직도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내게는 상관없다. 내 딸아,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옳다. 내 딸아, 네게 생길 성흔은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나: “그 말을 듣기만 해도 벌써 두렵네요.” 구세주: “내 딸아, 지금 두려운가?”

나: “아니요.”

구세주: “나와 함께라면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가 부족할수록 네가 겪게 될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다.”

나: “오, 주님, 그럼 누가 제 말을 듣고 기도해 줄까요?”

구세주: “내 딸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기도할 것이다. 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 딸아, 모든 이에게는 자신만을 위한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그들은 기도할 것이다. 기록해 두어라, 내 딸아, 구원받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나: “저는 모든 영혼을 위해 고통받을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거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 “그럼 제가 모두를 위해 고통받을 필요는 없나요?”

구세주: “아니야, 그래야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고통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겠지.” 나: “사랑하는 예수님, 글을 쓰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온 세상, 특히 모든 병자와 임종하는 이들을 축복 속에 포함시키겠다.”

18시 30분 묵주기도 및 성체성사 (빨간색)

20시 00분, 빨간 기도 모임.

처음 3년 동안은 약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1992년 9월 15일 -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3시까지

그 전에는 프리돌린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는 혼자서 기도하며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네가 겪게 될 고통들을 성모 마리아의 고통과 하나로 합쳐라. 성모 마리아의 고통은 또한 나의 고통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쳐라. 너희의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평화 속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이 가득하고, 저는 이 평화와 결코 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몸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자유로우며, 걱정과 고통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저에게서 멀어진 듯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하느님이십니다. 이 확신과 은총을 주신 주님이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그것이 제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금 당신께 적습니다:

예수님, 요한처럼 당신의 품에 기대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껴안고 싶습니다. 이 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은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니까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구세주: “내 딸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보아라, 너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그 사랑을 훨씬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다섯 상처 자국이 아주 가까이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 말씀은 이미 한 번 하셨잖아요.”

구세주: “그때는 네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단다. 이제 다가올 매 순간을 위해 준비해라. 너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나: “오, 구세주님,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구세주: “아직 충분하지 않다.”

나: “만약 신학자들이 믿지 않는다면요?”

구세주: “너는 신학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빛 속에 있는 신학자들은 믿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속죄의 고통이 곧 시작될 것이다.”

나: “속죄의 고통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구세주: “두통과 가슴 통증, 이것이 준비의 고통이다. 여기서는 어떤 약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고통들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다. 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받고 있으니, 약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야 한다. 내가 네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사랑을 줄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온전히 깃들 것이다. 네 영혼은 나와 하나이며, 너는 내 고통의 일부만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 딸아, 너는 더 이상 ‘너’가 아니다. 바로 나다. 구세주: “나는 너와 네 곁에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린다.”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오후 6시 30분, 나는 밁골스하임에 계신 페루 출신 신부님을 뵈었다. 나는 그분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의 성경을 선물로 드렸다. 그분께 고해성사를 보았다. 헤드비그가 나와 함께 그 신부님을 뵈러 갔는데, 그녀는 나를 혈똥었다. 나는 겸손해져야만 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18시 30분,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9월 16일 - 수요일

9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하라.” 나: “네, 사랑하는 예수님.”

구세주: “나에게로 이끄는 십자가의 길은 빛 속에 있다. 나의 모든 자녀들은 그 길을 알아본다. 너를 비추는 이 빛, 바로 나다. 내 딸아, 아무도 너를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빛나는 길을 알아본 사람은 더 이상

어두운 길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받은 익명의 편지는 사탄의 함정이다. 그는 너를 빛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게 닥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네게 감당하기 힘든 일은 내게 맡겨라. 성스러운 다섯 상처의 표징을 내가 네게 주리니, 확신하고 안심하라.”

구세주: “나는 내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 네 앞에 놓인 시련들을 너는 이겨내야 한다. 나는 네 영혼의 인도자이며, 너는 그 시련들을 이겨낼 것이다. 내 딸아, 네가 하는 일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든다.

너를 가르치려 드는 다른 이들은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계하라. 내 딸아, 네 주변에는 많은 원수들이 있다. 그들 앞에서는 말을 아끼라. 그들은 네 말 한 마디를 열 마디로 부풀려 너를 조롱할 것이다. 내 딸아, 네 모든 근심을 언제나 나에게 맡겨라.”

나: “이제 뭔가 더 써야 하나요?”

구세주: “아니야, 내 딸아.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 “구세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복 속에 병든 자들, 임종하는 자들, 연옥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 그리고 나의 원수들을 모두 포함시키겠다고요.”

나: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정오 12시, 슈퍼아이어 대성당에서 ‘주님의 천사’ 기도와 다른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19시 30분,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20시 30분, 마리온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1992년 9월 17일 - 목요일

집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저는 현재 아직 휴가 중입니다.

오늘 밤 20시 30분부터 03시 30분까지 기도 연합: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하라. 성스러운 다섯 상처 자국이 네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교회 앞 하늘에 표징이 나타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일어날 일에 대한 나의 확증이 될 것이다.”

나: “만약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계획이 바뀌는 건가요?” 구세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믿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와 함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나의 소원이었다. 때가 왔고, 아무도 나의 때를 바꿀 수 없다!

나는 영원 그 자체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모든 것은 제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내 딸아, 네 ‘예’에 감사한다. 네 ‘예’는 바다 속 바위처럼 굳건하다. 네 ‘예’는 나의 ‘예’이며, 아무도 그것을 네게서 빼앗을 수 없다.

P. 헤이더: 이에 대해 레겐스부르크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은 일기를 검토한 후, 이것이 구세주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인 만큼 내가 계속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지금은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세주: “네 사랑은 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나: “주님, 지금 제가 주님과 진심으로 나눈 모든 대화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분명하고 명확하며, 제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임을 압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충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미덕들과 이미 주셨던 미덕들로 말입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네가 쓴 글이 내게 큰 기쁨을 준다.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네가 필요한 만큼 은혜를 쏟아 부어 주마. 내가 네게 주게 될 것을 건딜 수 있도록, 네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마.”

나: 구세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감사합니다. 나의 큰 사랑이신 분, 감사합니다. 지금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찬미합니다. 아멘.”

18시 30분,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9월 18일 - 금요일

집에서,

오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기도했습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기도!

성상의 상처를 공경하고, 원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뒤, 구세주와 하나가 됨.

1992년 9월 20일 일요일

집에서 오전 7시 45분부터 8시 50분까지 기

도 모임!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받게 될 성혼은 아플 것이다. 이 고통은 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너는 겸손해질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만하임의 사제인 부란 신부가 너에게 말한 것은, 네가 스스로 느꼈듯이, 진실이 아니다. 네 몸에서 흘러나올 피는 내 피다. 그 신부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네게 써 내려가게 하는 말을 믿어라. 나는 네 영혼의 인도자다.”

나: “신부님과 대화를 나눈 후, 몇 시간 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그 통증은 나의 고통이다. 사제가 거짓말을 할 때면, 너는 그 고통을 더 심하게 느낄 것이다.”

나: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는 침묵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야 그분이 당신을 그렇게 모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구세주: “내가 원할 때 네가 말할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성체에 당신께서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실제로 육신과 피, 몸과 영혼,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제들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구세주: “너는 빛이 될 것이다. 내 딸아, 한 가지 더 적어 두어라. 너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성혼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라. 나를 사랑하라,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든다. 내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더 인내해라. 사랑이 네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할 때마다 네게 사랑을 베풀어 주리니, 적절한 때를 정하는 것은 내 몫이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너를 시기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과는 특히 잘 지내야 한다.”

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님?”

구세주: “그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침묵해라. 그러면 그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 “네, 사랑하는 예수님, 잘 알겠습니다.”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3시 30분, 묵주기도와 묵상.

15시 30분, 집에서 파테르 피오 신부의 시복을 위해 묵주기도와 다른 기도들을 드렸다.

18시 30분,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미사가 끝날 무렵, 선교사 신부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했고, 큰 고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92년 9월 21일 - 월요일

오전 8시 15분부터 9시 45분까지 기도

모임!

저: “어제 저녁 미사 끝에 선교사가 한 주교와 케센하이머 신부님이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제에게서만 성체를 영하고자 하고 평신도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오류에 빠져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저를 아프게 하며 불안에 빠지게 했습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미사가 끝난 후 제가 신부님이 진실을 말씀하셨는지 여쭙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가 성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나는 성체를 사제의 성별된 손을 통해 영접하기를 원하며, 이를 요구한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올바른 길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 딸아, 비록 네가 홀로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라.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내 딸아.”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18시 30분경, 붉은 옷을 입고 묵주기도와 미사를 드렸습니다.

20시 00분 기도 모임.

1992년 9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45분

까지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하라! 네게 주어질 성흔이 곧 나타날 것이다. 내가 시간을 다시 단축했다. 준비하라, 내 딸아.”

나: “사랑하는 하느님, ‘곧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완전히 다른 것을 기록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나: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세주: “네게 닥칠 모든 일.”

나: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세주: “내 사랑으로 알 수 있을 거야, 내 딸아.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받아들여야 해.”

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도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 “주님, 제가 얼마나 더 써야 하나요?”

구세주: “조금만 더, 내 딸아. 조금만 더 써라!” 나: “네, 주님.”

구세주: “너는 아직 시험을 받고 있구나.”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왜 울고 계십니까? 제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너희 앞에 위협이 닥쳐오고 있다. 유럽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영혼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너도 많은 이를 위해 헛되이 고통받을 것이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혼을 잃는 것은 나에게 큰 고통이다.

기도하라, 내 딸아. 그들이 내 심판 앞에 섰을 때, 다시 한 번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으니 깊은 회개를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더 주리라. 지옥은 잔혹하구나, 내 딸아.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세주: “너는 나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8시 30분경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가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23일 - 수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집에서

나: “평소와는 달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오늘은 성전에 가지 마라. 내가 네 성전이다.”

나: “이걸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적어라.”

나: “회사 소풍이 생각났어요.”

구세주: “거기에 가야 한다. 하지만 부디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면 되는 건가요?”

구세주: “네가 나를 부르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내 딸아, 네가 겪는 고통은 사랑으로 견뎌내야 해.”

구세주: “그 말을 전에도 한 번 하셨잖아요.”

나: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성수조차도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치료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 “의사들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세주: “그들은 네 동의를 필요해.” 나: “만약 그들이 동의를 얻으면요?”

구세주: “그래도 그들은 너를 도울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러면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너는 죄인들을 위해 고통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혼란에 빠지거나 충분한 믿음과 인내심을 갖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구세주: “그 모든 것을 너는 끊임없이 나에게 바치고 있구나.”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 가슴이 또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구세주: “그것은 내 사랑의 타오르는 불꽃이다. 나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다.”

나: “오늘 아침 내내 정말 행복했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마치 사제처럼 딱 맞는 말들이 저절로 나왔어요.”

구세주: “내 딸아, 그건 나였단다. 네 예수.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나: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에요.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곤 하죠. 제 깊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소중한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어요.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사랑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나: “주님, 제가 벌써 네 시간 동안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너무 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휴가가 더 길지 않은 게 아쉽네요. 제가 휴가를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적어 두어라. 내 소원을 하나 들어다오.”

나: “오, 주님, 소원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느님, 제가 어떤 소원을 들어드려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저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제 마음은 떨리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리고 경건하게 ‘주님의 천사’와 ‘주님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면 종종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나는 다시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다. 나: “주님, 제가 주님의 어떤 소원을

들어드려야 할까요?”

나는 침묵 속에 머물렀으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른 영이 끼어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무엇을 써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나는 네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주님은 내 안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이 소원도 주님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누가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까? 불타는 혀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며,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시기에 저는 주님께 제 자신을 바칩니다.”

구세주: “네가 내게 기쁨을 주었으니, 내가 너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리라.” 구세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구세주님과 함께한 네 시간 반은 마치

번개처럼 짧고,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야 누군가가 교회에서 한 시간조차 버티기 힘들다고 투덜대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지 그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19:00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9월 24일 - 목요일

8시 30분 ~ 9시 45분: 일체화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하라. 내가 네가”

나는 내가 혼란스러워진 줄 알았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혼란스럽지 않다. 내가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한다. 네 모든 어려움을 내게 맡겨라.”

나는 고통스럽게 울며 구세주께 나의 어려움을 맡겼다. 내 안의 문제들을 털어내고 구세주께 드렸다. 믿을 수 없게도,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구세주: “보아라, 내 딸아, 너는 항상 네 어려움을 내게 맡겨야 한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저는 특정한 이유로 교회에서 징조를 구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게 그 징조를 주마.

네가 성흔을 받게 될 것임을.”

나: “주님,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볼 수 있을까요?”

구세주: “다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나: “언제요?”

구세주: “준비해 두어라, 내 딸아.”

나: “주님, 이것이 성흔을 받을 징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그것은 네게 일어날 것이다.”

나: “그때 저는 고통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낄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안심하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18:30 로사리오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9월 25일 금요일

휴가의 마지막 날. 기도 모임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내가”

나는 즉시 말을 끊고 물었다:

“하지만 제발, 주님이신지 알게 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나야, 네 예

수다.” 나: “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세주: “네 속죄의 고통을 시작하고자 한다. 준비하라. 때가 이미 왔다.” 나: “지금 회사 소풍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세주: “회사 소풍에 가야 한다.”

나: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일해야 하는데, 제 동료가 지금 아파요.” 구세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나: “주님, 속죄의 고통이란 두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네게 새겨질 상처 자국을 말하는 것이다. 네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다.”

구세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기록하라, 내 딸아, 너는 다른 미덕들도 받게 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어떤 것들입니까?”

구세주: “고통을 견디기 위한 인내. 내가 너에게 내 빛을 주리니, 맹인들도 볼 수 있게 하리라. 너는 치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적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적어라. 너는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귀한 피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쳐라. 그것이 영혼들을 위한 가장 큰 구원의 수단이 될 것이다. 내 귀한 피가 네 상처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내 딸아,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나는 네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다. 네 고통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기쁨과 사랑을 네게 주겠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너는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나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나: “나의 구세주님, 제가 또 무엇을 써야 하나요?”

구세주: “내 딸아, 혁명이 올 것이다. 유럽에서는 정치인들이 몰락할 것이다. 기근은 닥쳐올 중대한 재앙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될 것이다.”

구세주: “징벌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누가 그 징벌을 원합니까?” 구세주: “거짓의 아버지를 원했던 사람들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속죄의 고통이 시작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에게 충실하게 남아라.”

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겠습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8시 30분, 로젠크란츠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1992년 9월 26일 — 토요일

집에서 - 기도 - 일체감 -

구세주: “네가 흘리는 눈물은 바로 나의 눈물이다. 너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 내 딸아,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네가 쓴 모든 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증거이다. 올바른 사제가 이를 공개할 때까지 잘 간직해 두어라. 그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네가 아직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항상 기뻐하라.”

나: “고통을 겪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나요?” 구세주: “네가 받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게 운유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세주: “지금 네게 베풀어 주마, 적어 두어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세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너를 축복한다. 나는 모든 영혼을 이 축복에 포함시킨다.”

16:33 - 19:45 - 기도 - 고해성사 - 교회에서 붉은 예복으로 거행된 미사.

1992년 9월 27일 - 일요일

새 시간 기준으로 오전 6시 30분 - 8시 15분.

(오늘 밤 시계가 한 시간 뒤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나: “네,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님, 사랑하는 예수님.”

구세주: “어제 네 남편 곁에 있던 것은 여러 마리의 부정한 영들이었다.”

나: “주님, 심장마비인 줄 알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성수를 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그러자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바로 그 후, 그는 마치 꿈속에서 가끔 그러듯이,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 있는 그 흥측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운전 중에도 이미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막 마당으로 차를 몰고 들어온 참이라 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었지만,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구세주: “내가 그 발작들을 허락했다. 네 남편은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나: “그가 일요일에 교회에 다니는데,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구세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 딸아, 모든 것을 나에게 말기세요.”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보그트 신부님은 저를 도울 수 없습니다. 어제 고해성사 후 제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은 제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모든 책마다 다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연합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

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보그트 목사님께도 상처 자국에서 흘러나올 피는 구세주의 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하임의 부론 신부님처럼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 "제발 그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제가 뭔가 잘못 썼을지도 모르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네 몸의 다섯 상처 자국에서 흘러나올 피는 내 피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비밀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다. 내 딸아,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모두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 그대로일 것이다. 앞으로 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 보그트 신부님이 네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네 영적 지도자가 될 필요가 없겠지. 내 사랑하는 딸아, 믿어라. 내 뜻은 네게 닥칠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 "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경험이 부족합니다."

사탄이 사나운 개처럼 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자 하나님이신 분,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탄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을 테지만,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옳게 썼다. 네 영혼은 내 역사를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내 보호 아래 있다." 나: "그리고 성모님께서요?"

구세주: "내가 있는 곳에 그분도 계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세주: "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요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어느 세기에도 지금처럼 눈먼 자들이 이토록 많았던 적은 없었다. 그릇된 교리가 영혼들을 눈멀게 했다. 그릇된 교리는 뱀의 독이다. 이 독에 대한 해독제는 오직 나뿐이다, 내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 가지 더 적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 "사랑하는 하느님, 무엇을요?"

나: "주님이자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제 자유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당신과 떨어져 있게 하지 말아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 자유를 당신께 드렸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너는 오직 내 안에서만 자유로워!"

나: "네, 주님, 이제 이해했어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를 축복하노라."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0시, 붉은 예복 미사.

13시 00분, 묵주기도와 묵상. 16시 00분부터 성경을 읽었다.

대략 17시경, 헤드비그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크게 충격에 빠뜨린 "그녀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보그트 신부님이 미사 봉사자들, 모두 소년들인,을 뒤에서 알몸으로 사진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성물실에 걸려 있고, 한 소년의 개인 앨범에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고 경악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보그트 신부님이 바거제 호수에서 한 미사 봉사자의 가슴을 빨고 귀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보그트 신부님이 아이들을 제때 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부님과 너무 오래 함께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은 주변 지역 전체의 미사 봉사자 대부분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이 매우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고, 그분이 훌륭한 사제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헤드비그는 지타에게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헤드비그가 떠난 후, 저는 작은 묵주 구슬로 '산크투스'를 50번 바쳤고, 큰 구슬로는 대천사 미카엘 기도, 마니피카트,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주님의 기도, 아베 마리아, 글로리아 파트리, 그리고 원수를 위한 기도와 축귀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당장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사탄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1시 00분에 저는 비엔탈로 가서 마리오나와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마리오나에게 H. 보그트 신부님에 대

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92년 9월 28일 - 월요일

10시 의사실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적어 두어라. 보그트 목사님이 떠나실 것이다.” 나: “성 레온-로트에서요?”

구세주: “내 딸아, 무언가가 네게 다가오고 있다!” 나: “주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세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역사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저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언제나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 어떻게요?”

구세주: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리라. 내 딸아, 적어 두어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

구세주: “네가 나로부터 받는 고통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너는 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네가 원한다고 해도 내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네, 주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을까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를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목주 기도는 18시경, 미사는 18시 30분경에 시작되는데, 저는 빨간 옷을 입고 두 예배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20시 기도 모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리가 벌써 꽉 찼습니다. 마지막에 도하트 신부님께 보그트 신부님에 대해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고해성사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을 돕고 싶는데 그분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여쭙었습니다.

도차트 신부님께서서는 제가 보그트 신부님과 그 상황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그트 신부님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세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하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지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도하트 신부님께서 권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후, 롤란드 슈미트 씨가 우리 집에 머물며 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정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 일기를 몰래 읽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이것이 죄이며,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부터는 일기를 더 조심스럽게 다룰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내용을 숨기고 싶지는 않지만,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먼저 신부님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롤랜드는 이미 로텐베르크의 요한 신부님의 책들을 우크라이나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구세주께서 “이 책들은 책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책들입니다. 저는 이미 요한 신부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께서서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롤랜드는 요한 신부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1992년 9월 29일 - 화요일

오전 10시, 의사실 기도 모임!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기록하라: 너는 보그트 신부에게 가지 말라. 무언가를 행할 시기는 내가 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이의 마음을 알고 있다. 사제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라. 사탄은 지금 특히 강해져서 많은 사제들이 그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보그트 신부에 대해 떠도는 모든 이야기는 내게 말겨라.”

나: “로달벤을 생각했었어요!

10월 1일에 하늘의 표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배로운 피가
송배될 것입니다.

구세주: “너는 감당하기 힘들어.”

나: “그럼 이번에는 로달벤에 가지 않을게요.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요.” 구세주: “그래, 써라, 내 딸아.”

나: “어제 기도 모임에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왜 오늘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셨어요.”

구세주: “네가 말해야 할 때, 내가 네게 그 말을 전해 주겠다. 사람들은 지금 많이 기도해야 한다. 이 시간을 기도하는 데 활용하라.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내 딸아, 너희는 어제 잘 기도했다. 하늘이 너희와 함께 기뻐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기도하러 올 것이다. 내 딸아, 네가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 네 수고에 노력에 감사한다.”

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지금 제 가슴 속에 불타는 듯한 열기를 느낍니다. 정말 아름다운 느낌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은 나의 사랑이다.”

나: “주님이자 하나님으신 분,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너는 많은 것을 견뎌내고 있구나, 내 딸아.”

나: “제가 많은 것을 견뎌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그것은 네가 많은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뜻이다.” 나: “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오, 내 딸아, 속죄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나: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구세주: “너는 이미 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있다. 네가 받게 될 거룩한 다섯 상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저에게 상처 자국을 새겨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목마르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제 갈증을 해소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갈증을 해소해 주리라. 정해진 때가 왔다. 내 딸아, 나도 너와 함께 목마르다!”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8:00 로사리오와 성체성사 (로트).

1992년 9월 30일 - 수요일

10시, 의사실에서 기도 연합!

어제 하루 종일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 구세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걱정과 문제가 없는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하느님과 함께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제게 임하신 당신의 나라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밖의 이 음산한 날씨조차도 저에게는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에는 증오가 없으며, 그 안에는 추한 것이 없습니다. 오, 나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징조입니까?” 구세주: “네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은 네가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전조이다.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그러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다. 둘 다 좋은 것이다.”

나: “글을 쓰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구세주: “쓰거라. 죄는 크고 무거워, 이미 지상의 한계를 넘어섰다.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딸로서 혼자가 아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너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는 극소수일 뿐이다.

내 딸아, 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그것은 네 공로가 아니라 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해 온 모든 일을 나는 매우 소중히 여기며, 십자가의 길이 끝날 때 보상해 주겠다. 네가 끝까지 견뎌낸다면 네 상은 클 것이다.”

나: “만약 제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요?”

구세주: “너는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나: “오, 나의 사랑,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구세주: “모든 이가 그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속죄의 영혼이다.”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정오, 나는 성당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구세주: “네 온 마음을 내게 바치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 온 마음을 드립니다.” 구세주: “네가 내 마음에 든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저를 보시지만 저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나와 함께 걷는 이 길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희생이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주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세주: “그들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말이다. 그들은 너처럼 나에게 마음을 바치지 않으니.” 나: “저와 함께 일하는 베로니카를 위해 은총을 청했습니다.”

구세주: “그녀에게도 나에게 마음을 바치라고 전해라.”

나: “네, 주님, 그녀에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자 자애로운 아버지.”

18:00 로사리오와 성체성사. 페르디난트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1992년 10월 1일 - 목요일

10시 45분, 의사실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나는 네가 다섯 상처에 대해 엄격한 침묵을 지키기를 바란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구세주: “하지만 그들은 네가 언제 그 상처를 받게 될지는 모른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도 모르는데요.”

구세주: “하지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나: “그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겠습니다. 제발, 침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구세주: “오늘 밤에 네게 성흔이 새겨질 것이다.” 나: “그럼 내일 일하러 가야 하나요?”

구세주: “아니.”

나: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그것이 나타나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오늘 밤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주신 표징을 받게 될까요? 사실 주님께서서는 이미 저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타오르는 사랑과,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기분 좋은 평온과 평화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밤 상처 자국이 새겨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발 저를 목마르게 하지 말아 주세요. 마치 내면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쓴 내용이 내 마음에 든다. 나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를 바꿀 수도 있다. 내 딸아,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오후 3시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견뎌야 할 고통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치라. 내 딸아, 한 마디 한 마디 정확히 기록해라.

오늘 밤 네가 겪게 될 고통은 극심한 고통일 것이다. 너는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

나: “주님, 아직 저와 함께 계십니까?”

구세주: “그래, 나는 아직 네 곁에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예수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제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구세주: “고통은 ‘사랑’을 뜻한다.”

나: “주님,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구세주: “나와 함께라면, 그렇다.”

나: “제발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세주: “네가 나와 함께 있다면,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 딸아, 네가 고통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많은 사랑을 주리라.”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18:00 로사리오와 성체성사 (로트).

2019년 10월 2일 금요일 - “예수 성심”

10시 의사실 기도 모임 I

나: “주님,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즉시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젯밤 내게 이런 말을 속삭였던 것이 바로 그 불결한 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불결한 영이 있을 수 없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은 하느님이시거나 불결한 영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마음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마음을 온전히 오직 당신만을 위해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구주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따뜻함과 평안을 느꼈고, 구주가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다.

구세주: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적어 두어라. 나는 상처 자국을 드러내는 시기를 다른 때로 미뤘다. 그것이 내 뜻이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또 하나의 시련이었다. 포기하지 마라. 모든 것은 제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것이 부정한 영이라고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구세주: “너희는 모두 그런 일에 너무 성급하다. 너희는 보이는 것만 믿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나: “하지만 ‘다른 것’이란 무엇입니까?”

구세주: “악마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알 수 없다. 내 딸아,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나는 각 사람의 마음이 내가 그와 함께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알고 있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그 말은 제가 이 고난을 감당할 만큼 착하지 않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구세주: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내 딸아. 모든 것은 내 뜻에 달려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분명 성흔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오늘은 성심 금요일이니, 제발 주님의 마음속에 머물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사랑의 샘,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속에 머물고 싶어요.”

구세주: “내 딸아, 네 마음은 이제 나의 마음이야. 너는 내 안에 있단다. 나를 사랑해라, 내 딸아.” 나: “주님, 전 이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안에 서도 사랑의 불꽃을 느낍니다. 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마음속으로 ‘오늘은 축복이 없나 보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세주: “아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딸

아.” 그리고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8시,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보그트 신부님과 페르디난트 신부님께서 함께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1992년 10월 3일 -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집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라. 네가 쓰는 모든 것은 인쇄될 것이다. 네가 쓰는 모든 것은 나의 작품이다.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심하지 마라, 내 딸아. 그렇게 하면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용서를 구합니다. 이 가련한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제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마치 길을 잃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매일 주님과 하나 되어 있고 매주 고해성사를 보러 가지만 말입니다.

모두가 저보다 낫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하시고, 그 사랑 없이는 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저는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간구합니다.

이 사랑은 마치 중독이나 아편과 같습니다.

의학이나 세상의 부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종종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세속적인 것들은 모두 제게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 당장 천국에 있지 않은가?’

당신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심을 깨달았기에, 다른 사람들도 이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은 크다. 나는 네게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은 확고하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내 심판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들이 뿌린 씨앗이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딸아, 네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라.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무엇이 내게서 온 것이고 무엇이 불결한 영에게서 온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네가 먼저 나와 네 어머니께 기도해 준 것이 기뻐다. 네가 그녀에게 한 말은 모두 내가 들었노라. 그녀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그녀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더 신뢰하라.”

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많이 기도하고, 어머니를 더 신뢰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제게 내려 주십시오.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자 여왕이시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진실하구나. 네 모습이 참 마음에 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마.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를 축복하노라.”

구세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전 10시 15분: 플랑크슈타트에서 온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월요일에 제 기도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는 밤에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현재 그는 아직 개신교 신자입니다. 저는 그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스튜노이부르크에 있는 스위트베르트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16시 30분부터 19시 50분까지 로트(Rot)의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도와드릴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죄를 받아 감사했고, 신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점도 이해했습니다.

그 후 그를 위해 묵주기도를 전부 바쳤다.

21시 15분에 레겐스부르크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과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8일 후 오늘 오후 6시 30분경 레겐스부르크에서 그분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저와 제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차자, 저는 즉시 신부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92년 10월 4일 - 일요일

오전 7시 30분 - 오전 9시

기도 연합!

먼저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 다시 부엌에서 연합 기도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구세주께서 제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글을 쓰기를 바란다. 내가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아첨하는 사랑이 아니다.”

나: “그걸 써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써라. 오늘 네가 기도한 모습이 내 마음에 들었다. 계속 그렇게 해라. 네가 게브하르트 신부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쁘다. 그것도

나의 소원이다. 나는 다시 그분을 통해 네게 말할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내 딸아, 네가 이 고통을 받아들인 것이 특히 기쁘다. 시련은 끝나가고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 딸아, 지금까지처럼 계속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네가 더 많이 구할수록, 나는 더 많이 줄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몇 달째 어깨와 왼쪽 팔에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연고도, 소금물 목욕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통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구세주: “병원에서도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이 고통은 나로부터 온 것이다. 이는 네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의 전조이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네 건강을 나에게 바쳤다.”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소서.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이 고통을 주님께 바칩니다.”

구세주: “내 딸아, 앞으로 닥칠 폭풍은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라. 많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미지근해졌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더 선호했지만, 세속적인 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자연은 죄인들에게 저항하고 있다. 내 딸아, 곧 창궐할 큰 질병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질병은 여러 나라를 휩쓸 것이다. 이 질병에 대한 약은 없다. 이 질병은 부자와 가난한 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휩쓸어 간다.

이 병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닥칩니다. 그 누구도 이 병을 피하거나 혹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이 병은 지상의 많은 나라들을 휩쓸어 갈 것입니다. 나: “이 병에 이름이 있나요?”

구세주: “새로운 질병이다. 아직 이름은 없지만, 곧 이름이 붙을 것이다. 내 딸아, 너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나: “이 내용을 제 기도 모임에서 읽어드려도 될까요?”

구세주: “이 책은 최대한 빨리 써야 해. 그래야 그들이 모두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네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기 마련이고,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고 뿌리가 없소.”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전 10시, 로트에서 미사가 있었는데, 교회에 온 사람은 적었습니다.

13시 00분, 묵주기도와 기도회.

1992년 10월 5일 - 월요일

오전 9시, 의사실에서 기도 모임!

오늘 아침부터 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이 두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 고통을 덜어주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영혼들을 위해 속죄해야 할 것이 많구나.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네 시력을 필요로 한다.” 나: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너는 한동안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럼 제가 눈이 멀게 되는 건가요?” 구세주: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오, 주님,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겠네요.” 구세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네, 주님, 제 시력을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성흔이 새겨지기 전일까요, 아니면 새겨진 후일까요? 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원할 때 일어날 것이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께서 원하실 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세주: “너에게 돌봐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 “이 실명은 오래 지속될까요?” 구세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 “하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군요.” 구세주:

“그것은 네 성장을 위한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실 테니까요.”

구세주: “그렇지.”

나: “네, 주님, 저도 동의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
라.”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1시 45분 –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눈이 멀게 된다면 그 걱정을 제발 없애 주세요. 그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구세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

18시 00분 목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미사).

20시 00분 기도 모임!

1992년 10월 6일 - 화요일

오전 9시, 의사실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글을 써라. 내가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것이 기쁘다. 네 마음은 지금 사랑으로 가득 차 있
다. 내 딸아, 네가 ‘예’라고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이 사랑을 네게서 뺏을 수 없다. 조심하라.”

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하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지켜 주십시
오. 제가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실 때 말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소서. 제 영혼이 저항할 때에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를 사랑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의 잘못을 찾게 하소서.”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내게 속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가 그 일로 인해 슬퍼하게 될까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는 기도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신부이신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통해 오셔서, 제가 무엇을 써야 할지 알려주
소서. 주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기꺼이 쓰겠습니다. 슬퍼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자 하느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구세주: “

너에게 큰 슬픔이 닥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많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 네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들을 모두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부디 아무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나: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 말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 더 적어 두어라. 세르비
아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원수가 약해지도록 기도해라.”

나: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어제 기도 모임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꽤 강렬했습니다. 마치 내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건 바로 나였단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세주: “네게 닥칠 슬픔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내 자녀들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 좋은 상으로 보상해 주리라.”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7일 - 수요일

오전 8시 15분, 의사실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너는 나의 보배, 나의 딸이다.”

나: “주님, 전 이 말을 이미 한 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세주: “그렇게 써라. 네 근심은 나의 근심이니, 내 딸아.” 나: “제 영혼이 주님께서 보석이라고 부르실 만큼 순수한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제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영혼의 순결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구세주: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실명은 이런 것이다. 너는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눈으로 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력은 세속적인 것이지만, 마음의 빛은 천상의 것이다. 이 빛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의사도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네가 보게 될 모든 것을 내가 이야기해야 한다.

한 사제가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 말할 것이다. 내 딸아, 확신하라. 마음의 빛은 육신의 시력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나: “주님, 이제 더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게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나: “네,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네 손이 필요하구나. 네 손으로 영혼들을 치유할 것이다.” 나: “오, 주님, 저에게 이 모든 일을 하시다니.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의 구원이 걸린 일이라면, 제 손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서 더 필요로 하던 것이었다. 치유는 내가 원할 때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그리고 나를 믿어라.”

19:00,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8일 - 목요일

아카이브 오전 10시 15분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적어라. 지금은 고요함이 있구나.”

나: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여, 무엇을 써야 합니까?” 구세주: “내 딸아,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써라.”

나: “네, 주님.”

구세주: “네가 받게 될 상처 자국들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올 것이다.” 나: “그러면 그 상처 자국들이 언제 올지, 날짜나 시간을 알 수 없는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그건 내가 정한다.”

나: “그럼 저는 여전히 레겐스부르크에 갈 수 있나요?”

구세주: “그래, 아직 갈 수 있다. 내 딸아, 사탄은 지금 매우 강하다. 네가 굳건히 버티면 그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네가 글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이다. 내 딸아, 힘내서 계속 글을 써라. 그는 곧 패배할 것이다. 내 자녀들 모두가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다.

내 자녀들 중 이 소수가 그를 물리칠 것이다.” 나: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조금 더 적어라. 당국이 너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라. 내 딸아, 네가 쓴 내용을 고수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그 거물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 거물들은 가려질 것이다.”

나: “그 ‘위대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세주: “정치인들과 종교들이다. 그들이 이 세상의 혼란에 책임이 있다. 적어라,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가라고 명한다. 그에게 미사 전에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전해라. 그에게 그렇게 말하라. 내가 내가 요구한 것이라고.”

나: “만약 그가 할 수 없다고 하면요?” 구세주: “그건 내게 맡겨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언제 그분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세주: “오늘 당장 그분께 가거라.”

나: “그분께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전해야 하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 오늘 당장 그에게 가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로트로 가는 길에 그 사제를 위해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16시 10분, 로트 성당에서 잠시 기도했다.

16시 15분, 보그트 신부님 댁에 도착했다.

나는 구세주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바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사 봉사자들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분들이라면 구세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내면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고, 그 표정에서도 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축복을 청한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보그트 신부님께서는 미사 마지막에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치셨습니다.”

1992년 10월 9일 - 금요일, 의사

실에서 열린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주의해라. 네가 쓴 모든 것을 어떤 주교에게도 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은 잘 간직해야 한다. 그 책이 인쇄되면 그때 그들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딸아, 게바르트 하이터 신부님이 내가 그에게 전해 주는 말씀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제가 보그트 신부님께 한 말이 옳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시작은 좋다.”

나: “구세주님께, 게바르트 헤이터 신부님께 전해야 할 말씀이 더 없으신지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물론이지! 그에게 말해라.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나의 뜻이었다고. 또 한 가지 더 전해라. 그의 사역이 내 마음에 든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은 훌륭하다.”

나: “주님이자 하나님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에게 모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 가슴 속에 무언가 아주 뜨거운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상상한 것일까요?”

구세주: “아니야, 내 딸아. 그것은 나의 은총이다. 너를 위한 나의 선물이야.”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니 분명 무언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주님, 사제들을 위해 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한 말이 내 마음에 든다.

사제들을 위해 많은 사랑을 청해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적어 두어라.”

나: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평소보다 제 안에 그 사랑이 더 가득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저에게 이토록 많은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저를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10일 토요일

07:00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집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잘 들어라, 내 딸아. 나는 너에게 일정 기간 동안 치유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겠다.” 나: “아니요,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제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째로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구세주: “내가 너 안에서 치유하리라.”

나: “주님, 하나님, 그것이 어떤 치유일까요?”

구세주: “그 치유는 내게 맡겨라. 너는 나의 도구다, 내 딸아. 적어 두어라, 내 딸아. 네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내게 매우 마음에 든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엄격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나: 구세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1992년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 다뉴브—레겐스부르크 간 주차장, 캠핑카 안에서 “살베 레지나. 기도 연합!”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나: “구세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한동안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세주: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계시다. 그 후 그분은 내게 오실 것이다.” 나: “그럼 제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구세주: “그래.”

나: “그건 제게 정말 큰 아픔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럼 저는 더 이상 신부님이 없겠네요.”

구세주: “내 딸아, 로트(Rot)로 한 분이 오실 것이다.”

1992년 10월 4일 - 일요일

오전 7시 30분 - 오전 9시

기도 모임!

먼저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

그 후 다시 부엌에서 연합 기도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나는 구세주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글을 쓰기를 바란다. 내가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아침하는 사랑이 아니다.”

나: “그걸 써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써라. 오늘 네가 기도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계속 그렇게 해라. 네가 게브하르트 신부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쁘다. 그것도 나의 소원이다. 나는 다시 그분을 통해 네게 말할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내 딸아, 네가 이 고난을 받아들인 것이 특히 기쁘다. 시련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 딸아, 지금까지처럼 계속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네가 더 많이 구할수록, 나는 더 많이 주겠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몇 달째 어깨와 왼쪽 팔에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연고도, 소금물 목욕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통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구세주: “병원에서도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이 고통은 나로부터 온 것이다. 이는 네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의 전조이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네 건강을 나에게 바쳤다.”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소서.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이 고통을 주님께 바칩니다.”

구세주: “내 딸아, 앞으로 닥칠 폭풍은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라. 많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미지근해졌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더 선호했지만, 세속적인 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자연은 죄인들에게 저항하고 있다. 내 딸아, 곧 창궐할 큰 질병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질병은 여러 나라를 휩쓸 것이다. 이 질병에 대한 약은 없다. 이 질병은 부자와 가난한 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휩쓸어 간다.

이 병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닥칩니다. 그 누구도 이 병을 피하거나

혹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이 병은 지상의 많은 나라들을 휩쓸어 갈 것입니다. 나: “이 병에 이름이 있나요?”

구세주: “새로운 질병이다. 아직 이름은 없지만, 곧 이름이 붙을 것이다. 내 딸아, 너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나: “이 내용을 제 기도 모임에서 읽어드려도 될까요?”

구세주: “이 책은 최대한 빨리 써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모두 읽을 수 있다. 지금 네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는다.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이며 뿌리가 없느니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전 10시, 로트에서 미사가 있었는데, 교회에 온 사람은 적었습니다

13시 00분, 묵주기도와 기도회.

1992년 10월 5일 - 월요일

오전 9시, 의사실에서 기도 모임!

오늘 아침부터 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 이 두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 고통을 덜어주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영혼들을 위해 속죄해야 할 것이 많구나.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네 시력을 필요로 한다.” 나: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너는 한동안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그럼 제가

눈이 멀게 되는 건가요?” 구세주: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오, 주님,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겠네요.” 구세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다.”

나: “네, 주님, 제 시력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성흔이 새겨지기 전일까요, 아니면 새겨진 후일까요? 제가 그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은 내가 원할 때 일어날 것이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께서 원하실 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세주: “너에게 돌봐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 “이 실명은 오래 지속될까요?” 구세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 “하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군요.” 구세주:

“그것은 네 성장을 위한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실 테니까요.”

구세주: “그렇지.”

나: “네, 주님, 동의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 구세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1시 45분 -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눈이 멀게 된다면 그 걱정을 제발 없애 주세요. 그 상황이 어떨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구세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18시 00분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붉은 미사).

20시 00분 기도 모임!

1992년 10월 6일 - 화요일

오전 9시, 의사실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글을 써라. 내가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것이 기쁘다. 네 마음은 지금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딸아, 네가 ‘예’라고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이 사랑을 네게서 뺏을 수 없다. 조심하라.”

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하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지켜 주십시오. 제가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실 때 말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소서. 제 영혼이 저항할 때에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를 사랑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의 잘못을 찾게 하소서.”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내게 속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가 그 일로 인해 슬퍼하게 될까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는 기도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신부이신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의 마음을 통해 오셔서, 제가 무엇을 써야 할지 알려주소서. 주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기꺼이 쓰겠습니다. 슬퍼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자 하느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구세주: “

너에게 큰 슬픔이 닥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많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 네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들을 모두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부디 아무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나: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 말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 더 적어 두어라. 세르비아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원수가 약해지도록 기도해라.”

나: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어제 기도 모임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꽤 강렬했습니다. 마치 내면이 타는 것 같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건 바로 나였단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세주: “네게 닥칠 슬픔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내 자녀들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 좋은 상으로 보상해 준다.”

나: 구세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8시,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7일 - 수요일

오전 8시 15분, 의사 휴게실에서 기

도 모임!

구세주: “너는 나의 보배, 나의 딸이다.”

나: “주님, 전 이 말을 이미 한 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세주: “다시 써라. 네 근심은 나의 근심이니, 내 딸아.” 나: “제 영혼이 주님께서 보석이라고 부르실 만큼 순수한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 “제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영혼의 순결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구세주: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실명은 이런 것이다. 너는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눈으로 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력은 세속적인 것이지만, 마음의 빛은 천상의 것이다. 이 빛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의사도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네가 보게 될 모든 것을 네가 이야기해야 한다.

한 사제가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 말할 것이다. 내 딸아, 확신하라. 마음의 빛은 육신의 시력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나: “주님, 이제 더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게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나: “네,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네 손이 필요하구나. 네 손으로 영혼들을 치유할 것이다.” 나: “오, 주님, 저에게 이 모든 일을 하시다니.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의 구원이 걸린 일이라면, 제 손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서 더 필요로 하던 것이었다. 치유는 내가 원할 때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내 딸아.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19:00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8일 - 목요일

아카이브 오전 10시 15분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적어라. 지금은 고요함이 있구나.”

나: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여, 무엇을 써야 합니까?” 구세주: “내 딸아,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써라.”

나: “네, 주님.”

구세주: “네가 받게 될 상처 자국들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올 것이다.” 나: “그러면 그 상처 자국들이 언제 올지, 날짜나 시간을 알 수 없는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그건 내가 정한다.”

나: “그럼 저는 여전히 레겐스부르크에 갈 수 있나요?”

구세주: “그래, 아직 갈 수 있다. 내 딸아, 사탄은 지금 매우 강하다. 네가 굳건히 버티면 그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네가 글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이다. 내 딸아, 힘내서 계속 글을 써라. 그는 곧 패배할 것이다. 내 자녀들 모두가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아

니다. 이 소수의 내 자녀들이 그를 물리칠 것이다.”

나: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조금 더 적어라. 당국이 너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라. 내 딸아, 네가 쓴 내용을 고수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그 거물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 거물들은 가려질 것이다.”

나: “그 ‘위대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세주: “정치인들과 주교들이다. 그들이 이 세상의 혼란에 책임이 있다. 적어라, 내 딸아. 나는 네가 보그트 신부님을 찾아가기를 요구한다.

그에게 미사 전에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말하라. 그에게 전해라, 내가

내가 요구한 것이라고.”

나: “만약 그가 할 수 없다고 하면요?” 구세주: “그건 내게 맡겨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언제 그분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세주: “오늘 당장 그분께

가거라.”

나: “그분께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전해야 하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 오늘 당장 그에게 가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로트로 가는 길에 그 사제를 위해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16시 10분, 로트 성당에서 잠시 기도했다.

16시 15분, 보그트 신부님 댁에 도착했다.

나는 구세주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바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사 봉사자들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분들이라면 구세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내면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고, 그 표정에서도 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축복을 청한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보그트 신부님께서서는 미사 마지막에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치셨습니다.”

1992년 10월 9일 - 금요일, 의

사실에서 열린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주의하라. 네가 쓴 모든 것을 어떤 주교에게도 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말로 전해줄 수는 있지만, 글은 잘 간직해야 한다. 그 책이 인쇄되면 그때 그들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딸아,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이 내가 그에게 전해 주는 말씀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제가 보그트 신부님께 한 말이 옳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시작은 좋다.”

나: “구세주님께, 게바르트 헤이더 신부님께 전해야 할 말씀이 없으신지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물론이지! 그에게 말해라.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나의 뜻이었다고. 또 한 가지 더 전해라. 그의 일이 내 마음에 든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훌륭하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감사합니다. 그분께 모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 가슴 속에 무언가 아주 뜨거운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상상한 것일까요?”

구세주: “아니야, 내 딸아. 그것은 나의 은총이다. 너를 위한 나의 선물이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니 분명 무언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사제들을 위해 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한 말이 내 마음에 든다. 사제들을 위해 많은 사랑을 청해라.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적어 두어라.”

나: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저는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 안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저에게 주신 이 큰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나: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10일 - 토요일

07:00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집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잘 들어라, 내 딸아. 나는 너에게 일정 기간 동안 치유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겠다.” 나: “아니요,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제 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째로 반복하셨습니다.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건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세주: “내가 너 안에서 치유할 것이다.”

나: “주님, 하나님, 그것이 어떤 치유일까요?”

구세주: “이 치유들은 내게 맡겨라. 너는 나의 도구다, 내 딸아. 내 딸아, 네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아주 든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엄격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나는 네가 지금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 나: 구세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1992년 10월 11일 - 일요일

오전 8시, 도나우-레겐스부르크 주차장, 캠핑카 ‘살베 레지나’ 안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나: 구세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한동안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세주: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계시다. 그 후 그분은 내게 오실 것이다.” 나: “그럼 제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구세주: “그래.”

나: “그건 저에게 정말 큰 아픔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럼 저는 더 이상 신부님이 없겠네요.”

구세주: “내 딸아, 로트(Rot)로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 당신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구세주: “아니,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어제 저녁에 그에게 그런 일이 닥칠 것임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또 무언가를 적어두기를 바라시나요?”

구세주: “그래, 한 가지 더 적어 두어라. 오늘 게브하르트 신부님이 네게 하는 모든 말을 잘 간직해야 한다. 의심하지 마라, 내 딸아. 게브하르트 신부님께 친절한 표정을 지어 주렴.”

나: “울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럴 때를 위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내려주겠다.”

나: “저는 13시 30분에 이곳 ‘살베 레지나’ 캠핑카에서 그분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세주: “내가 그렇게 원한 것이다. 내 딸아, 네가 게브하르트 신부님을 그렇게 좋아하니 기쁘구나. 그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전해라.”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분께 전하겠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 후 저

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게바르트 신부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캠핑카 안에서 4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그분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셔서 쓴 일기를 그분께 읽어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구세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인해 주셨고, 구세주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꼭 계속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시는 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아침 교회에서 이미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분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의 한 조각을 뜯어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카르멜회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했는데, 강론이 좋았습니다.

1992년 10월 12일 -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의사실에서 기도 모

임!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옳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이 며칠 내로 내게 올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네가 그에게 한 말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는 오늘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너를 매우 좋아한다. 너는 어제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구세주: “내 딸아, 계속 기록해라. 다음 큰 재앙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아무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 재앙은 황폐함을 남길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라. 내 딸아, 너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듣고 있습니다.”

구세주: “상처 자국이 네게 새겨질 것이다. 준비하라, 그것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 네 용기가 마음에 든다. 이것이 나의 은총이니라, 내 딸아.”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네가 많은 속죄를 해야 한다.”

나: “네, 주님, 이해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세주: “속죄의 고통은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아무도 성흔을 자랑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것을 좋아한 적이 없다. 오직 나의 사랑만이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네가 장갑을 끼지 않을 것이니 상처 자국을 자랑한다고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불결한 영이 바로 그런 말을 속삭이는 것이다.”

구세주: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내가 그에게 내 빛을 주었기에 네가 성흔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내 빛 없이는 아무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게 닥칠 모든 일을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의 성심을 통해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18:00 성체성사와 로트에서 묵주기도

20:00 기도 모임

1992년 10월 13일 -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의사실 기도 모

임!

구세주: “사랑하는 딸아, 이것을 기록해라. 네가 받게 될 성흔은 처음에는 조용히 간직해야 한다. 내가 사람들을 네게로 이끌 것이다. 네게 오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당분간 네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줄어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 “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처 자국들을 조용히 간직하겠습니다.”

구세주: “처음에는 많은 안정이 필요하네. 사람들의 소란은 너에게 해가 될 수 있단다. 내 딸아,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비해라. 나를 향한 네 사랑이 마음에 든다.

내 딸아, 한 가지 더 적어 두어라. 상처 자국은 나의 표징이며, 오직 나만이 새길 수 있다. 그 누구도 이를 훔쳐 낼 수 없다. 그 자국은 내가 원할 때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할 때까지 남을 수도 있다. 네가 받게 될 상처 자국은 내가 원할 때까지 남을 것이다. 그 상처 자국들은 특정한 크기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골고타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일치한다. 그 상처가 새겨질 때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네게 닥칠 모든 일에 인내심을 가져라. 인내심은 위대한 미덕이다.”

나: “주님,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8:00, 성체 성사와 로사리오 기도(붉은색).

1992년 10월 14일 -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의사실에서 기도 모

임!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많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많은 사랑은 많은 고통을 의미한다.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 내 딸아?”

나: “나의 큰 사랑이시여, 주님과 함께라면 네,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주님께서 제 안에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거쳐 빛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에는 구원과 희망,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시여, 저도 주님을 무척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은 사랑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더 강하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다. 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직 내 십자가를 통해서만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십자가를 사랑하라. 너희는 많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나: “지금은 제 왼쪽 팔과 어깨의 통증이 떠올랐습니다.”

구세주: “그것은 내가 짊어진 속죄의 고통이다. 어떤 고통이든 네가 원하는 만큼 자주 나에게 바칠 수 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에게 많은 것을 바쳐야 한다.”

나: “주님, 제가 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네가 겪게 될 고통들은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야.” 나: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님?”

구세주: “의사들은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 고통 없이는, 너는 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 “그 말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서 고통을 겪으신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저는 주님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고통받는 예수님이신 것이군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바로 그렇다.”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9:00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15일 - 목요일

의사실에서 기도 모임!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나: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구세주: “사랑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많은 사랑을 퍼낼 수 있습니다. 그 샘은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 누구나 원하는 만큼 퍼낼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 “오, 주님, 제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주십시오. 지금 제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구세주: “그것은 나의 사랑이다.”

나: “이 타오르는 불꽃을 최근 들어 자주 느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원하실 때 저에게 오십니다. 구세주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도 이 사랑의 불꽃을 느낍니다. 그때 저는 구세주께서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항상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나의 신부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너는 내 안에 있는 내 딸이다. 나는 너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저를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피 흘리는 고난이 시작되고 있다. 나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목이 마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사용하는 나의 도구다. 나에게 부디 충실해 주렴.”

나: “오, 주님, 제가 주님께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부디 내려 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의 은총 없이는 주님께 충실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주님께 충실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충실함이라는 미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이미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알고 싶었노라.”

나: “하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은 제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면, 주님의 살아 계신 말씀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다. 나를 더 사랑하라, 내 딸아.”

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시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19:00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16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의사실에서 기도 모

임!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중요한 일이다.” 나: “네, 나의 사랑하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겪게 될 모든 고통을, 길을 잃은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바치기를 원한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세주: “그 고통들은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아주 가까이 와 있다. 내 딸아, 준비하라. 그 고통들은 언제나 닥칠 수 있으니.”

나: “하지만 주님, 저는 지금 직장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다. 네 이성은 곧 나의 이성이다.”

나: “네, 주님,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주님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요.”

구세주: “그 말을 적어 두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겠다. 이 사랑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딸아,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낼 것이다. 네 안에 머무는 것이 나의 뜻이며, 나는 네 안에 계속 머물 것이니, 그리하여 너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안에 머물며 너와 함께 고통받을 것이다. 나를 깊이 신뢰하라.” 나: “사랑하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세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나: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신부님이 없으시고, 게브하르트 신부님을 다시는 뵙지 못할 테니까요. 게브하르트 신부님 같은 분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만으로도 충분해요. 주님은 모든 신부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니까요.

그 사실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구세주: “내가 이미 너를 위한 신부를 준비해 두었다. 내가 원할 때, 때가 되면 그가 올 것이다.”

구세주: “내 뜻은 네가 너를 돌봐 줄 영적 지도자를 갖는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가 그래도 영적 지도자를 갖게 될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말 들리니?”

나: “네.”

구세주: “계속 써라. 내 사랑의 불길이 너를 정화할 것이다. 이 불을 타오르게 두어라. 이것이 바로 내 사랑의 불이다.”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순수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구세주께서 저에게 그토록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결한 영이 여러 번 저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17일 - 토요일

오전 7시,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약 30분 정도 더 기도했습니다.

16시 30분부터 17시 45분까지 로트 교회에서 기도했다. 오늘은 메시지를 쓰지 않았다.

1992년 10월 18일 - 일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기도

연합!

구세주: “내 딸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어 고맙다. 네가 하늘의 어머니께 맡긴 것들은 내가 그분께 모두 받아들였다.

그분을 통해서야 비로소 나에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열린다. 그분은 너희에게 나를 가장 빨리 보내 주신 분이시다. 그분을 많이 사랑해라. 그분은 자녀들에게서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써라.”

나: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무엇을 써야 할까요? 이제 저는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모든 것을 믿습니다. 끝없는 평온과 평화, 그리고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써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제 이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언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쓴 대로야.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딸아, 이렇게 써라: 내 딸아, 너희에게 끔찍한 시기가 닥칠 것이다. 원수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데려가려 한다. 거대한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다. 독일은 거대한 재앙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려질 것이다. 거의 모두가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들이 차갑다. 주교들조차도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분명 잘못 적어 놓았나 봅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내용을 기록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구세주: “너희는 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내 양들을 흩어 버렸다. 너희는 이제 그들을 다시 모으지 못하고 있다. 길을 잃은 자녀들은 넓은 길을 걷고 있으며,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사탄이 그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넓은 길은 파멸의 길이다. 내 딸아, 이 고난을 인내로 견뎌라. 아직 정해진 때가 오지는 않았으나, 그 때가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 그리고 나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뜻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딸아, 네가 나와 함께 고통받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것은 네가 나에게서 받은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한 가지 더 적어 두어라. 너는 정신병원에서 더 이상 오래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너는 집에서 순례자들을 돌보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너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들 대부분은 무력한 상태다. 많은 이들이 사제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베드로의 교회로 말이다. 그들을 위해 많은 사랑을 간구하라. 오직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총과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내겠습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는 큰 보호가 깃들어 있다. 그 보호를 믿어라.

나: 구세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0시 미사

13시 00분 묵주기도와 기도회.

1992년 10월 19일 - 월요일

의사실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잘 적어 두어라. 네가 겪는 고통은 오직 나와 하나 될 때만 큰 가치가 있다.”

나: “주님, 하지만 저는 항상 주님과 하나되어 있습니다.”

구세주: “하지만 너는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내 딸아, 너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다.”

나: “하지만 주님, 제가 제 뜻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구세주: “네가 네 뜻을 내게 말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주님께 제 뜻을 드립니다. 결코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제 소망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제 고통을 주님과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쓴 글이 기쁘구나. 기록해 두어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구세주: “내 딸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먼저 나에게 말해야 한다.” 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세주: “적어라, 내 딸아. 그것은 중요하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

나: “주님, 저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네가 다소 고통을 겪게 될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은 내가 이끄시는 것이니, 따라서 완화된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제 서서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 순간이 오면 제가 잘 견딜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이를 위한 인내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 말을 듣고 기뻐다.” 나: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8:00 로사리오와 미사 (붉은색)

1992년 10월 20일 - 화요일, 의

사실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지금까지 쓴 모든 내용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딸아,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다. 네가 듣는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다. 내 딸아, 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말하는 말을 통해, 그들이 그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딸아, 준비하라. 네가 이 땅에서 겪게 될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이 이제 머지않았으니. 나는 주님이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너는 내가 사용하는 나의 도구이다. 내 딸아, 너는 내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니, 나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네 고통은 곧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8:00 로사리오와 성체성사 (붉은색)

1992년 10월 21일 - 수요일, 의

사실에서 열린 기도 모임!

구세주: “네가 적어 두기를 바란다. 나중에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야 할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나: “주님,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만, 제가 더 많이 쓸 수 있는 은총을 제게 내려 주시고, 마리아에게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양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희는 기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빨리 기록하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기록할 은총은 이미 받았으니. 내 딸아, 네게서 무언가가 필요하다.”

나: “또요? 이미 모든 것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구세주: “너는 모든 영혼을 내게 맡겨야 한다.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한다. 너는 모든 영혼을 위해 고통받을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 영혼들도 나에게 바쳐라. 내 딸아, 나는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

나: “하지만 그들은 거짓의 아버지를 선택했잖아요.” 구세주: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느니라.”

나: “주님께서 제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큰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그렇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그러면 그 고난이 두렵습니다.” 구세주: “나와 함께라면 네가 두려워할 일은 없을 것이다.”

나: “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

나: “네, 주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구세주님께서 거의 모든 영혼이 대재앙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구세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내 몫이다. 네 임무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딸아, 나에게 충실하라. 나는 이미 너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두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2시, 예배당

구세주: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지상의 고통은 짧다. 내 딸아, 기록하라. 나와 함께 고통받는 것은 큰 은총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고통받기 위해 너 자신을 바쳐라. 이 고통들은 나의 사랑과 결합될 것이다.”

16시 30분, 나는 이비인후과 병원에 있었는데, 마이어 주치의의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여러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이어 주치의의 강연은 19시 10분경에 끝났습니다. 저는 강당을 나와 미넨스하임에 있는 로쿠스 성당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19시 35분에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길은 젖어 있었고, 저는 그곳으로 가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구세주를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컸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새로 부임한 신부님과 약 30분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필리핀 출신인 이 신부님은 오늘이 부임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구세주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비인후과 병원의 강의실은 밁골스하임/바트 쇤보른에 있는 로쿠스 예배당에서 약 3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1992년 10월 22일 -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의사 휴게실에서 기

도 모임!

구세주: “네가 쓰는 글이 인쇄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네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를 원한다. 모두가 네가 듣는 이 목소리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들과 필요한 만큼만 대화하라. 그들을 모두 사랑하라. 내 딸아,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까지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있다. 항상 나를 신뢰하라.

나와 나의 어머니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쓴 대로 계속 지켜나가라.” 나: “주님, 하나님, 하지만 이 버림받음은 너무나 힘듭니다.”

구세주: “내 딸아,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모든 희생은 열매를 맺는다.”

나: “주님, 지금 제 가슴에 불타는 듯한 열기를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알아야 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 불로 내가 항상 너를 굳건하게 해 주리라. 내 딸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나: “올해 안에 그 상처 자국들이 나타날지 궁금했어요.” 구세주: “기록해 두어라.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다.”

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구세주: “상처 자국들! 그로부터 네가 해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를 위한 은총의 선물이다. 그것으로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예’는 여전히 ‘예’로 남는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구세주: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모든 것을 대신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독일 위에 이런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를 막으실 수 있으십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 재앙들은 닥칠 것이다. 사람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딸아,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23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과 9시 30분, 의사실에서

두 번째 교감 때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다시 나에게 말을 걸어주니 기쁘구나. 그것이 나의 뜻이었다.” 나: “네, 주님.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구세주: “네 삶은 온전히 내 것이다.”

나: “네, 주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요.”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네가 오늘 하루 동안 한 모든 말을 나에게 바치기를 원하노라.”

나: “사실, 저는 하루 종일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구세주: “계속 써라, 내 딸아. 아베 워드케 신부가 캐나다의 마트 조 씨에 대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했던 내용이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다. 독일에 닥칠 재앙도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다. 네가 받게 될 성흔도 올해 안에 나타날 것이다. 많이 기도하라, 내 자녀들아. 너희에게 남은 시간이 매우 적다.” 나: “재앙이 먼저 올까요, 아니면 제 고통이 먼저 올까요?”

구세주: “그것을 알고 싶니, 내 딸아?”

나: “네, 주님.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신다면요.”

구세주: “재앙이 닥치기 전에 네가 먼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나: “네, 주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아무에게도 미리 경고할 수 없나요?”

구세주: “내 딸아, 그들 중 누가 네 말을 믿겠느냐!”

나: “다들 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은 모두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

나: “사랑하는 하나님, 재앙이 온다고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 기도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말이야. 너무 늦은 후에야 믿게 될 거야. 내 딸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자만심도 얹혀 있어. 그들은 회개해야 해. 겸손한 자들은 믿음을 받아들이지만, 교만한 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믿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나: 구세주님께서 다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24일 - 토요일

11시 00분, 집에서

오전 7시 15분, 바그하우젤 교회에서.

미사가 시작되자 우리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프리돌린은 성체함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베르너 에곤 신부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 “미사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저쪽으로 오시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성체를 볼 수 없는 쪽입니다. 아침 미사는 항상 그쪽에서 봉헌되기 때문입니다. 신부님께서 두 번째로 저에게 “성체성사를 함께 드리시겠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하지만 여기 성체함 앞에서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부님은 세 번째로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성체함 앞에서 머리를 숙인 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호숫가로 산책을 나가며 베르너 에곤 신부님과 교회에 남아 계신 신자들을 위해 묵주기도와 다른 기도들을 바쳤습니다.

구세주께서 제게 성체함 곁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부님들은 동의하셨지만, 에곤 베르너 신부님만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11시 기도 연합!

구세주: “내 딸아, 오늘 너희 둘이 한 일은 아주 잘한 일이다. 내 딸아, 나는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니, 모든 것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나 나: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그들은 분명 우리에게 대해 나쁜 말을 할 것입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희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모든 이들은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가 옳았기 때문이다.”

나: “룩셈부르크에 사는 클로드에 대해 기도드렸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사탄은 여전히 강력하니, 클로드를 위해 기도해라.”

나: “헤드비그가 그 남자를 두고 자주 울고 불평하길래, 구세주님께 그에 대해 여쭙봤어요.”

구세주: “내 딸아,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그를 위해 엑소시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나: “헤드비그에게 그 말을 전해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넌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해. 내 딸아, 적어 두어라. 앞으로 한동안 많이 기도해라.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나: “그럼 제 고통도 곧 닥칠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네 고통은 코앞에 와 있다.”

나: “구세주님, 제 아들이 프리돌린을 통해 제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사실인지 다시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의 뜻이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나는 네 영혼의 인도자다.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내 딸아. 지금까지처럼 계속 그렇게 지내라. 나는 너를 사랑하며, 언제나 내 은총을 네게 베풀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구세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16시 30분

프리돌린과 나는 로트(Rot)의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다. 나는 보그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다.

19시

프리돌린과 나는 밁골스하임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성체를 영할 때, 우리 둘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체를 영하는 사람을 보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00

레겐스부르크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1992년 10월 25일 - 일요일

7시 30분 - 10시 30분, 집에서 - 기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록하라. 그 사실을 명심하라.” 나: “네, 주님, 저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구세주: “네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너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네가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내게 기쁘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는 점점 약해지고, 너는 그의 교활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딸아, 이 시기에 원수는 특히 강하다.

그와 함께하는 유혹은 내가 너에게서 피할 수 없게 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한 모든 이들은 그와 싸워왔다. 나와 함께라면 너는 언제나 그를 이길 수 있다.

“내 딸아, 계속 써라. 나는 네 낮과 밤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나: “나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시여, 모든 낮과 밤이 주님께 속하게 하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모든 낮과 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애로우신 아버지시여, 저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구세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며, 너는 나의 사랑 안에 있다.” 나: “이 말을 프리돌린에게 전해 드릴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네가 내가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이미 전해 주었구나.” 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적어라.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선물하리라.”

나: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궁금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내가 너에게 고통 속에서의 인내를 선물하리라.”

나: “정말 기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의 인내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신 큰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내가 네게서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적어라.”

나: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구세주: “네가 사람들에게 내가 네 마음에 심어주는 것을 전하고 있구나.” 나: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세주: “생명의 말씀이다. 네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나: “하지만 주님, 저는 독일어를 너무 서툴게 합니다. 사실 어떤 언어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구세주: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 “주님, 저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하겠으며, 성령님께서 제게 올바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구세주: “네가 말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내 사제들도 이를 들어야 한다. 그들도 듣는 동안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나는 원할 때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내 말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빛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글을 써 준 것이 기쁘다. 너와 오늘 네가 내게 맡긴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노라.”

나: 구세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후 4시경, 커피를 마시러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두 가지 언어로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8시 30분, 밋골스하임에서 묵주기도와 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설교가 좋았습니다!

1992년 10월 26일 - 월요일

8시 30분~9시 30분, 집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 말을 모두 들었노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속죄의 고통은 나에게서 온 것이다. 이 은총의 선물을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나: “하지만 왼쪽 팔에 심한 두통과 어깨 통증이 있어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적어 보아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적어야 한다.”

구세주: “네가 ‘예’라고 대답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내가 네게 다섯 가지 성흔을 새겨줄 수 있다.” 나: “하지만 주님, 저는 이미 그렇게 대답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전에도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 내 딸아.”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지금 당장 ‘예’라고 대답하오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 안에 성흔을 새기소서.”

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제 ‘예’는 이제 주님의 ‘예’입니다. 다시 한 번 되풀이합니다. 저를 주님과 결코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주님께 속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불꽃이시니.”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상처 자국들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풍성히 사랑을 부어 주리라.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라. 네가 잘 고통받을 수 있도록 이를 견뎌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거룩한 다섯 상처 자국을 받아들이기 준비를 하라.”

나: “이걸 적어두면 될까요?” 구세주: “그것을 꼭 적어두어야 한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아직 신부님이 없어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 영적 지도자이니, 나를 더 신뢰해라. 나와 함께라면 네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내 딸아, 네 고통은 나의 고통이기도 할 것이다.”

나: “물어볼게요. 다른 것도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아니오.”

나: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20시 00분 기도 모임:

많은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바그하우젤의 베르톨트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신부님이십니다. 이미 바그하우젤에서 다름슈타트로 전근을 가셨습니다. 아쉽게도, 그분은 성모 마리아를 깊이 모시는 사제 이십니다. 도하트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고해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기도 모임 후, 저는 노이울름에서 온 요제프와 기젤라, 그리고 제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하트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하트 신부님이 르페브르 주교님에 대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르페브르 주교님에 대한 그 평가는 제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1992년 10월 27일 - 화요일

11시 55분 - 13시 15분

기도 연합!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적어 두어라. 손으로 성체를 받는 방식 때문에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바닥에 닿고 사람들이 그 조각들을 밟게 되는데, 그 조각들이 바로 나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어제 도하트 신부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에 의한 주교 서품과, 손으로 성체를 받는 방식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조각들 중 어느 쪽이 더 나쁜 것입니까?

도하트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에 의한 주교 서품이 더 나쁩니다.’

주님, 저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저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사랑하는 내 딸아, 적어 두어라. 그 사제는 회개해야 한다.”

저: “하지만 그분은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잖아요.”

구세주: “그 사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오, 주님,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제 대신 그분께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세주: “내 딸아, 그 일은 내게 맡겨라. 나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주겠다. 내 딸아, 너는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귀머거리들이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 “구세주님께 데리스의 강연회에 가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그곳에는 도חת 신부님도 계실 텐데요.”

구세주: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해라.”

나: “사랑하는 구세주님, 보그트 신부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고해소에서 평소와는 달리 저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구세주: “보그트 신부님은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실 것입니다.”

나: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 오전 내내 12시까지 두통이 있었는데, 지금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그 통증을 줄 수 있다.” 나: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하나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구세주: “너는 피곤하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 구세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저는 성체를 받으러 갔지만, 한 수녀님이 성체를 나누어 주고 계셨기에 성체를 모시지 않고 몸을 숙인 뒤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영적으로 제게 오신 것을 느꼈고, 성사적 성체를 모실 때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세주님께서서는 제가 성별되지 않은 손을 통해 성체를 모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 수요일

11:00 - 12:30

기도 모임!

나: “그래서 구세주님께 어제 교회에서 제가 한 행동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했어야 했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구세주: “네가 한 일은 내 뜻이었다. 옳은 일이었다.”

나: “오늘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예수님 그림 앞에서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은 성화이며 벨기에의 마가렛이 보내준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무척 좋아해서 자주 입맞춤을 하곤 합니다. 그림 앞에서 악마의 머리만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이빨을 달고 있어서, 마치 치과에서 하나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털이 꽤 많았습니다. 왼쪽 뺨에는 피가 나고 있는 큰 굵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굵슬거렸습니다. 그는 잠깐만 보이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를 흉내 내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세주께 이것이 단지 내 상상일 뿐인지 물었다. 구세주: “그저 너를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다.”

나: “악마가 나타나기 전에, 저는 성인들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악마는 제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도 이미 저를 방해했었죠.”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네게 상처 자국을 새겨줄 수 있도록, 네가 허락하고 적절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겠다.”

나: “주님, 원하시는 때를 선택해 주세요.”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8:00, 로텐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29일 - 목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집에서 기도 모임!

필리핀 출신 신부님(슈타일러 선교사) 때문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을 옹호하셨습니다. 그분이 밉골스하임의 쿠르하우스 로쿠스에 투숙 중이시기에,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은 신성모독 행위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을 옹호하는 모든 이들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

그 사제는 어둠 속에 있다. 필리핀 출신의 그 사제는 내 문제이니, 그를 내게 맡겨라. 네가 쓴 내용에 대해 굳건히 버티라.”

구세주: “내 딸아,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사랑하는 예수님,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큰 기근이 닥칠 것이다.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땅에 대한 나의 진노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마귀를 믿고 그를 선택했다. 내 딸아, 내게 속한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 딸아, 쓸데없는 대화는 멀리하라. 그것은 네 성장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기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나: “또 무엇을 써야 할까요?” 구세주: “나에게 충실하라.”

나: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9:00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

1992년 10월 30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

지 기도 모임!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말을 들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네가 사제들과 대화하는 것은 나의 뜻이다. 그들은 네 말을 듣지는 않지만, 깊이 생각하고 있다. 사제가 진흙탕에 깊이 빠져 있을수록, 그는 더 듣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딸아, 사제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들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그들과 대화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나: “오, 주님, 그건 제게 큰 타격입니다. 그들에게서 너무나 큰 교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들이 겸손해지도록 기도해라.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은 길을 잃은 아이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

나: “하지만 주님, 길을 잃은 사제들이 길을 잃은 아이들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텐데요.”

구세주: “그렇다.”

구세주: “내 딸아, 이것을 기록하라. 나를 향한 네 사랑은 진실하다. 너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나와 함께 고통받기를 갈망하고,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나와 함께 고통받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뿐이다. 내 딸아, 나와 함께 고통받기를 원해 주니 고맙다. 자발적인 고통은 나와 함께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상급이 된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아직 정화해야 한다.”

나: “주님, 하나님, 어떻게요?” 구세주: “내 사랑의 불로.” 나: “

오 주님, 제발 저를 더 정화해 주십시오.”

구세주: “네 마음에 다시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나: “오, 주님, 지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

다.”

구세주: “타오르는 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불로 네가 정화될 것이다.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구나, 내 딸아.”

나: “감사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 고통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바치기를 원하노라. 나와 이렇게 하나 되는 모든 고통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저에게는 소원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게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다. 바로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는 것이다.”

나: “주님,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지금 글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 나의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거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나를 거부한 모든 이들은 거짓의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내 딸아, 지금까지처럼 계속 나를 사랑해 주렴.”

나: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흘리신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 그분의 성스러운 다섯 상처, 그분의 공로와 죽음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랑하는 성모님의 일곱 가지 슬픔과,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눈물, 제 기도와 합쳐 주신 모든 기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 교회에서 진흙이 제거되고 참된 베드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며,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글을 읽고 기뻐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 지금과 영원토록 찬미와 사랑과 경배와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0월 31일 - 토요일

오전 7시, 로쿠스 예배당에서 미사.

성체 성사 후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당 안에서 성체함 바로 앞에 앉아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녀님들과 몇 분의 병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들이 성체 영성체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다른 분들이 감히 무릎을 꿇지 못해 저는 종종 혼자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11시 20분,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써라.”

나: “예수님, 사랑하는 하느님, 무엇을 써야 할까요?”

구세주: “네가 나로부터 새겨 받게 될 성흔이 아주 가까워졌다. 때가 왔다. 나를 믿어라. 성흔을 위한 시련이 끝나가고 있다.”

나: “상처 자국에 대해 제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그래, 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너는 그 상처 자국들에 대해 강연을 해야 한다.”

나: “어디에서요,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구세주: “네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 “그런데 주교들이 저를 막는다면요?”

구세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위해 말해 주겠다. 그들이 너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나를 거절한 것이나 다름없다. 너는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여,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저는 주님을, 삼위일체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기록하라. 네가 나에게서 새겨 받게 될 성스러운 다섯 상처 자국은 온 세상을 위한 표징이니, 네가 온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거절하는 모든 영혼을 내게 맡겨라. 모든 영혼은 내 앞에 나서야 하며,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너를 사랑하지 않을 자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하라.

네가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 내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우리 앞에는 큰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

나: “오, 주님, 저는 제 사명이 벌써 끝난 줄 알았는데요.”

구세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니라, 내 딸아. 우리가 높이 들려질 때, 우리는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이들을 우리에게로 이끌 것이다. 내 피는 너희의 구원이자 치유제다. 그것은 너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준다. 오직 내 피만이 너희의 죄를 씻어 줄 수 있으며, 내 거룩한 피가 깊이 송배될 때 비로소 그러할 것이다. 너는 매주 금요일마다 피가 흘러나올 거룩한 피의 원천이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 인내심에 감사한다.”

나: “이걸 써야 하나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써야 해.”

나: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제 뜻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2시 45분 – 로즈비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그녀의 아들 볼프람이 저와 함께 일기를 써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세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더 빨리 써야 한다고 재촉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먼저 구세주님께 여쭙보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12시 55분 - 나는 구세주께 볼프람이 일기를 써도 되는지 여쭙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그가 써야 한다.”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해서 A4 용지 8장을 썼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8시 15분부터 21시 30분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22시 30분, 내일 아침 미사 후에 볼프람이 다시 쓸 수 있도록 메모지에 쓴 일기를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23시 30분에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그 후 사우나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01시 15분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02시 30분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05시 5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린 뒤 구세주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992년 11월 1일 - 일요일

집에서

기도 연합!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것을 기록해라. 큰 위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전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나: “주님, 독일 연방공화국도 위협받고 있습니까?” 구세주: “내 딸아, 온 유럽이 위협받고 있다.”

나: “주님, 우리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직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으시니, 부디 주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디 저희를 살려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너희에게 끔찍한 날들이 닥칠 것이다.” 나: “오, 구세주님, 그렇다면 제가 그 예배당을 지

어야 할까요?”

구세주: “서둘러 지어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혼란을 동반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프리메이슨과 섞이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많이 기도해라, 내 딸아. 내 딸아, 어제 네가 한 일은 잘한 일이었다.”

나: “볼프람과 함께 글을 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너희는 내 뜻을 이루었다. 계속 기록해라. 내가 이 일을 풍성히 보상해 주리라.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내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나: “아직 뭔가 더 적어야 하나요?”

구세주: “쓰거라, 내 딸아. 먼저 네 마음이 꿰뚫릴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다섯 상처 자국을 모두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나중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내 딸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준비해라, 내 딸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자녀들아.” 나: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구세주: “그렇게 기록해라. 내 딸아, 나는 너와 네 곁에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린다.” 나: 구세주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

리셨습니다.

8시, 저는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13시 30분, 기도 시간.

19시 00분부터 20시 00분까지 - 기도 연합!

구세주: “내 딸아, 너와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다. 내 딸아, 너에게 무언가를 주겠다.”

나: “지금인가요, 아니면 제가 고통을 겪게 될 때인가요?” 구세주: “지금이다.”

나: “그걸 기뻐해도 될까요?”

구세주: “기뻐해도 좋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선물로 주기 때문이다.”

나: “정말 멋진 선물이에요.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것을 적어 두어라. 네가 나에게서 받는 이 사랑이 네 마음속의 불이 될 것이다.”

나: “부디 이 불꽃이 타오르게 해 주세요.”

구세주: “내가 타게 하리라. 내 딸아, 너도 내 사랑을 견뎌내야 한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것이

제 마음이 꿰뚫릴 것이라는 징조인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네가 알아차렸구나. 오직 나의 사랑으로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

나: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992년 11월 2일 - 월요일

오전 10시 45분, 의사실에서 기도 모

임!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글을 써야 한다.” 나: “사랑하는 예수님, 무

엇을 써야 합니까?”

구세주: “네가 쓰는 모든 것을 잘 간직해야 한다. 사탄은 내가 네게 주입하는 내용에 분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될 때가 올 것이다. 오늘 네가 한 일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 “주님, 제가 오늘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기도문을 나눠주고, 기적의 메달을 선물하거나, 그들을 모두 고해성사하러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너는 내 포도원에서 훌륭한 일꾼이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게 부탁할 것이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비록 아직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 “시간이 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시간은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 말이 옳다. 내 딸아, 나는 네게서 네 말을 원한다.”

나: “제 말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이미 당신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제 말을 사용하시잖아요. 당신이 이 말들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환자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제 말은 결국 당신의 말이잖아요.”

구세주: “내 딸아, 그 말도 옳다. 보아라, 내 딸아,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제야 제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나는 앞으로도 네 안에서 계속 역사할 것이다. 다만 이 역사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바로 그거

야.”

나: “제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고통을 겪게 되겠네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그렇다.”

나: “사랑하는 구세주여,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는 아주 큰 소원이 있습니다.”

구세주: “그게 무엇입니까?”

나: “주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제가 항상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미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단다. 너는 이제 나 없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목마름으로 죽을 테니까. 네 간구가 내 마음에 든다. 끊임없이 기도해라. 내 딸아, 내가 네게 예배당을 위한 기부자를 보내주마.”

나: “이 말을 적어두면 될까요?” 구세주: “그래, 적어

두렴.”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이걸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이 성당에서 매일 기도가 드리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마리온이 적어두게 하라. 너희 둘 다 적어야 한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와 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면요?”

구세주: “그녀는 계속 쓰고 싶어 할 것이다.”

나: “그게 참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구세주님, 계속 쓰려면 세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구세주: “서둘러 써야 합니다.”

나: “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총으로 쓸 것입니다. 글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구세주: “너와 마리온, 그리고 볼프람에게 축복을 내리노라.”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찬미합니다.”

추신: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를 축복하시리라.” 마음속으로 나는 왜 축복하실 때 ‘너희’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구세주: “내가 그녀를 축복했노라, 내 딸아.”

오후 12시 30분 – 나는 병원 성당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

나: “사랑에 목말라 눈물이 흘렀어요. 이 샘에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커지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마. 치유하는 은총을.” 나: “어떻게요?”

구세주: “너는 치유할 수 있다. 바로 영혼과 육체를 말이다.” 나: “전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구세주: “내가 너 안에서 치유할 것이다.” 나: “언제요,

사랑하는 하느님?”

구세주: “지금부터 시작해도 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분, 저는 당신의 은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내가 치유에 대해 네게 말한 것을 적어 두어라.”

13시 45분, 베로니카와 나는 커피를 마시고 로즈비타가 만든 케이크를 먹었다.

의사 보조원이 와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의사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 케이크를 직접 구웠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천국은 이미 꼭 있어요.”

제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 말이에요.”라고 했더니, 그는 웃었습니다.

저는 찬장 위에 붙어 있던 기도문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일 때도 시간을 내어 몇 분이라도 기도에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1992년 11월 3일 - 화요일, 의사

휴게실 기도 모임!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기록해라. 네가 어제 행한 방식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나: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구세주: “너는 내 뜻을 깨달았구나. 내 딸아, 너는 항상 네 고통을 내게 바쳐야 한다.”

나: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줄 알았어요.”

구세주: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너는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나: “이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세주: “네 사랑.”

나: “주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제 사랑을 주님께 바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 기쁘다.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다 이해하기 때문은 아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기록해 두어라. 네가 겪게 될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 빛이 부족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차라리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돼지는 자기의 오물 속에서 뒹굴기를 좋아하느니라.”

나: “오 주님, 저는 이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구세주: “그래도 써라. 안심하라, 내 딸아. 나 없는 세상에서는 어떤 동물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낫다.”

나: “오,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구세주님.”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 피로를 씻어 주마.”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자 하나님이신 분.”

구세주: “네게 부족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 내 딸아, 세르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황폐함이 있을 것이다. 발칸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내 딸아, 아무도 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

내게 충실하라, 내 딸아.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든다. 계속 나를 사랑하라, 내 딸아.” 나: 구세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18:00, 로젠크란츠와 성체성사(붉은 예복).

22시 30분, 시어머니 방에서 뉴스를 보고, 그 후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울었다.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다. 나는 하느님께, 그분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해 수많은 것을 원망했다. 어쩌면 악마가 나에게 말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나 외롭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울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다 내 침실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십자가를 꺼안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더 이상 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1992년 11월 4일 - 수요일

오전 8시 30분

기도 연합!

어제 늦은 밤에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희생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세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세주: “나를 향한 네 사랑은 참 좋다.” 나: “얼마나 좋나요?”

구세주: “사실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겠다. 기록해 두어라, 내 딸아: 네 마음은 나의 마음이다.”

나: “하지만 그 말씀은 이미 해주셨잖아요.” 구세주: “너는 그 안에서 나의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나: “마치 제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구세주: “나는 네 의사다. 나는 약 없이도 치유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의 불꽃으로 모든 고통을 없애주겠다. 내 딸아, 나는 어제의 시련을 허락했다. 넌 TV 영화를 보면 안 된다. 넌 온전히 내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글을 써라. 네게서 필요한 것이 있다.”

나: “네, 주님이자 하나님이시여.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한 단어 한 단어 적어라. 상처 자국을 새기기 위해 네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제가 ‘예’라고 대답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성스러운 다섯 상처를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나는 올해 안에 네게 성혼을 새겨 주겠다.”

나: “그 말은 1992년 안에라는 뜻이군요.”

구세주: “그래! 바로 그렇다. 상처 자국이 새겨질 때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 “어떻게 주님이신지 알아볼 수 있나요?”

구세주: “나는 사랑이다. 나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를 더 신뢰하라. 세속적인 수다에서 멀리 떨어져라. 그것은 너에게 해로운 뿐이다. 너는 나와 하늘의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네 수호천사들이 끊임없이 너를 지키고 있다. 불신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어요.”

구세주: “알고 있네, 내 딸아.”

나: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 세상의 모든 영혼을 포함시켰습니다.

19:00 로쿠스 예배당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1992년 11월 5일 - 목요일

의사실에서

오전 7시 55분, 베레나와 함께 모은 옷과 신발을 제 차에 싣고 노숙자들에게 전달하러 갔습니다.

오전 8시 30분 - 대학병원(직원과 환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중보기도를 마친 후, 나는 구세주께 물었습니다. “제가 글을 써도 될까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써 주렴.”

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을 써야 할까요?”

구세주: “네가 무엇을 쓰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가 쓰는 것은 내 뜻이다. 계속 써라, 내 딸아. 네 임무는 내가 네게 주입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나: “사제들이 저를 반대하더라도요?”

구세주: “내 딸아, 나는 진리다. 너 안에서 나의 역사가 곧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나: “그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교회 측에서 오는 곤란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건 저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세주: “내가 네게 심어준 말만 하라.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나: “구세주님, 제가 심문을 받게 될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이미 마귀에게서 많은 영혼을 빼앗아 왔다. 마귀는 너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는 너를 괴롭히기 위해 유능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조심해라! 너무 서두르지 마라! 마귀는 네 인내심을 견디지 못한다. 너는 그를 이길 것이다, 내 딸아. 용감하고 강해져라.”

내 딸아, 아직 좀 더 써라. 네가 기다리는 사제가 곧 올 것이다. 그가 올 것임을 확신하라. 너는 사제 없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는 겸손한 사제가 필요하다. 그는 내 뜻을 알아볼 것이다. 내 딸아, 계속 써라. 너는 피곤하니 휴식이 필요하다. 글쓰기는 곧 끝날 것이다. 나는 네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다. 너를 돕는 이들의 성실함도 마찬가지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그에 대한 풍성한 보상을 주겠다. 이 일은 백 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확신해라.”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더 순수해져야 한다. 나는 나의 사랑의 불로 너를 더욱 순수하게 만들겠다. 네가 느낄 이 불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역사다.”

나: “오 주님, 그럼 안심됩니다. 가끔은 제 마음이 타는 것 같았거든요.” 구세주: “이 사랑의 불로 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이 불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나: “오, 주님, 제 안에 이 사랑의 불이 작용하게 하겠습니다. 제 안에 흠이 없도록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수해질 것이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이 순결함을 주실 것을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세주께서는 여느 때처럼 저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18:00,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20시 30분부터 23시 15분까지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의 큰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1992년 11월 6일 - 금요일 - 성심

8시 45분 의사실

오늘 아침, 나는 벌써 한 시간 반 넘게 기도했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써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구세주: “네가 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한다. 네가 쓴 것은 아직 인쇄되어야 한다.”

나: “주님, 저희가 빨리 쓸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악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

나: “구세주님께, 볼프람이 쓴 내용이 맞는지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다. 내 딸아, 준비하라. 성흔이 시작되고 있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네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내 자녀들 중 거의 모두가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모든 자녀는 내 것이다.”

나: “오늘 주님은 평소와 다릅니다. 마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구세주: “내 심판대 앞에는 좋은 것이 아무 것도 올라오지 않는다.

그들은 마른 나무와 같아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내 딸아, 내 진노가 누그러지도록 기도하라.”

나: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부디 당신의 진노가 땅에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바의 자녀들이 모두 마리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땅 위의 모든 자녀들의 여왕이시니.

성모님,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인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모두를 성모님의 보호의 망토로 감싸 주십시오.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끊임없이 기도하라. 죄가 너무나 크다. 내 딸아, 지금까지 내가 네게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 나의 진리를 수호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나: 구세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8:00 분, 목주기도와 미사. 성심 축일은 거행되지 않았고, 영혼을 위한 미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체는 모셔지지 않았습니다.

1992년 11월 7일 - 토요일

12시 10분부터 13시 10분까지 기

도 모임!

구세주: “내 딸아, 써라.”

나: “무엇을 쓰기를 원하시나요?”

구세주: “적어라, 중요한 일이다. 내 딸아, 네 임무는 고통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나에게 충실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미 저에게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더 좋겠구나.” 나: “주님이자 하느님,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때 네가 온전히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나: “오, 나의 사랑이시여, 그러면 저는 주님의 풍요로움 안에 있게 되겠군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며, 제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고, 네 ‘예’가 계속 ‘예’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제가 당신께 드린 ‘예’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은총을 제게 내려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네게 부탁할 것이 있다.”

나: “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예수님.”

구세주: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네 마음과 손과 발을 원한다.”

나: “그건 이미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하실 때 언제든지 시작하셔도 됩니다.”

구세주: “네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구나.” 나: 구세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

다.

13시 35분부터 17시 05분까지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썼다.

17시 20분에 고해성사를 받으러 교회에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다. 고해소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

그때 보그트 신부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내 죄를 고백한 뒤, 교회에서 무엇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했는지 신부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신부님께 미사가 끝난 후 조명을 5분 더 켜 두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성당 관리인이 집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관리인의 열쇠를 회수하셔서 직접 문을 잠그실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난 직후에 제단 봉사자들과 함께 종 치는 연습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교회에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우리가 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을 모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심 금요일을 기념하지 않았고, 성체를 모시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위한 미사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에게, 토요일을 일요일로 미루는 것처럼 성심 금요일도 미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목주기도 시간 동안 교회 성가대가 연습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해성사 중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마친 후, 저는 그를 위해

고통의 묵주를 바쳤습니다.

19시 00분부터 20시 00분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20시 45분에 프리돌린이 왔습니다.

그와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또한 슈퍼이어에서 손으로 성체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게 말해 주었다.

11시 00분부터 11시 45분까지 다시 일기를 썼다.

1992년 11월 8일 - 일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기도한 방식이 참 좋다. 나를 향한 네 사랑은 진실하다. 네 이웃들을 위해 참된 사랑을 간구해라.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보그트 신부님은 나의 사제이다. 그분은 네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해라.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사제는 내 앞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내 딸아, 보그트 신부님은 어제 고해소에서 네가 그에게 말한 내용을 받아들였다.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나: “슈파이어의 한 주교가 젊은 사제 지망생에게 강제로 성체를 직접 받아 먹게 한 일에 대해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그 주교는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거짓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다.” 나: “주교가 그런 일을 할 때, 그 신학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세주: “내 딸아, 그들은 이러한 사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또 무언가를 적어두면 좋겠습니까?”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향한 사랑에는 인내가 있음을 적어라. 나를 향한 이 사랑의 인내는 내가 베푼 은총이다. 내 사랑 안에서 이 인내를 간직하라. 이것이 큰 미덕이니라, 내 딸아.”

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진주처럼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한 가지 더 적어라. 큰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 전쟁은 동쪽에서 올 것이다, 내 딸아.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심연으로 달려가고 있다. 사탄이 그들을 그물에 가두었다. 그들은 눈이 멀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 길은 그들에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닥칠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를 통해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오, 주님, 이 말을 적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구세주: “내 자녀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심연으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나에게서는 훨씬 더 힘들다. 그래, 내 딸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나: 구세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전 8시, 로트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13시, 묵주기도와 기도회. 보그트 신부님께서 성심 미사를 봉헌하시고 성체를 모셔두신 것에 놀랐습니다.

교회 소식지에는 축복이 있는 기도회가 실려 있었다.

14시 15분, 에리히가 나를 찾아왔다.

남편이 한 시간 동안 한 여성이 네 번이나 전화를 걸어와 도하트 신부님께 여자 친구가 있고, 지금 신부님의 차가 그 여자 집 앞에서 있다고 말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사탄이 기도 모임의 신부님까지 나에게서 뺏아가려는가 싶었다. 그 여자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1992년 11월 9일 - 월요일

오전 5시 15분부터 6시 15분까지 집에서 기도 모임!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네게 새겨질 성흔은 교회에서 받게 될 것이다. 네 마음은 먼저 찢리게 될 것이다.”

나: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제가 성흔을 한 번에 모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내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네 마음의 상처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 피를 세상의 모든 영혼을 위해 바쳐라.”

나: “그럼 불쌍한 영혼들은요?”

구세주: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나: “구세주님께 제가 ‘연옥’이라고 쓴 것이 맞는지 여쭙보았습니다.”

구세주: “그곳은 정확의 장소다.

너는 상처 자국이 새겨질 때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은 네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내 고통이 네 안에 있는 것이다.”

나: “보그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본 후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성심 미사를 집전하지 않으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고통은

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구세주: “내 딸아, 사제들이 나를 모욕할 때마다 너는 항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요즘 식사 후에 항상 속이 메스꺼워요. 교회에서도 속이 안 좋아졌어요.”

구세주: “내가 너를 차지하고 있다면, 너는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다.” 나: “주님, 그 말씀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요.”

구세주: “나는 네 생명이다. 나는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 나: “하지만 악마도 고통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구세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네 소유를 빼앗을 수 없다. 네 메스꺼움은 네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이다.”

나: “그게 무엇입니까?”

구세주: “너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 죄는 큰 짐이며, 그것이 바로 악이다.” 나: “하지만 교회에서도 자주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구세주: “교회 안의 악은 밖보다 더 심하다. 교회에서 그 악이 제거되도록 기도하라.”

나: “성찬식 때 성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것도 맞다, 내 딸아.”

나: “아니면, 불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세주: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나: “아니면 성별되지 않은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는 것 말인가요? 그런 무관심도 악인가요?” 구세주: “그래, 내 딸아, 바로 그렇다.”

나: “그렇다면 이 악은 교회에서 빨리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모든 사제들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잘 알겠습니다.”

구세주: “네가 글을 쓰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으니 기쁘구나. 아무도 너를 방해하지 않았구나.”

나: 구세주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후 12시 15분, 이비인후과 병원 예배당

‘주님의 천사’ 기도 후, 저는 구세주께 기도드렸습니다. 도하트 목사님께, 한 여성이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목사님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구세주: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그 여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나는 악마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악마가 몰래 스며들 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악마가 시어머니를 통해 다가왔습니다.

18시, 로트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수녀님이 순종하지 않고 다시 제게 손으로 성체를 받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절을 올리고, 성체를 받지 않은 채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구세주께서 영적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저는 엄청난 은총을 받았습니다.

20:00 기도 모임

오늘 라틴어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으며, 성체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두세 명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 10일 - 화요일

오전 8시

기도 모임!

기도 모임에서 처음으로 라틴어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23시 00분이 지나서 도하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신부님의 눈에서 끔찍한 경직함을 보았습니다.

구세주: “내가 허락한 일이다. 그것은 사탄이었다. 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내 사제들이 위협받고 있다.” 나: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저는 그저 그분의 눈에서만 그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어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차라리 교회에 다시는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실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악마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 “네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기쁘구나. 내 딸아, 계속 나아가야 한다. 네게는 그것을 극복할 은총이 주어졌으니. 나와 함께라면 너는 그를 물리칠 것이다.”

나: “어제 우리가 라틴어로 묵주 기도를 드린 것이 옳았는지 여쭙보고 싶었어요.” 구세주: “기록해 두어라, 내 딸아. 라틴어로 많이 기도해야 한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 라틴어를 선택했다. 교회는 앞으로도 라틴어로 기도해야 한다. 나는 라틴어로 기도하는 내 자녀들에게 특별한 상을 주겠다. 내 딸아, 어제처럼 계속해라.”

나: “하지만 주님,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평했는데요.” 구세주: “내 딸아, 내가 그 것을 원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주교님들이 라틴어 기도를 많이 없었습니다.” 구세주: “교회에서는 다시 라틴어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나: “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구세주: “내가 신자들을 네게로 이끌어 줄 것이니, 그들은 라틴어로 기도할 것이다. 불평하는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네게 맞춰야지, 네가 그들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 나를 향한 좁은 길은 모든 자녀들을 위한 공동 기도를 요구한다. 모든 기도를 라틴어로 드릴 필요는 없다. 예전부터 드러져 온 기도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구세주: “내 딸아, 네게 부탁할 것이 있다.”

나: “주님,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더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라고 말하겠습니다.” 구세주: “가련한 영혼들이 네게 나타날 수 있도록, 네 허락이 필요하다.”

나: “저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정화소에서 더 빨리 해방될 수 있다면, 저는 즉시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자 하느님이시여,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마도 불쌍한 영혼인 척 할 수 있으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내게서 오는 모든 가련한 영혼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내려주리라. 너는 이미 가련한 영혼들을 많이 도왔다.”

나: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많은 성찬 미사를 봉헌했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성별된 양초를 켜 두고 있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가련한 영혼들에게 성수를 주고 많은 면죄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구세주: “그것으로 네가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구나.”

나: “사랑하는 하느님, 가련한 영혼들이 제 앞에 나타날 때 제게서 두려움을 없애 주십시오.” 구세주: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가련한 영혼들이 네 간구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기에, 저는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구세주: “내 딸아, 네가 쓴 글을 보고 내가 특히 기뻐다. 나 구세주가 스스로에게 축복을 내렸다.”

18:00, 로테에서 묵주기도와 미사.

오늘 저는 21시 30분쯤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려는 바로 그 순간, 악마가 2미터나 되는 커다란 십자가와 탁자를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탁자 위에는 로달벤의 귀중한 피에서 나온 천상의 표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모님의 ‘영원한 도움’ 성화와 파우스티나 수녀의 ‘자비로운 예수’ 성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악마는 그 모든 것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보배로운 피의 성화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후 나는 방 전체에 축성된 소금을 뿌렸다. 나는 밤새도록 잤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그 누구도 저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1992년 11월 11일 -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

지 기도 연합!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적어라. 내가 네가 적기를 원한다.” 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

수님,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네게서 무언가를 원한다!”

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제가 아직 드리지 못한 것이 또 있나요?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이 주님께 제대로 닿지 않는다면, 제발 제가 주님께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에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미 주님께 ‘예’라고 대답했으니,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구세주: “내 딸아, 나는 네게 허락을 구하노라. 너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자 하노라.” 나: “주님, 제발 저를 새롭게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 그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구세주: “네 안에 있던 옛 것은 죽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옛 죄를 지고 있지 않다.”

나: “주님,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건가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 “오, 주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구세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 딸아. 아무도 네 죄를 탓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나: “주님, 하지만 저는 세례를 받기 전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노라.” 나: “사랑하는 하나님, ‘새롭다’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구세주: “내 딸아, 너는 옛 사람을 벗어 던졌다. 너 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있다.”

나: “주님, 제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인 저는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을 기록해 두어라. 내 마음에 아주 옳다. 나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내 딸아, 너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만으로도 나에게서는 충분하다. 내 딸아, 네가 쓴 그 내용은 이미 중요한 것이었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나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시여.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게 전부였구나.” 나: 구세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17시 55분부터 19시 05분까지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19시 30분, 로쿠스 클리닉에서 로즈비타와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20시 30분부터 22시까지 다시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 목요일

오전 8시

기도 모임!

구세주: “내 사랑하는 딸아, 기록해 두어라.” 나: “네, 주님이자 하나님하신 분.”

구세주: “네가 받게 될 상처 자국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분임을 확신하게 할 것이다. 많은 사제들이 회심할 것이다.

나에게 속할 수많은 사제들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사도들에게 사제가 될 권한을 주었지, 여성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여성은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선택받지 않았다. 내 딸아, 여성이 사제

의 임무를 맡게 하는 것은 사탄의 뜻이다. 이 여성들은 내 앞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 여성들을 조심하라.

내 딸아, 길을 잃은 사제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구세주: “징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니, 그리하여 내 자녀들이 내가 여전히 존재함을 깨닫게 하리라. 내게 불충실한 자들은 모두 나의 배신자들이다.

내 딸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불충실한 것은 큰 악이다. 그 악은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

나: “사랑하는 하느님,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 대한 불충이 너무나 많아서 글을 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많은 말씀을 더 해 주셨지만, 세상의 죄들이 저를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당장 토할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저는 일터를 떠났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슈타우퍼 박사는 이 통증이 척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장 근처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찌르는 듯한 통증도 있었습니다. 이 통증은 등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메스꺼움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통증이 너무 심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통증이 누그러졌습니다.

18시, 나는 통증을 안고 교회로 향했다. 나의 진정한 의사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미사 후 성화가 평소보다 더 오래 켜져 있어서 기뻐다. 보그트 신부님께서 고해소에서 내가 드린 고백을 받아주셨다.

이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시 45분부터 22시 45분까지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23시부터 23시 45분까지 일기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 금요일

10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집에서 기도 모임!

먼저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모님께 말씀드리며 울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저는 구세주님께 제 자신을 맡깁니다. 저는 마리아와 구세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구세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세주: “내 딸아, 그것을 적어라. 오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바치기를 원한다.”

저: “주님이자 하느님이신 분,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안의 모든 것이십니다. 저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선한 것이었는지, 악한 것이었는지요? 저는 천국에서 제 상을 기다립니다. 그 상에 대해 저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매일 천국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매일 기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성모 마리아님, 성 요셉, 모든 천사, 수호천사, 성인과 함께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 소유는 바로 나다.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이다. 나는 네 미래이며, 네 영원이다. 내 딸아, 오늘 네가 쓴 글이 내 마음에 든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편지도 이제 끝이 나고 있다. 더 쓸 수 있는 내용이 많겠지만, 네가 쓴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기뻐다. 너는 부지런했다. 많은 희생을 치렀다.

내 딸아, 잠시 쉬어라.”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나의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님, 내일부터는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구세주: “나와 대화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글로 적을 필요는 없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충실하게 남아라.”

나: “사랑하는 하느님, 지금 가슴이 쑸고 아파요.”

구세주: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역사다. 내가 네 안에서 나의 역사를 시작했노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안에 있으며, 영원히 네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잘 명심해라. 네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너는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자 딸, 신부, 자매, 종이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나의 주님이자 하느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너는 나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 “주님, 저는 모든 영혼,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게 하소서.”

구세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평안히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 찬미와 사랑과 숭배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께 지금과 영원토록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나는 메모를 바탕으로 일기를 썼다.

17시 00분부터 18시 15분까지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썼다.

18시 30분, 로트에서 미사를 드렸다.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볼프람과 함께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21시 30분, 레겐스부르크의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오늘 자신의 큰 일을 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글쓰기도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이미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게바르트 헤이더 신부님은 제가 구세주님으로부터 이미 그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구세주님께서 신부님을 통해 일하셨다는 확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이 제가 글을 쓰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브하르트 신부님은 전화로 저와 제 남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라틴어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기뻐합니다. 저는 신부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게브하르트 헤이더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저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이 은총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기를 쓰면서 저는 성경이나 다른 종교 서적을 한 번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제 독일어 어휘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쓰고 싶었기 때문에 외국어 단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기는 오늘, 1992년 11월 14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서명: 줄리아나 에베르트

이 일기는 마리온 함브슈와 볼프람 벨레만이 타자기로 작성했습니다.

일기에 대한 두 가지 추가:

1993년 11월 5일 - 성심 금요일

줄리아나는 전날 저녁(11월 4일)에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남성은 바그하우젤(순례 성당)의 한 신부님에게 성모님께서 입으로 성체를 영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신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을 통해 말하는 악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부는 브루흐잘에서 온 그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성체를 영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줄리아나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악마가 그 남자의 입을 통해 말했다면, 신부는 어떻게 그가 말한 대로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율리아나는 11월 5일 오전 10시경 성모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성모님께, 만약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자 자신의 뜻이라면, 구강 성체 영성체에 관한 문제에서 성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내가 네게 말하리라, 내 딸아! 나는 아버지께서 그러신 것처럼 모든 교회에서 구강 성체를 요구한다.”

율리아나: “사랑하는 성모님, 저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르핑겐에 대해 토마스가 편지를 써야 할지 묻고, 구세주께 여쭙어 봅니다.

구세주: “네가 편지를 써도 좋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널리 알려져야 한다.”

줄리아나는 이제 구세주께 물었습니다. “메지고리에에 있었던 사제들이 (전쟁에 대해, 11월 4일 참조) 공범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세주: “처음에는 메주고리에 겸손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더 이상 없었느니라. 그들은 내 몸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 딸아, 이렇게 기록하라: 나는 사제들에게 내 몸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설교할 것을 요구한다. 경외심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

사랑이 부족한 곳에서는 오직 증오만을 거두게 될 것이다.

기록하라, 내 딸아: 나는 사제들에게 회개를 허락한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구강 성체를 분배해야 한다. 내 딸아, 나는 내 자신을 영혼들에게 바친다.”

율리아나는 구세주께 입으로 성체를 영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구세주: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왜냐하면 나는 ‘나는 나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나의 사제들에게만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

지금부터 손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는 관행을 중단하기 시작하는 모든 사제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나의 사랑과 은총이 그들에게 풍성히 내릴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모든 자만심을 바쳐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기록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1994년 11월 5일 - 월요일

21시 45분

성모님: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주님의 성상(聖傷)을 위한 이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이 어렵더라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 묵주를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묵주를 통해 많

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의 간절한 기도에 감사한다.

은총으로 가득 찬 최고의 기도 - 주님의 기도 - 모든 사람을 위해 -

모든 마음이 기쁨을 얻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 (우리는 모든 이를 대신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독일어)

2025년 6월 19일

†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구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모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이자 여왕이시며, 성 요셉, 모든 성인들, 천국에 계신 성스러운 천사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수호 천사들. 연옥에 계신 가련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하나이시며, 분리될 수 없으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께서는 하늘 – 낙원과 땅에서 다스리시나이다.

하늘 – 낙원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느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저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겸손히 청하오니, 당신의 빛과 힘과 사랑으로 저희 마음속에 살아 계시고 머무르소서.

저희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평화가 저희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우리는 겸손히 간구하오니;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화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어, 로마 가톨릭 사제를 통해 살아있는 성체로 변화되게 하소서. 성체 변화 후, 그 성체는 모든 사람을 위한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왕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며 영생을 기대합니다.

강하신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는 간절히 청하오니,

악마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내쫓아 주시어, 사람들과 우리가 그들을 듣거나 섬기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괴롭히거나, 살해하거나, 유혹에 빠뜨리거나,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과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디 우리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치명적인 죄 속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하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뜻으로 우리는 낙원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는 주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며, 사랑하고, 경배하며, 모든 것에 대해 신뢰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과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아멘.**

오늘의 성인 – 성녀 줄리انا 폰 팔코니에리

독일 포르바흐, 에르베르스브론 줄

리아나 에베르트, 베르나르트 코펜하겐

추신 (PS) – 하나님의 뜻을 읽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사항: (독일어) 로마 가톨릭 사제는 로마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첫 교황이신 성 베드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께서는 전쟁이 더욱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우리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의미 – Transformāta – 변형. Consecrata – “봉헌” 또는 “성화”. 보상하다 – praemium dare

고전 라틴어에는 **J**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Julijana라는 이름은 “I”로 쓰이며, 이 “I”은 **J**를 의미하므로 Julijana입니다!

Giuliana – 이탈리아어 Julijana는 영어 **Juliana**(Dsch)처럼 발음됩니다.

벨기에 리에주의 성녀 줄리아나. 성체 축일의 예언자로, 성체 성사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녔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4세는 1264년에 전 교회를 위해 지극히 거룩한 성체 축일을 제정했습니다. 리에주의 줄리아나는 이탈리아의 줄리아나 팔코니에리와 함께 6월 19일에 공경받으며, 그녀는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니코메디아의 줄리아나는 가톨릭 교회에서 2월 16일에 공경됩니다.

성체 축일(2025년 6월 19일)에 변경된 주님의 기도:

고난 - Tribulationes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ne inducas in tentationem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내몰지 마소서 – et ne nos in infernum praecipites

모든 사람을 위한 왕이자 구세주이시여 - Rex et Salvator pro omnibus hominibus 낙원 – 천국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거룩한 수호천사들

caelum et Sancti Angeli custodes, qui semper apud nos sunt.

(2025년 6월 19일) **퀵론 – 미사 중:**

성체 분배 시 노란 우산과 빨간 우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 구세주께서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치유자이십니다.

손으로 성체를 영하거나 영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은 하느님의 눈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체는 평범한 빵이 아닙니다. 성변화 후 성체 안에는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과 성령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계시며, 육신과 피, 몸과 영혼,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채, 실재적이고 진실하며 본질적이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현존하십니다.

(요한복음 14, 8-11: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니라...”라고 하셨다.)

올바른 길은 사제만이 입으로 성체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19일 – 14시 10분) 주님의 기도(주기도문)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가 완성되었으며, 온 낙원—천국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학교에서 30년 넘게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더 잘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미사 전과 미사 후에 기도해야 하며,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줄리아나와 베르나르도도 기도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Sancta Diei – Sancta Iuliana Falconieri 2025년 6월

19일

www.gnadenvolle-gebete.de

und-erlebte-wunder.de

www.vater-unser.net

성체 대축일 www.gnadenvolle-gebete-

D-포르바흐, 에르베르스브론

줄리아나 에베르트, 베른하르트 코펜하겐

틴아)

(모든 이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 성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모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이자 여왕이시며, 성 요셉, 모든 성인들, 천국에 계신 성스러운 천사들, 그리고 하늘과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들, 그분들은 또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연옥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삼위이신 하느님, †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하나이시며, 분리될 수 없고, 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 – 천국 –과 땅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늘 – 천국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하소서.

자비로우시고 살아계신 하느님, 간청하오니, 우리가 우리 빛진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빛을 용서해 주소서. 겸손히 청하오니, 당신의 빛과 힘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시고 머무르소서.

우리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실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화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디, 로마 가톨릭 사제를 통해 거룩한 성체로 살아있는 변모를 이루는 당신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변화 후, 그 성체는 우리 주 하느님이시니

살아 계시고 현존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왕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며 영생을 기다립니다.

강하신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는 간절히 청하오니: 악마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내쫓아 주시어, 사람들이나 저희나 그들을 듣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환난을 주거나,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흔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와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내던지지 마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간청하오니, 저희와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치명적인 죄 속에 머물게 하지 마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주님의 은총과 뜻으로 우리가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공경하고, 찬양하며,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과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아멘.**

www.gnadenvolle-gebete.de

www.gnadenvolle-gebete-und-erlebte-wunder.de

unser.net

D-포르바흐, 에르베르스브론 www.vater-

줄리아나 에베르트, 베른하르트 코펜하겐

추신 (PS) – 신의 뜻대로 읽고 실천하기 위함:

(라틴어)

로마 가톨릭 사제는 로마인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첫 번째 교황인 성 베드로에게 보고한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기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세주께서는 전쟁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우리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체 대축일(2025년 6월 19일)에 수정된 주님의 기도

재앙 - 환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ne inducas in tentationem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내몰지 마소서 – et ne nos in infernum praecipites

모든 사람을 위한 왕이자 구세주 - Rex et Salvator pro omnibus hominibus 낙원, 천국, 그리고 우리 곁 - Paradiso - caelum et apud nos

(2025년 6월 19일) 쾰른 – 성찬 미사 중:

노란색과 붉은색 우산은 이단이다.

성체 축일 미사에서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체이자 성혈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실재적으로, 살아 계시고, 현존하시며, 전능하신, 삼위일체이신 유일한 하느님이십니다 – 성부, 성자, 성령.”
손에 성체를 받아 드리는 성체성사 – 부디, 이를 고백하십시오!

(2025년 6월 19일 – 14시 10분) 주님의 기도(주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가 끝났고, 온 천국 – 하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세주의 학교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잘 기도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미사 전과 미사 후에 기도해야 하며, 하루에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은 이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다!”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저와 줄리야나, 베르나르드를 기도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께 상을 주시기를 빕니다.

성삼위일체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빕니다.

†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www.gnadenvolle-gebete.de
www.gnadenvolle-gebete-und-erlebte-wunder.de www.vater-unser.net

독일 포르바흐, 에르베르스브론 줄
리아나 에베르트, 베르나르트 코펜
하겐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며 그분의 탄신일을 기념

합니다

2025년 9월 9일

성 삼위일체 하느님, †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며 찬미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원죄 없는 잉태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낙원의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부디, 교회의 거룩한 어머니이시여, 두 팔을 벌려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로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저희를 당신의 아들, 곧 우리의 왕이자 구세주께로 인도하시고 화해시켜 주시어, 저희가 성령의 빛 안에서 살게 하소서.

성모님, 우리를 위해 겸손과 온유, 충실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인내를 간구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성모님, 당신은 죄인들의 피난처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자 모든 은총의 위대한 중재자이십니다.

성모님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성모님의 빛과 보호, 그리고 성모님 곁에서의 안식 속에서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항상 우리 곁에 계시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며, 죄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희는 지금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마스팔로마스 - 그란 카나리아 - 2025년 9월 9일

줄리야나, 사무엘, 베르나르드